

제5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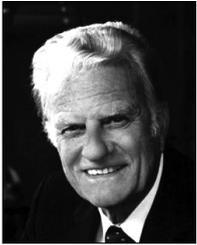
한인세계선교대회

**KWWMC2004**

**2004.7.26(월)-30(금)**

**빌리그래함센터/윗튼대학/시카고**





**빌리 그라함** / 명예대회장

기독교 100주년 기념성회 등 2백만 이상의 성도가 모인 열렬한 전도대회에 수차례 참석하면서, 나는 한국교회의 기도생활, 전도열정, 교회성장, 선교사 파송 등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한인 기독교 미국인 100주년이라는 시점에서 선교의 횃불을 들어올리는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한국교회를 총동원하시는 선교적 명령이며 주님의 위대한 축복이 계실 줄 믿습니다



**토마스 왕** / 명예대회장

한인세계선교대회마다 주장사로 초청받은 나는 한국교회의 복음적 신앙과 선교적 열정에 진실로 감동하였으며,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 성취에 있어 한국교회가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21세기, 역사의 종말을 예고하는 도전적 시대상황 속에서 실로 긴박하게 천국복음을 들어야 할 이 시점에서 금번 선교대회는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십자군으로 재무장하는 기회입니다.



**로렌 커닝햄** / 명예대회장

제가 섬기는 YWAM에 한국선교사들이 많이 동참하여 헌신함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는 뜻이 계신줄 믿습니다. 지난 대회때 와서 북미주 한인교회들의 선교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이번엔 특별히 한인 차세대 선교의 기폭제가 될 영어권대회를 함께 가진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이 넘칩니다. 남녀노소 모두 선교의 환상을 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임동선** / 명예대회장

인류는 급변하는 물질문명과 지식혁명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 예배, 그리고 윤리의 개념에도 많은 도전이 올 것입니다. 진정한 인류의 갈망은 문명의 발전보다 생명력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축복하셔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번 대회는 창의적, 조직적, 진취적이며 성숙한 대회, 지구촌복음화를 위한 재충전의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차현호** / 명예대회장

선교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선교동역자님들, 선교사님들과 평신도사역자, 21세기를 책임질 자랑스러운 젊은 선교후보생 모두를 정중히 초청합니다. 천태만상으로 얼룩져가는 마지막 때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한 새로운 결단과 방법을 모색하여 시대적 사명을 이루도록 결속하는 세계선교올림픽에 최고대회장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꼭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승계** / 공동대회장

100주년을 넘긴 한국교회는 세계선교 열기로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주님 재림하실 징조들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땅끝까지...증인"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 선교동지들은 먼저 "오직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와 권능을 받는 일"에 겸허히 무릎꿇읍시다. 미전도종족과 복음의 불모지 대륙들과 중동 이슬람권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동지들이여! 세계선교에 더욱 매진 하십시오.



**김만우** / 공동대회장

오늘날 선교라는 말이 때로 남용되는데 있어 유익한 점이 있으나 개인전도를 등한히 하게 합니다. 선교의 궁극적 목표가 영혼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면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할 것 없이 개인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선교에 도전을 받는 이들이 선교사가 되고 선교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키 위한 개인전도도 중요합니다. 금번 대회를 통해서 개인 전도열이 불붙기를 기원합니다.



**장영훈** / 공동대회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요청되는 이 시대에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자"라는 주제로 선교대회가 열림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의해서입니다. 선교전선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이나 후방의 선교동역자들, 그리고 젊은 후보생 모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금번 대회가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가 재현되는 현장이 되게 합시다.



**박희민** / 공동대회장

이제는 한국교회가 12,0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리더쉽을 발휘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오순절 초대교회에와, 1907년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북미주에도 선교의 불길이 온 세계를 불태우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확대되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김택규** / 공동대회장

한인이민교회 2대 과제는 교육(특히 2세 교육)과 선교 일줄 믿습니다. 특히 선교는 다민족, 다문화권의 이민교회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자 교회의 존재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선교의 효시가 되는 안디옥교회가 바로 그같은 상황에서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인이민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에 주역의 역할을 재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원상 / 공동대회장

21세기는 선교를 종결하는 긴급한 시대적 요청이 있는 때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 목적을 완 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선교전략을 위하여 이번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특별한 의 미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대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성기 / 공동대회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준비를 마치시고 오직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순절날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금번 선교대회에 임하여 모인 모든 하나님의 종 들이 권능을 받아 주님의 지상명령인 지구촌 복음화를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삼정 / 공동대회장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 복음전파는 시작되었고 성령의 권능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끝 마치게 될 것이다. 이번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우리 세대에 복음전파를 끝마칠 수 있는 강력한 성령 의 권능을 받는 성령대회가 될 것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정인찬 / 공동대회장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종말론적 징조가 강도높게 나타나 이교도들의 포교활동으로 인하여 영계가 혼탁하 고 지구촌이 이교도화 되며 세계민족들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도덕심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번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하여 마가 다락방의 성령강림이 재현되며 각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며 새 시대를 향한 선교의 새 장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이상남 / 공동대회장

땅끝선교의 마지막장을 마무리하기 위한 선교대회를 허락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박해시대와 대환난 시대를 눈앞에 두고있는 긴박한 역사적 종말기에 금번 대 회를 통해서 순교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깨워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신부될 성도들을 깨 워 영적으로 단장시키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세계선교의 한마당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 로 축원합니다.



**류현명** / 공동대회장, 평신도세계선교운동 본부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으라"는 지상명령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따라서 목회자들 뿐 아니라 교회의 99%를 차지하는 모든 평신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나"와 "너"에게 하신 말씀이기에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모두 참석하여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진** / 공동대회장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던 성령의 충만하심과 21세기 성령폭발을 경험하게 될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선교사와 평신도와의 좋은 만남의 광장, 선교의 꿈과 비전의 산실, 세계선교의 도전과 헌신의 열매를 맺어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명령하셨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김봉희** / 여성세계선교운동본부 공동본부장

교회는 선교할 때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한민족이 전 세계에 이렇게 산재한 것은 세계선교의 주역을 맡기려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인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눈으로 영원한 세계를 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열정으로 개교회주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금번 너무나 좋은 선교대회에 우리 여성들이 총동원하여 적극 동참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역사앞에 여성의 힘을 보여드립니다.



**이익화** / 여성세계선교운동본부 공동본부장

교회 구성원의 절반이 넘는 여성도들의 선교사명 수행을 위한 결집과 헌신의 필요성과 절박성은 재삼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소리없이 뒷바라지하며, 십자가 고난의 현장을 말없이 지켰으며, 부활하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첫번 찾은 이들도 여제자들이었습니다. 금번 역사적 대회를 통해 추수의 열매가 우리 주님께 풍성히 드리지도록 우리 여성도들의 총역량을 결집하십시오.



**박지민** / 영어권대회 준비위원장

이번 대회는 특별히 1세와 2세가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장입니다. 이민 1세들이 열심으로 일구어온 선교의 추수밭에 그 뒤를 이어 그 사역을 이어갈 발걸음입니다. 이민 2세는 사실 1세대에게 있어 자녀이면서도 타문화권에 살고있는 선교의 1차 대상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각 지역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2세 목회자들이 선교라는 지상명령의 깃발아래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성희 / 사무총장

왕의 재림을 대망하는 종말론적 시대감각과 지상명령의 긴박성을 절감하는 범세계적 복음주의 선교운동들이 2000년대를 "천국추수의 년대(The Era of the Harvest for Kingdom of God)"로 상징하는 현시점에서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4)는 우리 시대 한민족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선교적 대각성과 총동원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성명(The Vision Statement of God)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1,000명 한인선교사를 비롯하여 목회자, 신학자, 남녀평신도, 청년, 신학생, 대학생, 청소년 등 5,000명의 선교동반자들이 한 광장에 집결하는 이 역사적 선교대회는 비전의 융합, 기도의 연합, 사랑의 교제, 사명의 재무장, 정보와 전략의 상호교류, 그리고 영적, 인적, 재정적, 시간적 선교역량의 촉진(Catalyzing), 동원(Mobilizing), 번식(Multiplying)을 도모하여, 한 목표인 세계복음화 미완성과제(Unfinished Task of World Evangelization) 성취를 위한 새 지평을 창출하는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실된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는 오순절적 성령폭발의 현상이 될 것이며, 고통하는 인류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치 불이 바람에 시달리듯,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시달리는 위대한 고통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신학적 견해, 신앙적 노선, 교회적 입장, 교파적 배경을 초월하여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한 한민족 디아스포라들 3,500여 북미주 한인교회의 존재이유를 확인하고 선양하자는 위대한 동기와 열정으로 1988년 제1차 선교대회(선교사 126명을 비롯한 1,500여명 참석), 1992년 제2차 선교대회(선교사 238명을 비롯한 2,400여명 참석), 1996년 제3차 선교대회(선교사 735명을 비롯한 3,300여명 참석), 그리고 2000년 제4차 선교대회(선교사 735명을 비롯한 3,500여명 참석)에 이어 금번 지구촌 완전복음화의 위대한 비전과 긴박성을 재확인하고 전세계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동반자 협력정신을 재선양하기 위해 다시금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협력선교의 대광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저 높은 보좌를 우러르며 삼가 귀하를 위대한 선교축제에 초청하는 바입니다.



##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조직

**명예대회장** 빌리 그레함 토마스 왕 로렌 커닝햄 로버트 콜맨 론 앨리슨 임동선 차현희 조천일 방지일 계화삼  
조동진 최찬영

**공동대회장** 김만우 김택규 류효명 박희민 서삼정 안성기 이상남 이상진 이승제 이원상 장영춘 정인찬

**증경대회장** 고인호 김득렬 김상모 김의환 김택용 나운태 립택권 서준택 안병국 정남식 한진관

**대회자문** 강인덕 고원용 김영철 김해중 노봉린 문대연 박근서 박재영 박재훈 박조준 윤영봉 이기홍  
이상현 이승만 이정근 정용철 조덕현 조효훈 주선영 최창욱 함성국 허경삼

<b>사무총장</b> 고석희	<b>대표준비위원장</b> 김영진
서기 배현찬	부서기 제석호
부서기 배현찬	<b>현지준비위원장</b> 송용걸
회계 이상진	부회계 우종인
부회계 이상진	<b>진행준비위원장</b> 강준원
감사 박은우	부감사 안영섭
부감사 안영섭	<b>예배준비위원장</b> 박은우

**공동준비위원장** 나광삼 립형천 명든의 박사무엘 박성규 박원호 배현찬 손용억 이영섭 이영희 이용걸 이정남  
이종형 장동찬 전덕영 전희근 제석호 최광언 최영기 황의춘

**평신도선교운동본부장** 류효명 / **여성선교운동본부장** 김봉희 이익화

**공동부대회장** 강부용 강세대 강준민 구성모 구자경 구재훈 권진태 권혁수 김경진 김경환 김길홍 김낙중 김남수  
김만풍 김명남 김범무 김상구 김세용 김수홍 김영길 김영훈 김원기 김유봉 김재열 김재원 김정복  
김정호 김종기 김중권 김창제 김충일 김평덕 김풍운 김화일 김현국 나구용 노태영 문창선 박광자  
박상진 박성근 박성상 박세록 박수복 박순종 박재호 방지가 백송학 백 순 백형권 백형무 변인복  
서인구 손영구 손인식 송병기 송상철 송성엽 송주방 송천호 안정남 안창의 양희철 오재호 오정규  
우성원 우수명 우종인 원종수 유근희 유재송 유재홍 유충식 윤백진 윤사무엘 윤철환 이광익 이기춘  
이동수 이순근 이승재 이연길 이영식 이요한 이용봉 이용삼 이용창 이이삭 이종민 이훈경 임규영  
임영규 임현수 장광원 장석진 장진우 장현식 전익삼 정관일 정상균 조문휘 조봉환 조영진 조영철  
조영택 조현배 최상득 최성은 최동필 최낙신 최병수 최용걸 최인순 허인희 홍준만 황은영 허 걸  
현용수 소강석 최요한 이영환 김경윤

**공동총무** 고승희 김승욱 김용립 김진환 남궁전 남재신 노창수 박현성 백중필 서창권 송영재 안영섭 안영철  
**이승중/단장** 이재호 임창호 정인수 조일구 진종호 최은중 호성기 홍원기

**공동부총무단** 윤덕곤/단장 김동선 김병모 박준영 윤상돈 이후석 최병락 허세은 홍인석

**공동중앙위원** 강성훈 강일용 강재구 강재현 강준희 김기모 김기웅 김대열 김동원 김문형 김상우 김상하 김성득  
 김성보 김성은 김 영 김영식 김용호 김의식 김정균 김종길 김종호 김중성 김중연 김진옥 김효남  
 김희원 나균용 남정부 노기송 노승환 노하덕 명채환 명치호 문명길 박대일 박덕은 박문규 박병해  
 박상일 박재면 박찬수 방수민 배상호 백요한 송광률 송금섭 송남현 송성자 송호철 신경희 신유일  
 신인훈 신종현 심수영 양부환 양성연 양춘길 양춘호 오병록 유성준 유영기 유천형 윤기용 윤용주  
 윤원길 윤은철 이기우 이대섭 이명규 이용로 이상천 이성구 이성수 이순정 이승태 이승희 이은수  
 이장우 이재선 이종복 이충영 이택래 임형태 장춘원 전 용 정수웅 정재홍 조영팔 주인백 지영환  
 진영길 차경태 차주성 최두경 최우인 최윤옥 최형관 한석현 허상희 홍순백 황준석 홍명철 황경일

**시카고 KWMC** 손용익 김형균 안정국 서창권 김희연 염종효 하영진 홍지일 김용준 전성철

**공동지도위원** 강바울 강신광 고석천 고재청 고한승 광관우 권영만 김경하 김낙인 김대근 김대우 김덕수 김동욱  
 김바울 김백석 김벽년 김상태 김선중 김성문 김성수 김 신 김영화 김용걸 김웅민 김원삼 김위웅  
 김인태 김인호 김재동 김재욱 김제열 김종원 김진호 김철규 김철연 김태중 김현성 김현희 김형조  
 김홍기 김 황 김희영 나근태 남동현 노반석 문태주 문홍국 민요셉 박광철 박노문 박대순 박도원  
 박동원 박병석 박성상 박순오 박승균 박영걸 박영실 박용규 박재용 박정식 박종요 박종욱 박철홍  
 박춘배 박현민 박현승 박홍열 배현석 서종천 성수남 손정운 송강운 송성섭 송요셉 송태길 안경소  
 안덕수 안유광 안재도 안형준 양태송 양택호 오명현 오범열 오석득 오승석 오요한 왕규명 왕영규  
 왕요한 용환기 우종철 유근희 유재도 유재호 유찬희 윤봉상 이경숙 이바울 이상운 이석진 이순각  
 이승한 이야곱 이영준 이용식 이정옥 이정훈 이창우 이철기 임계주 임관우 임기태 임수식 임훈구  
 장석규 장수만 장세윤 장수연 장승웅 장일순 장요셉 장홍호 장희선 전경호 전상혁 전요한 전재길  
 정상우 정석기 정성만 정은혁 조병문 조승호 조지용 조호중 조평팔 조화도 주용성 지선묵 천경우  
 최남수 최승호 최영은 최 재 최창섭

## 주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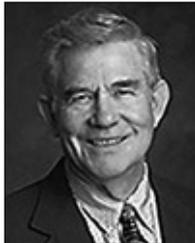
### 토마스 왕 / 국제대사명센터

토마스 왕 목사는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11세 때 전도자 존성을 통해 회심했고 15세에 사역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1953년 대만의 감리교 두 곳을 목회하였고 국제전도자로 유럽과 전세계에서 사역하였다. 1989년 마닐라 로잔회의의 국제 디렉터로 임명되어 사역하였고 현재 2000년까지 미전도종족을 대상으로 대사명을 달성하도록 교회들을 독려하는 기독교 21세기 운동(AD 2000 & Beyond Movement)의 국제 디렉터를 맡고 있다. 1989년 대사명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 로렌 커닝햄 / YWAM 총재

로렌 커닝햄은 YWAM 선교회를 1960년 창설, 현재 130개국 650여 지역에서 11,000여명의 자원선교사들이 활약하는 세계최대의 초교파선교단체로 성장시켰다. YWAM의 현 총재이며 열방대학의 총장이다. 로렌 커닝햄은 40년 이상 열방을 대상으로 한 제자화사역을 통해 얻은 개인적인 경험들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성경적인 예와 가르침을 보여줄 것이다. 마태복음 28:19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도전할 것이다. 대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을 예수님의 모델을 사용하여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제시할 것이다.



### 로버트 콜만 / 트리니티신학교 교수, 세계선교대학 학장

전도학과 제자훈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그는 현재 고든콘웰대학에서 전도와 제자훈련 교수로, 윗튼대학의 빌리그래함전도협회의 지도자로 오랫동안 사역해 왔으며 로잔세계복음화운동의 창단멤버로 활약한 바도 있다. 남서부대학에서 학사, 에스베리신학교와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석사, 아이오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였고 세계선교와 전도, 제자훈련에 관한 수백편의 글을 발표하였으며 95개국어로 번역되었고 영어본만 5백만권 이상이 출판된 「전도의 마스터플랜」을 비롯하여 「천사와 함께 찬양을」, 「다가오는 세계적 부흥운동」 등 20여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 패트릭 존스톤 /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 저자

세계선교정보의 바이블과도 같은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의 저자로 1962년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책자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후에 WEC선교회에 합류, 국제연구 디렉터로 사역하면서 선교사들과 선교지망자, 후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수집, 세계선교 완수를 위한 전략들을 개발해 왔다. 로잔협의회 전략그룹원으로, 또 기독교 21세기운동의 미전도종족네트워크의 공동지도자로 사역하였고 2001년도 세계기독교백과사전을 위한 전세계 모든 종족에 대한 연구자료를 제공하였고 같은 해 세계기도정보 2001년도판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현재 13개 언어로 번역되어 총 2백만부 이상이 선교동반자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 수정교회 히스패닉목회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신으로 20세부터 아르헨티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는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친 아르헨티나의 영적갱신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믿음교회의 목회 성공은 그를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로 만들어 주었다. 1974년 스위스의 로잔대회 주강사로 초청을 받은 것을 계기로 오르티즈의 영향력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제3세계 지역을 넘어 동구권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까지 퍼져 나가게 되었다. 현재 미국 Garden Grove에 있는 수정교회에서 히스패닉을 위한 목회를 하며,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하였다.



**루이스 부시** / World Inquiry 대표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엘 살바도르에서 선교목회의 큰 열매를 거둔 후 1986년부터 50개국에서 현지인 사역을 하는 파트너 인터네셔널 총재로 2,800개의 교회를, 그 중 80%를 10/40창 지역에 개척하였다. 1989년 마닐라 로잔대회에서 선교 초점 지역으로 「10/40창」 개념을 주창하였으며, 1993년 부터 기독교 21세기운동의 국제총무로 매년 수천만명이 참여하는 미전도종족 중보기도운동인 창을 통한 기도를 주도하였고 서울 GCOWE 95에서 여호수아작전운동을 일으켰다. 현재 전세계 선교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세계문의(World Inquiry)운동을 진행중이며 여기서 나온 주제들은 2004년 9월에 열리는 로잔포럼에서 의제로 나누어진다.



**데이비트 로스** / 안디옥커넥션 대표

1961년 한국에 파송된 미국장로교 선교사로 초교파적으로 청년사역을 시작하여 그것이 오늘날 예수전도단이라 불리는 단체의 출발이 되었다. 예수전도단 그 사역이 커지면서 YWAM이라는 국제적 단체와 가까워졌고 1981년에 이 두 단체는 하나가 되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 있는 한국 젊은이들을 세계선교를 위해 훈련시키는 일을 위해 안디옥커넥션(Antioch Connection)을 시작, 현재 미국 시애틀에 본부를 두고 미 전역에 센터를 통해 미주한인청년들을 향한 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근래에는 북한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념하고 있다. 아내와 세 자녀가 있으며 자녀들은 모두 한국인 아이들을 입양하여 양육하였다.



**강영우** / 미국백악관 정책차관보

시각장애의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인간승리의 위대한 생애를 개척한 강박사는 동양인 최초로 美 부시행정부의 장애인정책차관보로, 유엔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루스벨트재단 고문으로, 그리고 미상원 선정 존경인물로 Honorable의 칭호를 받은 최고위 공직자로서 한민족의 위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 산신앙의 증인이다. 그의 탁월한 생애는 한국에서 영화와 방송드라마는 물론 새의 노래로 방영됐고, 자서전 「빛은 내 가슴에」는 6개국어로 출간됐고,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의 꿈」, 「내 안의 성공을 찾으라」 등 7권의 베스트셀러가 있다. 첫째 아들은 듀크대학 안과교수로, 둘째 아들은 미상원의원 최연소 고문변호사이다.



**조동진** / 통일환경연구원장, 사단법인 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이사장

1961년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학을 신학교 선택과목 교과과정으로 설치하고, 또한 최초로 1963년 선교대학원인 동서선교개발원을 설립, 선교사양성을 시작하여 30년간 1,500명 이상의 한국과 아시아 선교사들을 교육해 왔으며 한국교회 최초의 초교과 선교단체인 국제선교협력기구를 설립하고 협력선교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후 아시아선교협의회(AMA) 창립 사무총장으로, 제3세계 선교협의회(TWMA) 창립 회장을 역임하였고 1989년 이후 계속하여 민족통일과 선교를 위한 대북활동을 전개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종교학과 설치에 공헌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1995년에 설립한 사단법인 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이사장으로, 통일환경연구원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동휘** / 바울선교회 회장, 전주안디옥교회 담임

세계선교를 위해 1983년 교회재정의 60%이상을 선교비로 쓴다는 창립정신으로 개척한 전주안디옥교회(일명 강통교회)는 양철콘서트건물에 모인 2,700명의 교인이 160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매월 10만 불 이상의 선교비를 지급하고 있다. 1986년 선교의 규범인 사도 바울의 선교정신을 이어받자는 뜻에서 「바울선교회」를 세우고 현재까지 72여개국에 24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며 아직도 선교의식의 후진성을 먼저 못하는 전체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의 도전적 메시지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목회자이다. 한신대학교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나왔으며 저서로 전주안디옥교회의 이야기를 담은 감동적인 「강통교회이야기」가 있다.



**김홍도** / 금란교회 담임

다들 망해서 온다는 망우리에 김활란박사가 세운 금란교회의 강단을 33년간 지키며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외친 결과, 오늘날 10만 성도의 전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성장시킨 김홍도목사는 21세기 영계의 파수꾼이 되는 교회상을 천명하며 혼합주의신학노선과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복음주의 신학노선을 파수한 열정적인 목회자이다. 감리교신학대학을 나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과 플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슬레대학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대표회장등을 역임했고 ACTS 이사장, 월드크리스천교회 이사장이다.



**박종순** / 충신교회 담임, KWMA대표회장

한국교회의 세계선교운동을 교과를 초월하여 총괄하고 선도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대표회장이며 1976년이래 30여년의 모범적인 목회사역을 통해 서울 충신교회를 놀라게 성장시킨 목양자로 선교운동과 목회사역 양면에서 크게 존경을 받는 박종순 목사는 송전대, 장로회신학대학, 중앙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과 플러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장신대 목회연구원 교수, 신앙세계 편집위원, 외향선교회 이사, 기독교방송국 이사로도 활동하며 사회봉사와 구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며, 또 25권이 넘는 영감에 찬 저술을 통해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숙한 신앙의 삶을 위해 도전하고 있다.



**장영춘** / 공동대회장, 퀸즈장로교회 담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공동대회장인 장영춘 목사는 총회신학교, 미국 Central신학교(Th.M), Faith신학교(D.Min), California 신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를 수여하였고 뉴욕지구교회협의회 회장,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미주기독교 북방선교회 이사장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부장, 미주 크리스찬신문 발행인, 동부개혁장로교회 신학교 교장(미주총회)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 「살아있는 나침반」, 「아가페와 필레오의 대화」, 「예수님의 눈물」 등이 있다. 뉴욕의 퀸즈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박희민** / KWMC공동의장, 새생명선교회 대표

나성영락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은퇴한 박희민 목사는 현 KWMC 공동의장 및 본대회 공동대회장으로 북미주 세계선교의 선봉장으로 사역해 오고 있으며 현 미주장로회신학대학 이사장, 새생명선교회 대표, 11월에 파사데나에서 열리는 빌리그래함 전도대회의 한인 대표대회장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이원상** / SEED선교회 국제총재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금번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4)의 공동대회장인 이원상 목사는 만주 태생으로 계명대 철학과, 경북대학원 철학과를 나와 달라스신학교에서 신학석사(Th.M.)를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구약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후에 계명대학교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P.C.A. 미국장로교회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한인수도노회 노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와싱턴중앙장로교회를 1977년부터 시무하고 지난 해 은퇴하고 Ezra Leadership Institute의 디렉터로, SEED선교회의 국제총재로 선교와 지도자 양성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강승삼** / KWMA사무총장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복음적인 교단, 교회 및 초교파 선교단체가 정보, 훈련, 전략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협력과 연합을 통한 선교네트를 만드는 막대한 사역의 실무자로 쓰임받는 그는 이미 12년간 GMS-PCK/SIM-ECWA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헌신하여 ECWA Billiri 신학교를 설립, 선교신학 및 성경신학교수, 교회개혁과 현지지도자 양성 등의 사역을 했다. 총신대신대원(M.Div.), 컬럼비아국제대학(M.A. in Mission)을 나와 미국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총신대신대원의 교수 및 학장으로 EFA/MC, KEF/MC, CCK/MC의 의장이며 WEA/MC의 이사이다.



### 정인찬 / 휴스턴한인교회 담임, 미한기총 대표회장

기독교 한인세계선교대회(KWMC) 공동의장이며 금번 선교대회의 공동대회장인 정인찬 목사는 한국신학대학,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원을 나와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에서 신학박사를 수여하였다. 숭전대와 호서대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휴스턴 신학대학 학장, 미주통일선교대학 학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으며 휴스턴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현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며 성서대백과사전의 편저자다.



### 이상남 / 세계등대교회 담임

LA세계등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상남 목사는 성결교신학대학, 숭실대학,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에서 목회학 박사를 수여했다. 왕의 복음센터(The King's Gospel Institute) 원장이며 저서로 「주와 동행하는 생활(왕의 복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배의 복음)」 등 다수가 있다. 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본대회 공동대회장이다.



### 김만우 / 공동대회장, 필라제일교회 담임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 담임인 김만우 목사는 현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자 본대회 공동대회장으로 연세대학교와 동대학원,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재미 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 중동선교사협의회(MEMA) 고문, 밀알선교단 고문, 중동선교대학원장, 재미학생신앙운동(SFC) 지도위원이다.



### 이승제 / 공동대회장, 체리힐한인교회 담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의 공동의장이며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의 공동대회장인 이승제 목사는 현 체리힐한인교회 담임이며 KWMC의 선교사후원운동본부장과 북한식량돕기운동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 서삼정 / 공동대회장,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대표의장이며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4) 공동대회장인 서삼정 목사는 「조약돌」 등의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며 영성운동가로 「영성이 살아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 등의 저서를 펴내기도 하였다. 현재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에서 담임목회자로 시무하고 있다.



**이광복** / 목양교회 담임

한국교회를 깨워 불박히고 신앙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로 단장시키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고 있는 그의 선지자적 열정은 이미 교계에 널리 알려진 바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복음적 종말론세미나는 지난 8년간 참여한 목회자만도 6만명이 넘어 자칫 오해와 박해를 받기 쉬운 종말론의 각성운동을 대중적으로 아이콘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종말론 외에도 성경해석학, 설교학의 권위자이며 예배학, 교회음악, 셀목회 등 무려 230여권의 저술과 함께 집회를 인도했으며 세계선교의 열정도 놀라워 빌라델비아선교회를 설립하고 50여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했으며 선교사 안식관도 운영하고 흰돌선교회를 통해 인터넷선교도 크게 펼치고 있다.



**황성주** / 사랑의클리닉 원장, 사랑의봉사단 단장

서울의대와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합동대학 신학원을 나와 독일 프리덴바일러 암전 문병원에서 연구생활을 했던 황성주 박사는 서울의대 등에서 교편을 잡다가 '사랑의클리닉'이라는 성인 병 및 암전문병원을 설립하였다. 80년말부터 한국라브리를 꿈꾸며 국제사랑의봉사단을 창단, 전세계 어두운 지역의 이웃들을 섬기고 있으며 90년대에는 성경적 전인치유, 상담, 말씀, 전도훈련을 위해 호도에 학교를 설립, 수많은 전임 사역자와 사모, 평신도 지도자들을 섬기고 있다. 이룸라이프의 황성주생식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성서 건강학」, 「생식과 건강」, 「사랑의 치유일지」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김성길** / GMS 이사장, 시은소교회 담임

6대에 걸쳐 면면히 계승된 한국 초대교회 신앙의 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칼빈신학교, 총신신학대학원, 대만아세아선교대학원(Th.M.)을 나와, 미국 South 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박사 학위(D.D.)를 수여했으며 1975년 개척한 수원 시은소교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동시에 GMS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으로, 스칸디나비아 선교회장으로 세계선교사역에도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영성훈련원, 수도성경신학원, 수원 평신도선교훈련원 등의 대표이며 CBS(기독교 방송) 부흥선교단 공동회장이다. 저서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도우시는 하나님」, 「교회론」, 「봉사론」 등이 있다.



**안성기** / 공동의장, 시카고남서부교회 담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본대회 공동대회장인 안성기 목사는 고려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원, McCormick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시카고 한인기독교방송 국장, 기독교 연합선교회(C&MA) 한인총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시카고 남서부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류효명** / 공동대회장, KWMC평신도운동본부 본부장

류효명 장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신과 의사이며 현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고 있다.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평신도선교운동본부장으로 북미주 평신도 선교운동 동원에 활동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본대회 공동대회장이다.



**소광석** / 새에덴교회 담임

20대 후반 젊은 전도사 시절 분당에 새에덴교회를 개척하여 "맨땅, 맨손, 맨몸"의 "3맨목회" 철학을 외치며 12년의 뚝심목회를 한 결과 4천명 성도의 교회로 성장하였고 세계선교현장을 뛰며 불을 토하는 영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광신대, 개혁신학대학, 대학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거쳐 북미 Knox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D.Min.)를 수여하였다. 한국문인협회 시인이기도 하며 「맨발의 소명자」, 「불붙는 영성을 회복하라」, 「비전의 가문을 세우라」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송석홍** / 중부명성교회 담임

198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뉴욕 임마누엘교회, 필라델피아 새순교회 등 북미주 이민교회를 담임하다 한국으로 건너가 청주에서 중부명성교회를 개척하여 놀랍도록 대형교회로 성장시켰으며 청년시절 대학생선교회(CCC) 대표간사로 활약할때 받은 선교사명을 좇아 24개국에 44명의 선교사 파송 및 후원, 8개 선교단체 후원 등 세계선교사역에도 크게 헌신하고 있다. 금번 대회에서 선포할 새벽기도회의 감동적인 메시지를 기대한다. 장로회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거쳐 New York Seminary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방광재** / 영광교회 담임, 성경의제비뽑기실천운동본부 총재

한국기독교계의 금권 불법 타락선거와 중상모략, 분쟁, 분열을 근절하고 학연, 지연, 혈연을 끊어 화해, 일치,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각성과 갱신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거룩한성경적제비뽑기선거제도운동을 주창한 박목사는 교계의 호응을 받으며 교계정화운동에 신명을 바치고 있다. 영광교회를 25년간 섬기며 기독교총회임원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총재, 성경의 제비뽑기선거제도실천운동본부 총재, The Holylot Mission, USA 대표이며 저서로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제비뽑기」 등이 있다.



**이순옥** / 미연방의회 북한인권청문회 증언자

북한 함경북도 청진 출생으로 청진경제전문대학, 함경북도 공산대학, 평양인민경제대를 나온 엘리트로 함경북도 중앙은행에서 근무하다 젊은 나이에 몰자공급소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가 정치적 모함으로 숙청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았고 1986년부터 6년간 평안남도 개천정치범교화소에 수감되었다. 1995년 아들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후 유엔국제앰네스티 총재 초청으로 증언하였고, 1997년부터 매년 미연방의회 상하원청문회에서 북한 정치범 감옥의 인권탄압 실상을 증언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일본, EU국회에서 증언해오고 있다. 사선을 넘은 체험수기 「증언 -꼬리없는 짐승들의 눈빛」이 있다.

선교보고 선교사



박영은  
인도네시아 선교사



장영인  
방글라데시 선교사



이춘심  
네팔 선교사



윤수길  
태국 선교사



이만석  
이란 선교사



김정윤  
우간다 선교사



김해영  
보츠와나 선교사



윤원로  
카메룬 선교사



이희재  
러시아 선교사



신윤섭  
우즈베크 선교사



정흥기  
루마니아 선교사



이향모  
알바니아



박짐밥  
북미주차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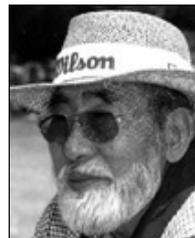
김동승  
북미원주민 선교사



최상호  
에콰도르 선교사



임한곤  
파라과이 선교사



이장식  
은퇴 선교



이에스더  
조선족 선교



이주태  
안식년 선교



이명남  
한센 선교

KWMC2004 대회일정

일시	7/26(월)	7/27(화)	7/28(수)	7/29(목)	7/30(금)	
06:30 AM	<p><b>저녁식사</b> 3:30-5:30PM</p> <p><b>개회예배</b> 6:00-7:30PM</p> <p><b>선교사입장</b> 개회사회/ <b>고석희(한)</b> <b>박집밥(영)</b> 개회선언/ <b>장영춘</b> 개회기도/ <b>이상진(한)</b> <b>고유진(영)</b> 개회절교/ <b>이승제</b> 선교사환영사/ <b>박희민</b> 선교사답례사/ <b>신종혁</b> 차세대격려사/ <b>서삼정</b> 차세대답례사/ <b>명치성</b> 축사 <b>조지 W 부시 대통령</b> <b>토마스 왕</b> <b>론 엘리슨</b> <b>엘리야 하퍼</b> <b>방지일</b> <b>정인찬/미한기총</b></p>	<b>새벽기도회</b>				
		<b>소강석</b> 불타는 영성을 회복하라! <b>이장식/은퇴선교</b>	<b>박광재</b> 성령의 권능을 감절이나 주소서! <b>이에스더/조선족선교</b>	<b>송석홍</b> 기도의 불길로 선교의 광야를태우자! <b>이주태/안식년선교</b>	<b>이원상</b> 등불을 밝히고 신앙을 기다리자! <b>이명남/한센선교</b>	
07:30 AM		<b>아침식사</b>			<b>금식</b>	<b>아침식사</b>
08:40 AM		<b>찬양</b>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b>찬양</b> 휴스턴한인교회	<b>찬양</b>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b>찬양</b>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b>찬양</b>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09:00 AM		<b>성경강해</b>				
		<b>정인찬</b> 에스겔서에 나타난 말씀운동	<b>이상남</b> 요나서에 나타난 선교도전	<b>후안 오르띠즈</b>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역사	<b>후안 오르띠즈</b> 마울서신에 나타난 선교정신	
09:40 AM		<b>주제강연 I</b>				
		<b>오대원</b> 약속된 성령과 세계선교의 태동	<b>로버트 콜맨</b> 천국주수의 축제의 삶	<b>루이스 부시</b> 세계복음화 퍼스펙티브	<b>이순옥</b> 피리없는 짐승들의 눈빛, 북한수용소 실상증언	
10:20 AM		<b>휴식</b>				
10:40 AM		<b>주제강연 II</b>				
		<b>패트릭 존스톤</b> 9/11이후 세계동향과 선교의 새로운 전망	<b>서삼정</b> 선교활성화를 위한 성령의 음성듣는 삶	<b>강영우</b> 고난과 역령을 기회와 축복으로!	<b>조동진</b> 김정일정권 10년의 변 화와 통일선교의 방향	
11:20 AM		<b>주제강연 III</b>			<b>폐회예배</b>	
		<b>박희민</b>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적 총동원전략	<b>이동휘</b> 선교사로의 위대한 출발	<b>김만우</b> 13억 모슬렘선교의 관문을 뚫어라!	폐회사회/ <b>이승종(한)</b> <b>김현경(영)</b> 폐회절교/ <b>안성기</b> 성찬집례/ <b>임동선</b> <b>미한백상증정</b> <b>감사패증정</b> 선교장학금수여/ <b>류효명</b> 선언문채택 KWMC사무총장 WKMF사무총장 차세대준비위원장 선교출정식	
12:00 PM		<b>점심식사/선교전시장</b>				
01:40 PM		<b>주제강연 IV</b>				
		<b>이광복</b> 종말과 재림 그리고 세계선교의 긴박성	<b>김성길</b> 한국교회 100년사의 선교적 고찰과 과제	<b>토마스 왕</b> 중국에서 예루살렘까지! BJ Movement		
02:20 PM		<b>주제강연 V</b>				
		<b>황성주</b> 전인치유의 새 패러다임	<b>강승삼</b> 한인세계선교사의 현황과 전망	<b>류효명</b> 선교의 지하자원 평신도를 개발하자!		
03:00 PM		<b>휴식</b>				
03:30 PM		<b>선택강좌 I / 선교전시장</b>				
04:30 PM	<b>휴식</b>					
05:00 PM	<b>선택강좌 II / 선교전시장</b>					
06:00 PM	<b>저녁식사 / 선교전시장</b>					
07:30 PM	<b>찬양</b> 휴스턴한인교회	<b>찬양</b>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b>찬양</b> 휴스턴한인교회	<b>찬양</b>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08:00 PM	<b>저녁선교대회</b>					
	<b>로렌 커닝햄</b> 열방을 변화시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b>박영은/인도네시아</b> <b>장영인/방글라데시</b> <b>이춘심/네팔</b> <b>윤수길/태국</b>	<b>김홍도</b> 세계선교를 위한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b>이만석/이란</b> <b>김정윤/우간다</b> <b>김해영/보츠와나</b> <b>윤원로/카메룬</b>	<b>장영춘</b> 설령, 순교, 선교, 그 하나님의 최후작전! <b>이희재/러시아</b> <b>신윤섭/우즈벡</b> <b>정흥기/루마니아</b> <b>이항모/알바니아</b>	<b>박종순</b>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 <b>박집밥/북미차세대</b> <b>김동승/북미원주민</b> <b>최상호/에콰도르</b> <b>임한곤/파라과이</b>	개회예배와 폐회예배는 한어권대회와 영어권대회가 합동으로 드립니다.	





## 개회예배

개회선언/ **장영춘 목사** 쿼즈장로교회  
선교사환영사/ **박희민 목사** 새생명선교회  
선교사답례사/ **신종혁 선교사** 뉴질랜드  
차세대격려사/ **서삼정 목사**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차세대답례사/ **명치성 목사** 휴스톤한인장로교회  
개회설교/ **이승제 목사** 체리힐한인교회  
축사/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  
축사/ **토마스 왕** Great Commission Center  
축사/ **론 엘리슨** 빌리그래함센터  
축사/ **엘리야 하퍼** 캐나다상원의원  
축사/ **방지일 선교사** 초창기중국선교사  
축사/ **정인찬 목사**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 저녁선교대회

사회/ **고석희 목사** KWMC사무총장  
선교보고/ **박영은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보고/ **장영인 선교사** 방글라데시  
선교보고/ **이춘심 선교사** 네팔  
선교보고/ **윤수길 선교사** 태국  
설교/ **로렌 커닝햄** YWAM총재, 열방대학

## 개회선언

### [개회예배] 개회선언

공동대회장 **장영춘**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공동대회장인 장영춘 목사는 충회신학교, 미국 Central신학교(Th.M), Faith신학교(D.Min), California 신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를 수여하였고 뉴욕지구교회협의회 회장,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미주기독교 북방선교회 이사장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부장, 미주 크리스찬신문 발행인, 동부개혁장로교회 신학교 교장(미주총회)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 「살아있는 나침반」, 「아가페와 필레오의 대화」, 「예수님의 눈물」등이 있다. 뉴욕의 퀸즈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서, 미주한인선교 1세기의 장을 넘긴 금년(2004년)에,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이 시카고에서 다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보내는 바입니다.

세계선교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마 28:16-20)이며, 교회의 첫째 되는 사명임과 동시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옛날, 1세기 초에 이방지역인 안디옥지방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와 이방인들을 들어 쓰셔서, 세계 선교의 첫 불길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두 천년(millennium)이 지난, 이 21세기에 와서, 이제, 영적인 디아스포라인 한국인들을 들어 쓰셔서, 세계 선교의 새로운 무대를 펼쳐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 아래서, 강하신 성령의 조명아래, 새로운 선교역사의 장에 커다란 한 획을 긋는 창조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교회의 머리되시며, 선교 대열의 총사령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개최됨을 선언합니다. 아멘

# 선교사환영사

## [개회예배] 선교사환영사

KWMC공동의장 **박희민**



나성영락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은퇴한 박희민 목사는 현 KWMC 공동의장 및 본대회 공동대회장으로 북미주 세계선교의 선봉장으로 사역해 오고 있으며 현 미주장로회신학대학 이사장, 새생명선교회 대표, 11월에 파사데나에서 열리는 빌리그래함 전도대회의 한인 대표대회장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5대주 6대양 세계 방방곳곳에서 사역하시다가 제5차 한인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신 자랑스런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열열히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12,000명의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한 제2의 선교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이렇게 수십년전만 해도 피선교 국가였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로 크게 축복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세계는 한국교회 선교사들을 곳곳에서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와서 도우라'고 울부짖었듯이 고 우리 한국선교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세계도처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자가 치유되며,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뻐뚱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수고하다가 이번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함께 만나고, 선교기관과 선교사님들이 함께 만나 교제하고 대화하며, 선교의 도전을 주고 받으며, 영성을 회복하고 재충전 받아 다시 선교현장으로 나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교대회는 여러분의 대회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도로 이번 대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며 좋은 의견도 제안해 주시고 보다 하나님이 기뻐 하시며 영광도리는 대회가 되도록 주인의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마칠때까지 미비하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선교사 답례사 - "한인세계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

## [개회예배] 선교사 답례사

세계한인선교사회(WKMF) 대표회장 **신중혁**

신중혁 선교사는 1987년 예장통합세계선교부에서 파송되어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 사이에서 교회, 신학교 사역을 해오고 있다. 세계한국선교사회(WKMF)의 대표회장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20:21)

2000년대를 맞이하여 첫 번째 맞는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와 제12차 한국세계선교사대회가 유서 깊은 시카고 휘튼대학 빌리그래함선교센터에서 열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은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카고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선교사들을 그 중심에 세우고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사들에 의한 선교대회가 되게 하여 주신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단과 임원 여러분, 특별히 고석희 사무총장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회에 미주 1,5세대를 대표하여 한인세계선교사회 현장선교사(KWMF)들을 환영하여 주시고 뜨겁게 맞아주시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2000년대를 맞이한 세계는 급격한 변화와 분쟁과 불화와 갈등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전연 예상치 못했던 민족과 민족이, 인종과 인종이, 종교와 종교가, 동과 서와 남과 북이, 충돌하며 분쟁하며 서로 먹고 먹히는 전쟁과 불화가 전 세계를 암울하게 하고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만방에 전하며 이 시대를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 이번 제 5차 한인세계선교대회와 제12차 한국세계선교사대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물음에 대한 대답과 해답을 분명히 하여야 할 막중하고 뜻 깊은 선교대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향하여 변화와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주역들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 받은 한국교회와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을 향하신 이 시대의 요구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과 불화와 분열과 갈등의 복음이 아닌 사랑과 용서와 희생, 화해와 섬김, 평화와 희망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새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보내는 선교사(KWMC)와 보냄 받은 선교사(WKMF)가 하나가 되고 어울려서 하나의 선교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한인선교사회 지역대회가 중심이 되고 그 지역대회에서 추천한 선교사님들이 이번 선교대회의 강사로 서게 된 전 한인세계선교사들과 한인세계교회가 하나 된 온전히 변화된 새로운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제 선교의 전후방이 없습니다. 보내는 자, 보냄 받은 자, 국내와 국외교회가 하나로 변해야 합니다. 이번 한인세계선교대회는 하나 된 선교대회로 계획하고 준비하였으며 진행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회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전 후방 선교동지 여러분. 세계만방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거칠고 험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들고 순교자의 길을 걷던 저희 13,000만 자랑스러운 한인세계선교사들을 이렇게 뜨겁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선교대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고석희 사무총장님과 임원여러분과 이 자리에 모으신 여러분께 한인세계선교사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차세대 격려사

## [개회예배] 차세대 격려사

공동대회장, 2004년도 KWMC대표의장 **서삼정**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현 대표의장이며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4) 공동대회장인 서삼정 목사는 「조약돌」 등의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며 영성운동가로 「영성이 살아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 등의 저서를 펴내기도 하였다. 현재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에서 담임목회자로 시무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특히 청소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KWMC는 어느 때 보다도 여러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선교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큰 기대와 몇 가지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이번 선교대회에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적인 현장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서서 학생선교운동이 불붙게 될 곳입니다. 1906년 어느 채플시간에 윌슨 박사는 기도하면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학생이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자 또 다른 학생이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잠시 후에는 전 학생들과 교수들이 시작했는데 아침에 시작한 기도가 밤 10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학생선교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그 때 임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여러분이 선교운동을 계승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역사적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민 1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와 20여 년 전에 KWMC를 만들고 시작한 이 선교운동은 이제 차세대가 바톤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2년 마다 있게 될 청소년 선교대회를 통해서 준비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셋째,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사적인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KWMC는 여러분들께서 예수그리스도와 그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의 기도를 잊지 말아 주기를 바라며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건강한 교인과 지도자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를 떠난 패러치치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를 떠난 운동들이 잘못된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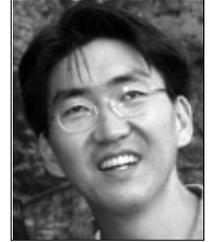
끝으로 여러분이 방학기간에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고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크게 기뻐하실 것이며 이번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안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 차세대 답례사

### [개회예배] 차세대 답례사

휴스턴한인장로교회 영어목회 명치성



목회자들이 많은(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형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명치성 목사는 Johns Hopkins 대학과 Westminster 신학교를 졸업하였다. 의료선교사로 나갈 계획으로 의학을 공부중이며 현재 휴스턴 한인교회 영어목회자이다.

First of all, as a representative for the second-generation Korean-Americans, I would like to thank our mission-minded God who loved us and sent His only Son into the world so that we might have eternal life. I believe KWMC is a response to that agape love of God, so we offer Him thanks.

Secondly, as a second-generation pastor, I would like to thank the first-generation pastors, including my father, 명돈의 목사님, and lay leaders also, for starting and continuing this missions movement called Korean World Mission Conference. We are especially thankful to you for working hard this year to make the English conference possible. Our hope is that it will not end here, but that it would continue through annual or biannual regional meetings as well.

Thirdly, the first generation is calling on the second generation to carry on the torch that they carry. The Korean churches are some 3,500 strong in North America. But many of its leaders are retiring. As second-generation Korean-Americans, we have benefited from the faith of the first generation. We cannot have an "Am I my brother's keeper?"-attitude toward our Korean churches. God calls each of us to our own distinctive ministries. But the second generation must also have willingness to serve in Korean churches as pastors and lay persons.

Moreover, just as Rev. Sam Jung Suh appealed to us, we need to spend our time and efforts on building up God's church.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Jesus said,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Jesus is committed to building the church, and so should we. KWMC, which started 20 years ago, also is a church based movement.

Fourthly, we also need to be ready to take the baton from the first generation in terms of missions. According to the stats here at KWMC, there are some 12,000 Korean missionaries abroad. However, over 90% of those are from Korea, and only about 1000 from North America. As Rev. Suh mentioned, with the empowerment of the Holy Spirit, we, too, must be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world. Jesus commands us. This past June, I had the privilege of being a witness of Christ in Thailand. I fell in love with the children of Thailand. The trip convinced me more than ever that we need to go. We need to go because Jesus is the only way to the Father.

Finally, I pray that as we hold this conference that God will bring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closer together. We, the second generation, need to appreciate the deep tradition of faith in the Korean church. We need to love and respect our parents. I also pray that we will learn to work better together, so that God can use the Korean-Americans to bring about a spiritual awakening in North America.

Recently, I have been reminded that missionaries from both Canada and USA gave of their lives to share Christ's love with people in a country far away called Korea. That is why we are Christians today. Both generations of Koreans have the awesome responsibility of being missionaries back to their children, the people of North America. We can better succeed if we work together. May God use the first and the succeeding generations of Koreans to bring about revival in North America and the world!

#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 [개회예배] 설교

공동대회장 이승제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의 공동의장이며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의 공동대회장인 이승제목사는 현 체리힐 한인교회 담임이며 KWMC의 선교사후원운동본부장과 북한식량돕기운동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요한1서 2:17]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후 세상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인생으로 분류됩니다. 즉 세상에 속한자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성도입니다.

### 1.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1) 세상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을 외면하거나 못 들어 하나님을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이심과 구원 섭리를 알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사는 많은 불신앙의 사람들과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이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 18:36)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국시민인 사람들입니다.

### 2.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이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주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이는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

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6:38-39),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대로 본받아 그 명하신 바를 행하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네가지 명령이 하달되어 있습니다.

1) 필히 "권능"을 받고 전도와 선교사명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행1:8).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일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외에는 이 직무를 다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2)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지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구원이 너무도 절절한 고로 땅 끝일지라도 험난하고 힘들지라도 가서 건지라는 지엄하신 명령아래 있습니다.

3) "네 직무를 다하라"는 선교지상명령입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딤후4:1-2)

4) 분초를 다투어 긴급히 전하라시는 선교긴급명령입니다. 지금은 말세지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리라... 때가 가까움이라"(계1:1,3하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22:12)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이 명령들을 중심으로 복종하고 실행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이들이요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입니다.

### 3.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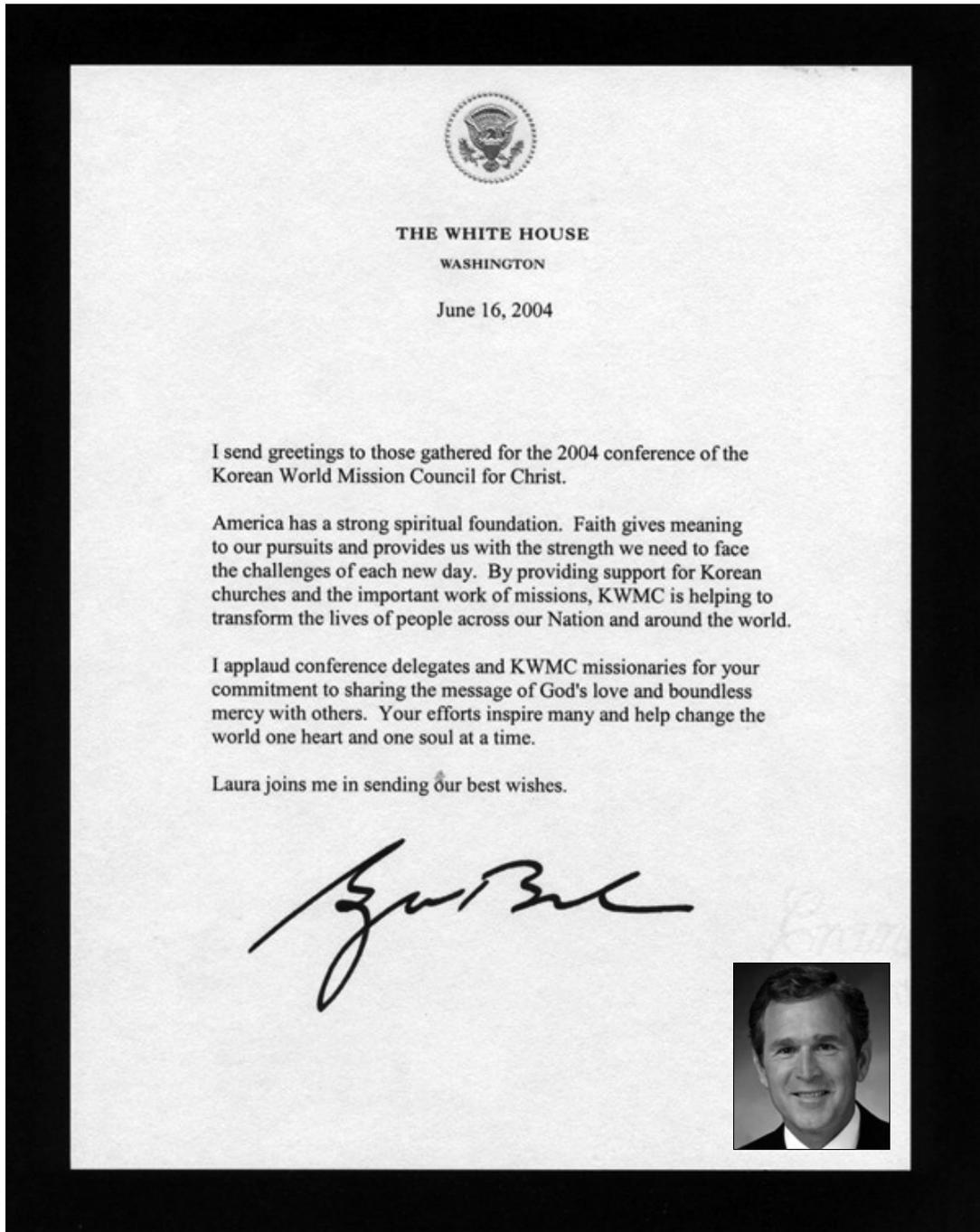
불순종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시작이나 이 세상에서의 수명과 함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금생의 결과와 불신앙, 불순종으로 영원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금생에서 구원 얻은 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사랑하여 충성되어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행한 교회와 성도들은 영생을 얻음과 함께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나라들과 고을들과"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많은 은총들을 상속하시며 (참고:고전2:9-10) 주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찬송하며 즐기는 상급과 은총을 받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거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의 지상목표입니다.

말세에 처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바 교회와 성도들의 지상과제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명을 위해 더욱 긴급히 우리의 온 중심을 다하여 더욱 선교에 매진, 충성,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되십시오.

[개회예배] 미대통령 축하 (강영우박사 대독)

미국대통령 조지 W. 부시



## 축사

### [개회예배] 축사

명예대회장 **토마스 왕**



전 기독교21세기운동 총재, Great Commission Center 대표 중국 북경 3대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 11세대 전도자 존성을 통해 회심, 왕명도목사에게 양육받고 대만장로교신학교와 미조리 센츨럴신학교를 수료하고 윌리엄캐리대학에서 문학박사, 고든컨웰신학교에서 신학박사를 수여하였다. 1961년 중국기독교회를 1976년 중국세계선교협의회를 창설, 사무총장 역임, 1987년 로잔세계선교운동 국제총무로 선임되어 1989년 제2차 마닐라 로잔세계선교대회를 총괄하였다. 1989년 기독교21세기운동을 창설하여 미전도종족복음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1989년 창립한 대서명신학교/선교센터를 통해 타문화권과 중국어권 선교를 위해 선교사역자를 훈련하며 수많은 선교대회 주강사로 활약하는 세계적 선교지도자다. 본 대회의 명예대회장으로 한어권 대회에서는 주제강연을, 영어권 대회에서는 성경강해를 통해 강력한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한인세계선교대회마다 주강사로 초청받은 나는 한국교회의 복음적 신앙과 선교적 열정에 진실로 감동하였으며,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 성취에 있어 한국교회가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21세기, 역사의 종말을 예고하는 도전적 시대상황 속에서 실로 긴박하게 천국복음을 들어야 할 시점에서 금번 선교대회는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십자군으로 재무장하는 기회입니다.

### [개회예배] 축사

캐나다 상원의원 **엘리아 하퍼**



### [개회예배] 축사

초창기 중국선교사 **방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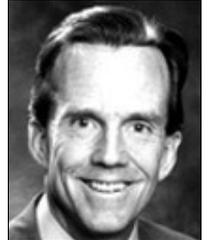


1937년 한국 세계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향한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방지일 목사는 38년간의 선교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영등포교회에서 20여년 목회활동을 하였으며, 그 후 유럽,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도우며 한국 세계선교의 선봉장으로 낙락장송처럼 우뚝 서 있다.

제1회가 모인지 20년이 되었군요. 금년은 제5회가 모였군요.

전미국 전역, 캐나다, 남미, 유럽, 전세계, 한국 국내외까지 名實공이 세계대회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 금년 제 5회는 더 큰 성회로서 선교 한국을 과시하는 대회가 됨을 우리 국내외 한인 교회 모두에게 기쁨이 되며 이 일을 분부하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感知하게도 됩니다. 보내는 교회,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 또 헌신하고자 하는 젊은이들께 크나큰 격려가 되어지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큰사명을 충실이 감당하는 한인 교회로 더 크게 성장하는 국내외 우리한인교회가 되는데 큰 기여를 이루게 되심을 감사하며 깊은 감회의 축하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몸바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를 찬하합니다.

**[개회예배] 축사** **명예대회장 론 엘리스**

빌리그래함센터 소장 위튼대학 내에 위치해 있어 "세계 선교 촉진(Stimulate Global Evangelism)"을 그 존재이유로 삼고 "전도의 중추신경"(nerve center of evangelism)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빌리 그래함 센터(Billy Graham Center)의 소장인 론 엘리스 박사는 17세에 회심하여 지난 30여년간 교육자로, 전도자로, 목회자로, 예술가로, 그리고 대회강사로 사역해 왔다. 미국로잔협회(U.S. Lausanne Committee)에서 미션 아메리카의 사무장직도 맡고 있는 그는 음악과 무대예술에도 전문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 종종 대회들과 교회에서 강연과 함께 음악과 드라마를 연출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본 선교대회의 명예대회장이며 특별히 전세계에서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대회본부와 공동으로 초청장을 발급하며 수백장의 초청장 한장 한장 마다 직접 서명을 해주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윗튼대학의 빌리그래함센터를 대표하여 이 역사적인 선교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모임을 보고 기뻐 웃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수십년간에 걸쳐 그분께서 사용하실 위대한 복음의 군대를 이룰 것입니다. 이 대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하도록 부름을 받을 것이며 복음의 소식을 열방에 전하게 될 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께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신도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라 부르실 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첫 열매입니다. 또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분명하게 듣게 될 때에도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여기 모인 많은 이들이 동남아시아로 부르심을 받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 지역은 많은 선교사들에게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국경과 철의 장막을 통과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유럽과 미국을 재복음화하는데 부르심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혼과 심장에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지금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나의 동료들이 이에 대해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즉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이 대회를 열며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20세기 초엽에 수천의 학생들로 선교에 헌신하도록 했던 존 모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축사를 마칠까 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믿게 하며, 사랑하게 하며, 순종하게 하며 개인적으로 전생애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그분의 예표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 이것은 세상이 미처 알지 못했던 기독교의 잠재적인 자원을 풀어 내며, 동원하며, 쓰여지도록 하는 부르심이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개회예배] 축사****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인찬**

기독교 한인세계선교대회(KWMC)의 공동의장이며 금번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의 공동대회장인 정인찬 목사는 한국신학대학,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원을 나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신학박사를 수여하였다. 송전대와 호서대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휴스턴 신학대학 학장, 미주통일선교대학 학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으며 휴스턴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현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며 성서대백과사전의 편저자로 해박한 성경지식과 말씀에의 열정으로 금번 대회에서 성경강해를 통해 강력한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시대적 선교사명은 세계복음전파(Evangelization)와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중한 사명을 세계 여러 민족 중 우리 한민족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더우기 세계를 선교의 교구로 삼고 눈물과 땀으로 사역하시다가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신 선교사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영적 재충전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본 회 대표의장님과 공동의장님들, 그리고 각 회와 부서의 책임자들과 이 일을 위해 희생적으로 애쓰신 교석회 사무총장님 이하 여러 강사진들과 헌신자들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선교는 아마겟돈과 같은 종교전쟁과 동성연애와 이단 등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뉴에이지 무브먼트, 외적으로는 회교도의 여러 타종교들과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어린양이 이기고 또 이기더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최후 승리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어널드 토인비(Arnold Toynbee) 교수는 역사는 스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끌어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 분은 하나님이지요, 이 역사는 구속사요, 이 일에 동참하는 자는 구원의 추수꾼들이요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람, 곧 충성되고 진실하며 능력있는 선교사님들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이번 주제는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자"입니다.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성령의 역사로 선교의 새 장을 여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역의 탈진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름부음을 받아 다메섹에서 변화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힘있게 증거하던 제2의 바울들이 태어나는 성령세례의 날, 곧 성령행진의 기록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인도네시아선교사 **박영은**

박영은 선교사는 미주 1.5세 출신으로 선교지에서 교사 선교사로서 선교사 자녀 교육과 신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Smith College를 나와 Princeton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MA 를 받았다. 그후 필리핀 미전도 종족인 와라이족을 위해 세운 학교의 교수사역과 마닐라의 한국 아카데미에서 영어학과 책임을 맡아 선교사 자녀 교육에 헌신 하였다. 캘리포니아의 Azusa Pacific 에서 영어 교수학을 전공하고 이후에 인도네시아의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ESL 과 성경 과목을 맡아 세계 전역에서 온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네시아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방글라데시선교사 **장영인**

1995년 방글라데시로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는 장영인 선교사는 이화여대, 덕성여대,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방글라데시 질마리병원 의료사역 책임자로 있으며 현지교회 담임목사로 교회개척 사역도 감당하고 있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네팔선교사 **이춘심**

1985년 네팔 의료선교사로 파송된 이춘심 선교사는 예수간호대학,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의료선교학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카투만두신학교 학장, 히말라야선교부 설립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네팔인 남편인 반다리 락(Bhandari Lok) 목사와 함께 히말라야 선교운동에 열정적인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지도자 양성과 연장교육: 카투만두 신학교 & Kathmandu Int. College에서 북 인도, 부탄, 버어마, 네팔 그리고 티벳학생들 200명이 공부. 매년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교회개척: 졸업생들에 의한 히말라야전역에 교회개척 사회 봉사사역: 교회개척을 돕기 위한 단기 의료선교 복음의 기지건축을 위한 공립학교 교실건축, 오지 산골마을에 도로 공사와 식수공급 사역. 고아원사역. 복음 전도집회.



###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태국선교사 **윤수길**

1980년 태국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는 윤수길 선교사는 태국선교의 산증인이다. 서울대중교학과와 총신을 나왔으며 시카고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태국복음신학교(TES)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시무하고 있다

TES는 선교사들의 팀워크로 운영된다. 조직신학 제자훈련은 윤수길 한대회 선교사, 구약 어린이지도자 교육은 심태국 조위숙 선교사, 실천신학은 김진규 김은옥 선교사, 성서언어 신약은 하태민 신정연 선교사, 도서관은 오경하 선교사, 교회음악은 신정민 선교사 등 분야별로 나눠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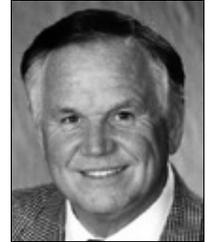


##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 [저녁선교대회 설교]

YWAM총재 로렌 커닝햄

Loren Cunningham) /YWAM총재, 열방대학 총장 YWAM(Youth With A Mission)선교회를 1960년에 창설, 현재 130개국 650여 지역에서 15,000명의 자원선교사들이 활약하는 세계최대의 초교파 선교단체로 성장시킨 그는 YWAM의 현 총재이며 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 총장이다. 3개의 학사학위와 교육학 석사, 그리고 2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291개국에서 선교사로, 복음전도자로, 기독교 지도자로, 강력한 강연자로, 선교서적의 집필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우리 동시대에 남긴 선교운동의 발자취는 가히 전설적이라 평가된다. 저서로「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예수를 주로 삼아라」,「벼랑끝 삶으로의 도전」등이 있다. 본 대회 명예대회장이며 한어권과 영어권 주강사로 섬긴다.





---

## 새벽기도회

---

선교도전/ 이장식 선교사 케냐  
설교/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

## 성경강해

---

강사/ 정인찬 목사 휴스턴한인교회

---

## 주제강연

---

주제강연 I 강사/ 오대원 목사 안디옥커넥션  
주제강연 II 강사/ 패트릭 존스톤 세계기도정보저자  
주제강연 III 강사/ 박희민 목사 새생명선교회  
주제강연 IV 강사/ 이광복 목사 목양교회  
주제강연 V 강사/ 황성주 박사 사랑의클리닉원장

---

## 저녁선교대회

---

사회/ 송용걸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기도/ 명돈의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선교보고/ 이만석 선교사 이란  
선교보고/ 김정윤 선교사 우간다  
선교보고/ 김해영 선교사 보츠와나  
선교보고/ 윤원로 선교사 카메룬  
설교/ 김흥도 목사 금란교회

# 불타는 영성을 회복하자!

## [새벽기도회 설교]

새에덴교회 담임 **소강석**



20대 후반 젊은 전도사 시절 분당에 새에덴교회를 개척하여 소목사 특유의 "맨땅, 맨손, 맨몸"의 "3맨목회" 철학을 외치며 12년의 독심목회를 한 결과 4천명 성도의 교회로 성장하여 모든 교회개혁자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던지고 있는 촉망받는 젊은 목회자로 세계선교현장을 뛰며 불을 토하는 영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광신대, 개혁신학대학, 대학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거쳐 북미 Knox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D.Min.)를 수여하였다. 한국문인협회 시인이기도 하고 개신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직도 감당하고 있다. 「맨발의 소명자」, 「불붙는 영성을 회복하라」, 「비전의 가문을 세우라」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요한복음 21:15-18]

영성이란 기독교 밖에서도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정신, 사상이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공산주의에서도 영성이란 말을 썼고 불교나 힌두교 등에서도 영성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영성과 기독교적인 영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을 잘 받고 말씀과 성령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성은 육성의 반대입니다. 육성은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길 좋아하지만 영성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길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과 선교사들은 무엇보다도 불붙는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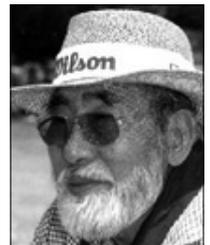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붙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영성을 회복하는 데도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 1) 불붙는 영성은 ()으로 시작됩니다. 2) 불붙는 영성은 ()으로 회복됩니다.
- 3) 불붙는 영성은 ()으로 성숙됩니다. 4) 불붙는 영성은 ()로 완성됩니다.

선교는 How to보다 Why가 중요합니다. 즉 방법론이나 어떤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불붙는 영성입니다. 불붙는 소명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부름 받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도 불붙는 영성, 소명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케냐선교사 **이장식**



케냐의 이장식 선교사는 한국신학대학(Th.B), Union Seminary of NY(S.T.M), Aquinas Institute of Theology(Ph.D)를 나왔으며 한국신학대학, 계명대학교, 한신대학/대학원, The Congregational College in Manchester, U.K에서 교수로 교편을 잡았으며 1990년부터 현재까지 케냐의 Presbyterian College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 「기독교 사상사 1.2권」, 「기독교와 국가」, 「아시아 고대기독교사」, 「한국교회백년」,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 외에 교회사에 관한 번역 및 저서 10여권이 있다.

1. 선교의 결단 2. 선교지역에서 교회의 재발견 3. 신학교육현장 4. 지역사회의 일선으로 5. 선교동역자들과의 친교와 협력

# 에스겔서에 나타난 말씀운동

## [성경강해]

휴스턴한인교회 담임 **정인찬**



미한기총 대표회장 기독교 한인세계선교대회(KWMC)의 공동의장이며 금번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의 공동대회장인 정인찬 목사는 한국신학대학,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원을 나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신학박사를 수여하였다. 송전대와 호서대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휴스턴 신학대학 학장, 미주통일선교대학 학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으며 휴스턴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현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며 성서대백과사전의 편저자로 해박한 성경 지식과 말씀에의 열정으로 금번 대회에서 성경강해를 통해 강력한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오늘날 선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도전(Challenge)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겟돈(계 16:16) 곧 종교전쟁과 신앙과 믿음의 대상을 혼란케 하는 종교다원주의(Pluralism)와 신앙과 인격과 도덕성과는 무관한 실용주의(Pragmatism)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는 Homo Sex(동성결혼)와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벨탑을 쌓는 New Age Movement와 하나님 말씀이 경시되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더우기 회교의 포교활동과 이단과 사이비들의 극성이 극에 달하여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어떤 암흑기나 도전의 시대보다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본 이상과 진리의 승리 인격의 완성 도덕의 성결은 오늘날 도전을 극복할 좋은 지침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4가지로 나누어 은혜받고자 합니다.

- I. 복음의 도전과 케류그마
- II. 말씀사역과 에스겔의 사명
- III. 주변 나라들의 도전과 하나님의 영권
- IV. 타락의 결과와 미래선교를 위한 새로운 제안

# 약속된 성령과 세계선교의 태동

## [주제강연 I]

안디옥커넥션 대표 **오대원**



David Ross: 1961년 한국에 파송된 미국장로교 선교사로 초교파적으로 청년사역을 시작하여 그것이 오늘날 예수전도단이라 불리는 단체의 출발이 되었다. 예수전도단 그 사역이 커지면서 YWAM이라는 국제적 단체와 가까워졌고 1981년에 이 두 단체는 하나가 되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 있는 한국 젊은이들을 세계선교를 위해 훈련시키는 일을 위해 안디옥커넥션(Antioch Connection)을 시작, 현재 미국 시애틀에 본부를 두고 미 전역에 센터를 통해 미주한인청년들을 향한 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근래에는 북한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념하고 있다. 아내와 세 자녀가 있으며 자녀들은 모두 한국인 아이들을 입양하여 양육하였다.

[요한복음 15:26-27]

서론 - 성령의 두가지 위대한 사역과 두가지 위대한 고백

1. 구원사역,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함 - 첫번째 고백: 아바 아버지!
2.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능력을 덧입히는 사역 - 두번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다!

### 1. 선교사정신

- \* 오순절의 성령감람은 선교의 영의 임하심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 그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 \* 위대한 선교사들은 성령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롤랜드 알렌, C.T. 스티드, 죠지 물러)

### 2. 사도행전과 세계선교

- \* 사도행전은 명령이 아닌 약속으로 시작된다.
- \* 성령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강림하셨다.
- \*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도록 내 안에 모신다.
- \* 우리는 사도행전을 올바르게 읽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역사서가 아닌 선교행전이다.

### 3. 사도행전의 패턴

성령의 임함 - 신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짐 - 부흥을 가져옴 - 언제나 진정한 부흥은 세계선교라는 열매를 맺는다.  
예) 1807년의 하와이, 1907년의 평양

### 4. 선교사들에게

- \* 모든 선교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충만하여야 한다.
- \* 모든 선교사들은 반드시 섬기는 이들을 성령께 인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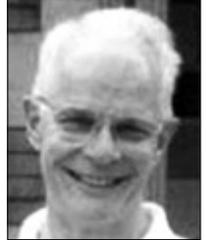
### 5. 우리의 의무

- 1) 이 선물이 그리스도로부터 옴을 믿어야 한다.
- 2) 우리 자신의 힘을 벗어버려야 한다.
- 3)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모두 이를 위해 잃어버린바 되어야 한다.
- 4)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어야 한다.
- 5)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마음을 알도록 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야 한다.
- 6)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깨어진 심령을 주시도록 성령께 구해야 한다.
- 7) 우리가 자신의 한계 너머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해야 한다.
- 8) 성령께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힘을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구해야 한다.

## 9/11 이후 세계동향과 선교의 새로운 경향

### [주제강연 II]

세계기도정보저자 **패트릭 존스톤**



Patrick Johnstone: 저자 세계선교정보의 바이블과도 같은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의 저자로 1962년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책자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후에 WEC선교회에 합류, 국제연구 디렉터로 사역하면서 선교사들과 선교지망자, 후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수집, 세계선교 완수를 위한 전략들을 개발해 왔다. 로잔협의회 전략그룹원으로, 또 기독교 21세기운동의 미전도종족네트워크의 공동지도자로 사역하였고 2001년도 세계기독교백과사전을 위한 전 세계 모든 종족에 대한 연구자료를 제공하였고 같은 해 세계기도정보 2001년도판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현재 13개 언어로 번역되어 총 2백만부 이상이 선교동반자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다.

### [시편 2편]

서론: 많은 것에 변화가 있었다

세계관, 태도, 방법론 그래도 변화가 없는 것 -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아직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

1. 열방 - 그들의 음모
2. 열방 - 그들의 심판
3. 열방 - 우리의 유산
4. 열방 - 그들의 회개

### 결론

- 9/11후 세계를 향한 찾는 이들과 가는 이들을 위한 약속
- 믿고 두려워 말라
- 철수보다는 헌신을
- 프로그램 보다는 열정을
- 시간이 아닌 영원

#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적 총동원전략

## [주제강연 III]

KWMC공동의장 **박희민**



새생명선교회 대표 나성영락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은퇴한 박희민 목사는 현 KWMC 공동의장 및 본대회 공동대회장으로 북미주 세계선교의 선봉장으로 사역해 오고 있으며 현 미주장로회신학대학 이사장, 새생명선교회 대표, 11월에 파사데나에서 열리는 빌리그래함 전도대회의 한인 대표대회장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금년은 북미한인 이민 및 선교 제 2세기를 향한 첫발걸음을 옮겨 놓는 뜻깊은 해이다. 선교 2세기를 향한 북미주 한인교회의 실존적 의미와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20세기에 들어 서면서 600여만명이나 세계속으로 흩어 살게 한데는 큰 뜻이 있는 줄 안다. 그것이 무엇인가?

1. 세계선교
2. 북미주 역선교
3.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 그리고 북한선교를 위한 섭리와 뜻이 있는 줄 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선교이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1.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한다.
2.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3. 인물이 있어야 한다.
4. 선교의 비전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가는 제2의 선교국가가 되었다. 한국교회의 부족과 회개할 점도 많지만 세계는 한국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 선교사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북미주 한국교회가 참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며 총동원 하여 선교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1. 기도운동 - 모든 위대한 영적운동과 선교운동은 기도운동에서 시작 되었다.
2. 전도훈련 및 선교교육
3. 단기선교 파송 및 참여
4. 선교하는 교회로 구조 갱신
5. 협력선교
6. 평신도 및 전문인 선교사 파송
7. 선교리더십 양육

# 종말과 재림 그리고 세계선교의 긴박성

## [주제강연 IV]

목양교회 담임 **이광복**



한국교회를 깨워 불발하고 신앙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로 단장시키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고 있는 그의 선지자적 열정은 이미 교계에 널리 알려진 바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복음적 종말론세미나는 지난 8년간 참여한 목회자만도 6만명이 넘어 자칫 오해와 박해를 받기 쉬운 종말론의 각성운동을 대중적으로 아이코닉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종말론 외에도 성경해석학, 설교학의 권위자이며 예배학, 교회음악, 셀목회 등 무려 230여권의 저술과 함께 집회를 인도했으며 세계선교의 열정도 놀라워 빌라델비아선교회를 설립하고 50여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했으며 선교사 안식관도 운영하고 흰돌선교회를 통해 인터넷선교도 크게 펼치고 있다.

[마 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 1. 끝이 올 것임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다(3절).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끝이란 마지막 때(종말) 즉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긴박한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신약성경 25구절 마다 종말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한다. 또한 마지막 때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은 모두 종말과 재림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초림과 재림, 복음전파와 종말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 2.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임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을 알 수 있기에 이는 징조이다. 재림의 구체적인 시기, 즉 그 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알바가 아니다(행 1:8). 그러나 '시대의 표적(the signs of the times)'은 분별해야 한다(마16:3). 오늘의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징조는 무엇인가? 70이레(단9:24~27)와 아시아 일곱교회(계2~3장)를 보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독립(마24:32~35; 막13:28~33; 눅21:29~33) 유럽통합(단2:34~35; 41~44; 7:23~24) 종교다원주의(계17:1~7; 15) 전쟁(계9:13~16; 단9:26) 666(계13:16~18)은 주요 징조이다. 그 외에도 테러(눅21:11, terrors (NASB)), 공해(계8:8~11; 16:3~4; 16:8~9), 성 타락(딤후3:4; 히13:4; 딤후3:4), 신앙타락(눅18:8; 딤후4:1; 마12; 37~39; 24:10; 38; 약4:4), 속도, 인구, 지식(단12:4), 등의 징조가 종말의 확실성을 더해준다.

### 3.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은 선교를 말한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신앙은 선교의 긴박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이고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이며 한국교회에 주신 종말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 전인치유선교의 새 패러다임

### [주제강연 V]

사랑의클리닉 원장 **황성주**



사랑의봉사단 단장 서울의대와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합동대학 신학원을 나와 독일 프리덴바일러 암전 문병원에서 연구생활을 했던 황성주 박사는 서울의대 등에서 교편을 잡다가 '사랑의클리닉'이라는 성인병 및 암전문병원을 설립하였다. 80년말부터 한국라브리를 꿈꾸며 국제사랑의봉사단을 창단, 전세계 어두운 지역의 이웃들을 섬기고 있으며 90년대에는 성경적 전인치유, 상담, 말씀, 전도훈련을 위해 호도애학교를 설립, 수많은 전임 사역자와 사모, 평신도 지도자들을 섬기고 있다. 이룸라이프의 황성주생식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성서 건강학」, 「생식과 건강」, 「사랑의 치유일지」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 전인치유적 접근... 건강하면 열매 맺는다 (요 15장)... 필요중심적 전도

- 1) 바른 영성의 회복.. 전인격과 전 삶의 치유와 회복(엡 1:4, 골3:9,10, 살전 5:23)
- 2) 내적치유... 죄 +상처의 결합
- 3) 지적치유... 지적 합리성의 회복,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
- 4) 대인관계의 치유... 관계의 전문가, 감정처리, 나 표현법, 성경적 리더십의 회복
- 5) 창조성의 회복
- 6) 전문성의 회복
- 7) 경제성의 회복
- 8) 자기관리능력의 회복

### 전인격과 전 삶의 회복 - 빌 2:15 먼저 정상인이 되라

- 1) 도덕성만이 회복... 영성의 괴물
- 2) 착한 불신자... 변화된 깊이를 비교하라
- 3) 자기부정... 인간을 주장하지 말고 죄성을 부정하라
- 4) 불치의 영역... 강점을 통해 성취, 약점을 통해 열매 (고후 4:7)
- 5) 전도는 쉽다... 내가 회복된 부분이 간증.... 남이 망가진 영역이 찬스
- 6) 양육이란... 형상 회복... 영적 형성(갈 4:19)

##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이란선교사 **이만석**

통합총회 국제선교부에서 1986년 이란 선교사로 파송된 이만석 선교사는 중동선교사 협의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통합 중동선교사 회장, 중동선교사협의회 교회부장의 사역을 하며 테헤란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1. 이슬람 선교의 절박성(9.11사태 이후 / 이라크 사태 등)
2. 이란 선교의 중요성(세계 속에서 이란의 정치적 위치)
3. 이란 선교의 가능성(하나님이 열어주신 문)
4. 현재 이란에서의 사역현황
5. 이란 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향후 사역 계획)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우간다선교사 **김정윤**

1985년부터 우간다에서 간호선교사로 헌신해온 김정윤 선교사는 한국월드컨선교회 소속 의료선교사로 선교오지 우간다 클루바병원과 네비교구내 골리에서 교회지도자, 평신도들을 위한 영성훈련사역, 에이즈예방 및 보건위생사역, 의료사역, 성경공부, 교도소전도사역 등을 통해 현지인들과 우간다 전대통령 영부인과 허 현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개정간호학교 졸업시 문교부 장관상을, 펜실베니아주 간호협회로부터 간호원상을 수여하였다.

선교의 장벽이 아무리 두터워도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내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세계를 향한 발바닥 사건이 계속 확장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배신하고 도망치고 실의에 빠졌던 제자들을 찾아주시고 용기를 주신 부활의 주님이 지치고 메마르고 실망될때도 있었지만 못단 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를 변화 시켰듯이 이곳 선교지의 얼어 붙은 심령들 속에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변화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보츠와나선교사 **김해영**

1990년 그루터기선교부 소속 지비량 선교사로 보츠와나에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는 김해영 선교사는 1980년 중반 각종 국내, 국제 기능대회 기계편물부문에서 수차례 1위 입상경력이 있으며 철탑산업훈장도 수여하였다. 일본에서 편물사벌과정을 이수하였다. 현재 보츠와나의 Stump V.T.I.의 교장으로 있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카메룬선교사 **윤원로**

1984년 OM선교회 둘로스선교선 승선사역으로 시작, 1987년부터 현재까지 서부 아프리카 카메룬 선교사로 검은땅을 주님의 위해 섬기고 있는 윤원로 선교사는 서울신학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993년 제4회 한국기독교 선교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세계선교를 위한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 [저녁선교대회 설교]

금란교회 담임 김홍도

다들 망해서 온다는 망우리에 김활란박사가 세운 금란교회의 강단을 33년간 지키며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외친 결과, 오늘날 10만 성도의 전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성장시킨 김홍도목사는 21세기 영계의 파수꾼이 되는 교회상을 천명하며 혼합주의신학노선과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복음주의신앙노선을 파수한 열정적인 목회자이다. 감리교신학대학을 나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과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슬레대학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대표회장등을 역임했고 ACTS 이사장, 월드컨선선교회 이사장이다.





세계를  
위한

7/28(수)

##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이에스더 선교사 중국조선족선교  
설교/ 박광재 목사 영광교회

## 성경강해

강사/ 이상남 목사 세계등대교회

##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로버트 콜맨 고든컨웰신학교교수  
주제강연 II 강사/ 서삼정 목사 아틀란타제일장로  
교회  
주제강연 III 강사/ 이동휘 목사 전주안디옥교회  
주제강연 IV 강사/ 김성길 목사 시은소교회  
주제강연 V 강사/ 강승삼 목사 KWMA사무총장

## 저녁선교대회

사회/ 김영진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기도/ 강준원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선교보고/ 이희재 선교사 러시아  
선교보고/ 신윤섭 선교사 우즈베키스탄  
선교보고/ 정흥기 선교사 루마니아  
선교보고/ 이향모 선교사 알바니아  
설교/ 장영춘 목사 퀸즈장로교회

# 성령의 권능을 갑절이나 주소서!

## [새벽기도회 설교]

## 영광교회 담임 박광재



성경의제비뽑기실천운동본부 총재 한국기독교계의 금권 불법 타락선거와 그에 따른 중상모략과 분쟁, 분열을 근절하고 학연, 지연, 혈연을 끊어 화해, 일치,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각성과 갱신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거룩한성경적제비뽑기선거제도 운동을 주창한 박목사는 교계의 호응을 받으며 교계정화운동에 신명을 바치고 있다. 영광교회를 25년간 담임하여 풍성한 목장으로 섬기며 기독교총회임원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총재, 성경의 제비뽑기선거제도실천운동본부 총재, The Holylot Mission, USA 대표이며 저서로「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제비뽑기」,「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행전과 변증론」,「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과 제도론」이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8]

금번 제5차 한인선교대회를 통하여 영적전투의 최일선에서 세계선교사역의 중추적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와 여기 모이신 선교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 전 하와이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세계선교대회에서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과 제도에 대한 선택특강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한인세계선교회 임원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고 당시에 금번대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전해 줄 것을 요청받은 이후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 선교대회를 위하여 기도해 왔으며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제가 이 선교대회에서 맡은 역할은 오늘 새벽기도회 설교와 어제와 오늘과 내일 3일 동안 총 6회에 걸쳐서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행전"에 관한 특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에서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선포되고 확산되고 행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며 성령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과 2장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성경적인 방법과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행1:4)

둘째로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행1:14)

셋째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맛디아를 사도로 보설했습니다.(행1:26)

넷째로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끝까지 기다렸습니다.(행1:4)

그리고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행2:4)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성령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살아계신 성령께서는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 주시며 가르치시며 위로해 주시며 갑절의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 위대한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재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영감을 갑절로 받은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그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것이나 그는 끝까지 따라다니며 마침내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금번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여하신 선교사님들께서도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구하시고 받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중국과 연변선교 - 왜 중요한가?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중국조선족선교 **이에스더**

이에스더 선교사는 한국신학대학및 동대학원 졸업, 연변대학 북조선문학 전공(박사과정), 1990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 전 중국, 연변 등지를 들 어간후 중국 선교의 뜨거운 소명에서 자비량 선교로 시작, 후에 파송을 받아 오늘날 까지 14년간 공산사회주의 민족선교와 탈북자 선교 사역을 통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치유와 헌신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동반자적 관계로 지어주신 땅이다. 나라를 잃었을때도 민족의 수난과 슬픔 과 고난이 있을때마다 눈물로 났으며 힘을 회복하고 새역사를 창조하는 힘을 얻었던 만주가 그 곳에 있으며 지금도 세계에 없는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이루어 우리 중국동포들에게는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곳이다. 200만이라는 가장 큰 재외 동포사회로 당당한 소수민족으로 그사회에 충분히 기여하고 앞으로도 뿌리내려 살아가야할 곳이다.

특히 유례를 볼수없는 민족분단과 갈등의 골이 파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대립되어 아직도 한반도의 허리가 잘려있는 이 현실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 지난날의 대립과 상처, 미움과 전쟁의 위협과 불신, 두려움으로 깊이 패여온 그골 과 이질문화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멧세지로 회복하고 치유할것인가. 이는 한반도의 문제뿐 아니라 아직도 세계에 팽 배하고 있는 전쟁과 불신과 대립에, 변화되고있는 공산주의 체제에 따는 사회문화적 고뇌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응 답하여 창조적 영성을 회복하게 돕느냐, 어떻게 나의 형제의 연약함을 던지않고 창조적으로 더불어 살아갈수 있느냐는 구체 적인 평화선교과제가 제시되고 있는 곳이다. 이는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사적 과제를 풀어가는 길이기도 하다. 중국과 연변 선교는 사회주의 문화권이면서 아직도 해결되지않은 민족의 평화통일의 과제가 있는한 또 한반도와 영원히 함께 살아갈 동 반자인한 이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선교과제 일것이다.

## 요나서에 나타난 선교도전

### [성경강해]

세계등대교회 담임 **이상남**

LA세계등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상남 목사는 성결교신학대학, 숭실대학,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에서 목회학 박사를 수여했다. 왕의 복음센터(The King's Gospel Institute) 원장이며 저서로 「주와 동행하는 생활(왕의 복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배의 복음)」 등 다수가 있다. 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본대회 공동대회장이다.



추수시대 부름받은 선교사역자의 영적각성

[요나서 4:9-11]

먼저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허락하여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오늘날 추수 종말시대 부름받은 선교사역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시대인가? 또한 이런 시대 부름받은 우리 선교사역자들의 영적상태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결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주제강연의 본문으로 선택한 요나서를 중심으로 "추수시대 부름받은 선교사역자의 영적각성의 비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영적도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 추수시대 부름받은 선교사역자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려면, 이 시대 주의 종들을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시급한 경고와 탄식의 음성을 믿음의 귀로 듣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합심기도 운동이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요나서 1:6 "자는 자여! 어찌이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2. 추수시대 부름받은 선교사역자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려면 내 나라 내 민족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풍랑의 원인이 바로 "요! 나 때문이다!"라는 철저한 자각과 통회자복으로, 먼저 내 자아가 온전히 깨어져, 내 혼 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충만하게 살아가는 "영성회복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요나서 1:12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줄 내가 아노라!" (갈 2:20 참조)

3. 추수시대 부름받은 선교사역자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려면 죄인 하나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의 심정을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나서 4:10-1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루 밤에 났다가 하루 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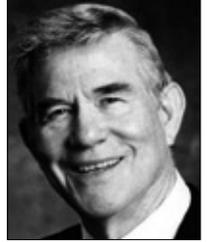
사랑하는 한인세계선교동역자 여러분!

금번 역사적인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새롭게 영적으로 각성하는 가장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 천국추수의 축제적 삶

### [주제강연 I]

고든컨웰신학교 교수 **로버트 콜맨**



Robert Coleman: 빌리그래함전도협회 회장 전도학과 제자훈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그는 현재 고든컨웰대학에서 전도와 제자훈련 교수로, 윌트대학의 빌리그래함전도협회의 지도자로 오랫동안 사역해 왔으며 로잔세계복음화운동의 창단멤버로 활약한 바도 있다. 남서부대학에서 학사, 에스베리신학교와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석사, 아이오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였고 세계선교와 전도, 제자훈련에 관한 수백편의 글을 발표하였으며 95개국어로 번역되었고 영어뿐만 아니라 5백만권 이상이 출판된 「전도의 마스터플랜」을 비롯하여 「천사와 함께 찬양을」, 「다가오는 세계적 부흥운동」 등 20여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 [요한계시록 7:9-17]

사도요한이 보았던,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있는 것을 그려보라,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라.

대사명은 달성되었다!

그리고 어떤 행위든지 대사명을 이루는데 기여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헛되이 노력한 것이다(9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결되었다고 온 세상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음을!(10절). 이 임무를 완결해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일에는 십자가가 따른다(13-14절). 하지만 우리 모두 이 영광의 잔치에, 영원한 어린양 찬양에 함께하도록 하자(11-12절). 이것은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영원을 살 수 있다.

# 선교활성화를 위한 성령의 음성듣는 삶

## [주제강연 II]

공동대회장 **서삼정**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담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대표의장이며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4) 공동대회장인 서삼정 목사는 「조약돌」 등의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며 영성운동가로 「영성이 살아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 등의 저서를 펴내기도 하였다. 현재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에서 담임목회자로 시무하고 있다.



### 머리말

성령과 의논하는 삶은 우리 영으로 영위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영은 성령과 접촉하는 법과 성령의 음성 듣는 법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옳게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방법을 쉽게 배워서 하나님 이 목적하신 대로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 제1장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

우리 영을 살리시는 성령, 성령과 교제하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

### 제2장 성령이 말씀하시는 아홉 가지 방법

- 방법 1: 우리 영을 일으키신 후에 말씀하신다
- 방법 2: 영의 인격에 말씀하신다
- 방법 3: 영음으로 말씀하신다
- 방법 4: 우리 입으로 말하게 하신다
- 방법 5: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 방법 6: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다
- 방법 7: 예언, 환상, 꿈으로 말씀하신다
- 방법 8: 표적과 기사, 치유로 말씀하신다
- 방법 9: 사람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 제3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다섯 가지 원리

- 원리 1: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 편히 앉으라
- 원리 2: 성령을 의탁하고 성결한 심령과 사랑이 넘치게 하라
- 원리 3: 간단히 묻고 기다리라
- 원리 4: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반문하라
- 원리 5: 성령의 음성을 식별하라

### 제4장 사탄의 음성 식별 방법

사탄과의 영적 싸움, 사탄이 인간에게 행하는 일, 사탄이 사용하는 말

### 제5장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의 열 가지 축복

- 축복 1: 순종을 배우면 성공의 길로 들어선다
- 축복 2: 성령이 선행하시면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 축복 3: 성령과 다투지 않으면 평화를 얻는다
- 축복 4: 성령은 작은 일도 아름답게 만드신다
- 축복 5: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면 삶의 필요가 채워진다
- 축복 6: 성령은 우리를 영웅으로 만드신다
- 축복 7: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
- 축복 8: 성령을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면 쉬을 얻는다
- 축복 9: 성령은 시작하신 것을 이루신다
- 축복 10: 성령을 좇아 살면 자유함을 얻는다

### 맺음말

## 선교사로의 위대한 출발

### [주제강연 III]

### 바울선교회 회장 이동휘



전주안디옥교회 담임 세계선교를 위해 1983년 교회재정의 60%이상을 선교비로 쓴다는 창립정신으로 개척한 전주안디옥교회(일명 강통교회)는 양철콘서트건물에 모인 2,700명의 교인이 160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매월 10만불 이상의 선교비를 지급하고 있다. 1986년 선교의 규범인 사도 바울의 선교정신을 이어받자는 뜻에서 「바울선교회」를 세우고 현재까지 72여개국에 24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며 아직도 선교의식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전체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의 도전적 메시지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목회자이다. 한신대학교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나왔으며 저서로 전주안디옥교회의 이야기를 담은 감동적인 「강통교회이야기」가 있다.

- 첫째, 해외선교사가 됩시다.
- 둘째, 부모는 자녀를 선교사로 바치는 부모선교사가 됩시다.
- 셋째, 기도선교사가 됩시다.
- 넷째, 물질선교사가 됩시다.
- 다섯째, 직장 선교사가 됩시다.
- 여섯째, 가족 선교사가 됩시다.
- 일곱째, 문화선교사가 됩시다.
- 여덟째, 길거리 선교사가 됩시다.

# 한국교회 100년사의 선교적 고찰과 과제

## [주제강연 IV]

GMS 이사장 **김성길**



시온소교회 담임 6대에 걸쳐 면면히 계승된 한국 초대교회 신앙의 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칼빈신학교, 총신신학대학원, 대만 아세아신교대학원(Th.M.)을 나와, 미국 South 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박사 학위(D.D.)를 수여했으며 1975년 개척한 수원 시온소교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동시에 GMS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으로, 스칸디나비아 선교교회장으로 세계선교사역에도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영성훈련원, 수도성경신학원, 수원 평신도선교훈련원 등의 대표이며 CBS(기독교 방송) 부흥선교단 공동회장이자다. 저서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도우시는 하나님」, 「교회론」, 「봉사론」 등이 있다.

### 1. 서론

21세기 세계 선교의 흐름은 큰 변화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 세계가 복음화와 선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21세기의 선교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현대 선교는 북미와 영국 등 서구 교회가 주도해 왔으나 오늘날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기독교의 축이 서구 세계에서 제 삼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선교사 파송은 매우 어려운 세계의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서구권 국가로부터 3배 이상 증가했다. 2000년에는 비서구권 선교사가 전체의 55.5%로 서구 선교사 수를 훨씬 능가했다. 2000년도 한국교회는 제 삼 세계 선교단체 가운데에서도 가장 유력한 선교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는 선교 환경 속에서 서구교회의 대체 선교세력으로서 한국교회의 100년 선교 역사와 선교 현황 및 향후 과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한국 선교 어디까지 와 있나?

#### 1) 복음의 도래와 한국 교회 초기선교

19세기 이래로 서구의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모토로 하여 복음전파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교운동을 주도한 것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개신교회였는데, 이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선교는 1866년 영국 토마스(Robert J. Thomas)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어 1884년 9월에 입국한 의료 선교사로서의 의사 알렌(Horace N. Allen)과 교단의 선교사 직분으로 파송 받은 장로교의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젤러 두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는 1885년 4월의 부활 주일 아침에 인천항을 통하여 한국에 첫발을 디딤으로서 한국 선교의 시작을 이루게 되었다.

한국 땅에서의 복음 선교는 장로교와 감리교라는 두 흐름이 주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이한 것은 그 단체에 속한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서로 공의회를 만들어 선교지에 대한 적절한 연구와 배분을 통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낯선 이방의 땅인 조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가졌던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타민족이나 타 지역을 향한 선교적 사명과 전통이 있었다. 그 결과 복음을 받은지 23년 만인 1907년 장로교회의 독립노회가 조직되자마자 한국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로 파송한다. 1909년 최관환 목사를 시베리아로, 1910년은 김지근 목사를 만주로, 1912년에는 최성주 목사를 북간도에, 같은 해 손정도 목사를 시베리아로, 1918년에는 김현찬 목사를 러시아로, 1921년 정재덕, 최수영, 배형식 목사를 만주로 파송하는 등 상당한 선교적 열심을 일으켰다. 한국교회의 선교적 열심은 이후에도 중국과 몽골 등을 향하여 불같이 일어났다.

일제 식민 통치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직 역사가 짧은 한국 장로교회는 63명의 선교사들을 주변국에 파송했으며, 감리교는 33명을, 성결교회는 12명, 침례교회가 12명을 파송했다. 총 1902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수는 119명에 이른다. 또한 이 시기의 한국교회 선교는 해외에 흩어진 동족 선교에 큰 관심을 가지는 특징을 보이며, 교단 별로 총 255명의 교포 선교사를 8군데의 선교지에 파송했다. 또하나의 특징은 교단이 선교의 주체 세력이었다는 점이다.

## 2) 2차 대전 이후의 한국 선교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은 특히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주춤하였다. 그러나 공산화된 중국 본토를 포기하고 한국 교회는 새로운 선교지를 탐색, 태국과 대만에 최찬영, 김순일, 계화삼 목사를 파송하였고, 태국선교는 진정한 의미의 제 2차 대전 이후 타문화권 선교였다. 그후에도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브라질, 멕시코, 미국 등으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여 1973년에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234명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선교 사명을 활발히 수행해온 선교조직들이 있었다. 조동진 박사가 지휘하는 국제선교협력기구(KIM), 김활란 박사가 이끄는 이화여자 대학교 선교회 등이 있었다. 이 시기에 각종 초교파 선교 조직들이 활성화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단의 비효율적인 선교행정과 역량 부족 때문이었다.

## 3) 고속 경제성장과 현대 선교운동

1980년대는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받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크게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한국 선교회의 증가는 1979년 21개 선교기관이 26개국에 9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1982년에는 47개의 선교기관이 37개국에 323명을, 1989년의 선교사 총수는 1,178명이었다. 1992년 2,576명, 1994년 3,272명, 1996년 4,402명으로 증가했으며, 1998년 5,948명, 2004년 현재는 170개국에 12,000여명의 한국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한국교회 선교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선교사 파송 대국이 되었는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중심 선교세력으로 성장한 요인으로는 70년대 교회의 급성장, 놀라운 경제 성장, 국가의 개방 정책, 능력있는 선교회 지도자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 3. 한국선교의 문제점과 과제

100여년의 선교역사를 가진 한국 교회의 선교는 이제 세계 2위의 파송대국으로 발전,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선교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지만, 현지 교회와 한국교회로부터 비판을 받는 몇 가지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다. 첫째는 한국교회의 선교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일을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 때문이다. 둘째는 선교사 자신들이 문화, 언어 그리고 상황화에 대해 잘 준비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셋째,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타문화권 사역의 기초를 닦아야 할 선교사들에게 너무 큰 사역의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선교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 교회는 선교의 양적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 이제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반성하고 선교사 파송 대국에 걸 맞는 선진 선교로의 질적인 성숙을 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 1) 선교사의 전략적 배치

선교사의 전략적 배치에 관한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선교사의 92.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선교사의 도시 집중 현상은 선교사역의 전략적 배치 부재와 선교자원의 중복성을 짐작케 한다. 물론 주요 선교사 파송국 대상 1위가 필리핀에서 중국으로 바뀐 것은 한국 선교가 이제는 선교사 배치를 개척 선교쪽으로 전략적으로 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기는 한다. 그러나 한 국가내 선교사의 전략적인 적절한 배치는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다.

또한 선교지 선정도 파송기관의 주도비율(36%)보다는 개교회나 선교사 개인이 주도하는 파송경향(58%) 때문에 선교자원의 중복투자와 낭비는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교기관, 후원교회, 선교사 그리고 선교현장 간의 협력과 역할 분담 등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바른 파송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선교지 상황에 대한 이해와 연구

한국교회의 선교 사역 대상국은 매년 증가해 왔으며 이제 170여개국이나 된다. 한국 현대 선교 초기에 주류를 이루었던 중남미와 아프리카, 유럽은 점차 줄어들고 아시아권이 45.5%로 아시아권이 한국선교의 주요 선교지가 된 것은 고무적이다. 아시아는 한국의 유사문화권으로 한국 선교사들이 보다 전략적,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중동도 5%가 넘는 것을 보면 이제 한국 선교가 개척 선교 방향으로 나아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화된 선교지는 그만큼 한국 선교사가 선

교지 문화와 언어, 상황화 등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준다.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당면하는 문제들은 언어 24.9%, 경제문제 21.7%, 영적 슬럼프 13.3%, 자녀교육 11.1%로 나타난다. 언어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언어 훈련은 곧 선교지 문화 적응 훈련과 직결된다. 그 나라의 사역 전략 지식이 미비할 때 선교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현지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져 복음을 현지 문화에 적절하게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가시적인 결과들을 요구하지 말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 3) 선교지별 긴밀한 협력의 필요

한국 교회의 선교대상국이 170여개 국이라는 것은 곧 선교지별 긴밀한 협력과 팀 사역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방대한 선교 사역지에서 한국 선교사들의 각개 전투식 사역은 선교자원과 재정 낭비, 전문성의 결여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한국선교의 부실을 낳게 된다. 160여개 한국의 선교단체들이 파송한 12,000명의 선교사들이 서로 경쟁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비전과 분명한 목적의식에 따라서 팀으로 협력사역할 때 선교사역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 4) 선교사에 대한 목회적 관리 시스템의 필요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대량 파송하는 놀라운 양적 성장을 한 반면 내부적으로는 빈약한 회원관리 체제를 가지고 있어 선교사역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급성장에는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이다. 선교사 숫자의 증가는 파송교회와 선교회들이 선교사들을 돌보고 지원해야 할 일이 많음을 의미한다. 한국 교회 선교가 선진 수준의 선교가 되려면 이제는 파송된 선교사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들의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선교사에 대한 목회적 관리가 배려되어야 한다.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 경제문제 21.7%, 영적 침체 12.3%, 자녀교육 11.1%라는 통계를 볼 때 선교사의 목회 배려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선교사들은 슈퍼맨이 아니다. 타문화권에서 사역은 치열한 영적전쟁과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그 가운데 선교사들은 정신적, 영적, 정서적 어려움도 겪으며 타문화권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는 이중적 부담도 갖고 있다. 특히 선교사 자녀교육 문제는 선교사 배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선교사 자녀 교육에 대한 배려도 요구된다. 자녀교육 때문에 선교사들이 도시에 집중 거주하는 성향이 늘고 오지의 미전도 종족에게 배치되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선교사에 대한 목회적 관리 체제의 성숙은 한국 선교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 4. 결론

한국교회의 선교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일제 식민지 압제와 6.25 전쟁과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도 한국 선교사들은 증가했다. 현대 선교 30년이란 짧은 역사 가운데 미국에 이은 제2위 선교사 파송 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쇠퇴해가는 서구 교회를 대신할 선교세력으로 한국을 준비시키고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한국 선교가 한 때 지나가는 선교운동이 될 것인가, 아니면 21세기 선교를 주도해 나가는 선교운동이 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선교 단체들과 교회들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이 여러 가지 있으나 무엇보다 한국 선교사들의 전략적 배치를 위한 선교정책이 단행되어야 한다. 선교사, 선교단체와 현지 교회들 간의 상호 협력 정신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복음을 타문화권에서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선교사들의 선교지 이해와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끝으로 많은 해결 과제들이 있지만 한국 선교사 인적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와 보호는 한국 선교를 세계 속의 선교로 업그레이드 하는 길이 될 것이다.

# 한인세계선교현황과 교회선교활성화의 과제와 전망

## [주제강연 V]

KWMA사무총장 **강승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복음적인 교단, 교회 및 초교파 선교단체가 정보, 훈련, 전략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협력과 연합을 통한 선교네트워크를 만드는 막대한 사역의 실무자로 쓰임받는 그는 이미 12년간 GMS-PCK/SIM-ECWA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헌신하여 ECWA Billiri 신학교를 설립, 선교신학 및 성경신학교수, 교회개혁과 현지지도장 양성 등의 사역을 했다. 총신대신대원(M.Div.), 컬럼비아국제대학(M.A. in Mission)을 나와 미국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총신대신대원의 교수 및 학장으로 EFA/MC, KEF/MC, CCK/MC의 의장이며 WEA/MC의 이사이다.

### I. 서론: 왜 교회선교 활성화가 필요한가?

#### II. 교회선교 활성화 관점에서의 한인 미전도종족선교운동에 대한 회고

1. 기존 교회선교 활성화에 대한 논의들
2. 한인교회 미 전도종족 입양운동에 대한 회고
3. 종족입양 전략의 새로운 시스템: 종족분담 전략
4. 작은 교회들의 협력선교

#### III. 한인 세계선교사의 현황

1. 2004년도 한인선교사 파송현황
2. 주요 교단선교부/회 선교사파송현황과 비율
3. 교단선교부의 교회선교 활성화 방안
  - 1) 교단 내에서 교단선교부의 자율적 위치 확보하라
  - 2) 교회선교활성화를 위한 내부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 3) 교회의 선교전담 부서를 설치하라
  - 4)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평신도와 조기 은퇴한 전문선교인력도 중요하다
  - 5) 지방의 작은 교회들을 선교에 참여하도록 활성화하라
  - 6) 교회선교활성화를 위해 단기선교 팀을 활성화하라

#### IV. 교회선교 활성화를 위한 KWMA와 KWMC의 과제

1. 선교계 외부 공론의 장 제공
2. 선교계 내부 교류의 장 제공
3. 교회선교 활성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개발 및 보급
4. Sodality와 Modality의 교류를 통한 상호보완 유도
5. 회원교단, 선교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단기선교정책개발

#### V. 결론: 한인세계선교의 전망

##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러시아 선교보고"

러시아 선교사 **이희재**

1994년 예정통합 러시아선교사로 파송되어 현재까지 사역해 오고 있는 이희재 선교사는 구 레닌그라드,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성령의 살아있는 선교공동체, 미르신학교, 미르선교회, 미르교려인교회, 여러 현지인 교회 및 금요기도성회 등 여러 선교사들과 함께 더불어 연합사역 중이다. 장신대 신대원, 싱가포르문화권 선교훈련원 수료, 시카고 맥코믹신학대학원(MATS)에서 공부하였다. 구소련 한인선교사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였다. (www.mirmission.net)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우즈베키스탄 선교보고"

우즈베키스탄 선교사 **신윤섭**

우즈베키스탄에서 11번째 선교의 씨를 뿌려온 신윤섭 선교사는 서울총회신학교를 나왔으며 교회개혁, 신학교, 현지인 훈련등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GMS소속 선교사이다.

선교의 장벽이 아무리 두터워도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내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세계를 향한 발바닥 사건이 계속 확장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배신하고 도망치고 실의에 빠졌던 제자들을 찾아 주시고 용기를 주신 부활의 주님이 지치고 메마르고 실망될때도 있었지만 못단 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를 변화 시켰듯이 이곳 선교지의 얼어 붙은 심령들 속에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변화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루마니아 선교보고"

루마니아 선교사 **정흥기**

정흥기 선교사는 1986년 3월 AFC(Ambassadors For Christ)선교회 창립총무로 사역한 후 1992년 유럽 선교사로 파송되어 스위스에서 1년반 사역 후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교회개혁, 현지인 지도자양성, 개혁주의 신앙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라보도대학교)을 졸업하고 영국 첼튼햄대학 개방신학교 수료 후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에서 MA학위를 취득했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알바니아 선교보고"

알바니아 선교사 **이향모**

1985년 독일로 파송되었다가 현재 알바니아로 옮겨 사역하고 있는 이향모 선교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라퀴시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1994년 교육부 장관 인준하에 라퀴시 고등학교에 컴퓨터 교육을 공교육으로 실시하며 영어교육을 통한 선교사역도 펼치고 있다.

알바니아에 70%의 회교인들이 있으나 중동이나 아랍의 회교도들과는 전혀 다른 맹목적 회교인들이 대다수이다. 정치, 사회, 종교적 대립이 전혀 없고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선교적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주의적 배금주의 사상과 이단들의 활동이 강화됨으로 영적전투가 치열한 곳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알바니아를 복음화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다. 후방의 기도후원과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 성령, 순교, 선교 - 성육신의 선교 - 인류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후작전

## [저녁선교대회 설교]

공동대회장 **장영춘**

퀸즈장로교회 담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공동대회장인 장영춘 목사는 총회신학교, 미국 Central신학교(Th.M), Faith신학교(D.Min), California 신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를 수여하였고 뉴욕지구교회협의회 회장,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미주기독교 북방선교회 이사장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부장, 미주 크리스찬신문 발행인, 동부개혁장로교회 신학교 교장(미주총회)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 「살아있는 나침반」, 「아가페와 필레오의 대화」, 「예수님의 눈물」 등이 있다. 뉴욕의 퀸즈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서론 - 성육(成肉)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1-18)

I. 성령 (누가복음 1:26-38, 사도행전 1:8)

II. 순교 (사도행전 7:54-60)

III. 선교 (사도행전 8:1-8)

결론 - 영광 (요한계시록 7:9-17)





##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이주태 선교사 멕시코  
설교/ 송석홍 목사 중부명성교회

## 성경강해

강사/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 수정교회히스패닉목회

##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루이스 부시 World Inquiry 대표  
주제강연 II 강사/ 강영우 박사 미국백악관정책차관보  
주제강연 III 강사/ 김만우 목사 필라제일교회  
주제강연 IV 강사/ 토마스 왕 Great Commission  
Center  
주제강연 V 강사/ 류효명 장로 KWMC평신도운동본부  
본부장

## 저녁선교대회

사회/ 황의춘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기도/ 전덕영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선교보고/ 박집밥 목사 나성영락교회  
선교보고/ 김동승 선교사 북미오전도종족  
선교보고/ 최상호 선교사 에콰도르  
선교보고/ 임한곤 선교사 파라과이  
설교/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 기도의 불길로 선교의 광야를 태우자!

## [새벽기도회 설교]

중부명성교회 담임 **송석홍**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0여년간 뉴욕 임마누엘교회, 필라델피아 새순교회 등 북미주 이민교회의 황량한 평원에서 우리와 함께 고생하던 송목사는 한국으로 건너가 지난 10년간 중부권 청주에서 중부명성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놀랍도록 대형교회로 성장시켰으며 청년시절 대학생선교회(CCC) 대표간사로 활약할때 받은 선교사명을 좇아 24개국에 44명의 선교사 파송 및 후원, 8개 선교단체 후원 등 세계선교사역에도 크게 헌신하고 있다. 금번 대회에서 선포할 새벽기도회의 감동적인 메시지를 기대한다. 장로회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거쳐 New York Seminary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마태복음 7:7-12]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제시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만 얻어서 되는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다. 평안, 건강, 치유, 사죄함, 영적 은사, 사명완수, 그 외 일용할 양식 등 너무 많다. 이것들이 모두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인데(약1:17),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는 것이다. 즉 자녀 된 권세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갖 선물을 얻는데 그냥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큰 권세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1. 구할 때만 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평생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얻지 못하는은 기도하지 아니함이요(약4:2)하셨다. 모든 좋은 선물들을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다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권을 원하셨고, 사권속에서 필요를 채우신다."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그러면의 의미가 있다.기차는 레일 위로만 달린다. 하나님도

약속하신 말씀으로만 시행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다 믿을 수 없게 된다.

2.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히5: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새벽미명에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의 양과 기도의 방법을 달리해서 기도하셨다. 사역을 시작하시기전 40일 금식기도, 제자를 선택하실 때 철야기도, 겹세마네동산에서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 등 주님의 모습이 다르다.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함과 열정이 있다. 주님은 차던지 덤든지 하라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보시는 것 아니고 우리의 목소리와 눈물까지도 보신다. (막10장 소경 바디매오) - [렘29:12-13]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3.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눅18:1]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불의한 재판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연속 세 번이나 하셨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 머리를 무릎사이에 쳐 박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7번 반복했다. 그

리므로 3년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왔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0동안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120문도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모범 사례다.

#### 4.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함과 풍성함을 믿고 기도하라.

[약1:5-8]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 5.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대접하면 기쁨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마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야곱은 음식을 대접하고 복을 받았다. 사렙다 과부는 빵 한 쪽을 대접하고 3년동안 양식을 얻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요삼1:4]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또 아버지께 열매를 맺혀드려야 합니다. - [요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를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 [시66:18]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이 시대 최고의 기도는 영혼을 건지게 해 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눅10:2]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내 자신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교회가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바울같은 능력 있는 선교사도 선교지에서 성공적인 말씀사역을 위해 기도로 도와주기를 원했다. 물질보다 기도가 위력이 있다.

#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멕시코선교사 **이주태**

1983년 멕시코로 파송받은 이주태 선교사는 교회개혁과 고아원 사역을 하였으며 현재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총회신학교를 졸업하였고 KIM(Korea International Mission)에서 훈련을 받았다.

사도행전 1:8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증인이 되리라는 동사는 미래예언형 명령사이다. 따라서 선교는 명령이고 예언이다. 따라서 선교는 반드시 해야하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한민족과 한국교회를 통해서 21세기에 세계복음화의 목표가 달성될 것을 믿는다.

저는 21년동안 멕시코 선교지에서 성령의 임하심 - 권능의 체험 - 복음화 - 시련과 박해라는 사도행전의 패러다임을 체험하였다. 성령이 임하실 때 복음화의 역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시련이 있었다. 그러나 시련 후에는 또 성령이 임하셨다.

제가 20여년간 필드에서 뺏속깊이 들어가도록 배운 것은 아무리 선교의 목표와 동기와 열매가 좋아도 방법이 의롭지 못할 때에는 무너진다는 것이다. 은혜와 영으로 사역하지 않을 때는 쓰임받고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는 4년전 부터 신장이 나빠지고 2년전 부터는 완전히 탈진되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뉴저지에 있는 베다니감리교회의 도움으로 투석을 통하여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다.

사랑하는 선배, 지도자, 동역자, 후배 여러분...

20년 넘게 섬겨온 필드가 비어 있다.

저는 투석 때문에(일주일에 3번)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뉴저지에 머무르고 있다.

100여 원주민교회와 바이블캠프가 지도자의 공백으로 흔들리고 있다.

원주민교회는 목회할 선교사가 필요하다.

센터에서 성경을 가르칠 선교사도 필요하다.

신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칠 음악선교사가 필요하다.

컴퓨터나 영어를 가르칠 자원봉사자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으니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

##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역사 - To Every Creature: Our Mission in the Gospel

### [성경강해]

수정교회 히스패닉목회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

Juan Carlos Ortiz: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신으로 20세부터 아르헨티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는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친 아르헨티나의 영적갱신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믿음교회의 목회성공은 그를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로 만들어 주었다. 1974년 스위스의 로잔대회 주강사로 초청을 받은 것을 계기로 오르띠즈의 영향력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제3세계 지역을 넘어 동구권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까지 퍼져 나가게 되었다. 현재 미국 Garden Grove에 있는 수정교회에서 히스패닉을 위한 목회를 하며,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하였다.



### 우리의 할일은 무엇인가?

1. 인류의 상태 2. 무엇을 위한 새 피조물인가? 3.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4. 진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5. 우리의 할 일을 정의하자. 6. 목회자와 장로를 위한 도전

###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1. 비전 2. 가능성 3. 꼬끼리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4. 목회자와 장로를 위한 도전

## 세계복음화 퍼스펙티브 - The Perspective of World Mission

### [주제강연 I]

World Inquiry 대표 루이스 부시

Luis Bush: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엘 살바도르에서 선교목회의 큰 열매를 거둔 후 1986년부터 50개국에서 현지인사역을 하는 파트너 인터네셔널 총재로 2,800개의 교회를, 그 중 80%를 10/40창 지역에 개척하였다. 1989년 마닐라 로잔대회에서 선교 초점 지역으로 「10/40창」 개념을 주창하였으며, 1993년부터 기독교 21세기운동의 국제총무로 매년 수천만명이 참여하는 미전도종족 중보기도운동인 창을 통한 기도를 주도하였고 서울 GCOWE 95에서 여호수아작전운동을 일으켰다. 현재 전세계 선교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세계문의(World Inquiry)운동을 진행중이며 여기서 나온 주제들은 2004년 9월에 열리는 로잔포럼에서 의제로 나누어진다.



지난 3년간 전세계 850개 도시의 선교지도자들의 세계선교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전망을 듣고 조합하는 세계문의(World Inquiry)운동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세계선교에 있어 새로이 불어오고 있는 새롭고, 강권적이고 동반자적인 물결을 볼 수 있었다. 경청의 힘을 중시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길을 찾아가고 있으며 그것을 오늘 귀한 한국의 선교동반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 고난과 역경을 기회와 축복으로!

### [주제강연 II]

미국백악관 정책차관보 **강영우**



시각장애의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인간승리의 위대한 생애를 개척한 강박사는 동양인 최초로 美 부시행정부의 장애인 정책차관보로, 유엔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루스벨트재단 고문으로, 그리고 미상원 선정 존경인물로 Honorable의 칭호를 받은 최고위 공직자로서 한민족의 위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 산신앙의 증인이다. 그의 탁월한 생애는 한국에서 영화와 방송드라마 '눈먼 새의 노래'로 방영됐고, 자서전 「빛은 내 가슴에」는 6개국어로 출간됐고,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의 꿈」, 「내 안의 성공을 찾으라」 등 7권의 베스트셀러가 있다. 첫째 아들은 듀크대학 안과교수로, 둘째 아들은 미상원의원 최연소 고문변호사이다.

[로마서 8:28, 고린도후서 12:7-10]

시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병실에서 눈물로 기도를 할 때 문자생활은 영영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명의 절망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과 재미와 교훈을 주는 저술가로서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양친과 누나마저 잃고 가난과 온갖 역경 가운데 한사코 밤하늘의 별을 찾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난과 역경을 통해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인간의 고귀한 가치인 신앙, 결심, 끈기를 배우게 하시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꿈을 지니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맹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천대와 멸시를 받을 때는 실명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고 열등감, 패배감,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던 나를 미국 대통령 임명을 받아 임명 동의안이 상원 인준을 받는 연방 정부 최고 공직중에 당당히 포함되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행여 나의 실명이 자녀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우려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장남 진석은 의학박사 안과 전문의사가 되게 하시고 차남 진영은 법학박사 변호사로 상원 법사위원회 법률고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을 역할 모델로 고난과 역경을 기회와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의 육신의 가시가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이었다면 나의 실명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면 나의 눈을 안 고쳐 주신 것도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컨대 사도 바울과 나의 처지를 동일시해 가면서 나를 괴롭히던 신앙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진리의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강박사를 보라. 그는 인생에 등을 돌려야 할 절망적인 인간의 한계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력하고 투쟁하여 오늘날 주류 사회에 우뚝 설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가면 밝은 새벽이 오듯이 승고한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하면 그것은 보통 사람을 위인이 되게 하는 도구요 자양분이 되게 됩니다.

# 13억 모슬렘선교의 관문을 뚫어라!

## [주제강연 III]

공동대회장 김만우



필라제일교회 담임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 담임인 김만우 목사는 현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자 본대회 공동대회장으로 연세대학교와 동대학원,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재미 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 중동선교사협의회(MEMA) 고문, 밀알선교단 고문, 중동선교대학원장, 재미학생신앙운동(SFC) 지도위원장이다.

[사 19:19-25]

### 들어가는 말

20세기 말엽부터 선교의 땅끝이 어디냐하는 관심이 높아져서 여러가지 연구결과가 나온 중에 대개 다음의 6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1) 지리학적인 관점 - 지구가 둥그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동서남북 어리로 가나 원점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유대인 복음화가 땅끝이라는 것. (로마서 9-11장)
- 2) 그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지금의 폴투갈 최서단. 이 지역은 그 당시 스페인 땅이었다.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고자 한 이유. (로마서 15:22-33)
- 3) 복음의 방향(복음의 서진) - 아브라함 가나안 이주. 출애굽 이스라엘의 지성소 방향(사도행전 16:6-10). 지금까지 선교의 주 방향 - 10/40창 지역.
- 4) 복음화의 관점(마 24:14, 28:19-20) - 미전도 종족
- 5) 문화권의 관점(비기독교문화권) - 공산권,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유대권, 전통종교권.
- 6) 나의 관점(나의 선 곳)(수 5:15) - 삶의 자리

### 1. 중동이 어디냐?

- 1) 지리적 - 10/40창 지역
- 2) 종교적 - 이슬람교, 유대교
- 3) 인종적 - 아랍인과 비아랍인
- 4) 언어적 - 아랍어와 비아랍어
- 5) 역사적 - 성경의 무대

### 2. 중동의 특징

- 1)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발상지 - 성지
- 2) 세 종교의 일반적 공통점
  - A. 구약성경 인정,
  - B.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처,
  - C. 예루살렘 성지,
  - D. 재림의 장소
- 3) 세 종교의 차이점
  - A. 경전
    - 유대교 - 구약성경, 외경 (탈무드, 미쉬나)
    - 이슬람교 - 구약, 신약성경일부, 쿠란(Quran)
    - 기독교 - 신구약 성경
  - B. 예배일
    - 이슬람교(금)
    - 유대교(토)
    - 기독교(일, 주일)
  - C. 신관
    - 유일신관(유대교, 이슬람교),
    - 삼위일체 유일신관(기독교)
  - D. 메시아관 -
    - 유대교(대망)
    - 이슬람교(마호메트),
    - 기독교(예수 그리스도)
  - E. 구원관
    - 이행득구(이슬람교, 유대교),
    - 이신득의(기독교)

### 3. 중동 이슬람권의 구분

- 1) 아랍계-비아랍계 (언어, 문화, 인종의 관점)
- 2) 기독교에 대한 태도
  - A. 절대 금지국가
  - B. 상대적 금지국가
  - C. 족보교인 인정국가
  - D. 타민족 교회인정 국가
  - E. 한인교회가 있는 국가

### 4. 중동지역의 특징

- 1) 24개 지역 21국가(세계 이슬람 우세국가 65)
- 2) 세계면적의 11% (15,645,000Km<sup>2</sup>) - 물충분지역 5%
- 3) 인구 5억(세계 이슬람인구 12억), 899종족(셈족 60%, 투르크족 16%, 아프리카족 6%, 베르베르족 6%, 기타)
- 4) 세계석유 매장량의 70%
- 5) 친서방, 반서방 국가
- 6) 중동의 홍콩 - 아랍연방국의 두바이

### 5. 성경적 근거

(창 16:1-16, 17:20-26, 25:12-18, 대상 1:29-31)

### 6. 이슬람의 특징

- 1) 거룩과 세속의 구별이 없음
- 2) 준법정신, 절대복종
- 3) 서방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반감,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
- 4) 이슬람의 세계화, 세계의 이슬람화를 조직적으로 촉구
- 5) 5가지 의무 - 신앙고백, 기도, 구제, 금식, 성지순례
- 6) 6가지 의무
  - A. 알라와 그 천사들에 대한 신앙
  - B. 알라의 책들(모세5경, 시편, 복음서, 쿠란-114수라 장 6220절)에 대한 신앙
  - C. 알라의 사도들(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하마드 - 6사도)에 대한 신앙
  - D. 최후심판에 대한 신앙

- E. 부활에 대한 신앙
- F. 알라의 전적인 예정(숙명론)신앙

### 7. 이슬람교의 창시자 - 마호메트 (서기 570-630)

### 8. 아랍세계의 이슬람을 위한 선교전략

- 1) 기도 - 무슬림 위해, 한국교회 위해, 서방세계 위해
- 2) 아랍국가내 교회 강화
- 3) 아랍국가내 신학교 지원
- 4) 아랍국가내 한인교회의 선교 전진기지화
- 5) 자유세계에 유학온 아랍학생들 선교
- 6) 비아랍 이슬람선교 경험 활용
- 7) 중동선교사 양성, 훈련, 후원, 파송
- 8) 중동선교사 협의회 지원
- 9) 단기선교
- 10) 성지순례시 현장기도회
- 11)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함

### 맺는말

중동의 선교는 전시효과를 노리거나 단기투자 회수의 마음을 가지거나 영웅심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일생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중동지역 못지않게 세계도처에서, 심지어 과거 기독교 국가 안에서 이슬람화가 맹렬히 일어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화를 한국교회가 실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슬람을 향한 선교의 전선은 중동 아랍국가만이 아니라 비아랍 이슬람국가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 중앙아시아, 극동지역에서도 형성되어야 하며, 아프리카에서 남하하고 있는 거대한 이슬람의 물결을 결단코 간파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중동의 아랍인 무슬림들의 선교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잊지 말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2억 중국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 [주제강연 IV]

### 전 기독교21세기운동 총재 토마스 왕



Thomas Wang: Great Commission Center 대표 중국 북경 3대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 11세대 전도자 존성을 통해 회심, 왕명도목사에게 양육받고 대만장로교신학교와 미조리 센츨럴신학교를 수료하고 윌리엄캐리대학에서 문학박사, 고든 컨웰신학교에서 신학박사를 수여하였다. 1961년 중국기독교선교회를 1976년 중국세계선교협의회를 창설, 사무총장 역임, 1987년 로잔세계선교운동 국제총무로 선임되어 1989년 제2차 마닐라 로잔세계선교대회를 총괄하였다. 1989년 기독교 21세기운동을 창설하여 미전도종족복음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1989년 창립한 대사명신학교/선교센타를 통해 타문화권과 중국어권 선교를 위해 선교사역자를 훈련하며 수많은 선교대회 주강사로 활약하는 세계적 선교지도자다.

The Gospel To China, In China, and Out of China

중국을 향한, 중국 내의, 중국으로부터의 복음

1. 1807년,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이 복음을 들고 중국으로 들어왔다.
2. 1949년, 대략 800,000명의 기독교인이 중국에 있었다.
3. 오늘날 - 대략 8천만에서 1억에 달하는 기독교인이 중국에 있다 (전체인구의 약 7% 정도이다)
4. 가까운 미래(아마 10-15년 후)에 중국은 전세계의 선교를 이끌어가는 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며 여기에는 Back to Jerusalem 운동도 포함될 것이다.

# 선교의 지하자원 평신도를 개발하자!

## [주제강연 V]

공동대회장 **류효명**

KWMC평신도운동본부 본부장 류효명 장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신과 의사이며 현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고 있다.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평신도선교운동본부장으로 북미주 평신도 선교운동 동원에 활동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본대회 공동대회장이다.



종교개혁의 미완성과제:  
선교의 지하자원 평신도를 개발하자!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자"라는 이번 제5차 세계선교대회의 주제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반응해야 할 내용은 평신도선교자원개발이라 생각된다.

땅끝까지 증인이될 자원은 바로 평신도들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99%를 차지하는 이 거대한 잠재적 선교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지 않고서는 지상명령의 완수는 요원한 꿈으로 남게 될 것이다.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10%정도만이 성경을 제대로 믿는 신자로서 이들에 의해서만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런 상태로서는 세계복음화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머지 90%의 신자들을 동원하여 세계복음화에 임하게 할가?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며 이루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시기에 우리로부터 기대되는 올바른 반응으로서의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평신도란?

- 1) Clergy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의 Laity  
"그런데 저는 단지 평신도일 뿐입니다."  
"이상한 군대"  
"Pay, Pray, Obey Syndrome"
- 2) 하나님의 백성: "laos"

### 2. 소명 (Calling)의 올바른 이해

### 3.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믿음의 공동체  
제도적 교회에서 유기체로서의 교회로

### 4. Ministry

Ministry 는 하나님의 백성 laos 에속한 용어다.  
(Ministry는 clergy에게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다)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기전 모세형 목회"

### 5. 만인제사장직 회복운동:

"모든 성도는 사역자" 운동  
"Every Christian is a Minister." Movement

### 6. 결론: 새 종교개혁

##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북미주차세대 **박집밥**

나성영락교회에서 성공적인 차세대 영어목회를 펼치고 있는 박집밥 목사는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M.Div)에서 공부하였다. 본 선교대회의 영어권대회 준비위원장이자이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북미오전도종족 선교사 **김동승**

북미주 원주민들을 오전도종족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향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김동승 선교사는 경희대 법대, 서울장신(예장통합), Ontario Theological Seminary(Tyndale), National Native Bible College를 나와 1996년 토론토 뵘엘교회에서 원주민 선교사로 파송받아 '원주민선교연합회', '사랑의 군병들(Agape Army)', 'Mountain Movers' Prayer Quest' 등의 운동등을 창설하여 북미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전도 종족이란, 정치적, 종교적으로 기독교 선교의 문이 닫힌 공산권, 회교권내의 종족들을 폐(閉)전도 종족, 또한 10/40창에 몰려 있는 힌두교, 불교, 샤머니즘권에 있는 종족들을 미(未)전도 종족, 바울의 선교에 의해, 이미 오래 전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종족들을 기(既)전도 종족(영, 불, 독, 스페인등) 이라고 할 때, 이 기전도 종족들인 영, 불, 스페인 등의 식민 팽창주의가 기독교와 overlap 되어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오히려 집단적인 침략 범죄에 이용 당해, 원주민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본질을 잘못 이해케 되어서 선교가 지극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 종족을 가르킨다. 그들에게 있어 기독교란 외래 백인들의 종교로 자신들을 삼켜 왔던 도구로 비쳐 지고 있으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원주민의 동질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기독교를 이용하여 원주민 의동질성을 파괴하던 과거가 있으므로) 원주민 전통주의자들에 의해 가르쳐 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2만여 종족들중 가장 자살율이 높고 알콜.마약 중독률이 가장 높고, 가장 평생 실직률이 높은 종족들이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인 캐나다 내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600만 원주민들(캐나다; 160만, 미국; 450만)이 그들입니다 그들을 누가 주께로 인도할 것인가?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에콰도르선교사 **최상호**

에콰아도르에 파송받아 11년째 사역하고 있는 최상호 선교사는 뉴욕 얼라이언스신학교와 뉴욕신학대학 및 대학교를 나와 보츠와나, 탄자니아, 잠비아 등 아프리카와 소련, 남미 등지에 단기선교사로 사역하였고 중국선교사로도 사역하였다.

1. 중남미 대륙 - 정치, 경제, 문화, 사회와 지리. 역사. 종교 현황.
2. 피선교지의 중남미 - 한인 교포 교회의 선교 열의. 미국 문화와 화폐의 강세. 변조된 카톨릭 국가.
3. 한인 선교사들과 사역들 - 선교사들의 현황. 그들의 중요 사역들. 에콰아도르 사역들 소개.
4. 선교지의 전망 - 단기 선교. 1세대의 선교. 2세대의 선교.



##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 파라과이선교사 임한곤

1989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파송 파라과이 원주민 선교사로서 14개 마을을 순회하며 사역한 후 다수의 교회를 개척하고 당회장으로 목회사역을 하고 있으며 원주민 장로교신학교 구약개론 교수 및 이사이다. 광주신학교와 총회신학 연구원을 나와 미국 콜롬비아신학교에서 수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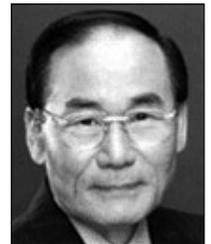
1989년 8월 19일은 우리 가족에게는 역사깊은 날이다. 총회 선교사로부터 파송장을 받고 모교회인 광주 동명의 주후원 파송선교사로 땅끝 남미 파라과이로 파송을 받은 날인 것이다. 이제 이 파라과이는 제2의 고국이 되었다. 우리 가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 만큼이나 소중한 땅인 것이다. 언젠가는 이 나라도 복음으로 정복되리라고 믿었던 소망이 조금씩 조금씩 성취되어감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다.

##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 [저녁선교대회 설교]

### 총신교회 담임 박종순

KWMA대표회장 한국교회의 세계선교운동을 교파를 초월하여 총괄하고 선도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대표회장이며 1976년이래 30여년의 모범적인 목회사역을 통해 서울 총신교회를 놀랍게 성장시킨 목양자로 선교운동과 목회사역 양면에서 크게 존경을 받는 박종순 목사는 송전대, 장로회신학대학, 중앙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과 플러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장신대 목회연구원 교수, 신앙세계 편집위원, 외향선교회 이사, 기독교 방송국 이사로도 활동하며 사회봉사와 구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며, 또 25권이 넘는 영감에 찬 저술을 통해 한국교회의 갱신과 성숙한 신앙의 삶을 위해 도전하고 있다.



[이사야 6:6-13]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종들을 보내신다. 그러나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보내신다.

부르신 사례들 - ① 노아 ② 아브라함 ③ 모세 ④ 이사야

#### 1. 부르시는 하나님

- 1) 왜 부르시는가 2) 언제 부르시는가
- 3) 어떻게 부르시는가 4) 누구를 부르시는가

#### 2. 훈련하시는 하나님

- 1) 왜 훈련하시는가
- 2)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 3) 무엇을 훈련하시는가

#### 3. 보내시는 하나님

- 1) 어디로 보내시는가
- 2) 누구를 보내시는가

#### 4. 나를 보내소서

- 1) 내가 응답해야 한다
- 2) 내가 가야한다
  - ① 영적 전쟁터로
  - ② 삶의 현장으로
  - ③ 세계를 향해
- 3) 함께 가야한다
- 4) 지금 가야한다
- 5) 성령의 인도 따라 가야한다



##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이명남 선교사 한센국제선교회  
설교/ 이원상 목사 SEED선교회국제총재

## 성경강해

강사/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 수정교회히스패닉목회

##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이순옥 집사 미방의회북한인권청문회  
증인

주제강연 II 강사/ 조동진 목사 통일환경연구원장

## 포케인여배우

사회/ 이승중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기도/ 조용중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선교보고/ 박창환 선교사 러시아  
설교/ 안성기 목사 시카고남서부교회

##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라!

### [새벽기도회 설교]

SEED선교회 국제총재 **이원상**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금번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4)의 공동대회장인 이원상 목사는 만주 태생으로 계명대 철학과, 경북대학원 철학과를 나와 달라스신학교에서 신학석사(Th.M.)를 팬실베니아대학교에서 구약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후에 계명대학교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P.C.A. 미국장로교회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한인수도회 노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와싱턴중앙장로교회를 1977년부터 시무하고 지난 해 은퇴하고 Ezra Leadership Institute의 디렉터로, SEED선교회의 국제총재로 선교와 지도자 양성에 헌신의 힘을 쏟고 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깊은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이 본문이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하는 24장의 종말강해와 26장이후의 수난강해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은 이미 정해진 사건이었다. 동시에 주님의 재림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역사이다.

감람산의 제자들과 같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행 1:6).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오석하며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림의 확실성을 말씀하시지만 그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주지 않았습니. 왜냐하면 이는 성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완성되면 예수님은 재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라!" 이것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입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다섯 처녀 역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확실한 그 사실을 알고서도 필요한 준비를 갖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지 2천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기 보다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안락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마 28:18-20, 행 1:8)는 예수님의 선교적인 명령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구속역사를 완성하는 일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분부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 개인이 갖추어야 할 등불은 무엇입니까?

###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한센국제선교회 대표 **이명남**



12세때 한센병이 발병하여 소록도에서 치료중 하나님을 영접하고 20세때 한센병에서 완치된 이명남 선교사는 그 후 순복음교단에서 전라지역에 파송받아 사역하고 있으며 현재 한센국제선교회의 대표이다

한센국제 선교회는 중국과 북한지역 한센병환자 선교를 위하여 발족한 선교회이며, 특히 중국 길림성 조선족 자치주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 한센병환자 가족선교를 목표로 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우선 의료자원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자활할수 있는 한국형 정착촌을 만들어주어 생활을 자립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선교하는곳이며 중국전역 15만명과 길림성 조선족 한센 형제 428여명, 북한에 있는 70여명이 대상인 것이다. 이번 선교대회에 뜨거움을 느끼고 온 지구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남은 여생,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되시고 특히 중국 조선족 한센 형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선교 홈페이지는 [www.him.ok.kr](http://www.him.ok.kr) 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 부산 연락처: 051-462-0068

# 바울서신에 나타난 선교역사 - To Every Creature: Our Mission in the Gospel

## [성경강해]

## 수정교회 히스패닉목회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



Juan Carlos Ortiz: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신으로 20세부터 아르헨티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는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친 아르헨티나의 영적갱신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믿음교회의 목회성공은 그를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로 만들어 주었다. 1974년 스위스의 로잔대회 주강사로 초청을 받은 것을 계기로 오르띠즈의 영향력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제3세계 지역을 넘어 동구권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까지 퍼져 나가게 되었다. 현재 미국 Garden Grove에 있는 수정교회에서 히스패닉을 위한 목회를 하며,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하였다.

### 모든 신자를 훈련하라

1. 야심적인 계획
2. 모든 신자는 목사나 사역자이다.
3. 증인들에게 능력을
4. 목회자와 장로를 향한 도전

### "오라"가 아니라 "가라"다

1. 죽은 자들을 동원한다?
2. 우리의 할 일은 교회 밖에 있다.
3. 목회자와 장로를 향한 도전

### 예수님의 전략

1. 열들을 택했다 - 셀그룹.
2. 실지훈련(On the job training)
3. 계획이 있었다.
4. 목회자와 장로를 향한 도전

결론 :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꼬리없는 짐승들의 눈빛, 북한수용소실상 증언

### [주제강연 I]

미연방의회 북한인권청문회 증언자 **이순옥**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출생하여 청진경제전문대학, 함경북도 공산대학, 평양인민경제대를 나온 엘리트로 함경북도 중앙은행에서 근무하다 아직 젊은 나이에 물자공급소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가 정치적 모함으로 숙청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았고 1986년부터 1992년까지 평안남도 개천정치범교화소에서 수용소생활을 했다. 1995년 아들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후 1997년 유엔국제앰네스티 총재 초청으로 증언하였고, 1997년부터 매년 미연방의회 상하원청문회에서 북한 정치범 감옥의 인권탄압 실상을 증언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일본, EU국회에서 증언해오고 있다. 사선을 넘은 체험수기 「증언 - 꼬리없는 짐승들의 눈빛」이 있다.

나는 오늘날까지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다. 나도 모르게 화들짝 놀랄 때도 있다. 이처럼 행복한 꿈이 깨어질까 두렵다.

7년동안 무서운 악몽속에서 짐승 아닌 짐승생활을 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한다. "이집사님, 왜 책 제목을 '꼬리없는 짐승들의 눈빛'이라고 달았는가"한다.

나는 하루아침 사이에 정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살려 주셨다. 사형선고를 받은 내가 사형을 집행받는 날에 사형에서 취소되었다.

나는 세상에 다시 태어났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밀을 묻어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나 나의 매니저가 되어 주셔서 감옥에 갇힌 예수쟁이들의 그 고통의 현장을 미국국회를 비롯하여 영국, 불란서, EU,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국회에서 증언할 수 있게 역사해 주셨다. 언젠가는 북한에서 독재통치의 막을 내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감옥에 갇힌 수십만의 크리스천들이 해방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던 감옥은 공개될 것이다. 비밀감옥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순교의 현장으로 길이 보존되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지가 다시 평양성으로 옮겨지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그때가 오면 순교의 현장을 다 가볼 것이다.

# 김정일정권 10년의 변화와 통일선교의 방향

## [주제강연 II]

## 통일환경연구원장 조동진



사단법인 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이사장 1961년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학을 신학교 선택과목 교과과정으로 설치하고, 또한 최초로 1963년 선교대학원인 동서선교개발원을 설립, 선교사양성을 시작하여 30년간 1,500명 이상의 한국과 아시아 선교사들을 교육해 왔으며 한국교회 최초의 초교파 선교단체인 국제선교협력기구를 설립하고 협력선교의 창시자가 되었다. 이후 아시아선교협의회(AMA) 창립 사무총장으로, 제3세계 선교협의회(TWMA) 창립회장을 역임하였고 1989년 이후 계속하여 민족통일과 선교를 위한 대북활동을 전개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종교학과 설치에 공헌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1995년에 설립한 사단법인 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이사장으로, 통일환경연구원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 서론

통일선교를 위한 대북활동은 그 성격상 사회과학적 분석(Socio-Political Science Oriented Analysis)의 토대 위에서 선교학적 접촉(Missiological Approach)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나의 이러한 북한사회 연구와 통일선교를 위한 대북활동은 1977년 <북한해방기도운동>을 전개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해방기도운동>은 남한의 북한 출신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백낙준 박사를 고문으로, 한경직 목사를 중앙위원장으로, 실행위원장은 재향군인회 회장 김일환 장군 등 당시 50대의 중견 교회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한 거국적인 조직이었다. 필자는 당시 대북활동위원장과 공산권연구소장을 겸하고 이 운동을 주도하였다. 나는 이 운동을 위한 대북활동으로 인하여 1978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직전에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후암교회 담임목사직을 사면하고 미국으로 옮겨 윌리엄스캐리대학교에 <고려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대북활동을 시작했다.

1986년에는 통일신학동지회를 조직하고, 1987년에는 재미 기독교자들과 함께 핀란드 헬싱키에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기독교연맹 간부들과 더불어 <북과 재미 동포 학자와의 대화> 모임을 가지면서 복음주의 학자 중 유일하게 재미 진보 진영 학자들과 함께 대북활동을 전개한 성직자이다.

1989년 1월 북한 방문을 시작으로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2000년까지 24회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 주석과 세 번에 걸쳐 독대하였으며, 빌리그래함 목사와 지미 카터 대통령의 북한 초청의 가교역

할을 하였다. 또한 북한 정권은 나를 김일성종합대학의 방문교수와 평양신학원의 방문교수로 초빙하여 강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한편 북한의 전 UN 대사를 지내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인 한시해와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종혁 등 북한 정권의 고위 대표들을 미국에 초청하여 카터 대통령과 스틸웰 전 주한 미군사령관을 만나게 하는 등 북미 관계 화해를 위해서도 활동했다. 또한 김일성 사망 직전에는 김일성과 김영삼 대통령 간의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배후 교섭의 비선조직의 중심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그후 필자는 민족통일에스라운동을 조직하고 통일환경연구원소장으로 지금까지 통일선교의 중심에 서있다. 따라서 이 강연은 나의 지난 1977년 이후 27년간의 북한 연구와 대북활동의 생생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반세기가 넘는 국토 분단으로 인하여 민족과 교회가 겪은 고난의 역사의 overview를 토대로 <김정일 정권 10년의 변화와 통일선교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민족의 통일을 위한 전방위 선교의 시각으로 21세기 역사 전환기에 있어서의 북의 변화와 남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은 요지로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1945년 제 2차 대전 종전이 가져온 국토분단과 <휴전>이라는 위장 평화 60년의 역사 속에서 김일성 정권 46년과 김정일 정권 10년을 바르게 분석하여야만 한다.

I.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분석

- (1) 1945년 8월 15일: 미소 분할 점령으로 인한 국토 분단 60년
- (2) 1948년 8월 15일, 9월 9일: 남북 단독정부 수립으로 인한 국가 분열 56년
- (3)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이후 1953년 7월 정전협정으로 인한 민족 분열 51년

A. 1945년 8월 당시의 남북 인구 및 교회수 비교: Comparison of Population and Christian Forces in the North and South Korea, August of 1945

- 1. 해방 당시 남북한 인구 비교  
북한: 1,000만 명 / 남한: 2,000만 명
- 2. 해방 당시 남북한 교회 수 비교  
북한: 2,500 교회 / 남한: 650 교회
- 3. 해방 당시 남북한 신도 수 비교  
북한: 35만 명 / 남한: 12만 명

B. 북한에서의 신도 수 증가에 대한 추정:

- 1. 한국전쟁 시 남하한 신도 수: 50,000명
- 2. 북한 잔류 신도 수: 250,000명
- 3. 59년간 북한 인구 증가율: 150%
- 4. 북한 신도의 자녀 증가율: 300%
- 5. 추정되는 북한 신도와 그 자녀 수: 750,000명
- 6. 2,500 교회 중 폭격으로 파괴된 교회 수: 500 교회
- 7. 남은 2,000 교회 건물은 용도가 변경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 중

C. 북한의 사회계층 분류:

- 1. 핵심계층: 정부 간부, 당원 등 당과 김일성에 충성하는 계층
  - 2. 동요계층(기본군중): 일반 노동자, 농민
  - 3. 적대계층(복잡군중): 월남가족, 반공조직 가담자, 종교인? 세밀분류: ①포섭대상, ②감시대상, ③제재대상으로 분리된다.
- 이 계층은 취업, 교육 등에서 차별 취급된다.  
 - ①② 대상은 세뇌교육 대상으로 취급된다.  
 - ③의 제재대상은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등 오지 강제수

용소에 주거가 한정된다.

4. 감시조직: 지도원이라는 직책으로 세포조직을 관장하고 계속 재심사 대상을 색출한다.

5. 사회 계층 분류의 역사

1967년 통계, 1972년 통계, 1980년 통계, 1992년 통계 등을 보면 10년 전까지의 북한사회의 변화와 추세를 측정할 수 있다.

〈사회 계층 분류 통계의 역사적 변천〉

(1) 1967년 통계

- 핵심계층: 87만 세대 391만 5천명 (27%)
- 동요계층: 70만 세대 315만 명 (22%)
- 적대계층: 173만 세대 793만 5천명 (51%)

(2) 1972년 통계

- 핵심계층: 30%
- 동요계층: 30%
- 적대계층: 40%

(3) 1980년 통계

- 핵심계층: 20%
- 동요계층: 50%
- 적대계층: 30%

(4) 1992년 통계

- 핵심계층: 10%
- 동요계층: 80%
- 적대계층: 10%

D. 김일성 말기의 북한의 생존 전략:

- 1981년 - 종교의 필요성 인정
- 1983년 - 성경, 찬송의 출판
- 1989년 - 두 교회의 복원
- 1990년 - 김일성종합대학 종교학과 설치
- 1992년 - 헌법의 수정
- 1992년 - 조선어사전과 백과사전 수정
- 1989년 - 김일성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에서 기독교 배경 자인
- 1993년 - 김일성 말기 북미관계 개선 노력
- 1994년 - 김일성 남북정상회담 제의
- 1994년 7월 8일 - 김일성 사망

## II. 김정일 정권 10년의 변화 과정 분석

### A. 군사체제의 변화

#### 1. 선군정치제도의 확립

김정일은 자신의 국가 수반의 지위를 <국방위원장>이라는 칭호로 바꾸었다.

- (1) 이것은 <조선로동당>보다 <조선인민군>이 국가의 최고조직임을 선언한 것을 의미한다.
- (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보다 <국방위원회>가 위치에 놓여졌다.
- (3) 김정일은 이것을 <선군후로: 先軍後勞>라고 선언하였다.
- (4) 김정일은 노동자 농민정권의 수령이 아니라 <혁명군사정권>의 최고사령관이며 단 한 사람의 <장군: 將軍>으로서 국방위원장의 자리에서 북한의 권력 구조의 핵인 것이다.
- (5) 김정일 정권은 지난 10년 <선군정치: 先軍政治>라는 정치 개념을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
- (6)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후 여러 차례 대규모 군 장성들의 승진 인사를 통하여 500여명의 장성에서 1,400여명의 장성들을 만들어냈다.
- (7) 이것은 남한의 400여명의 장성 수의 250%에 달한다.

#### 2. 북한 군의 기본 지휘 통제 체제

- (1) 최고사령관 = 국방위원장
- (2) 인민무력부장
- (3) 총참모부장
- (4) 총정치국장
- (5) 보위사령부장
- (6) 후방총국장
- (7) 예하부대장

#### 3. 군대 내의 정치 보위와 감시 체제

- (1) 정치총국: 군대 내의 조직을 사상적으로 지도 통제하는 군대의 당 권력 정치기구
- (2) 보위사령부: 군대 내의 김정일 직접 지휘하의 독립적 군 수사기관으로 장첩, 정보, 반혁명, 반국가 행위자 색출 처리를 전담하는 기구

#### 4. 북한의 병역제도와 군사전략 분석

##### (1) 병역제도

가. 병역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초모사업(招募事業)으로 불리는 <지원제>이다.

나. 병역 복무 연령과 복무기간

- ① 고등중학교 5학년(16세)에 예비 신체검사
- ② 징집 연령 17세 (고등중학교 졸업 직후)
- ③ 복무 기간은 다음과 같이 7년에서 9년이다.  
칭호 구분 진급 소요기간

- (1) 전사 1년
- (2) 상등병 2년
- (3) 하사 1년
- (4) 중사 1년
- (5) 상사 1년
- (6) 특무상사 2-3년

##### (2) 군사 전략과 전력(戰力)

가. 북한의 군사전략의 코드(code)는

고슴도치(porcupine)인가 전갈(scorpion)인가?

- ① "북한은 전갈 같은 놈이다. 전갈은 잘못 밟으면 쏜다. 죽어가면서도 쏜다. 그리고 또 쏜다." -미국 태평양군 총사령관(CINCPAC)의 말이다.
- ② 김정일의 군사력은 고슴도치 군단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은 고슴도치가 아니라 전갈 군단이라고 주장한다.

나. 김정일의 군사 전략

- ① 한 방에 부숴버리기
- ②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기
  - 말의 폭력전
  - 전갈의 독침: 장거리 보복 능력
  - "미국은 선제 공격으로 수천 발의 순항미사일로 북한의 전략 목표를 공격할 것이다."
  - "미국은 수십 대의 전략 폭격기 B52로 북한의 도시를 일단 폭격할 것이다."
  - "주한 미군과 한국군은 일제 폭격으로 북한으로 진격할 것이다."
  - 그러나 북한의 공격 목표는 남한이 아니라 미국 본토가 될 것이다.
  -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받는 즉시 ICBM으로 일본의 미군 기지와 미국 본토의 전략적 목표를 향해 발사한다.
  - 북한에는 전국 각 처에 10,000개 이상의 고사포 진지가 있다. (모든 군사시설과 산업시설은 지하에 있다)
  - 북한의 지하에는 수천, 수만의 터널망이 구축되어 있다.

• 그러나 미국의 주요 도시는 완전 무방비 상태이다.

다. 북한의 전력(戰力)

- ① 북한에는 수천 발의 지대지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어 있다.
- ② 파키스탄, 이란 등 이슬람 국가의 미사일은 모두 북한 미사일의 복제품들이다.
- ③ 북한은 세계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클럽의 네 번째 회원국이다.
- ④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그것은 북한이 ICBM 발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한다.
- ⑤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전력

장거리 진공포 서울 사정거리내에 500대 배치  
170mm 곡산 총포 서울 사정거리내 배치  
240mm 다단계 로켓 발사대 휴전선에 200대 배치

- a. 지하 격납고에 대기하고 있는 장거리 다연발 로켓포 - 13,000개
- b. 바다를 지키는 대함 순항미사일 동서해안 전역에 설치된 연안 포대 위의 전력은 포대의 이동 없이 12,000 자동화된 무기 시스템으로 한 시간에 50만 발을 여러 시간 동안 발사할 수 있다.
- c. 북한군은 보병, 포병, 탱크부대, 기갑부대 및 특수부대를 포함한 170개 사단, 100만명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
- d. 북한군은 70만 보병, 8,000 포병 시스템과 2,000대의 탱크를 휴전선 전역에 배치하고 있다.

위에서 인용한 북한의 전략과 전력의 통계는 재일본 북한군 사전전문가 김명철이 말하는 <김정일의 군사 전략>과 Global Security Org.의 <Operation Plans>의 기록에 의한 것이다.  
라. 북한의 핵개발 전략

북한은 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가?  
1994년에 미국과 북한이 맺은 핵 개발 동결을 위한 제네바 협정에 따른 미국의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늦장을 부려오기 때문이다.

① 첫째로 제네바합의서 제 2장 1절에는 분명히 6개월 안에 조건없이 양쪽이 투자에 관한 장벽을 줄이는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역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② 둘째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대북한 핵 무기 선제 사용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 ③ 세째로 경수로 원자력 발전시설 건설을 지연시키고 약속한 중유 공급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 ④ 넷째로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 ⑤ 다섯째로 핵무기는 재래식 전력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후 4년 동안 자진하여 미사일 실험을 자제함으로 인내로 제네바 합의를 존중했다가 1998년에 재개했다. 제네바 협정에는 미사일 실험 동결 조항이 없다.

B. 외교전략의 변화: The Transformation of Diplomatic Strategies

- 김정일 정권의 외교정책의 목적은 체제 유지가 첫째이며 그 전부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난 해소를 위한 외교가 필수적이었다.
- 김일성 생존 시에는 <적화통일> 목표에서 소련 붕괴 이후 <민족통일>으로 외교노선을 전환시키던 도중 그의 사망으로 그의 통일 외교적 추구는 끝나고 말았다.
- 김정일에게는 다급한 것이 체제유지와 경제위기의 극복일 수밖에 없었다.
- 김정일의 대남관계도 <민족공조>라는 명분 아래서의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남한의 경제 지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체제유지'와 '경제살리기' 외교는 모두 정권의 안정성을 보장 받는데 목적이 있다.
- 2002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으로 얻어낸 <6.15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 정권으로서의 더바랄나위 없는 외교적 성공이었다.
- 그러나 김정일은 이 절호의 기회를 국제적으로 이용하는 데 실패하고 있었다.
- 그것은 위에서 지적한 그의 <선군정치>가 적대국가인 미국 부시 정권의 <압살정책>에 대응책이 될 것이라는 근본적 착각으로 말미암았다.
- 김정일은 협상외교전략보다는 <핵무기 개발 착수>라는 미국의 <압살정책>에 대한 <대립전략: Contending Strategy>으로 맞서버린 것이다.
- 김정일 자신이 성공시킨 클린턴 정권과의 <제네바기본 합의서>가 새로운 부시 정권에 의하여 짓밟혀지는 것을 참아내지 못했다.

- 결국 모처럼의 EU 국가들과의 국교수립까지로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고 말았다.
- 1948년 이래 줄곧 한 정권의 전통을 지켜나온 북한 로동당 정권의 외교정책은 부시로부터 클린턴을 거쳐 아들 부시에 이르는 변화무쌍한 미국식 외교전략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 한편 남한 역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권을 거쳐 노무현 정권에 이르는 4단계에 걸친 대북정책의 업치락뒷치락을 계속하고 있었다.
- 김정일은 자기 편에 이익이 될 효율적 외교전략을 제대로 개발해 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전략을 동원하여 맞대결만 할 뿐이었다.

1. 김정일 정권 외교전략의 유형별 특징

김정일 정권의 10년은

- ① 1994년 7월부터 1998년 8월까지의 유혼통치 기간과
  - ② 1998년 9월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부터 2001년 1월까지의 제 2기와
  - ③ 2001년 1월 미국의 공화당 부시 정권 출범 이후 2004년 7월 현재까지의 제 3기로 구분된다.
- 이 세 기간별로 김정일 정권은 3단계로 그 외교전략을 변형시킨다.

(1) 김정일 정권 제 1기인 1994년 김정일 사망 이후 199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출범 이전까지의 4년의 과도기에 김정일 보여주었던 외교전략은 <체제유지>를 위한 고슴도치 외교(Porcupine Diplomacy) 전략을 구사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세 가지 전술로 나타난다.

가. 첫째는 주변 4개국 즉,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접근 또는 적대 위협을 병행하는 유인(誘引)외교전술을 구사했다. 반미(反美)에서 통미(通美)주의로 대미관계 개선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고위 지도자를 초청하고 일본의 정당 대표들을 초청하고, 러시아 방문과 초청 외교를 통해 대러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나. 둘째로는 대 미군사 접촉을 시도하여 유해송환 등을 지속하고 중국과도 동맹외교를 강화했다.

다. 경제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국제원조 도입정책에 주력하며 UNDP, UNIDO 등과 정족하여 해외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라. NPT 탈퇴를 철회하고 제네바 합의문을 이루어내고 IAEA 감시단을 받아들이고 KEDO와 경수로 발전시설에 합의하기도 했다. 고슴도치외교는 자기를 헤치거나 건드리지만 않으면 상대

를 헤치지 않는다는 종용한 유인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2) 김정일 정권 제 2기인 1998년 9월부터 클린턴 정권이 끝나는 2001년 1월까지의 국방위원장 초기 3년은 <체제도약>이 목표였다. 이 시기 김정일은 <강성대국: 強盛大國>이라는 기치를 들고 자신의 국방위원장 체제를 출범시켰다. 김정일 정권은 강성대국의 성격을 다음 네 가지로 규정했다.

- ① 사상강국: 思想強國
- ② 정치대국: 政治大國
- ③ 군사강국: 軍事強國
- ④ 경제강국: 經濟強國

북한은 1998년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 권력구조를 국가 주석 체제에서 국방위원장 체제로 바꾸고 군(軍)을 당(黨) 위에 두는 선군정치라는 혁명군사정권구조를 이루었지만 그 외교노선은 <비둘기외교: Dove Diplomacy>라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내는 전방위 외교를 시작했다. 그것은 ①경제적 실리외교와 ②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복원을 통한 균현외교, 그리고 ③미국과는 협상전력을 통한 관계 정상화를 시도한다. 이 협상전략은 클린턴 정권 말기의 국무장관 올브라이트 초청과 조명록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미로 끝을 보고 공화당의 부시 정권 출현으로 비둘기외교를 끝내면서 ④강경전술이라는 강수로 돌아선다.

(3) 김정일 정권의 제 3기는 2001년 1월 부시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에 맞서기 위해 전갈외교(Scorpion Diplomacy)라는 독침전술로 전환한다.

- 이러한 외교전략의 전환은 부시 정권이 북한 김정일 정권을 <불량국가: Rogue State>로 규정하고 이라크와 이란과 함께 세 개의 <악의 축: Axis Evil>로 발표한 데 대한 <체제수호>를 위한 것이었다.

- 따라서 북한의 외교전략은 적대세력의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적 전략 변화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 김정일 정권은 지난 3년 부시 정권의 선제공격, 대북 군사행동 불사의 강경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전갈(Scorpion)이 되든지 살모사 같은 독사(Venomous Snake)로 변해버린 것이다.

- 전갈외교와 독사외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의한 북한정권 궤멸전략과 선제공군사공격 위협에 대한 필사의 저항(Resistance of Desper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으로서는 현재의 부시 정권의 김정일 정권 세계전략

앞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 여기에 남한정권의 북한정권 붕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외교적 능력에 한계가 있다. 핵무기 개발이라는 최후의 자폭수단을 택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김정일 정권 제거하는 두 개의 극단주의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한국 정부가 미국을, 중국이 북한을 한걸음씩 물러서게 하는 중재역(Arbitration Role)을 맡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 한국은 미국의 위압적 전술(Aggressive Tactics)을 비공격적 전술(Non-Aggressive Tactics)로 한 발 물러서게 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통한 흥정 전술로 물러서도록 하면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약속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북한 체제의 안보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이 함께 문서로 보장하는 데까지 6자회담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한미공조와 함께 북한이 추구하는 민족공조를 위해서도 적극 나설 수 있어야 한다.

### III. 통일선교의 방향

21세기 세계 선교의 패러다임은 전혀 새로운 선교 세력에 의하여 짜여지고 있다. Bryant Myers는 20세기 말을 서구 선교 세력과 비서구 선교 세력의 교체 시대로 보았다. 그는 또한 21세기의 선교를 비서구 탈식민지 국가들에 의한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Holism in Mission (全論的 宣教)을 내세웠다.

나는 Hoslistic Mission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 말로 <전방위 선교>라는 말로 바꾸어 놓았다. 다시 말해서 21세기 선교는 신앙, 언어, 문화, 학술, 그리고 기아와 질병, 사회와 민족과 국가와 국제 관계의 화해와 평화 등 인류의 미래와 생명의 모든 문제를 포괄한 Holistic Mission, 즉 <전방위 선교>로 확대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전방위 선교의 Holism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 한국 기독교의 민족통일 문제 인식과 대북 활동에도 전도 외적인 모든 인도적, 사회적, 민족적 활동을 종합한 총체적 전방위적 선교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1. 대북활동의 기능별 분류와 평가 (1980-1994)

##### 가. 연구 활동

- (1) 민족 통일 환경 연구
- (2) 북한교회 소멸 과정과 잔존 신도 분포 현황 연구

##### 나.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 운동

- (1) 북과 해외기독교학자 대화
- (2) 해외한인교회 지도자 북한 방문
- (3) 세계교회협의회 통한 남북교회 지도자 통일 대화
- (4) 미국 NCC와 PCUSA를 통한 북미 대화
- (5) 한국 NCC와 조선그리스도교도연맹 대화

##### 다.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

- (1) 식량 지원
- (2) 의료 지원
- (3) 농업, 축산 지원

##### 라. 기독교 도서 지원사업

- (1) 성경, 찬송 기증
- (2) 평양신학원에 기독교 도서 기증
- (3) 김일성종합대학에 기독교 도서 기증

##### 마. 교육 및 학술, 문화 교류 사업

- (1) 해외기독교학자 평양신학원 방문 교수 활동
- (2) 해외기독교학자 김일성종합대학 종교학과 설치 협력 및 방문교수 활동
- (3) 미국 대학 총장단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방문교과 교환 활동
- (4) 해외기독교예술인 북한 방문 공연
- (5) 숭실대학 동문 평양에 숭실대학 재건 추진
- (6) 남한 교회 지도자 북한에 과학기술대학 설립 추진
- (7) 남한감리교서부연회 평양신학원 지원 및 요한신학교 재건추진

##### 바. 해외 및 남북교회간 직접 교류

- (1) 수교회와 칠골교회에 피아노 및 전자오르간 기증
- (2) 성가대 가운 및 목사 가운 기증
- (3) 남한 목사 부활절, 성탄절 및 주일 설교
- (4) 남북공동기도문 채택

사. 1980년-1994년의 기독교 대북 활동의 평가

- (1) 1980년대 초부터 국내외 진보적 기독교 지도자들의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이 기독교 대북 활동의 초석을 놓았다.
- (2) WCC와 일본 NCC, 한국 NCC 등 진보적 진영의 기독교 남북대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한국 교회의 냉전시대의 사고를 녹여주었지만 이념적 좌경 편향이 있다.

2. 김정일 정권 10년간의 대북활동 변화 추세

가. 해외한인교회의 대북활동 감소

나. 북한, 중국 국경지대 국내에서의 탈북자 지원 활동

- (1) 중국 내 탈북자 보호 활동
- (2) 입국 탈북자 보호와 전도 활동
- (3) 북한 인권문제 시민운동
- (4) 지하교회 접촉 활동

다. 북한학과 설치 및 북한 선교요원 훈련

- (1) 기독교 대학에 북한학과 설치
- (2) 통일선교대학 운영

라. 이산가족 찾기 지원 활동

- (1) 국내 조직을 통하여
- (2) 중국 변방 탈북자 지원 NGO를 통하여
- (3) 일본 및 미국 내 대북 활동 조직을 통하여

마. 남한 기독교단체들의 북한 공식기구를 통한 식량, 의료 및 경제지원 활동

- (1) 한민족복지재단
- (2)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3) 한국교회협의회
- (4) 각 교단 총회 북한선교위원회
- (5)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NGO 단체

바. 1994년 이후 10년간의 기독교 대북활동 평가

- (1) 1990년대 이후 한기총 등 보수 진영의 한국 대북 활동은 인도주의적 접근에 국한되고 북한교회 재건운동이라는 가진자와 힘있는 자로서의 시혜자와 정복자적 자세와 남한교회 이식 정책에 문제가 있다.
- (2) 분단 극복과 민족 화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3) 북한 교회의 소멸 과정과 잔존 성직자와 신도들에 대한 조사활동이 태무하다.

3. 김정일 정권 후기의 바람직한 통일선교의 방향

가. 대표 통일한국의 민족적, 신앙적 지도자 표본 연구

- (1) 주기철 목사
- (2) 손양원 목사
- (3) 조만식 장로
- (4) 백범 김구 선생

나. 통일한국 시대의 교회를 위한 준비

- (1) 민족분열과 북한교회 소멸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 확인과 회개운동 전개
- (2) 북한 잔류 교회지도자들과 신도들의 행방에 대한 연구 조사
- (3) 북한의 풀뿌리신도들의 소생을 위한 생활지원전략수립
- (4) 북한 전역의 그루터기교회 뿌리찾기와 육성전략 수립

다. 화해선교와 평화선교로서의 통일선교신학 정립과 활동

- (1) 한국교회 초기 민족교회 정신과 원리의 연구
- (2) 북한정권과 북한사회와 북한민중을 위한 접근 방법 개발을 위한 화해와 평화의 복음에 관한 성서적 연구

3. 화해협력과 선교환경 조성을 위한 전방위적 선교예비활동(Holistic Pre-evangelistic Ministries) 전개

- 화해의 선교(Reconciliation Mission)와 평화선교(Peace Mission)의 신학적 기초는 교리적 확신의 타협 없는(without compromising doctrinal conviction) 접근이라는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폐회에배 설교]

공동대회장 안성기

시카고남서부교회 담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본대회 공동대회장인 안성기 목사는 고려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원, McCormick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시카고 한인기독교방송 국장, 기독교 연합선교회(C&MA) 한인총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시카고 남서부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요한복음 21:15-18]

서론 - 주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사명에 우선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본론

1. 주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자원이다.
2. 주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섬김의 동기이다.
3. 주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사역의 능력이다.

결론

종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양한 선교현안들과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위해 150여개의 다양한 주제들과 한인/외국인/선교사 강사들의 선택강좌가 대외중 화/수/목 오후 3:30과 5:00에 1시간씩 진행됩니다.

## 1. 선교일반/역사/동향

①-01	Back to Jerusalem 운동	토마스 왕	화/목 3:30	Bryer 8
①-02	교회와 선교의 새로운 물결	루이스 부시	수/목 5:00	Blanchard 222
①-03	여성과 선교	도리스 부시	수 5:00	Blanchard 139
①-04	예수를 통해 나누어지는 복음	도리스 부시	목 5:00	Blanchard 139
①-05	선교의 세계화	패트릭 존스톤	목 3:30/5:00	BGC 432D
①-06	선교의 관계성	엘렌 로스	화 5:00	Blanchard 139
①-07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금세기의 변화하는 패러다임	짐 테비	목 5:00	MSC 207
①-08	역사 전환기의 세계선교 새 패러다임	조동진	화 3:30	BGC B10
①-09	선교의 기본틀	이동휘	화 5:00 / 목 3:30	Blanchard 339
①-10	성경으로 본 한국교회 종말의 선교사역	이광복	화/수/목 3:30	BGC 136
①-11	이 시대로 풀어 본 계시록 전장 요약강해	이광복	화/수/목 5:00	BGC 139
①-12	비즈니스와 선교	황성주	화/수/목 3:30	Armerding 18
①-13	사랑의 경제학	황성주	화/수/목 5:00	Armerding 18
①-14	마지막때에 일어날 일들: 성경종말론 입문	장진용	화 3:30	BGC 132
①-15	휴거	장진용	화 5:00	BGC 132
①-16	두 증인	장진용	수 3:30	BGC 132
①-17	해를 입은 한 여자	장진용	수 5:00	BGC 132
①-18	큰 음녀	장진용	목 3:30	BGC 132
①-19	두 짐승	장진용	목 5:00	BGC 132
①-20	핍박받는 교회	잭 쉘퍼	화 3:30	Blanchard 273
①-21	선교의 신학화	신홍식	화 3:30	BGC 432B
①-22	학문의 체계에 있어서 선교학의 위치와 역할	박기호	목 5:00	Breyer 9
①-23	선교와 동역	이종형	목 5:00	BGC 140
①-24	신유의 새로운 이해;	전희근	목 3:30	Blanchard 273

①-25	세계대학생선교운동의 역사적 고찰	김요한	수 3:30	Breyer 207
①-26	대학을 향한 그리스도의 주권회복	브렌트 홀렛	수 5:00	Armerding 226
①-27	선교와 윤리	배현찬	수 3:30	Breyer 9
①-28	선교비 윤리	남후수	화 5:00	Breyer 207
①-29	한국교회의 경건인물들	윤사무엘	목 5:00	BGC 432B
①-30	Faith Mission이란?	조종화/조혜선	화 3:30	BGC B11
①-31	기독교청년의 선교리더십	박영환	화 5:00	Breyer 103
①-32	선교, 과연 식민주의적 부산물인가?	조일구	수 3:30	MSC 210
①-33	영적 경제학과 선교	이성일	수 3:30	Blanchard 322
①-34	적합하게 상황화된 토착교회구조	오영철	화 3:30	GBC 263
①-35	성경적 기도세미나	김정복	화 3:30	Breyer 9
①-36	선교와 기도학교	김정복	목 3:30	Breyer 9
①-37	기도가 주는 선교의 능력	조창환	수/목 3:30	Armerding 226
①-38	세계선교와 기도의 위력	서인애	화 5:00	McManis Lounge
①-39	거룩한 선교	로수길	목 3:30	Blanchard 323
①-4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슬림에게 복음을	윌리엄 삼손	수 5:00	Blanchard 323
①-41	아브라함의 선교	이성균	화 3:30	Jenks 103
①-42	하나님의 임재와 셀교회 - 홈스쿨링	채사라	수 5:00	Breyer 111

## 2. 세계를 품은 기독교인의 생활

②-01	인물은 길러지고 아름다운 세상은 만들어진다	강영우	화 5:00	Armerding LH
②-02	성서적 평가원리로 모두가 성취자가 될 수 있다	강영우	수 5:00	Armerding LH
②-03	사랑과 봉사로 리더십이 길러진다 (영)	강영우	목 3:30	Armerding LH
	사랑과 봉사로 리더십이 길러진다 (한)	강영우	목 5:00	Armerding LH
②-04	듣는 이로부터 행하는 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J.C. 오르디즈	화 3:30	Armerding LH
②-05	설교'와 '가르침'의 차이	J.C. 오르디즈	수 3:30	Armerding LH
②-06	예수님의 개인전도방법	로버트 콜맨	화 5:00	Breyer 8
②-07	예수님의 선교지도자 개발법	로버트 콜맨	수 3:30	Breyer 8
②-08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	마리에따 콜맨	화 5:00	Blanchard 222
②-09	당신은 어디로 가고자 하며 어떻게 그곳까지 갈 것인가?	마리에따 콜맨	수 3:30	Blanchard 222
②-10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엘렌 로스	수 3:30	Blanchard 139
②-11	먼저 구할 것	김성길	수 3:30	BGC B12
②-12	성경통독과 암송	안성기	화 3:30/수 5:00	Armerding 20

②-13	영성개발과 훈련	서삼정	화/수/목 5:00	BGC 130
②-14	효과적인 성경공부와 말씀사역	정인찬	화 3:30	BGC B12
②-15	영성과 영목회	정인찬	수 3:30	BGC B12
②-16	성경해석의 새로운 제안	정인찬	목 3:30	BGC B12
②-17	[왕의 복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 인물	이상남	화 3:30	BGC 130
②-18	[왕의 복음] 주와 동행하는 생활의 비결	이상남	수 3:30	BGC 130
②-19	[왕의 복음] 성서적 종말 복음	이상남	목 3:30	BGC 130
②-20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행전	박광재	화/수/목 전체	BGC 138
②-21	바울사도의 탁월한 리더십	김영진	화 5:00	BGC B12
②-22	성경적인 경영원리	명돈의	목 5:00	BGC B10
②-23	갈수록 놀랍게 깊어가는 천국부부의 행복	강세대/이희녕	목 5:00	Jenks 101
②-24	그리스도인은 교양인이어야 한다	임창호	목 3:30	SRC 223
②-25	신앙의 성장과정과 선교교육사역의 연관성	박원호	목 5:00	Breyer 9
②-26	새로운 미디어와 성경교육의 상관성	박원호	수 5:00	Breyer 9
②-27	어린이 영성과 신앙성장은 이렇게	여병현	목 3:30	Armerding 122
②-28	네 안에 있는 말을 고집어 내라	존 티터	수 5:00	BGC 250
②-29	예수님과 힙합 선지자들 - 힙합세계를 향한 복음	존 티터	목 3:30	BGC 250
②-30	잠언 31장의 결혼관	존 티터	목 5:00	BGC 250
②-31	승리하는 삶과 사역	김크리스티	화 5:00	BGC 250
②-32	영적부흥을 위한 예배갱신	손병렬	화 3:30	MSC 210
②-33	코리안-아메리칸 스타일로 예수님 따르기	정민용	화 3:30	BGC 250
②-34	당신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기	정민용	수 3:30	BGC 250
②-35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폴 김	목 3:30	Blanchard 272
②-36	효과적인 기도의 비결	폴 김	목 5:00	Blanchard 272
②-37	지친 사역자들을 위하여	존 정	화 5:00	Blanchard 272
②-38	하나님!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박병선	화/수 3:30	McManis Lounge
②-39	당신이 바로 증인입니다	최명자	화 3:30/목 5:00	Blanchard 322

## 3. 한인세계선교

③-01	초기 한국선교와 중국선교의 관계	조동진	수 3:30	BGC B10
③-02	한국선교전략 10계명	노봉린	목 3:30	BGC 140
③-03	한국선교, 사람에게 집중하라!	장순호	수 3:30	Armerding122
③-04	한국교회 유산을 통한 선교전략	한도수	수 5:00	Armerding 122
③-05	21세기 선교의 경향과 그 대책	조용중	수/목 3:30	Edman W202
③-06	신한국인 선교시스템	한정국	수 5:00	Breyer 103
③-07	한국선교의 미래 프로젝트	한정국	목 5:00	Breyer 103
③-08	21세기 한인선교의 선교훈련에 대한 문제진단과 제안	박시경	화 3:30	Breyer 103
③-09	파송교회, 선교지, 선교사훈련에 대한 전략적 제안	박시경	수 3:30	Breyer 103
③-10	한국교회 해외선교의 패러다임 전환	주진국	화 3:30	Breyer 103
③-11	5차원 전면교육과 한민족 교육공동체	원동연	화/수 5:00	BGC 140
③-12	병든 유럽교회의 몰락과 건강한 한국교회의 진로	김승연	수 5:00	Breyer 207
③-13	선교사의 전략적 재배치	이창규	목 3:30	BGC 263
③-14	한인선교사의 교회개혁 사역에 대한 고찰	최광규	목 3:30	Breyer 111
③-15	한인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동원	박형서	목 3:30	BGC B11
③-16	복음의 형평성	김영섭	목 5:00	SRC 9
③-17	청년, 대학생 선교자원 발굴과 훈련을 위한 한국과 북미교회의 연합사역 방안과 실제	남양규	화 5:00	Blanchard 140
③-18	미주선교의 현황과 과제	홍은선	화 3:30	Blanchard 323
③-19	21세기 문화와 한국영성운동의 방향	황태연	수 5:00	Edman W202
③-20	세계선교전략으로서의 디아스포라 선교	조환	수 5:00	Blanchard 440
③-21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전략	강두호	수 5:00	Jenks 103

## 4. 교회와 선교

④-01	선교를 통한 새로운 교회	이동휘	수/목 5:00	Blanchard 339
④-02	이민교회 선교동원화 방안	이원상	수 3:30	Armerding 20
④-03	지역교회 선교정책과 선교위원회 운영	이원상	목 3:30	Armerding 20
④-04	영성목회와 교회성장	김홍도	화/수 3:30	Blanchard 339
④-05	교회론	김성길	목 5:00	BGC B12
④-06	성도들은 변화된 목회자를 원한다	송석홍	화 3:30	Blanchard 273
④-07	성도들은 변화된 목회를 원한다	송석홍	수 3:30	Blanchard 273

④-08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	소강석	화 5:00	BGC B10
④-09	2세 목사와 교회를 어떻게 세우나?	고인호	수 5:00	Armerding 126
④-10	한인2세 목회자들의 다인종교회 개척	고인호	목 3:30	Armerding 126
④-11	2세목회(영어목회) 문제점과 해결책	류효명	화 5:00	Blanchard 273
④-12	북미주 한인교회의 차세대 지도자 양성	이종민	수 5:00	BGC 432B
④-13	이민교회의 내일과 팀사역의 적용	이승중	화/수 3:30	BGC 140
④-14	교회분쟁(갈등)문제와 선교	김택규	화/수 3:30	Jenks 101
④-15	교회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시를 입양하라!	에릭 폴리	수 5:00	Blanchard 324
④-16	지역교회들의 협력선교방안	이훈경	목 3:30	Breyer 103
④-17	21세기 세계선교와 지역교회의 역할	유승관	화 5:00	MSC 210
④-18	지역교회 선교재정 관리	서준택	목 3:30	/breter 207
④-19	교회 활성화와 선교의 극대화	송상철	화 5:00	Blanchard 440
④-20	교회와 선교(이론과 실제)	신동우	화 3:30/수 5:00	SRC

## 5. 타종교/타문화선교

⑤-01	미전도종족	패트릭 존스톤	화/수 5:00	BGC 432D
⑤-02	유신론, 이단 혹은 사탄적: 이슬람을 향한 기독교적 접근	짐 테비	목 3:30	MSC 207
⑤-03	2000년대 한인 세계 원주민선교 현황과 새로운 선교전략	신종혁	화/수 3:30	Armerding 122
⑤-04	선교의 최우선과제가 미전도종족이 되어야 하는 이유	송 강	수 5:00	McManis Lounge
⑤-05	중동에서의 교회지도자 양성과 지원책	김만우	화/목 3:30	Blanchard 222
⑤-06	무슬림지역에서의 교회개척 전략	이준교	목 3:30	Blanchard 322
⑤-07	이슬람선교를 위해 예비된 이중문화권자	김종헌	수 3:30	MSC 207
⑤-08	이슬람세계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선교적 대응	김덕래	화 3:30	Breyer 207
⑤-09	이슬람 근본주의는 왜 발흥하는가?	김에녹	목 5:00	Blanchard 274
⑤-10	실크로드 선교전략	조용성	목 5:00	Jenks 103
⑤-11	터키선교의 중요성과 필요한 사역자들	김마태	수 3:30	Blanchard 323
⑤-12	한국교회의 알타이권 선교전략	유기남	화 5:00	BGC 263
⑤-13	회교문화권에서의 교회개척과 제자훈련	송기드온	목 3:30	Blanchard 274
⑤-14	히말라야 선교의 필요성	이춘심	화 5:00	Jenks 103
⑤-15	북인도선교의 이해와 도전	배정희	수 5:00	Blanchard 274
⑤-16	21세기 일본선교전망과 일본선교현황/NGO와 일본선교	백종윤	목 5:00	BGC 263
⑤-17	쿠바선교의 문이 열린다 - 전략, 전망, 협력	박철수	화 3:30	Blanchard 140
⑤-18	중남미선교를 위한 쿠바의 역할	전재덕	목 5:00	MSC 210

5-19	재미한인교회들의 피선교지로서의 중남미 선교지의 중요성	최상호	목 5:00	Breyer 111
5-20	한국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선교전략	조남훈	목 5:00	McManis Lounge
5-21	인도차이나 선교전략	박선진	화 5:00	BGC B11
5-22	유럽의 정치현황과 모슬렘 망명자 선교	나승필	목 3:30	Jenks 103
5-23	투르크창 - 또 다른 성지	김진영	목 5:00	BGC B11
5-24	버려진 땅,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위한 전략	이상진	화/목 5:00	Armerding 126
5-25	라틴아메리카에 침투하는 한국이단과 그 퇴치방안을 위한 제언	방도호	화 5:00	Breyer 111
5-26	중동 이슬람 의료선교의 가능성	박준범	화 5:00	Blanchard 323

## 6. 선교사/선교헌신자

6-01	지친 선교사들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	오대원	수 3:30	BGC 432D
6-02	강철 목련 - 선교사 부인으로서의 45년	앨런 로스	화 3:30	Blanchard 139
6-03	선교사 바로 만들기	조동진	목 3:30	BGC B10
6-04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부르시는가?	키스 필립스	화 5:00	MSC 207
6-05	사역자(선교사)는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소강석	수 5:00	BGC B10
6-06	영성과 선교	박광자	화 5:00/목 3:30	Armerding 123
6-07	선교멘토링	김종현	수 5:00	MSC 207
6-08	선교적 삶에 있어서의 5가지 도전	초미성	화 3:30	Armerding 226
6-09	비전	변희관	수 5:00	BGC B11
6-10	선교사로의 부르심 어떻게 알 수 있나?	홍은선	목 5:00	Blanchard 323
6-11	가입할 선교단체를 찾는 법	홍현민	목 3:30	Blanchard 440
6-12	선교사와 육체의 가시	이영섭	화 3:30	Armerding 126
6-13	선교사 가정의 갈등 해결	김만풍	화 5:00	SRC 223
6-14	사역과 탈진증후군 (Burn Out)	이승호	수 5:00	SRC 9
6-15	선교사의 재정관리 원칙	조일래	수 3:30	Blanchard 440
6-16	한국선교사의 시간개념	황태연	목 5:00	Edman W202
6-17	교육선교와 선교사 계속교육	이현석	수 5:00	BGC 263
6-18	선교사 자녀교육과 대학진학지도	이지수/임윤경	화 3:30	Blanchard 124
6-19	모슬렘 선교를 준비하는 자들을 위하여	탁수연	수 3:30	Blanchard 274
6-20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를 위한 5가지 준비	진 플랫폼	목 5:00	Armerding 226

## 7. 선교사역/전략

⑦-01	새로운 선교방법 - 미전도종족 입양과 그 결과들	송석홍	목 5:00	Blanchard 273
⑦-02	미전도 도시빈민을 향한 도시교회개혁	키스 필립스	화 3:30	MSC 207
⑦-03	팀사역의 실상과 허상	강대홍	화 5:00/수 3:30	Edman W202
⑦-04	도시선교자원의 동력화를 위한 선교사의 역할	김종국	목 3:30	SRC 9
⑦-05	신학훈련을 통한 현지지도력개발	정윤진	화 5:00	Armerding 122
⑦-06	제자훈련과 중동의 신학교 사역	공요셉	수 3:30	Blanchard 324
⑦-07	현지지역교회 전망과 젊은이들의 선교참여	백운영	수 5:00	Armerding 123
⑦-08	자국민을 통한 선교전략과 성도의 사명	임승환	수 3:30	SRC 9
⑦-09	현지인 선교사를 통한 미전도종족선교	타운 코르타도	화 3:30	Blanchard 440
⑦-10	현지인 교회개혁자들을 그들의 모국어로 훈련시키는 방안	팀 테일러	수 5:00	Blanchard 272
⑦-11	Got Bible? (성경번역)	오정호	목 3:30	BGC 432B
⑦-12	다문화권 선교전략	강준원	화 5:00	Jenks 101
⑦-13	선교단체가 교단선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박광수	목 3:30	Blanchard 124
⑦-14	세계선교 중보기도전략	이숙자	목 5:00	Blanchard 140
⑦-15	인터넷선교의 비전과 의의	이재규	화 5:00	Blanchard 274
⑦-16	방송선교를 통한 세계선교의 전략	최은중	화 5:00	BGC 432B
⑦-17	복화술을 이용한 창의적 전도방법	버지니아펠드먼	수 5:00	Blanchard 322
⑦-18	의료선교를 위한 자원정보	장현식	수 3:30	Armerding 126
⑦-19	지역보건선교 - 선교의 새 패러다임	서원석	수 3:30	BGC 432B
⑦-20	몬트리얼 외향선원목회와 의료선교의 전략	김광오	수 3:30	Breyer 111
⑦-21	다양한 어린이 전도방법 (세계선교는 어린이부터!!!)	여병현	목 5:00	Armerding 122
⑦-22	주일학교를 통한 교회성장의 모델: 파라과이	양창근	화 3:30	Blanchard 324
⑦-23	한인2세 교사 선교사의 역할	박영은	화 3:30	Armerding 123
⑦-24	위성방송을 통한 세계선교와 네트워킹	김경철	수 5:00	Blanchard 124
⑦-25	교사들이여, 세계로 나아가라!	유선희	목 5:00	Armerding 123
⑦-26	선교사 자녀학교 교사: 왜 미국에서 나가야 하나?	이근식	화 5:00	Blanchard 124
⑦-27	국제 MK학교에서의 한국프로그램	허지연	화 5:00	Armerding 226
⑦-28	장애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사역입니다	김홍덕	수 3:30	Blanchard 140
⑦-29	한센국제선교회 소개	이명남	화 5:00	SRC 9

## 8. 단기/평신도/전문인선교

⑧-01	단기선교의 효율적 방안	강승삼/백신중	화/목 5:00	Armerding 20
⑧-02	누구를 위한 단기선교인가?	전희근	수 5:00	Blanchard 273
⑧-03	단기선교의 허와 실제적 패러다임	김정한	화 5:00	Blanchard 324
⑧-04	평신도 선교자원 개발전략	류효명	목 3:30	Blanchard 139
⑧-05	평신도들의 선교참여	안성원	목 5:00	Breyer 207
⑧-06	Silver Mission - 후회하지 않는 마지막 헌신	김정문	목 5:00	Blanchard 124
⑧-07	선교지에 헬퍼를 보내드립니다	정운길	목 5:00	Blanchard 440
⑧-08	효과적인 선교후원의 길	최순자	수 3:30	Armerding 123
⑧-09	정보화시대 전문인선교와 컴퓨터센터를 통한 교회개척모델	김기석	목 3:30	Blanchard 140
⑧-10	자비량선교 -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현정	화 5:00	Blanchard 322
⑧-11	가정교회를 통한 평신도선교활성화	유재홍	화 3:30	SRC 9
⑧-12	평신도/전문인 사역과 해외선교사역의 연결	김기모/알렉스킴	수 3:30	Jenks 103

## 9. 북한/중국선교

⑨-01	북한을 위한 성경적 기도	데이빗 로스	화 3:30	BGC 432D
⑨-02	북한선교의 전망과 전략	김영철	수 5:00	Jenks 101
⑨-03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선교 정책과 전망	김진환	목 3:30	MSC 210
⑨-04	북한의 세뇌교육	이순옥	화 3:30	BGC 432C
⑨-05	북한의 종교탄압 현황에 대하여	이순옥	수 3:30	BGC 432C
⑨-06	북한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당면과제	이순옥	목 3:30	BGC 432C
⑨-07	북한식량위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지원방법	박준서	수 3:30	BGC B11
⑨-08	북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효율적인 식량공급과 의료선교	이학권/이영호	화 3:30	Edman W202
⑨-09	미 NGO가 보는 북한선교전략	손영구	수 5:00	MSC 210
⑨-10	중국과 연변선교 - 왜 중요한가?	이에스더	수/목 3:30	SRC 223
⑨-11	조선족의 위치와 선교적 역할	최민	화 3:30	Blanchard 274
⑨-12	중국선교를 위한 국내사역	남재신	목 3:30	Jenks 101
⑨-13	중국에서의 전문인사역의 실재	안드레	목 3:30	McManis Lounge
⑨-14	중국의 가정교회를 알아야 길이 보인다	오대선	목 5:00	Blanchard 324
⑨-15	중국 정치경제와 교회의 현황과 전망	유신일	수 5:00	Blanchard 140
⑨-16	중국선교개관	유진광	수 3:30	BGC 263

## 10. 선교광장/포럼

⑩-01	여성선교광장	김봉희/이익화	목 7:30 AM	Edman Chapel
⑩-02	평신도선교광장	류효명/이상진	목 7:30 AM	Coray Gym
⑩-03	차세대선교포럼	박짐밥/이승중	목 5:00	BGC 432C
⑩-04	의료선교포럼	장현식/전희근	목 5:00	Breyer 8
⑩-05	북한선교포럼	조동진/이순옥	화 5:00	BGC 432C
⑩-06	중국선교포럼	황이춘/토마스왕	수 5:00	BGC 432C
⑩-07	단기선교포럼	강승삼/조용중	수 5:00	Breyer 8

## 11. 아시아선교

⑪-01	일본 선교	김성수/장경태/장신덕	화 3:30	BGC 252
⑪-02	네팔 선교	허인석/김연정/이해덕/박웅현	화 5:00	BGC 252
⑪-03	라오스/캄보디아 선교	최중운/송진섭/서병도	수 3:30	BGC 252
⑪-04	말레이시아/싱가폴 선교	이순희/김정배	수 5:00	BGC 252
⑪-05	몽골 선교	최순기/임준호/천강민	목 3:30	BGC 252
⑪-06	미얀마/베트남 선교	인관일/김영관/오덕	목 5:00	BGC 252
⑪-07	방글라데시 선교	류수혜/이석로	화 3:30	BGC 253
⑪-08	스리랑카/인도 선교	최재영/김경희/최철만/김세진	화 5:00	BGC 253
⑪-09	인도네시아 선교	안성원/강신오/김충환	수 3:30	BGC 253
⑪-10	태국 선교	한준수/조준형/오세관/이미숙	수 5:00	BGC 253
⑪-11	필리핀 선교	김유식/김선숙	목 3:30	BGC 253

## 12. 구소련/중앙아시아선교

⑫-01	러시아(서부) 선교	김재광/황상호/이상길	목 5:00	BGC 253
⑫-02	러시아(동부) 선교	송상천/남일우/권영세	화 3:30	BGC 254
⑫-03	몰도바/아제르바이잔 선교	한호진/송기드온	화 5:00	BGC 254
⑫-04	우즈베키스탄 선교	김경일/정정옥/박창국	수 3:30	BGC 254
⑫-05	우크라이나 선교	장종일/김병모/강승빈	수 5:00	BGC 254
⑫-06	카작스탄 선교	박현선/김동권	목 3:30	BGC 254
⑫-07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선교	이기중/박성용	목 5:00	BGC 254

## 13. 유럽선교

13-01	그리스/스페인 선교	손영삼/차인수/최원규	목 5:00	Armerding 125
13-02	독일 선교	김승연/나승필/최용준	화 3:30	SRC 225
13-03	루마니아/알바니아 선교	박창수/이항모	화 5:00	SRC 225
13-04	프랑스/영국 선교	이극범/이용국/피기영	수 3:30	SRC 225
13-05	체코공화국/폴란드 선교	유정남/김현중	수 5:00	SRC 225
13-06	오스트리아/헝가리 선교	장황영/신성학	목 3:30	SRC 225

## 14. 중남아메리카선교

14-01	멕시코/과테말라 선교	이성균/변홍근	화 3:30	BGC 255
14-02	도미니카/수리남 선교	김종성/김성자/권순성	화 5:00	BGC 255
14-03	온두라스/코스타리카 선교	박명하/임낙길	수 3:30	BGC 255
14-04	에콰도르/페루 선교	김경택/황윤일	수 5:00	BGC 255
14-05	브라질 선교	안승열/이원길/유정은	목 3:30	BGC 255
14-06	아르헨티나/볼리비아 선교	정현식/이건화	목 5:00	BGC 255
14-07	파라과이 선교	최한오/홍사순	화 3:30	McManis L18

## 15. 오세아니아선교

15-01	뉴질랜드/호주 선교	조삼은/고명근/하태식	화 5:00	Heritage Room
15-02	사이판/피지 선교	김정남/김중호	목 5:00	SRC 225

## 16. 아프리카선교

16-01	가봉/카메룬 선교	최수영/윤원로	목 3:30	Armerding 125
16-02	감비아/세네갈 선교	홍종란/젠세잔/유춘안	수 5:00	Armerding 125
16-03	남아공 선교	전준수/이은원/김종석	수 3:30	Armerding 125
16-04	모로코/모리타니아 선교	허영희/권경숙	화 5:00	Armerding 125
16-05	보츠와나/짐바브웨 선교	김해영/김종균/박란순	화 3:30	Armerding 125
16-06	수단/차드 선교	김미경/김영섭	수 5:00	McManis L18
16-07	시에라레온/에티오피아 선교	윤장욱/박차순	목 5:00	McManis L18

⑩-08	우간다 선교	이명시/김순옥/박일규/고병덕	목 3:30	McManis L18
⑩-09	케냐 선교	김옥실/김찬경/이상석	수 3:30	McManis L18
⑩-10	탄자니아 선교	방경순/송명천/정병애	화 5:00	McManis L18

## 17. 중동선교

⑪-01	중동 A국 선교	솔레만/임방통/이교수	화 3:30	Heritage Room
⑪-02	중동 B국 선교	이만석/김영섭/이병구	수 3:30	Heritage Room
⑪-03	중동 C국 선교	이미숙/조창현/곽동신	수 5:00	Heritage Room
⑪-04	이스라엘 선교	정연호/양병문/서병길	목 3:30	Heritage Room
⑪-05	이집트 선교	김신숙/최용근/문병선	목 5:00	Heritage Room



# 1. 선교일반

## ①-1 Back to Jerusalem 운동

토마스 왕 / 대사명선교센터 대표



중국 북경 3대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 11세대 전도자 존성을 통해 회심, 왕명도목사에게 양육받고 대만장로교신학교와 미조리 선추얼신학교를 수료하고 윌리엄캐리대학교에서 문학박사, 고든웰신학교에서 신학박사를 수여하였다. 1961년 중국기독교회를 1976년 중국세계선교협의회를 창설, 사무총장 역임, 1987년 로잔세계선교운동 국제총무로 선임되어 1989년 제2차 마닐라 로잔세계선교대회를 총괄하였다. 1989년 기독교21세기운동을 창설하여 미전도종족복음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1989년 창립한 대사명신학교/선교센타를 통해 타문화권과 중국어권 선교를 위해 선교사역자를 훈련하며 수많은 선교대회 주강사로 활약하는 세계적 선교지도자다.

60여년전(1940년대) 하나님은 중국 북부의 수많은 목회자들의 심장에 한 비전을 심어주셨다. 그것은 중국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교회를 세우며 나가는 것이었다. 이들은 선교여행을 시작하여 중국 북서부의 진장(Xinjiang)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1949년 이후부터 그들은 중국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섬기고 있다. 나는 지난 9월 진장에서 이 개척자들 중 6명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이제 나이가 85-91세가 되었고 육신적으로 약해져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비전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중국 내외에서 다시 일으키셨다는 말에 기쁨으로 넘쳤다! BJ (Back to Jerusalem) International은 올해 3월,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미국을 포함한 14명의 발기인들을 통해 창설되었다. 이제 나아갈 길을 바라볼때 우리는 중국내의 처소교회들과 해외 중국교회 뿐 아니라 전세계의 선교동반자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하다.

## ①-2 교회와 선교의 새로운 물결

루이스 부시 / 파트너스 인터네셔널 총재



아르헨티나 출신인 루이스 부시는 파트너 인터네셔널의 총재로 2,800개 교회를, 그 중 80%를 10/40장에 개척하였다. 1989년 마닐라 로잔대회에서 선교초점지역으로 10/40장 개념을 주창하였으며 기독교 21세기운동 국제총무로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운동과 여호수아작전 운동을 일으켰다. 현재 전세계 선교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세계문의(World Inquiry)운동을 진행중이며 여기서 나온 주제들은 2004년 9월에 열리는 로잔포럼에서 의제로 나누어진다.

이 세미나에서는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불어오기 시작하는 역동적인 갱신운동, 폭발적인 영적사역들 등을 통한 선교의 새로운 물결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새물결들 중 브라질의 Radical 프로젝트,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Back to Jerusalem 운동, 인도네시아의 Transform World: Indonesia 2005과 같이 한국교회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운동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①-3 여성과 선교

도리스 부시 / 파트너스 인터네셔널 루이스 부시 총재 사모



도리스 부시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신으로 남편인 루이스 부시를 통해 예수를 만났으며 남편과 함께 다수의 사역에 동참하였다. 특별히 엘살바도르에서의 여성사역, 여성선교도원운동, 과테말라에서의 여성선교운동, 콜로라도스프링스에서 Moms-In-Touch 그룹 조직, 북인도에서 어린이사역, 라틴아메리카 교회를 대상으로 타문화권 선교사 파송동원 등의 사역을 하였으며 남편과 함께 10/40장 개념을 창안하였다. Intercultural Studies 관련 예술석사 학위를 받았다.

선교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구약의 에스더, 신약의 리디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계 각지에서 들어쓰시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 ①-4 예술을 통해 나누어지는 복음

도리스 부시 / 파트너스 인터네셔널 루이스 부시 총재 사모



도리스 부시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신으로 남편인 루이스 부시를 통해 예수를 만났으며 남편과 함께 다수의 사역에 동참하였다. 특별히 엘살바도르에서의 여성사역, 여성선교도원운동, 과테말라에서의 여성선교운동, 콜로라도스프링스에서 Moms-In-Touch 그룹 조직, 북인도에서 어린이사역, 라틴아메리카 교회를 대상으로 타문화권 선교사 파송동원 등의 사역을 해왔으며 남편과 함께 10/40창 개념을 창안하였다. Intercultural Studies 관련 예술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세미나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주제를 나눌 것이다.

- 1) 르네상스 시대에 예술을 통해 복음을 나누었던 것을 거장 램브란트를 중점으로 살펴본다.
- 2) 근대시대에 있어 특별히 프란시스 웨퍼의 관점을 중심으로 예술을 통해 나누어지는 복음을 고찰한다.
- 3)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 복음을 나누는데 있어 오는 심각한 도전을 살펴본다

## ①-5 선교의 세계화

패트릭 존스톤 / WEC 국제연구 디렉터



세계선교정보의 바이블과도 같은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의 저자로 1962년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책자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후에 WEC선교회에 합류, 국제연구 디렉터로 사역하면서 선교사들과 선교지망자, 후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수집, 세계선교 완수를 위한 전략들을 개발해 왔다. 로잔협의회 전략그룹원으로, 또 기독교 21세기운동의 미전도종족네트워크의 공동지도자로 사역하였고 2001년도 세계기독교백과사전을 위한 전세계 모든 종족에 대한 연구자료를 제공하였고 같은 해 세계기도정보 2001년도판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현재 13개 언어로 번역되어 총 2백만부 이상이 선교동반자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다

선교의 세계화(The Globalization of Missions)는 지난 20년간에 걸쳐 트라미틱하게 발전되어온 현상이다.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 최근판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전세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지리아, 브라질, 필리핀, 인도, 한국 그리고 급증하는 중국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좋아하던 안하건(나는 물론 좋아한다!) 현재 선교의 세력은 세계화가 되었고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동역해야만 하는데 여기에는 큰 축복이 있는 반면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축복을 극대화하면서 위험요소를 배제할 것인가를 함께 연구하고 나눌 것이다.

## ①-6 선교의 관계성

엘렌 로스 / 오대원 목사 사모

엘렌 로스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빛나는 여인, 평화의 사람으로 표현한다. 엘렌 로스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목회적인 사역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희년사역(Jubilee Ministry)이라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61년부터 오대원 목사(David Ross)의 부인으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으며 인류학 박사이기도 한 그녀는 일종의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자녀 셋은 모두 장성하여 결혼하였다.

관계란 기독교인의 생활에 있어 심장과도 같은 것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미혼자들과 기혼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데 있어 관계성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런 관계성을 통해 오는 축복들과 어려움들을 나눌 것이다.

**①-7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금세기의 변화하는 패러다임**

짐 테비 / 어바나 디렉터



파키스탄에서 장로교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 일생동안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왔다. 특별히 모슬렘권을 향한 마음으로 지난 25년간 방글라데시, 요르단, 파키스탄에서 인터서브선교회와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해 오다 1992년부터 국제 총무로 지금까지 사역해 오고 있다. 작년 12월 일리노이주에서 열리는 미국최대의 학생선교대회인 어바나의 디렉터로 대회를 관장하였다. 금번 영어권 대회에서 주제강연 강사로도 참여하고 있다.

**①-8 역사전환기의 세계선교 새 패러다임**

조동진 / 통일환경연구원장



1961년 한국교회사상 최초로 선교학을 신학교 교과과정으로 설치하고, 또한 최초로 선교대학원인 동서선교개발원을 설립, 선교사양성을하여 30년간 1,500명 이상의 한국과 아시아 선교사들을 교육해 왔다. 현재는 1995년에 설립한 사단법인 민족통일에스라온동협의회 이사장으로, 통일환경연구원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1. 기독교는 더 이상 서양 종교가 아닌 세계종교이다.
2. 역사 중심의 변동과 순환 추세
3. 선교 패러다임의 변동 추세
4. 선교구조 갱신의 역사적 개관과 미래를 위한 패러다임
5. 미국 선교세력의 감퇴 추세
6. 새로운 세기에 있어서의 지리정치학적 전략지역과 선교적 전략지역
7. 새로운 세계 질서의 생동 8. 새로운 세계선교 세력의 폭발
9. 새로운 세기의 선교신학과 이론의 정립

## ①-9 선교의 기본 틀

이동휘 / 전주안디옥교회 담임



세계선교를 위해 1983년 교회재정의 60%이상을 선교비로 쓴다는 창립정신으로 개척한 전주안디옥교회(일명 강통교회)는 양철콘서트건물에 모인 2,700명의 교인이 160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매월 10만불 이상의 선교비를 지급하고 있다. 1986년 선교의 규범인 사도 바울의 선교정신을 이어받자는 뜻에서 「바울선교회」를 세우고 현재까지 72여개국에 24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며 아직도 선교의식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전체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의 도전적 메시지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목회자이다. 한신대학교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나왔으며 저서로 전주안디옥교회의 이야기를 담은 감동적인 「강통교회이야기」가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1. 말씀의 귀중성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 1) 주님의 승천전 마지막 말씀(최후명령, 대 위임, 유언)이란 엄중성 - 유언은 반드시, 최후 부탁은 엄중한 내용이므로 꼭 지켜야 한다.
- 2) 교회의 사명을 함축된 내용이라는 본질성 - 내가 서있는 여기서부터 세계까지 꼭 갖출 알뜰한 선교내용이다.
- 3) 순서적 명령이 아니고 동시적 명령이라는 현재성 - 과...과...과로 되었다. 4곳을 동시에 하라는 오늘 사명이다.
- 4) 최우선 순위 일변이라는 긴급성 - 제자들은 나라회복을 최대 과제로 보았으나 주님의 우선과제는 다르다. 복음전도와 복음선교를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

## 2. 교회는 선교의 4구역을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

- 1) 예루살렘 선교- 교회의 수적 질적 증가가 된다 - 자기가 사는 마을, 자기의 중심도시다. 내가 있는 이 지역 전체와 이 지역 안에 있는 내 교회 모두를 예루살렘 선교로 봐야한다. 교회와 교회를 둘러 싸고 있는 지역의 변화까지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 2) 온 유대 선교- 민족 복음화 기독교적 국가를 이룬다 - 이 나라의 모든 성령안에서의 대 부흥을 사모해야한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건강한 국가로 건설 되기 위해 십자군전도운동을 일으킨다.
- 3) 사마리아 선교-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존경받는 기독교가 된다 - 사마리아 땅이 유대인에게 경멸과 소외된 지역이란 개념에서 소외계층과 특수분야에 대한 특수선교의 실천이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했다. 돕는 교회로서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 4) 땅끝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한다 - 24,000종족 중에 아직도 일만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다. 예수님의 "온 천하에 다니며" (막 16:) 모든 족속으로 가서(마 28:) "땅끝까지 이르러"(행 1:8) 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땅끝 선교를 할 때에 세계를 가슴에 품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관심사가 된다.

## ①-10 성경으로 본 한국교회 종말의 선교사역

이광복 / 빌라델비아선교회 담임



한국교회를 깨워 불밝히고 신앙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로 단장시키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고 있는 그의 선지자적 열정은 이미 교계에 널리 알려진 바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복음적 종말론세미나는 지난 8년간 참여한 목회자만도 6만명이 넘어 자칫 오해와 박해를 받기 쉬운 종말론의 각성운동을 대중적으로 아이콘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종말론 외에도 성경해석학, 설교학의 권위자이며 예배학, 교회음악, 설목회 등 무려 230여권의 저술과 함께 집회를 인도했으며 세계선교의 열정도 놀라워 빌라델비아선교회를 설립하고 50여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했으며 선교사 안식관도 운영하고 환돌선교회를 통해 인터넷선교도 크게 펼치고 있다.

### 1. 창세기

"또 가로되 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썸의 종이 되고 "(창 9:26)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아시아 민족인 셈족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여 맨 나중에 크게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의 역사적 사실은 가장 먼저 지중해에서, 그 다음은 대서양에서, 마지막에는 아시아에서 드러나고 있다. 함족은 가장 먼저 문명을 이루었다. 야벳족은 물질문명을 이룩했다. 이제 셈족은 하늘의 복, 신앙 문명을 이룩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셈의 후손이다. 따라서 셈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 또한 이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다.

### 2. 아시아 태평양 시대

함(아프리카족)의 시대가 지나고 야벳(유럽족)의 시대를 지나 셈족(아시아민족)의 시대에 이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시대는 아시아지역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움직임은 보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물론 민족 우월주의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지혜를 주실 더하신다. 그리고 이런 일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바로 창세전부터 이 민족을 쓰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선교는 특권이자 사명인 것이다. 세계 선교 2위의 금자탑을 이룬 한국교회는 오직 예수, 재림신앙으로 더욱 무장하여 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 3. 한국 선교시대의 타당성

21세기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다.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통하여 한국을 세계 속에 세우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은 선교를 위한 축복이다.

## ①-11 이 시대로 풀어 본 계시록 전장 요약강해

이광복/빌라델비아선교회 담임



한국교회를 깨워 불밝히고 신앙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로 단장시키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고 있는 그의 선지자적 열정은 이미 교계에 널리 알려진 바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복음적 종말론세미나는 지난 8년간 참여한 목회자만도 6만명이 넘어 자칫 오해와 박해를 받기 쉬운 종말론의 각성운동을 대중적으로 아이콘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종말론 외에도 성경해석학, 설교학의 권위자이며 예배학, 교회음악, 셀목회 등 무려 230여권의 저술과 함께 집회를 인도했으며 세계선교의 열정도 놀라워 빌라델비아선교회를 설립하고 50여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했으며 선교사 안식관도 운영하고 흰돌선교회를 통해 인터넷선교도 크게 펼치고 있다.

## 1. 성경의 결론이요 완성

창: 상실한 에덴(첫 사람 아담) ↔ 계: 예수에 의해 회복될 에덴(마지막 아담)  
창: 구속사의 시작 ↔ 계시록: 구속사의 완성, 창세기: 서론 ↔ 계시록, 결론

## 2. 내용은 복음서나 서신서와 동일

표현: 상징, 내용: 복음서나 서신서와 같은 진리의 말씀

## 3.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증거(19:11~21 절정). 신약 25절당 1절 재림에 대하여 언급. 22장은 7절, 12절, 20절 거듭 반복

## 4. 장차 될 일을 보고 기록한 책

"반드시 속히 될 일"(1:1), "장차 될 일"(1:19), "이후에 마땅히 될 일"(4:1), "결코 속히 될 일"(22:6)로 네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 "될 일"이란 상징의 표현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임을 확증

## 5. 전 성경을 배경으로 함

계: 구약 39권 중 26권 인용(총 404절 중 278절 직접 인용). 구약의 유사 표현 약 348회 중 약 95회 반복적 사용(약 250회 정확한 유사표현 사용). 1~5장까지 구약 85회 인용

## 6. 기록의 형태가 상징으로 표현되었음

상징적 해석이 아닌 "장차 될 일"로 해석하는 상징의 해석을 해야 함

## 7. 이 시대로 해석해야 함

안토니오 후크마: "우리는 재림이 시간상으로 임박했다고 말하지 말고 상황적으로 임박해 있다고 말해야 할 것"  
헨드릭슨: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나간 한 세기 반 전부터(특히 1792년 이후) 선교운동이 크게 부흥되어 왔다는 점이다. ... 이제 와서는 지구의 거의 전역의 구석구석에까지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었다...이것이야말로 신속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징조"

박형룡: "천년기 후, 무천년기, 역사적 천년기 재림론은 다 이 대사변들을 재림의 징조로 알아 주목하고 있다."

## ①-12 비지니스와 선교

황성주/국제사랑의봉사단 설립자



서울의대와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합동대학 신학원을 나와 독일 프리덴바일러 암전문병원에서 연구생활을 했던 황성주 박사는 서울의대 등에서 교편을 잡다가 '사랑의클리닉'이라는 성인병 및 암전문병원을 설립하였다. 80년말부터 한국라브리를 꿈꾸며 국제사랑의봉사단을 창단, 전세계 어두운 지역의 이웃들을 섬기고 있으며 90년대에는 성경적 전인치유, 상담, 말씀, 전도훈련을 위해 호도애학교를 설립, 수많은 전임 사역자와 사모, 평신도 지도자들을 섬기고 있다. 이윤라이프의 황성주생식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성서 건강학」, 「생식과 건강」, 「사랑의 치유일지」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돈과의 바른관계

\*선교지에서 중요한 문제, 심오한 보편적 문제-깊은영성, 영적 통찰력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도전에 대한 응전

\*마틴루터의 세가지 회심

\*부(mammon)-아랍어-경쟁신(rival God)--영적인 실제

\*소유권의 회심-Lordship...많이 가질수록 부담...요한 웨슬레

\*어떻게 벌 것인가-성경적 부자가 되는 방법...유대인들 돈의 흐름을 왜곡

\*이제는 어떻게 벌 것인가...경영의 프로세스가 중요...전염력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 확산 모델이나...경제력과 복음의 확산을 결합시킬 것인가

\*비지니스 선교의 영역과 창조적 접근

\*눅 16장...경제적 원천으로 비경제적 목표를 위해 활용한 점-세계복음화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마 6장)-생명 & 사람 키우는 일에 투자

\*선교자금을 어떻게 충당했는가 예수님...눅 8:1~3 사도바울...행 20:33~35, 빌 4:10~19, 고후 8:1~9

\*가능하면 부가가치가 높은일을 하라

\*돈과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어떻게 순결할 것인가..극대화 시킬 것인가

\*사역자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행 10:13 일어나 잡아 먹으라

\*감성, 영성의 시대...전인치유 받은 자가 가장 앞서간다

## ①-13 사랑의 경제학

황성주/국제사랑의봉사단 설립자

\* 성경적 경제학의 대전제 폴 마이어와 베훈의 기술... 잠 11:24,25 잠 10:22, 고후 8:9, 고후 9:8

\* 야베스의 기도는 성경적인가(대상 4:9,10) 축복과 성공.... success or significance

\* Giving Life... 요의식을 가져라(눅 6:38)... 풍성한 삶, 차고 넘치는 삶, 나누는 삶 Attitude is everything!

\* 부담스러운 이야기(world christian, worldly christian)- 마25:31-46 전 세계의 영적/정신적/물질적 필요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 제 3세계 개미은행... 투자개발주식회사 \* 돈을 주지 말고 직업을 창출해 주어라 \* 돈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그리스도의 주권아래...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서 필요한 음식과 의복... 선순환... 크리스천뱅크 돈을 새롭고 창조적이고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

\* 물질에 대한 도전/초대교회의 혁명적 삶/돈이라는 우상의 무력화 Giving Life를 위한 실제적 지침 # 합리적인 기부와 모험적인 기부사이의 창조적인 긴장 # 투자적 개념... 폴 마이어 박사 \* 깨끗한 부자되는 법칙... 우리의 탈무드를 만들자... 축적의 법칙 \* 주는 것과 부를 관리하고 증대시켜 활용하는 것의 균형을 유지하라 \* 복의 근원이 되자(창 12:1-2)

**①-14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성경종말론 입문**

장진용 / 평신도설교자



Peter Chang : PCA교단의 장로로, 평신도설교자로, WSMC 종말론성경강해 교사로 그리고 차세대 영어권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사명에 불타는 말씀사역자로 특별히 주의 재림과 역사종말의 긴박성에 대한 무관심속에 있는 차세대들에게 영적각성과 선교사명을 불러일으켜 세계복음화를 위한 천국추수의 일꾼들로 헌신토록 독려하는 일에 생애를 던지고자 하는 장진용 장로는 서울대학교와 뉴욕주립대(NYU)를 나와 도로업체인 뉴본부라더스사를 창설하고 사장으로 있다.

기차는 두 개의 철로 위를 달린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복음도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개의 선로 위에 달리고 있다. 이 두개의 선로는 기차가 종착지까지, 즉 주님의 구원사역이 완결되어지는 데까지 가기 위해 서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이 입문을 통해 우리는 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역사학적, 해석학적으로 뒷전에 밀려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용어들을 공부한 후, 마지막때의 예언에 흔히 의례 등장하는 상징과 은유, 숫자들에 대해서 조심스런 분석을 가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경으로 하여금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하며, 기록된 글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억측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또한 하나님은 일시를 정하셨는가 하는 점과 왜 그러한 관점이 비성경적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①-15 휴거**

장진용 / 평신도설교자

[데살로니가 후서 4:14-17]

헌신적인 기독교인들은 종종 이 중대한 이슈에 있어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을 알지 못한 채 서로 다른 입장들을 취하고 있다. 휴거가 환란 전이나, 중이나, 후냐 등 자신이 가진 입장에 따라 계시록을 대환란 때에 믿지 않는 자들과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종말예언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 세미나에서 이 세계의 관점을 최대한 공정하게, 각각의 관점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조명해 볼 것이다. 이렇게 할때야 억측이나 허구, 상상들이 들 어설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계시록이 지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찬 책이 되거나 아니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먹어 소화시켜야 되는 책이 될 것이다.

**①-16 두 증인**

장진용 / 평신도설교자

[요한계시록 11:3-13]

굵은 베옷을 입고 대환란의 마지막 일천 이백 육십일간 주님의 영광스런 재림을 예비하다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두 증인은 실제 에녹과 엘리야인가?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인가? 과연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교도들과 이스라엘인들을 향한 최후의 위대한 전도사역을 펼칠 것인가? 아니면 재판시 요구되는 둘이라는 숫자의 이 두 사람은 왕의 재림이 있기 전에 있을 종말의 추수꾼들을 예표하는 하는 것인가? 구약의 두명의 재판상 증인에 대한 전례와 예수님의 초기사역에서 들쭉 찌꺼기 보 냈던 증인들과 다른 성경상의 선례들을 살펴 볼 것이다

## ①-17 해를 입은 한 여자

장진용 / 평신도설교자



Peter Chang : PCA교단의 장로로, 평신도설교자로, WSMC 종말론성경강해 교사로 그리고 차세대 영어권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사명에 불타는 말씀사역자로 특별히 주의 재림과 역사종말의 긴박성에 대한 무관심속에 있는 차세대들에게 영적각성과 선교사명을 불러일으켜 세계복음화를 위한 천국추수의 일꾼들로 헌신토록 독려하는 일에 생애를 던지고자 하는 장진용장로는 서울대학교와 뉴욕주립대(NYU)를 나와 도료업체인 뉴본부라더스사를 창설하고 사장으로 있다.

[요한계시록 12:1-6]

이 여인은 과연 카톨릭교회에서, 혹은 구약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를 뜻하는 것인가? 이 여인이 고통중에 해산하는 아기는 예수님을 뜻하는가? 아니면 이 여인은 대환란 시대하에 있는 진정한, 믿음의 교회들을, 순교당하는 주님의 진정한 종들과 성인들을 낳는 교회를 예표하는가? 이 세미나에서 우리는 어떻게 첫 여성인 이브가 창조되었는가와 신약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하는 것과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경건한 여인들인 사라, 한나, 엘리자베스와 같이 아이가 없다가 약속에 의해 잉태하게 된 여인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갈라디아서 4:22-27에 바울사도의 두 여인(하갈과 사라)에 대한 알레고리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여인과 아이가 진실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경고와 훈계를 하셨는데 이 교회들은 역사상 모든 형태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 ①-18 큰 음녀

장진용 / 평신도설교자

[계시록 17:1]

이 여인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불린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취해있고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 이 여인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못하도록 목이 끈고 반혁명이며 배교적인 세계문명을 가르키는가? 아니면 타종교들을 평화와 형제애라는 깃발아래 통합하여 예수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 중 하나일 뿐이라 주장하고자 하는 세력을 일컫는가? 이 세미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수 후 인류를 흠어버리셨던 옛 바벨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옛 바벨은 여러 우상숭배의 원산지로서 이스라엘까지 그 영향을 미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 바빌론으로 유배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바벨론이 점성술과 이교숭배의 중심지가 된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카톨릭, 뉴에이지 그리고 다른 종교들의 연합운동과 유사하지 않은가?

## ①-19 두 짐승

장진용 / 평신도설교자

[계시록 13:1-18]

이 종말론의 첫번째 짐승(적그리스도)는 두번째 짐승(거짓 예언자)에 의해 지지를 얻게 되며 전례없는 성도의 핍박을 감행한다. 이 두 짐승은 짐승의 상을 예배하지 않고, 일용품을 매매할 수 있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죽이게 된다. 적그리스도의 영(요1 4:3), 적그리스도의 역사적 타입(단 7:8, 9:27)들이 종말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논하기 전에 설명되어질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을 멸망의 아들, 무법자인, 사탄의 인격화(지옥의 삼위일체 중 2위인)의 나타날 모습에 대해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정부운동의 움직임과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의 부재현상도 다를 것이다.

①-20 핍박받는 교회

잭 쉐퍼 / 오픈도어선교회 중부 책임



박해와 제한지역 선교를 50년간 해온 오픈도어선교회의 중부지역 책임자로 있는 잭 쉐퍼는 중국, 몽골, 베트남, 그리고 남미지역 등에서 선교를 위한 돌파구를 뚫는 사역 및 박해교회를 위한 성경공급을 해오고 있다.

①-21 선교의 신학화

신흥식 / 태국 선교사



1971년부터 현재까지 태국선교사로 최장기 사역을 하며 태국기독교총회, 방콕신학교 부원장겸 신학대학원장으로 신학교육을 통한 현지인교역자 양성, 신학서적 출판, 도시교회 개척지도 및 지원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 ①-22 학문의 체계에 있어서 선교학의 위치와 역할

박기호/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원장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원장이자 아시아 선교학부교수인 박기호 목사는 충신대학교,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아시아 연합신학연구원(ACTS),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을 나왔으며 아시아 선교연구소 소장, 아시아 선교학회 회장으로 있다.

## 들어가는 말

크리스천 리더십은 그 자체가 독특한 분야이다. 전통적인 신학과목과 비교해 볼 때, 리더십은 적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자의 목회 현장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크리스천 리더십과 관련된 강의 내용이나 연구 방법이 다른 과목과 구분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분야 중에 하나가 선교사나 목회자 자신과 자신의 독특한 은사, 그리고 사역 현장(context)을 이해하는 것이다. 크리스천 리더십이 독특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목회학을 책임 있고 효과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명히 규명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크리스천 리더십이 기존의 신학의 바탕에 근거한 것이고, 선교신학에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신학(Academic Theology)과의 차이점, 실천신학과의 차이점, 그리고 선교신학과의 차이점 등이다. 신학이 목회를 섬기는 역할 보다는 목회를 비판하는 역할에 편중되는 한국교회의 신학 풍토를 고려할 때, 이미 언급한 요소들을 이해함이 없이는 크리스천 리더십의 이해나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여기서는 신학의 체계에 있어서, 리더십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그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장 사역의 관점에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실천신학과 선교신학은 무엇인가, 선교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학의 한 분야로서 리더십의 위치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 학문의 체계에서 신학의 위치와 역할을 먼저 다룬다.

## 학문의 체계에 있어서 신학의 위치

오늘날은 학문의 분야가 방대해졌다. 여기서는 그 다양한 분야들을 학문의 대상, 방법 그리고 범위 등의 특성을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그 중에 한 분야인 신학을 다시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서 신학의 주요 관심 사항과 그 역할을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학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언급하고 신학의 분야를 다루고자 한다.

## 상식 (Common Sense)

1.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한다고 믿는 느낌, 의식, 관념, 여론 판단력
2. 어떤 사물들이나 사건을 평가하거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신중한 생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는 것. 여기서의 기준은 이론적 근거나 감정적 근거로부터 자유롭고,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다.
3. 자연적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쉽게 동의하는 것

## 과학 (Science)

1. 연구 또는 실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
2. 자연의 법칙 또는 일반적 원리에 대해서 축적된 지식

3. 물리적 세계(사실)와 현상에 대한 지식
4. 객관적 대상의 인식이 과학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 철학 (Philosophy)

1. 어떤 원리나 원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연구하는 것
2. 사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보다는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
3. 근본적 신념의 근거 또는 기초를 비평적으로 시험하는 것
4. 근본적 신념들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기본적 개념들을 분석하는 것
5. 체계적이거나 그렇지 못한 지식, 삶의 내용들, 세상의 일반적 속성 그리고 신념의 정당성에 대한 합리적 비평적 사고

#### 신학 (Theology)

1. 종교 차원의 믿음, 신앙 생활 그리고 경험 등에 대한 이론적 설명
2. 종교 또는 종교 그룹의 전통적 교리들의 진술, 적용 그리고 분석
3.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4. 종교적 신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 지적 학문

#### 신학의 내용들과 방법들

신학도 학문으로서 그 안에 각기 다른 분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분야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각기 다른 특징의 방법들을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는 신학을 그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다른 학문들의 분야에도 적용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도 적용되는 요긴한 것이다.

#### 성경신학 (Biblical theology)

성경신학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문맥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 때에 본문의 정치, 경제, 지리, 문화, 종교적 배경은 물론이고 문법적 요소도 중요하게 참고하는 것이다. 성경신학은 주로 성경말씀, 그 자체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밝혀 내는데 목표를 삼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나 현실의 요소에 구애 받지 않고 본문의 맥락에만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처럼 성경신학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밝혀냄과 동시에 다른 학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게 된다. 성경 성경신학에서 사용되는 방법의 특징은 분석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주제별로 나눈 다음, 그 주제를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분야이다. 어떤 주제를 선택한 다음, 성경 여러 곳으로부터 그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료들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에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론, 기독교론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도울 뿐 아니라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게 한다. 특히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다른 종교로부터 기독교를 수호하는 일을 하며 변증하는 자료를 만든다. 조직신학에서 사용되는 방법의 특징은 조직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역사신학(Historical theology)

역사신학은 기독교의 신앙 활동이 역사 선상 (시간과 공간 속에서)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각 시대마다의 신앙생활의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 시대마다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였으며, 또 그 이해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다음 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근거로 삼아서 오늘날의 신앙 흐름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역사신학에서 사용되는 방법의 특징은 분석 조직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실천신학(Practical theology)

실천신학은 역사신학이 밝혀 낸 문제들을 해결하고, 역사 신학이 제시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 지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로 이해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교회사라는 거울 또는 임상의 결과를 토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이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밝혀낸 다음 성경신학의 도움으로 성경을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하여 해답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 조직 신학적 검증을 한 후에야 비로소 그 대책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안목에서 볼 때 실천신학은 성경신학, 조직신학 그리고 역사신학을 바탕으로 삼지 않고는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이런 점에서 실천신학에서 사용되는 방법의 특징은 앞의 세 가지 분야의 방법론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 그리고 임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신학의 위기

간하배(Harvie M. Conn)교수에 의하면, 오늘날 신학이 위기적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계몽주의 이후부터 신학(academic theology)이 신앙의 실천과 점차적으로 멀어졌고 현재는 신학 그 자체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풀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의 여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신학의 내용이 은유(metaphor)적이 되어졌고 실재(reality)를 들어내는 거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이런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epic proportions)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학문(as an academic discipline)으로서의 신학이 신앙생활, 즉 삶, 예배, 믿음의 공동체들을 섬기는 봉사 사이에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말해야 할 지경이 되었다. 신학의 세계는 그 자체의 일관성 있는 방법론과 타당성에 몰두해 있는 반면에 신앙 공동체(faith communities)는 그 공동체가 보수든 진보든 중립이든 상관 없이 학문성을 가진 신학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전통적인 서구 신학 전제들은 신학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와 실제 신앙생활과 신앙지식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그 결과 교회는 그 사역을 위한 타당한 신학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 성경에 지지를 받는 신학을 세우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현실에 적합한 신학을 세울 수가 없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신학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지지를 받는 타당한 신학을 세울 수 없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간하배(Harvie M. Conn)에 의하면,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로 신학을 철학의 세속적 개념에 의존하는 형이상학적 사변과학으로 보는데 기인한다. 그에 의하면, 신학의 과제를 보편적인 존재론적 과제로 봄으로서 신학은 추상적인 정의들을 규정하고 하나님을 대문자 Being으로 천명하는 것을 그 임무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신학 입장은 사물들이 다른 사물들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신학에 대한 스콜라적인 접근방법에 치중한 결과다. 신학의 관심사는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바 진리 그 자체이다. 반면에 청중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진리를 가볍게 본다. 스콜라적인 신학자들이 추구한 것은 진리이지 죄인들이 아니었다. 이들의 의도는 심령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철학과 싸우려는 것이었다 (간하배 :252-253).

잔 후레임(John M. Frame)은 신학과 삶이 양극화 현상의 주요 원인이 신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신학에 대한 오해들이라 함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에 따른 이해를 말한다. 주관주의는 신학을 언어를 통하여 기독교적 종교적 감정들(느낌, 직관 그리고 감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성경을 인간의 감정으로 대체하여 그것을 신학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이 감정이야말로 인간 상황의 결정적 해석이요, 영적 성장의 궁극적 능력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런 이해에서의 신학은 성경의 진리를 인간의 필요성(human need)과 연결시키려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성경을 재해석하게 함으로서 인간의 필요가 어느 정도 성경의 구조와 내용을 결정하게 되고, 따라서 인간의 권위가 성경을 대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평가이다.

객관주의에 있어서 신학은 성경적 진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수용하는 데에 필요한 작업이라고 본다. 즉 성경은 "사실들"을 내포하고 있고, 신학자들은 마치 과학자들이 자연의 사실들을 수집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실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에 관하여 "법칙들(laws)"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신학은 "사실들(facts) 그 자체들로서 내포된 원리들이나 일반적 진리들과 함께 성경의 사실들을 그 적절한 순서와 관계들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전체를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다(프레임 1992:162). 객관주의적 신학의 정의는 주관주의의 신학작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즉, 인간의 권위가 성경을 대신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공헌을 했지만,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테면, 객관주의적 신학은 성경을 "사실들의 덩어리(body of facts)"로 보았고 마치 성경 그 자체가 설명하고 있는 순서에 부적당한 무엇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인간의 필요성(human need)을 조직적으로 제외시킴으로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과학자가 진리를 인간의 필요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것"이라고 정의하듯이 신학을 순전히 "객관적인" 학문이라고 이해 함으로서 신학이 이론과 신학 작업 그 자체에만 제한되도록 영향을 미쳤다.

한국 교회의 신학은 어떠한가?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신학과 삶의 관계 또는 신학과 사역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수영은 한국 개신교회 역시 두 신학의 경향이 신학과 삶 또는 실천이 양극화되는 현상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이수영은 한국 개신교회의 신학에 영향을 끼친 정신적 흐름을 크게 세 갈래로 구분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외에 또 다른 하나는 무신학적인 흐름이다. 즉, 성실한 성경연구와 그에 따른 경건한 삶의 추구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서 무지를 향하는 도피적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적 관심으로 지배되는 신앙 형태이다 (:41-42). 그 두 신학경향 중의 하나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 일어난 종교 개혁운동의 근본 사상을 고수하는 칼빈적, 복음적, 성경적 개혁주의 보수 신학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다양한 사상의 수용과 문화의 접목을 표방하는 일군의 급진적 신학 경향들로 본 것이다. 전자는 그 근저에 인간의 죄와 타락성에 깊은 인식을 깔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은총, 성령의 역사의 절대능력, 성경의 절대권위를 중시, 강조하는 신학으로서 신본주의, 계시와 은총의 신학이다. 이수영에 의하면, 이런 신학은 첫째로 그 신학의 구조, 방법, 체질이 사변적이고 연역적이며 교조적인가 하면, 둘째로 그 관심이 신앙생활의 수직적인 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교인들과 나아가서 일반 세상의 구체적 현실문제에 둔감해지기 쉬우며, 셋째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성의 실천에 소극적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한국 개혁주의 보수신학은 본래 종교 개혁자들이 지녔던 복음이해와 생동력과 뜨거움에서 멀어지면서 중세의 스콜라주의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 곧, 인본주의 자연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학 경향들은 그 문제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대체로 경험적이고 귀납적이며, 신앙생활의 수직적인 면보다는 인간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나 문화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행동적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이 뚜렷하다. 이러한 신학의 결과는 신앙생활의 수직적인 면이 망각되거나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상실되고 복음 자체가 변질되며, 예배, 기도 등 경건 생활에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만든 것이다.

다음의 한국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신학교육과 관련해서 제안하는 내용들은 이수영의 주장을 지지한다.

전호진 교수-오늘의 커리큘럼도 성경에 기초하면서 우리 문화와 시대 상황에 상관성(relevance)을 추구해야 한다. 신학교육은 교회를 위한 신학교육을 해야 한다.

신성종 교수-나는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실제적인 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회해 보지 않고는 아예 신학교수는 하지 말라고 나는 강조한다. 신학이론을 살아있는 신학으로 새롭게 세워 가는 것이 필요하다.

조종남 교수-신학교육을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 직결시키는 문제가 시급하다. 교역과 직결되는 신학,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교과목 편성이 시급하다 (김명혁 1998:275).

이 상의 제안들이 한국 교회의 신학적 현실을 타당하게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한국 교회의 보수주의 신학이 목회 현장

과 유리된 지식 편중 경향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동시에 한국 보수 개혁주의 신학 역시 간하배나 후레임이 경고하는 바, 서구신학이 직면한 위기를 함께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신학을 객관적인 학문이라고 이해 함으로서 이론과 신학작업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있을 뿐 아니라 목회 현장과는 상관성이 없는 사변적인 지식에 몰두해 있고, 신학 작업을 통해서 세상의 구체적 현실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둔감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실천신학에 해당되는 신학 작업은 단순하고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조직신학이나 성경신학은 어렵고 중요한 것이어서 학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잘못된 이해를 갖게 했다. 바른 실천신학이 상실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또 다른 이유는 말씀의 무오성을 주장하는 동안에 계몽주의의 영향(skepticism)이 실천신학으로 하여금 그 토대를 잃어버리도록 한 것이다. 교회 안에 신학적 다원주의를 수용 함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삶의 실천(guidelines)대신에 사고 영역(trajectories)이나 그 영역의 변화(paradigms)에 관심을 갖게 했다. 실용주의는 삶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을 축소시켰다(Conn:).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신학교육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은 양극화 현상 가운데 있으면서 심각한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다. 더러는 조직신학이나 성경신학의 학문적 가치를 숭상하여 지역교회에서 이에 해당하는 신학지식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학문의 전당 또는 신학교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바른 목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에 있는 목회자들은 제자훈련, 전도훈련, 평신도 양육, 은사를 중심한 사역 등의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천박하게 여기고 비판하게 된다. 반면에 더러는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외면하고 목회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을 중심으로 목회 사역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썩 잡는 게 매라는 식의 목회 철학을 갖게 되고 신학적 전통이나 책임감 없이 개교회의 실용주의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있는 것이다. 이런 면을 고려할 때, 신학과 목회 일선의 실천목회와 상호 협력에 대한 토대가 시급히 세워져야 한다는 위기적 상황에 한국 개혁주의 교회가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실의 삶이나 사역에 실제적으로 연관되는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가? 사실,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성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내에서 기울여지고 있다. 신학의 목회적 또는 선교적 차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신학을 세워야 한다는데 인식 아래, 삶 또는 사역과 직결되는 신학을 세우는 신학 방법론 형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사역의 관점에서 신학의 체계를 이해하고 그 상호 연관성을 이해해 봄으로서, 목회 현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학작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서,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신학의 정의와 임무를 살펴본 다음 신학의 구조와 그 상관관계를 이해 함으로서 목표에 도달하고자 한다.

## 신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학(Christian Theology) 안에는 신학을 수행하는 신학적 방향, 즉 사고의 방향성과 지식론의 기초에 따라 다양한 신학이 있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을 이해하거나 수행함에 있어서 신학적 사고의 방향성과 지식론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학은 이러한 방향성과 지식을 토대로 한 스스로의 세계관을 가지게 되며, 이 세계관의 관점을 통해서 스스로를 관찰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원리를 강조 한다. 이런 점에서 신학은 자신의 세계관을 떠나서 다른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관대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신학을 이해할 때, 일차적으로 그 신학 내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신학을 수행함, 실천함에 있어서도 자신이 수행하고자 하는 신학의 방향성과 지식론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신학적 훈련이 필요하다(후레임 1993:5). 여기서는 가능한 한 신학이란 용어를 다양한 측면을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하고자 한다(후레임 1993:161).

후레임은 정당하게 강조하는 바와 같이,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비롯된다. 성경을 단순한 사실들의 기록이 아닌 언어요 자체의 합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있으며, 구속의 사실들에 관해 완벽하고 규범적이며, 합리적인 기술과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신학은 부차적인 묘사, 즉 명제적 내용과 비명제적 내용 모두를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재해석 및 재 천명이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재해석 작업은 인간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다. 신학의 일은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건 하지 않건 상관치 않는 추상적이고도 완벽한 진리의 종류를 제공하는데 있지 않고, 인간으로 하여금 성

경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는데 있다. 신학이 정당화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진리에 부합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사용하도록 돕는데 있다. 그러므로 신학의 가장 적절한 개념은 성경이(normative perspective) 인간들에 의해서(existential perspective) 상황에(situational perspective)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경 대신에 다른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상황에 성경을 적용하려는 작업이다 (후레임 1993:166). 만일 신학이 인간의 필요(human need)를 조직적으로 제외시키려 한다면, 이는 성경의 권위와 충족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후레임 1993:167).

이런 점에서 신학은 "순수한 객관적 진리(purely objective truth)"가 아니다. 인간들이 행하는 신학들은 모든 시간과 장소를 위한 인간을 위한 진리로서의 최상의 모습이 될 수 없다. 모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최상의 진리는 오직 성경 만이다. 신학들이란 보편적이고도 특정한 시간과 공간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 성경을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뿐이다 (후레임 1993:168). 이런 이해에 근거해서 후레임은 신학을 "인간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후레임 1993:161). 그의 정의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다른 정의 즉,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마16:3; 22:29; 눅 24:25; 요 5:39f; 롬15:4 딤후 3: 16f; 벧후 1:19-21). 성경의 전체 목적은 우리의 삶 속에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요20:31; 롬15:4; 딤후 3:16f). 더 나아가 성경의 적용은 성경의 특수한 진술과 마찬가지로 권위가 있다. ... 적용이라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교훈으로서 권위적이지 않다면, 성경의 권위는 단지 죽은 문자(a dead letter)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인간은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성경의 분명한 진술을 번역하고 주석하는데 있어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번역하고 주석하고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후레임 1993:175). 어떤 사람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그 "의미"에 대해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허하고 무의미한 주장이 된다. 따라서 의미를 안다는 것은 곧 그 적용에 달려 있는 것이다 (후레임 1993:143).

후레임과 같은 맥락에서, 간하배는 칼빈의 신학방법론을 가리켜 복음의 상황 참여화라고 일컫는다 (:253). 간하배가 칼빈의 신학방법론을 복음의 상황참여화로 일컫는 보다 근본적인 근거는 그가 신학을 진리와 상황의 조우로 이해하는데 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령자 중심적(receptor-oriented)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계시는 각 시대 사람들의 상황에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이해는 선교신학의 신학화(theologizing)에 기여했으며 벤 엔겐(Van Engen)은 이를 그의 책, Mission on the Way에서 선교신학의 방법론에 적용, 발전시켰다. 벤 엔겐의 책은 선교신학의 최근 동향은 물론, 신학화를 위한 원리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과 같다. 그의 사역은 복음주의적 차원이었으며 그는 복음을 그 자신이 속한 시간과 장소(공간)에 적용시키려고 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시간과 장소로 거슬러 올라가서 얻은 통찰들을 통해 현재를 변화시키려고 했다 (간하배 1992:251).

이와 같이 각 시대의 교회들이 처해있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문제 인식,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감이 그들의 신학 작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처럼 신학의 임무는 인간이 처한 상황에서 동떨어진 추상성 속에서의 진리 그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얻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상담해 주며 복음을 전해 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봉사하는데 있는 것이다 (후레임 1993:174). 따라서 신학이 추구하는바, 하나님 말씀(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신앙의 공통체가 처해있는 실존적 상황(context)이나 신학 작업을 추구하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신학을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때, 모든 신학 작업들은 적용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적용을 위해서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신학을 일종의 적용이라고 할 때, 신학은 어떤 종류의 질문들에 해답을 주고, 어떤 종류의 인간의 필요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학을 당연히 이론적이요 아카

---

데믹한 그 무엇으로 삼는다든지, 신학의 임무를 이론적인 영역에 한정시키거나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보다 이론화할수록 더욱더 "신학적(theological)" 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한 이해라고 할 수 없다. 신학이란 딱딱한 형식과 아카데미한 모습으로 쓰여져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오해에서 비롯 된 것이다. 오히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 자체가 그러하듯이 더 폭 넓은 인간의 언어들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신학적 작업들을 이해하는 것과 그 작업들이 전체적인 신학의 체계에 있어서 어떤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때, 비로소 신학, 그 자체와 각각의 신학 작업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된다. 만일 여러 신학적 "관점"에 대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는 어느 하나의 관점을 내세운 채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건치 못한 교만을 이루게 될 수도 있고 또한 교회 내의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게 된다 (후레임 1992:120).

### 끝내는 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로 전통적인 신학의 분야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 그 지식을 삶에(사역을 통해서) 적용하는 과정(process)에 한 단계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점을 알게 된다. 둘째로 전통적인 신학의 분야들, 이를테면 주석 신학, 성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뿐 아니라 프로그램들, 방법들, 전략들도 제각기 신학의 한 분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주체를 가짐으로써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관점인 적용을 향하여 서로 관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동일한 것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집중이나 강조에 있어서 서로 다르며, 그 자료들을 다르게 조직하는데 있어서 다르며, 각각의 분야는 서로 다른 특징적인 방법을 취하는데 있어서만 다를 뿐이다(후레임 1992:109).

## ①-23 선교와 동역

이종형 /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담임



시카고 한미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종형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M.Div)과 예일대 신학대학원(STM)을 졸업하고 버지니아 유니온신학교에서 교회사 및 선교연구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선교협력위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선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교회와 성도는 지난 2천년간 이 일에 헌신하였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 지구촌 복음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세계가 많은 면에서 달라졌다. 과거에 단했던 국가와 문화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한 때 서로 경쟁하던 기업체들이 급속히 합작하여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선교도 이제 개인, 개 교회, 교단, 기관 중심에서 협력과 동역체제로 나아가야 더욱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선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여기 선교 동역의 필요성과 방향을 보며 본 세미나에서는 선교동역이 무엇이며 왜 선교 동역이 필요하며 선교동역의 원리, 형태와 방향, 교회와 선교의 관계 등을 다루게 된다.

리더십이 독특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목회학을 책임 있고 효과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명히 규명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크리스천 리더십이 기존의 신학의 바탕에 근거한 것이고, 선교신학에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신학(Academic Theology)과의 차이점, 실천신학과 차이점, 그리고 선교신학과 차이점 등이다. 신학이 목회를 섬기는 역할 보다는 목회를 비판하는 역할에 편중되는 한국교회의 신학 풍토를 고려할 때, 이미 언급한 요소들을 이해함이 없이는 크리스천 리더십의 이해나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여기서는 신학의 체계에 있어서, 리더십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그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장 사역의 관점에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실천신학과 선교신학은 무엇인가, 선교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선교학의 한 분야로서 리더십의 위치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 학문의 체계에서 신학의 위치와 역할을 먼저 다룬다.

## ①-24 신유의 새로운 이해

전희근 /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장로



전희근 장로는 서울의대와 펜실베이니아의대를 나와 1984년부터 세계 각지에서 단기선교사로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바이블 칼리지, 달라스신학교를 졸업하고 AIM 미주이사, 풀러신학교 의료선교학 객원교수 등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를 섬기고 있다. 본 선교대회와 공동준비위원이다.

신유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었을 뿐 아니라 사도들과 초대교회에서도 중요한 사역이었다. 따라서 치유사역은 전도와 선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신유는 선교사역 가운데 아주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신유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신유의 정의; 전통적 정의와 새로운 정의, 옫의 고민; 질병의 원인과 치유, 신유와 현대 의학의 관계, 믿음의 공식, 치유사역의 전략, 치유의 은사

## ①-25 세계대학생선교운동의 역사적 고찰

김요한 / 한국기독교 NGO 공동대표



국제대학생선교협의회(CMI - Campus Missions International)의 공동대표인 김요한 목사는 한남대, 개혁신학대학원(M.Div, Th.M), 국제신학대학원(Th.M), Oral Robert University 선교신학대학원(D.Min)을 나와 복음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중이며 43년간 대학생선교운동을 감당해오고 있다. 한국기독교 NGO 공동대표이며 전대회 한국지부장으로 수고하였다.

서론 : 대학생선교운동이란 무엇인가?

I. 대학생선교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 1) 대학생선교운동의 본질적 역사적 의미 2) 대학생선교운동 탄생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 3) 대학생선교운동의 원형 및 그 탄생양태 4) 세계대학생선교운동의 특징

II. 세계대학생선교운동의 역사적 고찰 - 1) 독일 경건주의운동과 Halle대학 및 Moravian Mission에 나타난 대학생선교운동의 원형 2) Wesley형제를 중심한 Oxford대학 Holy Club운동의 역사적 의미 3) Charles Simeon과 Cambridge 대학생선교운동 4) 미국대학생선교운동의 창시자 Samuel John Mills Jr.와 Haystack Movement 5) Robert Wilder와 프린스턴 대학생선교운동(PFMS) 6) John Mott의 생애와 미국SVM운동의 역사적 평가 7) 한국대학생선교운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결론 : 21세기 전망과 세계대학생선교운동의 Vision

## ①-26 대학을 향한 그리스도의 주권회복

브렌트 홀렛 / IICS 인적개발 디렉터



브렌트 홀렛 박사는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hristian Studies(IICS)에서 Faculty Development 디렉터로 교수들을 발굴하고 훈련시키며 대학간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탄자니아, 캄보디아, 필리핀, 남아공,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 사모아 등 27개국을 순회하며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있다. 나자렛신학교에서 M.Div in Missiology, Doctor of Ministry 학위를 수여했다.

세계 각국의 대학들은 여러 방면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세계 굴지의 일반 대학들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오늘날 세계의 지도자들의 90% 이상이 대학 이상이나 그에 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정부, 언론, 기업, 문화의 지도자들의 세계관은 교수들에 의해 틀을 잡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삶과 그 의미에 대해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있다. 만약 당신이 학원선교를 원하고 어떻게 미래의 지도자들을 교육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면 이 세미나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①-27 선교와 윤리

배현찬 / 버지니아 리치몬드 주예수교회 담임



연세대와 연세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배현찬 목사는 Duburque신학교와 보스톤대학원을 나와 현재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에 있는 주예수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KWMC의 부의장 및 서기이며 본대회 공동준비위원장이다.

선교사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비윤리적인 사역현장을 보면서, 책임적인 윤리적 실체요 지도자로서의 윤리적 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기독교 윤리의 표준인 사랑(Agape)을 어떻게 현실적인 사회문제와 인간관계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를 접근해 볼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비윤리적 상황에서 제기되는 선교사의 윤리적 책임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들어가는 말 - 윤리적 실패로서의 자아(Responsible Self)

- 1.기독교 윤리의 규범으로서의 자아(AGAPE) 2.사랑의 근사치로서의 정의(Justice)
  - 3.정의의 실천방법으로서의 비폭력(Nonviolence) 4.비폭력 실현으로서의 기독교 신앙(New Creation)
  - 5.기독교 신앙으로서의 윤리적 과제(Beloved Community)
- 맺는말 - 선교사역의 윤리(Ethics of Mission).

①-28 선교비 윤리

남후수 / 총회세계선교훈련원(고신) 훈련원장



1987년에 필리핀에 파송되어 2003년까지 사역해 온 남후수 목사는 Asia Baptist Graduate Theological Seminary (Th.D) 를 졸업했으며 필리핀의 Cebu 신학교 학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총회세계선교훈련원(고신) 훈련원장이다.

①-29 한국교회 경건인물들

윤사무엘 / 프린스턴한인장로교회 담임



윤사무엘 목사는 연세대 신학과 및 동대학원 신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장로회신학교(M.Div.), 하버드대학 신학부(Th.M.), 보스톤대학 신학부 박사과정(Th.D. 구약학)을 수료하였고 현재 프린스턴한인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미국장로회 신학대학(PTSUSA) 교수 및 교무처장이다. 저서로 「미주한인교회 100년의 발자취와 비전」, 「한국의 경건 인물들」 등 다수가 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성서에 나타난 경건(godliness 혹은 piety)의 틀(paradigm)을 이해하고, 교회사를 통해 보여준 몇 명의 경건 인물들을 살핀 후, 한국교회의 경건 인물들 가운데 몇 사람의 경건생활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지만, 세계적으로 소개할만한 경건 인물이 부족하다고 들 한다. 하지만 한국의 훌륭한 경건 인물들을 세계 교회 앞에 소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본이 되는 경건 인물들이 여러분 계셨던 것이 자랑스럽다. 본 강의에서 소개하는 인물들은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 여기에 소개한 분들은 믿음을 생활화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신 분들이다. 이런 분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들의 이야기(their stories)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our stories)가 되어야 하겠고, 지금 그리스도의 뜻대(빌 3:14)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my story)가 되기 위하기 때문이다.

## ①-30 Faith Mission이란?

조종화, 조혜선 / WEC International



1913년 C.T. Studd에 의해 창설된 웨 국제선교단체(WEC International) 미국본부(펜실베이니아)에서 한국사람으로는 처음 Korean American Mobilization Dept.와 Media Dept.에서 사역하고 있다.

[에베소서 3:7~13]

1. 선교의 감추어진 비밀
2. Option이 아니라 Obligation
3. 선교보다귀한 것은 없다.

## ①-31 기독교청년의 리더십

박영환 / 은평성결교회 협동목사



서울신학대학교 부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박영환 교수는 서울신학대학을 나와 Weidenest Bibelschule, Freie Hochschule fuer Mission, Friedrich-Allesxander Universitaet Erlangen-Nuerberg를 졸업하였다. 독일 한인교회 목회를 하였고 현재는 은평성결교회 협동목사로, 북한선교연구소장으로, 서울신학대학교 부교수로 사역해 오고 있다.

기독교 청년의 선교는 근대 선교역사의 출발로 본다. 청년선교사들, 특히 대학생 선교운동은 세계선교의 부흥과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1940년대 이후 쇠퇴하게된 배경에는 기독교적 신앙의 배경을 사회문제의 접근으로 축소 혹은 약화시킴으로 드러났다. 어떤 선교 리더십이 청년들에게 요구되어져야 하는가?

복음적이다, 에큐메니칼적이다 혹은 통합적이라는 선교 신학적 전제를 가지기전에, 예수그리스도의 부름에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건설에 청년 리더십을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 전과정을 본 강의를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들어가는 글 - 기독교청년이 보아야할 21세기의 흐름
2. 리더십 위기와 원인
3. 기독교 청년의 리더십 (1) - 기독교 청년의 의식과 비전
4. 기독교 청년의 리더십(2) - 선교사 바울과 리더십
5. 나가는 글 - 기독교청년과 선교 리더십

## ①-32 선교, 과연 식민주의적 부산물인가?

조일구 /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



미국장로교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일구 목사는 한신대(Th.B., Th.M.)를 나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와 박사를,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종교문학석사와 종교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하와이 국제신학대학원(ICGS) 겸임교수직도 맡고 있으며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의 부의장이며 본대회 공동총무단이다.

오늘날 선교가 "본질은 외면된 채 외형에만 관심하고 있다"는 끊이지 않는 비판 가운데 있다. 특별히 그동안 논의된 일반적인 두 가지 신학적 견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소위 개별인간에 대한 구원론적 개념에서의 선교적 입장에 대한 재검토와, 또한 소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신학적 개념으로서 사회 현실 개선에 집중하는 입장에 대한 재검토 역시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세상은 이제 "지구촌"이라 불릴 만큼 한없이 좁아졌다. 그런데 아직도 구시대의 막연한 "제국주의적 사고"만을 가지고 선교현장에 뛰어들거나 맹목적으로 선교지를 지원하게 된다면, 자칫 오류가 될 수도 있다. 이제는 과거처럼 자신의 종교를 무작정 식민지배국에 강압적으로 확장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이제는 자신의 특정 공동체의 입장을 주입하는 일 역시도 단순히 제국주의적 노력에 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이 21세기 "지구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와 선교 동역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선교의 본질과 방법론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도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특별히 "진정한 인간 됨의 회복"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총체적 선교신학의 본질과 방법론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를 기대해 본다.

## ①-33 영적 경제학과 선교

이성일 / 베다니감리교회 행정목사



이성일 목사는 감리교신학과 신학대학을 나와 필리핀 유니온신학교, 미국 Drew 대학을 졸업하고 애스베리신학교에서 박사 학위 과정 중이다. 필리핀선교사로 사역하였으며 현재 뉴저지 베다니감리교회에서 행정목사로 봉사하고 있다.

1. 바벨탑과 오순절
2. 영적 수요와 공급의 법칙
3. 초대 교회사 속에서 성령의 상실
  - 1)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행하는 초대 교회와 선교 사역
  - 2) 세상처럼 세상의 것들을 주고 싶어 하는 초 중세 교회와 선교사역

4. 현대 교회사 속에서 성령의 회복과 선교운동
  - 1) 한국교회 부흥운동 2) 미국 아주사 부흥운동
5. 영적 경제학의 신학적 원리를 따른 선교
6. 우리의 선택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선교;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선교의 회복

## ①-34 적합하게 상황화된 토착교회구조

오영철 / 태국 선교사



GMS소속 선교사로 9년째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영철 선교사는 홍신대학 신학대학원과 선교대학원, Free Church College of Scotland를 나왔으며 현 태국 북태선교사회 회장으로 카렌부족을 섬기고 있으며 카렌부족 지도자 훈련원장이다.

서론: 각 상황에 적합한 토착교회를 세우는 것은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 하나이다. 다른 문화와 상황 속에서 다른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 상황과 문화가 교회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사한 또는 동일한 문화와 상황 가운데 다른 교회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모습이다. 동일한 상황가운데서도 교회의 역사나 복음을 전달한 주체에 따라서 다양성이 나타나겠지만 상황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황에 적합한 원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태국 카렌족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형태는 상황에 맞는 토착교회를 세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카렌 상황에서 매우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론: 태국카렌족가운데 사역하는 각 단체의 사역 현황을 목회자부분, 선교사의 역할, 재정, 교회 건축, 교회구분 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여 보면 동일한 상황가운데에서 매우 다양한 교회구조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결론: 선교단체의 정책과 방향은 의도를 하든 안하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지 상황을 바꾸는데 영향을 준다. 현지인들을 이런 변화에 대하여 특별한 지각을 가지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된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장기적으로 상황에 적절한 토착화된 모습을 가진 교회로 가도록 돕겠지만 그 반대일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선교정책과 방법이 앞으로 이들의 교회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 ①-35 성경적 기도세미나

김정복 / World Mission Crusade for Christ 대표



김정복 목사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과 대학원 및 장로교개혁신학교(M.Div), 국제신학대학원(ITS)(Th.M, D.Min), 풀러신학교에서(D.Min)를 졸업하고 1985년 부터 WMC 기도학교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20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강사 및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World Mission Crusade for Christ 대표이며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에서 기도학 교수이다. 저서로 '주제별 기도연구', '성경적 기도' 등이 있으며 기도전문지인 월간기도를 발행하고 있다.

1. 예수님의 기도생활
2. 예수님의 기도명령
3. 예수님의 기도방법

## ①-36 선교와 기도학교

김정복 / World Mission Crusade for Christ 대표

1. 제자들의 기도생활 2. 기도란 어떤 것인가 3. 기도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4. Q.T.의 이론과 실습
5. 성경적 새벽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신유기도, 안수기도, 예언기도 6. 기도의 응답과 무응답 7. 기도의 사람

## ①-37 기도가 주는 선교의 능력

조창환 / 아멘교회 담임



아멘교회를 개척, 담임하고 있는 조창환 목사는 미국 Iowa Wesleyan College, Garrett신학교를 나와 Regent대학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아태복음선교회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선교타임즈의 이사장이다.

서론 - 기도가 선교를 낳는다

1. 선교는 기도와 직결되어 있다.
2. 기도가 있는 교회에 선교가 있다.
3. 선교가 없는 곳에서는 기도도 없다.

본론 - 2000년의 선교와 기도

1. 선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
2. 깊은 기도 뒤에 선교가 뒤따른다
3. 선교의 기적을 낳는 기도의 장소와 시간
4. 중보 기도와 선교

## ①-38 세계선교와 기도의 위력

서인애 / LA흰돌선교회 회장



흰돌산기도원을 창립하고 현재까지 23년간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인애 목사는 현재 LA흰돌선교회 회장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기도의 위력을 성경속에서 발견한 이후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의 제단을 쌓기 위하여 부족한 종은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에 모국의 수원에 있는 흰돌산기도원을 개척설립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기도원의 사역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황무지와 같은 돌산에 들어가서 기도와 눈물로 기도원을 개척하여 흰돌산기도원 이라고 하는 기도의 터전을 이룩하기까지는 "기도원은 오직 기도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11:9~13)" 아멘 할렐루야!

**①-39 거룩한 선교 (Holistic Mission)**

로수길 / 인도 현지인 선교사



인도 현지인 선교사로 GMS에서 아내 변상이 선교사와 함께 인도로 파송받아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 켈커타대학을 나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Acts), 총신대학(M.Div), 총신대학원(Th.M)을 받고 켈커타 사랑의 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아쉬람 크라이스트교회 총지회로, 인도개혁장로회 신학교 창립 및 교장을 역임하였고 인도와 네팔에 107개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현재 리버티신학대학원 박사과정중이며 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성은장로교회에서 협력사역중이다.

1.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열정을 품어라 (Be Compassionate)
2. 추수를 위해 마음이 열리도록 아버지께 기도하라 (Be Prayerful)
3.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라 (Be Mission Centric)

4.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라 (Be a Team Spirit)
5. 주님께 받을 상을 사모하라 (Be Rewarded)

복음을 듣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열정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이 온 마을 두루 다니시며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신 것처럼 목자로서 행하라. 눈을 들어 보라. 이 세대는 복음에 주리고 목마른 영혼들이 있다. 교회로부터 추수하는 일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항상 할 것이며,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하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라(막 13:10). 주님께 받을 상을 사모하라(마 10:42, 딤후 4:8).

**①-4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슬림에게 복음**

윌리엄 삼손 / CSA Int'l 대표



William Samson: 윌리엄 삼손 목사는 파키스탄의 라왈핀디에서 안수받았으며 CSA International의 창설자이며 대표이다.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는 문맹율이 85%이고 한 사람이 돈을 벌때 10명의 부양가족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료 의약품,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CSA International은 교육, 보건, 사회개발 분야에 있어 혁신적인 계획들을 수립하였으며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

**①-41 아브라함의 선교**

이성균 / 파나마 선교사

1984년 파송되어 파나마에서, 현재는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성균 선교사는 경상대학교와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다.

**①-42 하나님의 임재와 셀교회 - 홈스쿨링**

채사라 / WEC선교사

중국에서 WEC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현재 안식년중이다.

## 2. 세계를 품은 기독교인의 생활

### ②-1 인물은 길러지고 아름다운 세상은 만들어진다

강영우 / 유엔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인으로 동양인 최초로 美 부시행정부의 장애인정책차관보로, 유엔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한민족의 위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 산신앙의 증인이다. 자서전 「빛은 내 가슴에」는 6개국어로 출간됐고 그 외 7권의 베스트셀러가 있다. 첫째 아들은 듀크대학 안과교수로, 둘째 아들은 미상원의원 최연소 고문변호사이다.

[누가복음 6:38, 고린도전서 10:31]

지난 한세기 동안 위대한 인물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는 보스톤 근교에 소재한 필립스 아카데미 학교로 알려져 있다. 1778년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지 2년후 사무엘 필립스가 매사추세츠주 앤드오버에 오늘날 고교의 전신인 미국 최초 대학준비학교를 설립하고 교명을 필립스 아카데미라 했다. 그후 3년후인 1781년에 조카인 존 필립스가 앤드오버에서 25마일 떨어진 뉴햄프셔주 엑서터에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되니 그것이 두번째 대학준비학교가 된 것이다. 개교 이래 필립스 아카데미 양교는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급 지도자들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돈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금융계를 지배하는 갑부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으며 명예를 추구하라고 교육하는 것도 아닌데 미국 저명인사 인명사전에 졸업생 135명이 올라 있어 사회명사가 가장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라고 교육하는 것이 아닌데 부시 대통령 부자를 위시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 수준급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이다. 한 두해도 아니고 20세기를 마감하면서 한세기 동안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그러면 그 비밀은 무엇인가? 물론 두뇌가 명석한 학생들을 입학시켜 교육하는데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연구의 결론은 '나 자신이 아닌'이란 건학이념 때문이라고 내리고 있다. 고전 10장 31절과 누가복음 6장 38장에서 영감을 받아 두 설립자가 만든 건학이념으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가르치고 배우니까 그러한 엄청난 축복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신명기 28장에서 명령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복주신다고 하셨는데 필립스 아카데미 동문들은 건학이념에 기초가 되는 두가지 명령을 철저히 따르므로 만복을 누린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내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 아들을 필립스 아카데미 양교에서 각각 교육시킬 기회가 있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생각이 성취동기가 되어 일급 지도자가 되었다. 장남 진석은 안과 의사가 되는 아름다운 꿈을 이루었고 차남 진영은 연방 상원 최연소 고문 변호사로 봉사하고 있다. 유일한 생,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기회가 보이고 문이 열리게 된다.

## ②-2 성서적 평가원리로 모두가 성취자가 될 수 있다

강영우 / 유엔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인으로 동양인 최초로 美 부시행정부의 장애인정책차관보로, 유엔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한민족의 위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 산신앙의 증인이다. 자서전 「빛은 내 가슴에」는 6개국어로 출간됐고 그 외 7권의 베스트셀러가 있다. 첫째 아들은 듀크대학 안과교수로, 둘째 아들은 미상원의원 최연소 고문변호사이다.

[마태복음 25:14-30]

비교 경쟁하는 상대평가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면 열등감, 좌절감, 패배감, 절망감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과 재능을 준거로 자신과 세상과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에 상처나 패배감 또는 열등감 없이 희망찬 미래를 내다보며 정진할 수 있다. 반세기전 토마스 글레저 교수는 달란트 비유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발견하여 절대 평가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을 비교하는 상대평가는 안하신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서로 다른 기본 능력을 기준으로 어느만큼 성취했는지 성취도와 비교하시는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말이다. 그러니 비교 경쟁하여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타고난 능력과 은사를 최대한 개발하여 성취자가 되라. 비교 경쟁하는 상대평가로는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지만 타고난 기본능력과 성취도를 비교하여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모두가 승리하고 모두가 성취자가 될 수 있다. 생각과 태도를 바꾸라. 당신이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고 희망찬 밝은 미래가 보일 것이다.

나는 사춘기 청소년 시절 시력과 양친과 누나 마저 잃고 불행에서 낙망하고 낙오된 생활을 했다. 투병생활, 기도생활, 방황의 세월로 여러해를 낭비하고 친구들은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중학교 1학년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그것도 일반 중학교도 아닌 맹학교 중등부에서 시작한 것이다. 타인과 비교 경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사명과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개발 완숙시키는 인생의 장기적인 목적, 중간목적, 실천목적을 설정하여 하나 하나 성취해 갔던 것이다. 서울맹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연세대로 진학했을 때 스물 네살이 되었고 도미 유학하여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 박사가 되었을 때 나이 32세였다. 나이 40에 미국시민이 되어 백악관과 유엔과 세계를 무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 임명을 받아 그 임명 동의안이 연방 상원 인준을 받고 연방 정부 최고 공직자 등 한 사람이 되고 보니 이제는 상대평가 관점에서 보아도 승자가 된 것이다. 비교 경쟁하지 말고 인생의 선명한 비전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라.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성취자를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며 미성취자는 심판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불가능은 없다. 때를 이미 놓쳤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새로운 출발을 할 때인 것이다.

## ②-3 사랑과 봉사로 리더십이 길러진다

강영우 / 유엔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강영우 박사는 시각장애인으로 동양인 최초로 美 부시행정부의 장애인정책차관보로, 유엔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한민족의 위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낸 산신앙의 증인이다. 자서전 『빛은 내 가슴에』는 6개국어로 출간됐고 그 외 7권의 베스트셀러가 있다. 첫째 아들은 듀크대학 안과교수로, 둘째 아들은 미상원의원 최연소 고문변호사이다.

[누가복음 10:33-37]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신명기 28장에 는 명령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여러가지 복을 주시고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십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신약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복받는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기록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받을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당한 사람을 보고 피해갔지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치료해 주고 위험한 장소로부터 여관으로 이동시켜 주고 여관비가 필요하니까 경비를 지불해 준 것이다. 요컨대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처난 사람에게는 치료를,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교육을,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는 것이 독특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켜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행동으로는 독특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가지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중에서 학문적으로 체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즉 사랑과 봉사로 리더십이 개발되어 이 땅에서 지도자로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백악관에서 재경부 건물까지 1마일 거리에는 2002년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3년동안 70명의 동판이 새겨지고 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벗어주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는 주의 명령을 지켜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이다. 그 십리를 간 사람들의 기념 거리에는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주기 위해 창립한 굿월 인더스트리 설립자 에드가 헬름목사, 민권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위시하여 미국 적십자를 창립한 클레어 바튼 여사, 최초 여권 운동가 수잔 앤소니 여사, 미국 맹인재단을 창설한 헬렌 켈러 여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비록 실명은 했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난 사반세기 동안 사회봉사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섬기는 리더십이 개발되어 2005년 국제 로타리창립 백년사에 사랑과 봉사로 리더십을 개발한 젊은 세대에게 표본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영어로 Compassion인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섬기는 리더십의 핵심인 것이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Compassion을 가르쳐 참다운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 ②-4 교회교육시스템 "듣는이"로부터 "행하는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수정교회 히스패닉 목회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신으로 20세부터 아르헨티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는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친 아르헨티나의 영적갱신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믿음교회의 목회성공은 그를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로 만들어 주었다. 1974년 스위스의 로잔대회 주강사로 초청을 받은 것을 계기로 오르띠즈의 영향력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제3세계 지역을 넘어 동구권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예까지 퍼져 나가게 되었다. 현재 미국 Garden Grove에 있는 수정교회에서 히스패닉을 위한 목회를 하며,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하였다.

### 서론

1. 권위있는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2. 피아노를 배울때 우리는 선생님이 치는 것을 들음만으로 배우지 않는다.
3. 왜 교회에는 영원한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는가?
4. 설교를 받아 적거나 강의 테이프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A. 교육시스템

1. 일반학교, 대학교의 교육시스템
2. 경험을 통해 배운다.
3. 실습하지 않은 것은 잊어버린다.
4. 얼마나 오랫동안 주일 설교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 B. 예수님의 교육시스템

1. 컨퍼런스를 거의 하지 않으셨다.
2. 초점이 맞추어진 일들을 명하셨다.
3. 제자들은 행함으로 배웠다.
4. 삶에 대한 정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을 만들어 내셨다.
5. 마치 부모나 자녀를 가르치듯 교육하셨다.
6. 하나의 학습이 끝나기 전에 다음 것을 가르치치 않으셨다.
7.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가르치셨다.

### C. 교육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1. 서로 사랑하라.
2.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3. 주의 명령들을 정신적으로만 해석하지 말라. 누가복음 14:12-14
4. 성경말씀을 공부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5. "행위에 의함이 아니고 선한 행위를 위하여" 에베소서 2:8-10
6. 소그룹의 중요성

## ②-5 "설교"와 "가르침"의 차이

후안 까를로스 오르띠즈 / 수정교회 히스패닉 목회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신으로 20세부터 아르헨티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는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친 아르헨티나의 영적갱신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믿음교회의 목회성공은 그를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로 만들어 주었다. 1974년 스위스의 로잔대회 주강사로 초청을 받은 것을 계기로 오르띠즈의 영향력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제3세계 지역을 넘어 동구권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까지 퍼져 나가게 되었다. 현재 미국 Garden Grove에 있는 수정교회에서 히스패닉을 위한 목회를 하며, 여러 곳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하였다

서론 - 예수님께서서는 "설교와 가르침"을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그치지 말라"고 하였다.

### A. 설교(Pr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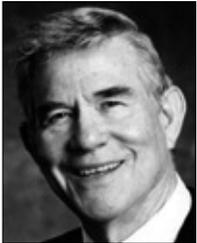
1. 전하기, 선포, 진리를 주장, 사실들.
2. 우리의 믿음을 향한 것으로 그에 대한 응답은 믿는 것이지 행하는 것이 아니다.
3.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
4. 인생이 바뀌는 기적과 영생의 구원

### B. 가르침(Teach)

1. "선한 일을 위하여"
2. 두개의 구별된 행위, 두개의 다른 시간.
3. 제자를 만드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4.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
5. 사도의 신조를 행하는 것.
6. 기독교라는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7.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며 우리의 대답은 행하는 것이다.
8. 배움은 순종에서 온다.
9. 우리는 교사와 그룹에 있어 신뢰해야 한다.

## ②-6 예수님의 개인전도방법

로버트 콜맨 / 고든켄웰대학 교수



Robert Coleman: 전도학과 제자훈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그는 현재 고든켄웰대학에서 전도와제자훈련 교수로, 윗튼대학의 빌리그래함전도협회의 지도자로 오랫동안 사역해 왔으며 로잔세계복음화운동의 창단멤버로 활약한 바도 있다. 남서부대학에서 학사, 에스베리신학교와 프린스톤신학교에서 석사, 아이오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였고 세계선교와 전도, 제자훈련에 관한 수백편의 글을 발표하였으며 95개국어로 번역되었고 영어본만 5백만권 이상이 출판된 「전도의 마스터플랜」을 비롯하여 「천사와 함께 찬양을」, 「다가오는 세계적 부흥운동」 등 20여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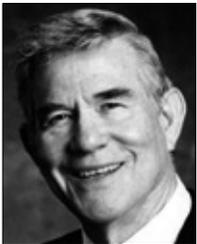
이 세미나에서는 예수님 사역의 기본원리를 통해 개인들을 복음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배운다.

1. 관계수립
2. 영적인 갈망을 불러일으킴
3. 복음을 제시
4. 결단으로 초청
5. 제자훈련

참고서적: 로버트 콜맨 「주님의 개인전도방법」

## ②-7 예수님의 선교지도자 개발법

로버트 콜맨 / 고든켄웰대학 교수



Robert Coleman: 전도학과 제자훈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그는 현재 고든켄웰대학에서 전도와제자훈련 교수로, 윗튼대학의 빌리그래함전도협회의 지도자로 오랫동안 사역해 왔으며 로잔세계복음화운동의 창단멤버로 활약한 바도 있다. 남서부대학에서 학사, 에스베리신학교와 프린스톤신학교에서 석사, 아이오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였고 세계선교와 전도, 제자훈련에 관한 수백편의 글을 발표하였으며 95개국어로 번역되었고 영어본만 5백만권 이상이 출판된 「전도의 마스터플랜」을 비롯하여 「천사와 함께 찬양을」, 「다가오는 세계적 부흥운동」 등 20여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면 그분이 어떻게 제자들로 하여금 세계선교에 헌신하게 하였는가 하는 패턴에 대해 대사명을 우리의 최우선 명령과 목표로 삼고 살펴보도록 한다.

1. 종의 형상을 입으심 - 성육신 (Incarnation)
2. 제자를 찾으심 - 선택 (Selection)
3. 관계수립 - 동거 (Association)
4. 순종을 가르침 - 헌신 (Consecration)
5. 어떻게 증인이 되는가를 보여주심 - 시범 (Demonstration)
6. 사역에 동참케 함 - 위임 (Assignment)
7. 성장의 멘토가 되심 - 감독 (Supervision)
8. 재생산을 기대 - 재생산 (Multiplication)
9. 성령에 위탁하심 - 분여 (Impartation)

참고서적 : 로버트 콜맨 「전도의 마스터플랜」, 「주님의 제자훈련계획」

## ②-8 예수님이 머무시는 가정

마리에따 콜맨 / 로버트 콜맨 박사의 아내

Marietta Coleman: 나는 에스베리대학을 졸업하였다. 캠퍼스에서 나는 아주 뛰어난 학생 하나를 만났는데 그때 서로가 주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을 알았고 둘이 함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했었다. 이제 52년의 결혼생활을 뒤돌아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였던 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당시 나는 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곧 아내로서, 목회자, 교수의 사모로서, 요리사, 식모, 제자양육자, 할머니 등의 역할이 주어졌다. 인생은 "바뀌 쓸 모자"가 많이 있을때 결코 지루하지 않다. 이제 우리의 삶은 또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2년 반동안 남편 이 교수로 가르치는 고든켄웰신학교 학생아파트의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살고있다. 우리 부부는 이 아파트 주민들보다 최소 40년 이상은 더 나이를 먹었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여기서 나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로, 친구로, 엄마, 할머니, 도우미 등으로 주님께서 젊은 가족들을 향해 부르시는 대로 섬기고 있다. 나는 기본적인 학위밖에는 없고 수천통의 편지 외에는 출판된 책도 없다. 다른 학위라면 학생들의 부인들이 내가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감사의 표시로 주어진 몇개의 명예학위가 있다.

로버트 콜맨 박사의 아내인 마리에따 콜맨은 50여년간을 콜맨박사와 세 자녀, 그리고 자녀들의 배우자와 9명의 손주들을 위한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왔다. 이 세미나에서 콜맨여사는 어떻게 가정을 도전적이면서도 즐겁게,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친구들을 위한 가정으로 꾸밀 수 있는가를 나눌 것이다.

### ②-9 당신은 어디로 가고자 하며, 어떻게 그곳까지 갈 것인가? 마리에타 콜맨 / 로버트 콜맨 박사의 아내

Marietta Coleman: 나는 애스베리대학을 졸업하였다. 캠퍼스에서 나는 아주 뛰어난 학생 하나를 만났는데 그때 서로가 주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을 알았고 둘이 함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였다. 이제 52년의 결혼생활을 뒤돌아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였던 가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 당시 나는 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곧 아내로서, 목회자, 교수의 사모로서, 요리사, 식모, 제자양육자, 할머니 등의 역할이 주어졌다. 인생은 "바꿔 쓸 모자"가 많이 있을때 결코 지루하지 않다. 이제 우리의 삶은 또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2년 반동안 남편이 교수로 가르치는 고든콘웰신학교 학생아파트의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살고있다. 우리 부부는 이 아파트 주민들보다 최소 40년 이상은 더 나이를 먹었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여기서 나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로, 친구로, 엄마, 할머니, 도우미 등으로 주님께서 젊은 가족들을 향해 부르시는 대로 섬기고 있다. 나는 기본적인 학위밖에는 없고 수천통의 편지 외에는 출판된 책도 없다. 다른 학위라면 학생들의 부인들이 내가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감사의 표시로 주어진 몇개의 명예학위가 있다.

이미 자신의 삶이 가고자 하는 궤도에 들어 섰거나, 변경하기에 너무 늦은 이들에게는 이 세미나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 질문을 나에게 던졌을 때 나는 운 좋게도 아직 젊었기에 내 삶속에서 필요한 변화들을 취할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것인지를 나눌 것이다.

### ②-10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엘렌 로스 / 오대원 목사(David Ross)의 부인



Ellen Ross: 엘렌 로스를 아는 사람들을 그녀를 빛나는 여인, 평화의 사람으로 표현한다. 엘렌 로스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목회적인 사역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희년사역(Jubilee Ministry)이라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61년부터 오대원 목사(David Ross)의 부인으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으며 인류학 박사이기도 한 그녀는 일종의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자녀 셋은 모두 장성하여 결혼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을 축복하는 것이다.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전 가정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가정들이 온 세계를 축복하도록.

### ②-11 먼저 구할 것

김성길 / 수원 시온소교회 담임



6대에 걸쳐 면면히 계승된 한국 초대교회 신앙의 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칼빈신학교, 총신신학대학원, 대만아세아선교대학원(Th.M.)을 나와, 미국 South 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박사 학위(D.D.)를 수여했으며 1975년 개척한 수원 시온소교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동시에 GMS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으로, 스칸디나비아 선교회장으로 세계 선교사역에도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영성훈련원, 수도성경신학원, 수원 평신도선교훈련원 등의 대표이며 CBS(기독교 방송) 부흥선교단 공동회장이다. 저서로「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도우시는 하나님」, 「교회론」, 「봉사론」 등이 있다.

## ②-12 성경통독과 암송

안성기/시카고남서부교회 담임



안성기 목사는 현재 시카고남서부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성경통독 및 암송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의 공동의장이며 본 선교대회의 공동대회장이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며 목회자를 "말씀의 종"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목회자의 유일한 textbook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모든 사역은 성경에 근거해야 하고, 성경에 의존해야 하며, 성경에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목회자는 성경을 사랑해야 하고, 성경에 박식해야 하며, 성경적 사고와 언행이 몸에 베어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성경통독과 암송"이 말씀 사역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1. 성경통독의 정의
2. 성경통독에 대한 오해
3. 성경통독의 유익
4. 성경통독시에 유의할 점
5. 성경통독의 목회 적용
6. 성경통독의 일정
7. 성경암송의 비밀

## ②-13 영성개발과 훈련

서삼정/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대표의장이며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4) 공동대회장인 서삼정 목사는 「조약돌」 등의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며 영성운동가로 「영성이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 등의 저서를 펴내기도 하였다. 현재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에서 담임목회자로 시무하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첫 날에는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게 될 것이며, 둘째 날에는 영성의 자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게 될 것이며, 셋째 날에는 영성이 풍부할 때에 목회와 선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미래교회는 "영성과 리더쉽 시대"라고 말한다.

## ②-14 효과적인 성경공부와 말씀사역

정인찬/휴스턴 한인교회 담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대회(KWMC)의 공동의장이며 금번 대회의 공동대회장인 정인찬 목사는 한국신학대학,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원을 나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신학박사를 수여하였다. 현재 휴스턴 신학대학 학장, 미주통일선교대학 학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으며 성서대백과사전의 편저자이기도 하다. 휴스턴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렘 37:16-17]

- I. 말씀의 짝을 찾아 이끄는 법
- II. 말씀과 배후에 숨은 영적의미를 찾아내야
- III. 말씀의 힘(Power)과 설교(Sermon)
- IV. 말씀과 전하는 자의 사명

## ②-15 영성과 영목회

정인찬/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대회(KWMC)의 공동의장이며 금번 대회의 공동대회장인 정인찬 목사는 한국신학대학,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원을 나와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신학박사를 수여하였다. 현재 휴스턴 신학대학 학장, 미주통일선교대학 학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으며 성서대백과사전의 편저자이기도 하다. 휴스턴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롬 15:18]

I. 4차원과 영성 II. 영성의 생성과 성령의 역사 III. 영성원리 정립 IV. 영목회와 은사

## ②-16 성경해석의 새로운 제안

정인찬/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

[눅 24:32-35]

I. 잘못된 성경해석과 올바른 성경해석 II. 성경해석의 유형과 말씀자료 찾기  
III. 성경이 말하는 성경해석 IV. 올바른 성경해석에서 나온 메시지의 능력

## ②-17 [왕의 복음-1강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 인물 이상남/LA세계등대교회 담임



LA세계등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상남 목사는 성결교신학대학, 숭실대학,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에서 목회학 박사를 수여했다. 왕의 복음센터(The King's Gospel Institute) 원장이며 저서로 「주와 동행하는 생활(왕의 복음)」등 다수가 있다. 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 겸 본대회 공동대회장이다.

[창세기 5:21-24]

서론 -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중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 인물"은 성도 에녹이다.

I. 에녹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이전의 생애 (자아중심의 생애) (창세기 5:21-22 참조)  
II. 에녹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생애 (자아가 깨어진 경건의 생애) (창세기 5:22 참조)  
III. 에녹이 자아가 깨어진 후의 생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선의 생애) (창세기 5:21-24 참조)

결론 - 우리도 성도 에녹과 같이 남은 생애 동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

## ②-18 [왕의 복음-2강좌] 주와 동행하는 생활의 비결

이상남 / LA세계등대학교회 담임



LA세계등대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상남 목사는 성결교신학대학, 숭실대학,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에서 목회학 박사를 수여했다. 왕의 복음센터(The King's Gospel Institute) 원장이며 저서로 「주와 동행하는 생활(왕의 복음)」등 다수가 있다. 현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며 본대회 공동대회장이다.

[창세기 17:1]

서론 -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의 "주와 동행하는 생활의 비결"을 찾아보자. (로마서 4:16)

I. 아브라함의 온전치 못한 순종 (창세기 12:1-4, 창세기 13:1-13 참조)

II. 아브라함의 애굽으로의 현실도피 (창세기 12:10-20 참조)

III.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수단방법 (창세기 16:1-13 참조)

결론 - "주와 동행하는 생활의 비결"은 내 안에 왕으로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의식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마음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주와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1)

## ②-19 [왕의 복음-3강좌] 성서적 종말복음

이상남 / LA세계등대학교회 담임

[마태복음 24:44-47]

서론- 성서적 종말 복음을 연구하게 된 동기와 배경

I. 성경에 나타난 시대적 구분

- 1) 에덴동산시대 - 지상낙원시대 (인류시조의 시대)
- 2) 구약시대 - 율법시대 (성부 하나님의 시대)
- 3) 신약시대 - 복음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 4) 말세시대 - 은혜시대 (성령 보혜사의 시대)
- 5) 박해시대 - 전3년반의 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
- 6) 대환난시대 - 후3년반의 시대 (사탄의 시대)
- 7) 천년왕국의 시대 - 지상천국의 시대 (만왕의 왕의 시대)

II. 장차 각 시대마다 등장할 순교성도, 휴거성도, 환란통과성도의 모형

- 1) 박해시대(전3년반) 등장할 순교성도
- 2) 예수님 공중 강림 시 등장할 휴거성도

3) 대환난시대(후3년반) 등장할 환란통과성도

III. 마지막 종말시대 살아남을 수 있는 궁극적인 예비처? (요한계시록 12:4-6, 시편 9:9, 아모스 5:4-6)

결론 -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20)

## ②-20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행전

박광재 / The Holylot Mission, USA 대표



한국기독교교계의 금권 불법 타락선거와 그에 따른 중상모략과 분쟁, 분열을 근절하고 학연, 지연, 혈연을 끊어 화해, 일치,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각성과 갱신의 새 바람을 일으키는 거룩한성경적제비뽑기선거제도운동을 주창한 박목사는 교계의 호응을 받으며 고계정화운동에 신명을 바치고 있다. 영광교회를 25년간 담임하여 풍성한 목장으로 섬기며 기독교총회임원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총재, 성경의 제비뽑기선거제도실천운동본부 총재, The Holylot Mission, USA 대표이며 저서로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제비뽑기」,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행전과 변증론」,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과 제도론」이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제도를 제정하신 목적

유한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제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뛰어난 선거제도를 다 동원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이상적인 선거제도를 다 적용한다고 해도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이 세상에 속한 선거제도 가지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의식과 타락한 선거풍토를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으로 만민에게 평등하도록 차등 없고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완전한 선거제도인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친히 제정하셨다. 이 제도를 믿음으로 적용할 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방법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권모술수와 꾀와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게 되고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게 되니 자연히 마음도 의식도 변화가 될 것이다. 결과로 해마다 각 교단에서 총회로 모여서 교단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선거과정에서 연례행사처럼 치뤄 지는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 행위와 같은 선거풍토도 사라지고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치름으로 명실공히 성총회가 이루어지고 한국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개혁될 것이다.

첫째, 하나님 자신의 절대주권과 왕권을 행사하시기 위하여 제정하셨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셨다.

셋째, 사악하고 교활한 악한 마귀 사탄의 교회파괴 전략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정하셨다.

넷째, 타락한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꾀와 권모술수를 제어하기 위하여 제정하셨다.

다섯,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감투싸움과 자리다툼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분쟁과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제정하셨다.

여섯, 성민 이스라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인류 공동체의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제정하셨다.

일곱, 하나님의 사역과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차등 없이 공평하게 사역을 분담케 하시려고 제정하셨다.

여덟, 교계와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행되는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성직매매와 주권매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정하셨다.

아홉,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로 선택하여 세우시려고 제정하셨다.

열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주권과 왕권을 행사하여 통치하시는 신본주의, 신주주의, 신정정치를 하시기 위하여 제정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은 용모와 신장과 외모뿐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고로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방법인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개선하여 적용할 때 비로소 한국교회와 국가정치의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그에 따른 성직매매와 주권매매가 근절되고 비방과 중상과 모략이 사라지고 학연과 지연과 혈연의 연줄도 끊어지고 분쟁과 분열이 사라지며 화해와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들이 한국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로 선택되어지며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 위에 선서하고 교회와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 우리 나라는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시며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인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 ②-21 바울사도의 탁월한 리더십

김영진 / 나성한인교회 담임



나성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진 목사는 한남대, 총신대, 리폼드신학교, 콘코디아신학교(Th.D)를 나왔으며 국제신학교(ITS)교수로도 있다. 본대회의 공동준비위원장이다.

오늘의 크리스찬 사역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보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십을 모범으로 제시해 주셨다. 바울사도의 리더십이다. 그의 리더십 모습은 주님 자신의 리더십 모습이며, 성경이 제시하는 성경적 리더십이다. 바울사도의 리더십을 우리의 것으로 체질화시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탁월한 크리스찬 사역자들로 세워질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바울사도의 리더십 본질을 다음과 같이 탐구한다: 그리스도의 모범성과 성령의 인도함, 리더의 정체성과 책임성, 리더의 겸손과 섬김, 솔직성과 신실성, 윤리성과 용기, 융통성과 시민의식, 그리고 멘토링과 모델링.

## ②-22 성경적인 경영원리

명돈의 / 매릴랜드주예루살렘장로교회 담임



연세대 상과대학과 연세대 신학교, 고신신대원을 나온 명돈의 목사는 현재 매릴랜드주의 예루살렘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본 선교대회의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경영이 최고로 발달된 시대가 21세기 일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경영관리를 자랑하는 G.E. Group은 드디어 2002년도 세계 제1위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경영관리(management)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경영관리"의 기본원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적인 경영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더욱 뚜렷한 것은 John Calvin의 "성경적인 경영원리"인 것입니다.

## ②-23 갈수록 놀랍게 깊어가는 천국부부의 행복

강세대, 이희녕 / 뉴저지복음장로교회 담임



강세대 목사님과 이희녕 사모는 뉴저지 복음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본대회 공동부회장이다.

지금 인류가 만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가정의 붕괴입니다. 가정을 성경적인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고 가꾸어 가정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만큼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은 사역자나 평신도 지도자 부부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로 서로를 세워주고 적절히 돕는 "사랑과 복종"의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부부로서 미국의 삶에서 얻은 실천적 경험들, 각종 세미나의 강좌인도, 출판한 책 그리고 연구 등에서 얻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 ②-24 그리스도인은 교양인이어야 한다

임창호 / 휴스턴한인장로교회 담임



휴스턴한인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임창호 목사는 고신대학교와 동 신학대학원을 나와 국립히로시마대학에서 7년간 슬라이에르마허의 교육학과 철학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고신대 교수 및 교목으로, 총신대 강사로, 한국기독교대학 교목회 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저서로 「슬라이에르마허 교육사상과 생애」, 「공공성을 회복하라」, 「앞서가는 교회」 등 다수가 있다.

사람들을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를 한 후,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신선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웬지 알 수 없는 불쾌감으로 기분상함을 느낄 때가 있다. 일할맛도, 살맛조차도 사라지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 분명히 만남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쾌함을 경험할 때가 있는 반면, 만남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적으로는 상쾌하여 즐거움을 경험할 때가 있다. 신기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다름아닌 상대방에 대한 사려깊은 언어표현과 무절제하지 않은 태도, 그리고 예의바름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대화와 교제에 적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일 것이다.

이렇게 어떠한 종류의 상대나 대화내용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신선하고 상쾌한 기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을 교양있는 사람으로, 반대로 언제나 불쾌감과 기분상함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교양없는 사람으로 분류해보면 어떨까. 사람에게 높은 이상을 갖게하며, 상쾌함과 신선함을 전달해 주는 정신적 능력을 교양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교양이란 "학식과 다식과는 달라서, 일정한 문화이상을 터득하여 그것에 준하여 모든 개인적 정신능력의 통일적, 창조적 발달을 몸에 배도록 한 것" 이며 이러한 것들은 "개인적 수양이나 사회적훈련"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알기쉽게 풀이해 본다면, 교양이란 고급스러운 학력소지자나 전문지식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갖춰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회공동체가 추구하는 일정한 문화이상을 터득하여, 그 기준을 자신의 정신능력이 될 때까지 통일적으로 창조적으로 발달시켜 몸에 배도록하는 자가 갖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양이란 개인적인 수양과 동시에 사회적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교양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개인과 사회를 상쾌하고 신선하게 하며, 정신적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고상함이다. 교양 없는 사람은 개인을 불쾌하게 만들고 사회를 불편하게 만든다. 사도바울도 에베소서6장4절에서 부모들을 향하여 "주의 교양"으로 자녀를 가르치라고 권면하지 않았는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복잡한 병리현상 해법은 시민교양 회복에서 찾아야 하며, 한국교회의 병리현상 해법은 "주의 교양"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본 강의에서는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 ㉔-25 신앙의 성장과정과 선교교육사역의 연관성

박원호 /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원호 목사는 계명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프린스턴신학교(Th.M)를 나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로도 재직했었다.

신앙은 일평생을 통하여 성장하며 그 성장은 양과 질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신앙의 질적 성장은 그에 따른 독특한 목회와 교육을 요구하게 된다. 일평생을 통한 신앙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선교 목회적의 효과적인 차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바른 성장을 위한 목회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체되어 부정적인 모습을 가진 신앙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선교사 자신의 성장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등을 다루려고 한다.

### 1. 신앙 성장에 관한 7가지 특징

- 1) 일평생을 통한 성장 2)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3) 성장의 과정에서 다가오는 성장통 4) 일평생 가장 어려운 성장의 고비 5) 일평생 가장 중요한 신앙 성장의 단계 6) 신앙의 성장과 성령의 역사 7)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역할

### 2. 일평생을 통한 신앙의 성장 과정

- 1) 7번의 질적인 성장 2) 성인 신앙의 특징들 - 자주적이고 실존적인 성장, 대화적인 신앙, 자신을 나누는 신앙
3. 각 성장 과정에 따른 교육 및 목회적인 필요
4.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한 진단과 대처

## ㉔-26 새로운 미디어와 성경교육의 상관성

박원호 /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

TV, 컴퓨터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예배, 성경, 목회 구조 등, 신앙의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를 깨닫는 것은 현재의 목회 사역만 아니라 미래의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성경 중심으로 그 영향을 고려하기로 한다.

### 1. 구텐베르그의 인쇄술과 그 영향

- 1) 구술(oral)에서 저술(writing)으로의 전환 2) 논리, 분석, 합리성의 발달; 과학의 발달
- 3) 종교 개혁의 원동력;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4)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책)의 형태로 바뀜;

### 2.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 1) 저술에서 멀티미디어로 2) 새로운 형태의 예배 3)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

### 3. 새로운 미디어의 특성

- 1) 이미지와 상징의 사용 2) 학습자 주도의 학습 3) 전인성 4) 범지구적 의식

### 4. 새로운 미디어와 기독교 신앙과의 관계

## ②-27 어린이 영성과 신앙성장은 이렇게 (제자훈련은 어릴때부터!!!)

여병현 / 어린이 전문사역자



157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국제적 어린이선교단체인 어린이전도협회에서 24년째 사역하고 있는 여병현 목사는 1990년 한국 CEF에서 미국선교사로 파송되어 현재 미국어린이전도협회한인지회를 맡고있다. 해마다 미 전지역과 전세계를 순회하며 교사교육과 학부모세미나, 어린이 부흥회 및 캠프를 인도하고 있는 어린이 전문사역자다. 본대회의 어린이선교대회를 담당하고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은 한순간에도 가능하지만 우리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바울도 순간 순간 튀어나오는 옛 습성으로 인해 고민했던 분들입니다. 오염된 물을 순화시키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습관으로 물들기 전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영성 있는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제자훈련은 어릴 때부터 해야 보다 효과적입니다. 어떻게 영성을 갖고 자라가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도울 것인지 실제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어린이 영성과 균형 잡힌 성장은 미래의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지름길입니다. 제자훈련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 빠르면 빠를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 ②-28 네 안에 있는 말을 끄집어 내라

존 티터 / More than Conquerors 디렉터



John Teter: 독일인과 한국인 부모를 둔 존 티터는 UCLA재학중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을 통해 주께 헌신하였고 현재는 IVCF의 캠퍼스 사역인 More than Conquerors의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Get the Word Out」, 「Jesus & the Hip-Hop Prophets」가 있으며 지난 어바나 2003 강사였으며 영어권대회에서 주제강연으로 도전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 최고의 원천이다. 그분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보내어진 그 목적을 달성하고야 만다. 성령께서 비기독교인의 마음에 던져진 말씀을 붙잡아 살아 움직이게 하신다. 이 세미나에서는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데 있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효과적인 동역을 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기초로 하여 회심이 진전되는 과정에 대해, 그리고 때로는 필요한 담대함에 대해 토의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들도 준비되어 있다

## ②-29 예수님과 힙합 선지자들 - 힙합세계를 향한 복음

존 티터 / More than Conquerors 디렉터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세속적인 문화와 맞부딪히게 된다. 그들의 우상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한 탄원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힙합은 오늘날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현재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이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문화를 관찰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복음의 메세지와 접합시킬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이다. 'Jesus & the Hip Hop Prophets'과 같은 관련자료들도 구할 수 있다.

## ②-30 잠언 31장의 결혼관

존 티터 / More than Conquerors 디렉터



John Teter: 독일인과 한국인 부모를 둔 존 티터는 UCLA재학중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을 통해 주께 헌신하였고 현재는 IVCF의 캠퍼스 사역인 More than Conquerors의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Get the Word Out」, 「Jesus & the Hip-Hop Prophets」가 있으며 지난 어바나 2003 강사였으며 영어권대회에서 주제강연으로 도전한다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싶은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달성하고 싶은가? 당신의 사역을 반대하지 않고 축복해주는 가정환경을 갖고 싶은가? 잠언 31장은 단순히 여성이 어떠한가 함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고 결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싱글이라면 배우자에게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에 대해 이 세미나를 통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잘 마치고 싶은가? 어떻게 로맨스를 추구하고 다루는가가 이것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 ②-31 승리하는 삶과 사역

김크리스티 / 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 강사



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에서 내적치유에 대한 강의를 맡고 있는 김크리스티 선교사는 University of Southern CA, Talbot 신학교를 나오고 International School of Theology와 열방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이중언어자로 전세계 20개국 수많은 수련회, 대회, 교회에서 강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한국어로 된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는 저서가 있다.

서론 - 오늘날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마음에 외로움과 정서적인 메마름으로 어려워하고 있다. 심지어 머리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절제가 안되며 반복되는 죄를 짓고 후회하는 모습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의외로 많다. 그러한 모습들로 인하여 교회는 권위를 잃어가고 있고 선교도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안에서 승리하는 삶과 사역을 할 수 있다.

- I. 죄의 악순환 II. 사역/종교의 악순환 III. 승리하는 삶의 순환  
IV. 승리하는 삶의 비결 - A.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B. 성경적인 사고

추천도서 : Purpose Driven Life, by Rick Warren(목적이 이끄는 삶-릭 웨렌) / Wild at Heart, by John Eldredge / Awakening the Dead, by John Eldredge / God, Is That Really You? by Loren Cunningham(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로렌 커닝햄, 예수전도단)

## ②-32 영적부흥을 위한 예배갱신

손병렬 /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남가주동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손병렬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을 나와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수여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일하는 사람'(worker)보다는 '예배하는 사람'(worshipper)을 먼저 찾으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되는 일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최우선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세가 요구된다.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성령의 강한 임재가 영적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것이다.

놀랍게 일어날 것이다.

## ②-33 코리안-아메리칸 스타일로 예수님 따르기

정민용 / 커버넌트 힐로우십교회 담임



초교파, 다인종 교회인 커버넌트 힐로우십교회를 어버나-삼페인 일리노이주립대학 근교에 개척한 정민용 목사는 영어권 목회를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다. 일리노이주립대학에서 B.A.를, 펜실베니아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와 M.A. 학위를 받았으며 최근 동대학에서 D.Min 학위를 받았다.

코리안-아메리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②-34 당신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기

정민용 / 커버넌트 힐로우십교회 담임

신학적, 실제적으로 접근해 보는 당신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

## ②-35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폴 김 / 필라델피아 임마누엘교회 영어목회



세인트 루이스 태생으로 시카고에서 성장한 폴 김 목사는 일리노이주립대에서 심리학으로 B.A.를 마치고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를,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Th.M.을 수여하였다. 현재 BTS에서 박사학위 중이며 필라델피아 임마누엘교회에서 영어목회를 담당하고 있다. 영어권대회 주강사이다.

자원과 능력과 기회의 수많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모두 공평하게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졌다. 어떻게 하면 이 24시간을 공부에, 사역에,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시간의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 ㉔-35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폴 김 / 필라델피아 임마누엘교회 영어목회



세인트 루이스 태생으로 시카고에서 성장한 폴 김 목사는 일리노이주립대에서 심리학으로 B.A.를 마치고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를,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Th.M.을 수여하였다. 현재 BTS에서 박사학위 중이며 필라델피아 임마누엘교회에서 영어목회를 담당하고 있다. 영어권대회 주강사이다.

자원과 능력과 기회의 수많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모두 공평하게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져 있다. 어떻게 하면 이 24시간을 공부에, 사역에,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를 알고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 ㉔-37 지친 사역자들을 위하여

존 정 / 메사츄세츠주의 부록클린 베다니장로교회 담임



메사츄세츠주의 부록클린 베다니장로교회의 담임인 존 정 목사는 그동안 보스톤한인교회의 한 사역체로 있다가 2003년에 독립된 영어목회를 시작하였다. 정목사는 위튼대학에서 정치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프린스턴신학교에서 M.Div를 받았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성장하였고 현재 골든컨웰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내 정선영 사모와 함께 얼마 후 해외에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할 준비중이다.

내가 속한 교단의 통계를 보면 목회자의 50%가 7년 이내에 그들의 사역을 내려놓고 목사직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매달 1,500명의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것은 일년에 18,000명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한다. 신학교에는 매년 16,500명의 목회자만을 배출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적인 통계를 떠나서도 우리는 목회자들이 겨우 목회적으로 생존하고 있거나 고통스페 사역을 떠나야만 하는 수많은 일화들을 듣고 있다. 이 세미나는 풀타임으로 목회 및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과, 지망자들, 그리고 자신의 목회자들을 좀 더 잘 섬기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 ②-38 하나님!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박병선 / 순천순동교회 집사



순천순동교회 집사, 순천시의원, 교회 출석후 1년 만에 750여명 전도, 순천순동교회 전도왕, 순천제일교회 전도왕, 순천실만교회 전도왕, 순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전도왕, 순천시 기독교위원회 회장, 진돗개 광야전도학교 대표, 전국 최초 기독교 성지화 조례제정,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주인공으로 연재, 저서 - 「진돗개 전도왕」생명의 말씀사 창립 50주년 기념도서 선정! 발간 2개월 만에 베스트셀러로 선정!

「진돗개 전도왕」 저자이며 순천시 기독교위원회 회장인 박병선 집사는 상주박가 대종가집 대종손으로 태어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신실한 신앙인인 아내 정은숙(47, 순천순동교회)과 결혼하여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신앙생활을 하던 아내를 꺾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잡히게 되니 전도의 활화산이 되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의 권유로 마지못해 처음 교회에 나가던 날 예배당 안의 빈 자리를 보고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하고 난생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교회 처음 나간 날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한 결과 1년 만에 750명을 전도하는 전도의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특히 그는 이 교회 저 교회 가리지 않고 12군데 남의교회에도 45여 명을 전도하였다.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그의 전도의 비법 속에는 수년간 진돗개를 직접 기르며 터득한 진돗개 전도법이 있었다. 진돗개 전도법의 핵심은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한 번 주인은 평생 주인이다."로 한 번 전도대상자를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면 몇 번 찾아가서 안 되면 한달 아니 일년이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끝내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평생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전도는 전도의 일반적인 형식을 초월하여 전도 대상자들에게 독특한 접근과, 끈질기고 집중적이고 헌신적인 정성을 쏟아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신토불이식 전도의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박병선 집사! 그는 오늘도 이러한 정신으로 전도현장을 누비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 ②-39 당신이 바로 증인입니다

최명자 / 팔복중앙교회 전도사



한국기독교 100주년 개인전도상을 수상한 최명자 전도사는 서울 장신을 졸업하였고 재미재단법인 여성상임단장, 세계성신클럽 선교부장, 청소년지도자대학 이사를 역임하였고 팔복중앙교회 전도사로 시무하며 국내외 전도 부흥강사로 사역하고 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 1:3]

1. 전도는 무엇인가?
2.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3. 전도자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인간적 애정이 절실하다.
4. 전도자는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전도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도하셨습니까?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행 18:10)

## 3. 한인세계선교

### ㉠-1 초기 한국선교와 중국선교의 관계

조동진 / 통일환경연구원장



1961년 한국교회사상 최초로 선교학을 신학교 교과과정으로 설치하고, 또한 최초로 선교대학원인 동서선교개발원을 설립, 선교사양성을하여 30년간 1,500명 이상의 한국과 아시아 선교사들을 교육해 왔다. 현재는 1995년에 설립한 사단법인 민족통일에스라온동협의회 이사장으로, 통일환경연구원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1. 미국 선교사의 제물포 도착보다 10년 앞서 압록강을 건너온 복음

가) 1982년 뉴욕 부르클린 라파얏에비뉴장로교회: Lafayette Avenue Presbyterian Church의 맥 윌리엄스: McWilliams 장로의 한국 선교를 위한 부르심과 장로교 한국선교의 시작

나) 조선 주미 전권대사 민영호의 볼티모어여자대학 방문과 감리교 한국선교의 시작

다) 이보다 10년 앞선 1870년대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 John Ross의 중국 만주선교를 통한 한국선교의 시작

라) 1877년 존 로스 목사가 한국어 입문: Corean Primer 최초로 저작 출판

2. 한국 교회의 중국 선교 초기 50년의 역사

3. 장로교 총회 중국 산동성 선교 46년의 역사 (1913-1959) -평북노회, 함경노회, 산서노회, 함북노회, 의산노회, 남만노회, 간도노회

### ㉠-2 한국선교전략 10계명

노봉린 / 기독교21세기운동 국제총재



1970년 OMF선교사로 싱가포르, 대만 등지에서 사역했던 노봉린 박사는 Columbia Bible College, Wheaton College, Covenant신학교를 나왔으며 싱가포르 제자훈련센터, 중국복음주의신학교 등에서 교수직을 역임하였으며 위튼대학, 트리니티신학교, 풀러신학교, 콜럼비아국제대학 등 세계각지 다수의 신학교에서 교수 및 행정사역을 하였다. 현재 하와이의 International College & Graduate School의 한국담당 디렉터이다

1. 한국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신앙의 요소를 통해 전세계적인 신앙갱신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2. 한국교회에서 대학생, 평신도, 교역자, 선교사들을 가능한한 많이 계속 파송해야 한다.

3. 외국 교회지도자에게 교회성장과 신앙갱신운동 지도를 받고 그들로 한국교회를 연구관찰할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4. 한국이 세계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국제화가 필요한 것 같이 한국교회도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화가 필요하다.

5. 한국교회선교는 각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원주민 교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6. 한국교회 선교는 독단적인 태도를 벗어나 선교지 원주민교회와 다른 해외 선교단체들과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맺고 협조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개교회 중심의 선교운동은 선교사 관할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내의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간의 연합운동으로 효과적 선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8. 한국선교사 자녀교육과 선교사 계속교육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교회는 더 깊은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방안을 창조해야 한다.

9. 세계선교연구원들을 설치, 지역별 선교지 실정과 지역상황에 맞는 선교정책을 연구, 채택하는 동시에 선교자료를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0. 한국내 선교단체들간 협조운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교연합기관의 역할을 확대시켜 선교연합운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 ㉓-3 한국선교, 사람에게 집중하라!

장순호 / 방글라데시 선교사



1984년부터 20년간 방글라데시를 위한 선교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장순호 선교사는 목원대, 협성신학교, 침신대학원, 웨스턴신학대학원 등에서 수학하였으며 1987년 외부법인 방글라데시 개발선교회(KDAB)를 설립해 현재까지 동 선교회의 책임자로 사역하고 있으며 1992년도 한국선교대상을 수상하였다.

모든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들을 통해 계속해서 제자가 나와야 한다. 우리들이 운영하는 각종 선교 학교들에서 배출되는 졸업생, 신학생, 그리고 병원과 재활원에서 치료 받고 지원 받는 사람들의 수, 최고 수준의 현지 직원들과 각 종 개발 프로그램들, 건축해준 건축물들과 예배당 건물들, 지원하는 현지인 목회자들과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지체부자유자들의 수가 많은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제자는 강의, 훈련, 기술, 지식, 건물, 첨단인 개발프로젝트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선교사의 구도자적인 삶과 그의 감정, 사고방식, 생활방식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배우고 전수 할 때 비로서 만들어진다. 우리들의 사역이 어디로 가고, 보내고, 구제하고, 치료하고, 모아 가르치고, 세례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아무 것도 하지않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 우리 함께 주님의 유언과 명령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의 삶과 사역들을 점검하여 새롭게 다시 출발하자!

### ㉓-4 한국교회 유산을 통한 선교전략

한도수 / 브라질 선교사



바울선교회 본부장인 한도수 선교사는 아세아신학대학원, 풀러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필리핀, 브라질에서 다년간 사역하였다. 본 선교대회의 한국지부장으로 수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시는 시대에 따라 각 개인에게와 각 나라에 특별한 은사를 부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친구약 성경과 세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찾아 볼 수가 있다.

필리핀에서 제일 큰 교회인 Bread of Life 교회, 대만에서 제일 크게 성장하는 영량당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건축한 인도네시아 베다니교회, 브라질,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의 수십만 명의 교회로 성장해 가는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영향을 통해서 부흥하고 있다고 교회를 세운 담임목사들이 증언하고 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 교회성장을 배운 현지목회자들은 자국에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반면 한국선교사들은 같은 선교 현장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선교사들을 통해서서는 기도를 배울 수가 없다"고 하는 선교지 목회자의 증언은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가를 가히 짐작하게 만든다. 선교현장에서 한국선교사들의 사역의 문제를 두 가지로 지적 하자면 너무 한국적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서구화된 선교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신앙유산은 한국문화가 아니기에 한국적으로 선교를 하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잘 맞지 않은 서구의 옷은 오히려 거치장 서러울 수가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가 있는데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은사를 활용한다면 21세기에 놀라운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낼 수가 있을 것이다.

## ㉓-5 21세기 선교의 경향과 그 대책

조용중 / GP선교회 북미주 상임총무



조용중 목사는 미주한인교회선교의 초창기에 파송한 선임선교사로서 디어필드의 트리니티신학교(TEDS)에서 M.Div. Th.M. PH.D.를 마쳤으며, 필리핀에서 일하였고, 현재 GP 선교회의 미주대표, 세계한인선교사회 사무총장, 제삼세계선교 협의회사무총장을 맡아 선교행렬, 다양한 강의와 국제적인 선교발전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아내 조정란선교사는 선교와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 제자훈련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 I. 외부 환경의 변화
- II. 내부 환경의 변화
- III. 변화를 주도할 대책

## ㉓-6 新한국인 선교시스템

한정국 / 한국미전도종족운동 본부장



한정국 선교사는 서울대 경영대학원과 합동신학대학원(M.Div), 홍신대 선교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OMF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서 13년간 사역 후 OMF 한국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미전도종족운동본부장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지난 25년간의 한국선교는 중구난방식 선교로 세계 제2위의 선교파송국이 되었다. 놀라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선교지에서 엄청난 중복투자에도 낭비적 현상을 초래하였다. 더구나 한인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지휘체제가 적합하지 않아 사사시대를 방불케한다. 향후 25년 후면 미국을 앞질러 세계 1등 선교국이 되기를 바란다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접근인 시스템식 선교가 필요하다. 우선 선교지(Field)와 파송지(Home)의 구분과 이에 따른 영적전투 및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며, 책무성이 감안된 Accountable System의 마련을 위해서는 선교현지에 수많은 전투부대 Sodality 창출이 불가피하다.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 간의 역할분담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스템 접근을 소개하고 싶다. 선교는 이제 CAS 즉 Comity (지역분할), Adoption (종족분담), Specialization (사역 및 기능 전문화) 시스템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본 강좌는 현 한국선교의 고착상태를 신선한 시스템 접근 아이디어로 시원한 미래 한국선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한인선교사회 속에서 논의된 주요 전략의 흐름과 함께 설득력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시스템이 될 전망이다. 선교협력도 종래에는 훌륭한 선교사를 발굴·훈련시켜 파송하면 협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과당경쟁이요, 중복투자였다. 한국선교를 획기적인 협력시스템으로 디자인한다면 다소 훌륭하지 못한 선교사라 하더라도 선교현지 시스템 속에서 협력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것이다.

### ㉓-7 한국선교의 미래 프로젝트

한정국 / 한국미전도종족운동본부장



한정국 선교사는 서울대 경영대학원과 합동신학대학원(M.Div), 총신대 선교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OMF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서 13년간 사역 후 OMF 한국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미전도종족운동본부장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먼저 한국선교의 발전을 계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연 1,317 명의 선교사가 새로 파송된 놀라운 성장을 여러분은 목격한다. 이런 추세로 선교사가 파송된다면 2030년에는 48,501명의 선교사가 한반도에서 파송되게 된다. 미국을 포함한 전 대륙에서의 한인선교사 파송을 감안한다면 그 숫자는 더욱 클 전망이다. 한반도의 통일, 남북한 인구, 세계한인 디아스포라, 한국기독교 인구수의 예측, World Christian, Great Commission Christian, Visionary, 선교사 수 등의 구체적인 제시를 통해 합리적인 한국선교의 미래를 제시한다. 왜 한국인 선교사가 세계1위가 되는가를 계량적으로 접근하는 강사는 IT강국 한국의 저력을 살려 선교의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Cyber공간 선교 등 새로운 한국 선교의 미래 전개를 논란으로 삼고자 한다. 영국은 18~19세기에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고, 미국은 20~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능력으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등 세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국선교도 현재는 No.1 이다. 그러나 미국은 왜 세계선교에서 한국에 자리를 내주고 말 것인가? 한국은 어떻게 해야 세계선교 1등국이 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선교 향후 10년이 중요하며, 지난 25년간의 한국선교는 새로운 25년의 기회를 맞고 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도 세계추세 속의 한국이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궁금하여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당신과의 토론이 기대된다.

### ㉓-8 21세기 한인선교의 선교훈련에 대한 문제진단과 제안

박시경 / GMS 선교훈련원장



총신대학교 신대원, 아시아신학대학, 필리핀대학(아시아학 석사, 필리핀학 박사)을 졸업한 황태연 선교사는 현재 필리핀 선교 17년째이며 AGST 필리핀 이사이며 저서로 「아시아선교론」, 「필리핀 문화와 선교」가 있다.

2천년대에 들어선 한국교회 선교는 선교현지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분석과 대안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그 문제들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첫째, 동료선교사와의 협력문제, 중복사역(선교지 집중문제), 사역종류의 다양성의 결여문제 등으로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면 그 원인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선교사 훈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선교현지의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으며, 기독교 선교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이 확장일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현장과 연결된 전략적 선교훈련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특히 단일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한국 선교사들에게 타문화권의 이해와 적응훈련은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이다. 영어를 포함한 현지 언어 습득에 대한 기초훈련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미국 선교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행하는 인성검사(MBTI, ENNEAGRAM)를 통한 자기 분석과 상대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양한 선교현지의 사역적 요구에 부응하는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설정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평면적이고 단순한 훈련의 틀을 벗어나서, 다면적이고 전략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

### ㉓-9 파송교회, 선교지, 선교사훈련에 대한 전략적 제안

박시경 / GMS 선교훈련원장



총회세계선교회(GMS) 선교훈련원장인 박시경 목사는 경북대 전자공학과, 총회신학교 신학연구원(M.Div)을 나와 풀러신학교 선교학 석사(Th.M)를 받고 Biola대학교 선교학박사(D.Miss) 과정중이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를 설립하였고 러시아 모스크바 선교교회, 모스크바 장로회신학교, 나사렛하우스 사역등을 하였다.

흔히들 파송교회, 선교사, 선교단체의 관계를 두고 거룩한 삼각형(Holy Triangle)이라 칭한다. 이 삼각간의 성격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1세기의 사도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역에 있어서는 이 구도가 아직 배아기(Embryonic Period) 형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숙한 모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의 한국교회 선교는 개 교회 중심의 선교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미래의 선교는 이 삼 구도의 원만한 역학적 관계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교회가 단순한 선교 후원비 송금이나 사역보고를 받는 수동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분명한 선교방향과 선교에 대한 제반 이해를 증진해 나갈 때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고무시키며 더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㉓-10 한국교회 해외선교의 패러다임 전환

주진국 / 케냐 선교사



1983년부터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주진국 선교사는 중앙대, 서울신대, 영국 WEC선교대학, 미국 풀러선교대학교를 졸업한 선교학 박사로서 AIC 선교대학 교수, AIC총회 선교부 부총무, 초대 케냐한인선교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케냐 KAMP선교회 회장이다.

선교지에서 생기는 일들이 항상 승진보만이었으면 좋겠으나, 좋은 소식 만큼이나 안 좋은 소식도 있다.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기는커녕, 등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칼날을 겨누고 나올때는 억한 심정이 솟아오른다. 케냐의 격언 중에 "당나귀의 감사는 발길질이다"라는 말이 있다. 몇차례의 발길질 감사를 받았다. 그것은 치명적이었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혼돈 사태의 원인을 보면 대개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선교사의 자질이다. 인간적인 자질, 목사로서의 자질, 선교사로서의 자질 등을 꼽아보면 쉽게 접수가 나온다. 즉 선교사 선발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 무자격자나 부적격자를 적당히 얼버무려 선교지로 내보내는 것은 준비 안된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주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게하는 일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서도 썩는다"는 충청도 격언이 들어맞는 것을 많이 보게된다. 둘째는 본국 선교부의 잘못된 제도의 문제이다. 근대 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3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선교 실무자의 대부분이 선교와는 거리가 먼 무경험, 문외한이다. 본부와 현장 간에 한번 골이 생기면, 그것을 메꾸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통당하는 것은 현장의 선교사이다. 실무자는 사장이 되고 현장 선교사는 종업원이 되어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강요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선교사는 문제 인물로 찍히고, 왕따 당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교단 선교부의 경우 이러한 병폐가 막심하다. 세 번째 문제는 후원 교회 책임자(담임 목사)의 무관심이다. 교회는 돈만 보내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한다. 후원받는 선교사가 신나는 소식만 전해오기를 기대한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무엇이 진짜로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안좋은 소리나 실패한 소식은 알면서도 쉬쉬해버린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질까봐서다. 선교부에 대해서도 여간해서 불편한 소리를 하지 않는다. 간간한 목사, 범 따지는 목사 소리를 듣다가 정치적으로 상처를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선교사의 수가 12,000명에 이른다. 국가순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이다. 선교를 상식적으로 수행할 때는 오래 전에 지나갔다. 전문화해야하고, 비정치화 해야한다. 사람쪽에서의 선교의 주체는 후원교회나 선교부가 아니라 바로 선교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한다. 선교지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집안에서 우물안 개구리들이 벌이는 탁상공론은 이제 정리해야할 때다. 황소의 배는 개구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보다 몇 백 배나 더 크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 ㉓-11 5차원 전면교육과 한민족 교육공동체

원동연 / 국제교육문화교류기구 회장



서울공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10여년간 초전도체연구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원 겸직교수,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 및 한민대학 총장을 역임하였다. 아울러 한국창조과학회 부회장, 통합연구학회 회장으로서 연구와 저술에 힘써왔다. 또한 세인고등학교와 동두천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5차원 전면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해 왔다. 현재 몽골국제대 총장과 미국 DiA 및 DIA 대학 이사장, 그리고 국제교육문화교류기구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도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이 해는 중국선교 200주년이 되는 해이고, 북경 올림픽이 개최되기 한해 전이다. 이때 세계의 이목이 중국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거대한 시장을 확보한 중국은 강력한 영향력을 각 국에 미치게 될 것이다. 더구나 기독교인이 1억 이상을 돌파하여 한국 기독교인의 10배가 넘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준비가 될 시기일 것이다.

### ㉓-12 병든 유럽교회의 몰락과 건강한 한국교회의 진로

김승연 / 불가리아 개혁장로회 이사장



1983년 대한예수교장로교회 합동총회 독일주재 선교사로 파송받아 동구권이 개방되기 전에는 지하공산권선교를, 1989년 동구권이 개방되자 구동독과 구소련을 위시하여 동구라파 1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 불가리아 소피아에 한인교회를 설립하고 불가리아 개혁장로회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KOSTE를 설립, 대표로 있으며 KOSTE 장학재단 이사장, EMI(유럽목회선교연구원)를 설립, 초대원장 및 현 명예의장이다. 또한 의식개혁 시민운동인 '올바살'운동을 제창하여 대표로, 그외에 F&H(국제기아대책기구) 유럽총책, 유럽밀알선교단 이사장,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유럽법인 이사장, 칼빈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히 2:1, 히 4:12]

1. 왜 유럽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는가?
2. 유럽교회 쇠퇴현장의 동영상 소개
3. 한국 이민교회의 미래

### ㉓-13 선교사의 전략적 재배치

이창규 / 천안성결교회 협동목사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리버티신학교(Th.M., D.Min.), 풀러신학교(D.Min.)에서 수학한 허세은 목사는 1996년 선교 한국 준비위원장으로 사역한 바 있으며 현재 노스 캐롤리나의 성은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 ㉓-14 한인선교사의 교회개척 사역에 대한 고찰

최광규 / 도미니카 선교사



1988년에 도미니카에 한국 제1호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는 최광규 선교사는 아세아연합신학원, 맥코믹신학교(D.Min 과정중) 우테대학교 등을 나와 교회개척, 학교교육 사역들을 해오고 있다.

한국교회의 선교는 주로 교회개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전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여 영혼구령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는 아주 자랑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0년 한인세계선교대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선교사역은 50% 이상이 교회개척사역을 중심으로 되어있으며 24% 정도가 지도자 양성을 주로 하고 있고 9.3% 정도는 전문인사역(교수사역, 의료사역, 비즈니스를 통한 사역, 스포츠나 특정기술을 통한 사역 등)을 하고 있고 8.7% 정도는 사회복지사역(빈민구제, 문맹퇴치, NGO사역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세미나에서는 한국선교의 주된사역인 교회개척사역의 장점 및 문제점 등을 고찰함으로 장점은 극대화하고 문제점은 시정하여 한국선교의 발전을 기하고자 한다.

### ㉓-15 한인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동원

박형서 / 러시아 선교사



박형서 선교사는 서울신학대학, 캐나다 이와트신학교, 알라바마 베다니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사우디 아라비아 선교사로 사역하다 1992년 러시아에서 사역을 시작해 러시아 모스크바선교사회 총무, 구소련선교사연합회 창립총무등을 역임하였고 러시아성결신학교를 창립하고 러시아 성결교회 총회장, 세계한인선교사회 러시아지역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원주민사역자 신학대학원 원장이며 교회개척사역, 러시아 모스크바 제15병원 원목등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러시아 산돌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창세기 12: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너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 ㉓-16 복음의 형평성

김영섭 / 차드 선교사



1999년 신도교회에서 아프리카 차드로 파송받은 김영섭 선교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차드에서 AIM(Africa Inland Mission)과 함께 사역하다 올해 안식년 중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남긴 지도 2000년이 넘어갔건만 여전히 세계 복음화는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올까?"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로마서 10:14-15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리리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24,000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4,000개의 부족은 복음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0,000개 이상의 부족은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92년부터 선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의 형평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교지에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데에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현재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기존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으며, 같은 선교지에 많은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계속 이 수준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아프리카의 수 많은 부족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게 될 날을... 이런 날이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과업을 기쁘게 이루어 드립시다.

### ㉓-17 청년, 대학생 선교자원 발굴과 훈련을 위한 한국과 북미교회의 연합사역 방안과 실제 **남양규/제자들선교회 대표**



제자들선교회의 대표로 사역하고 있는 남양규 목사는 충남대 전자교육공학과를 나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와 Lond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수학하였다. 한국대학생선교회의 전임간사로,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였으며 현재 인천계산장로교회 청년부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 사역도 담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국가적으로 여러 고비마다 은혜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신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 세미나를 통해 관심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시도를 모으는 일이 있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㉓-18 미주선교의 현황과 과제

**홍은선/미주 선교사**



홍은선 선교사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시절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었고 졸업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 1994년에 위클리 프 성경번역 선교회에 허입이 되어 성경번역 사역을 위하여 미주의 한인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교회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선교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선교관심자들을 멘토링하며 미주 한인들이 선교에 동참하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한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지만 북미한인들은 어떠한가? 북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현황을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미에 있는 한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보다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북미주 한인들의 선교에 대한 도전들과 계획들을 나눌 것이다.

### ㉓-19 21세기 문화와 한국영성운동의 방향

**황태연/필리핀 선교사**



예장합동선교부(GMS) 선교사로 1981년부터 개척교회사역을 시작하였던 황태연 선교사는 총신대학과 신대원, 아시아신학대학을 나와 필리핀 국립대학에서 동남아시아학(M.A.)과 필리핀학(Ph.D)을 공부했다. 현재 필리핀 장로교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목회자들의 쉼터 목자의 집을 세워 봉사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21세기는 그 포스트 모던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선교사들에게 방법론적인 개발이나, 지적인 사역을 형태보다 보다 내적인 영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선교사는 인간이 스스로의 찬양자가 되어지고, 스스로의 병에 황폐해져 가는 이 21세기에 지금까지 개발된 방법론들을 찬양하고 그 울무에 갇힌 새가 되기 보다 본질로 돌아가 창 밖을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대적, 사탄의 진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 ㉓-20 세계선교전략으로서의 디아스포라 선교

조 환 / 괌(Guam) 선교사



조환 박사는 한국인의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970년대 초 예정총회가 파송한 일본선교사로 교오토, 오오사가 지역에 서 선교하다가 1973년 초에 미국령 괌(Guam)에 재파송되어 현재까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여러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세웠을 뿐 아니라 원주민과 타종족들에게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로 서울연세대학 및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미국 Faith Theological Seminary 신학대학원 졸업 문학석사(M.A.), International Theology Seminary 신학대학원 졸업 신학석사(Th.M.), 미국 Faith Theological Seminary 신학대학원 졸업, 교육학박사(D.R.E.) 학위를 받았다.

I. 세계교회 안에서 한국교회의 위치

II. Diaspora의 정의와 범위

III. 세계선교전략으로서 디아스포라 선교

맺는말: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모든 교회에 중요한 세가지 제안

## ㉓-21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전략

강두호 / 파라과이 선교사



총회세계선교회의 파라과이 파송선교사인 강두호 선교사는 세계복음선교연합회(WEMA) 남미 순회선교사이며 가나안 초 중고등학교, 기술전문학교 이사장, 파라과이 연합신학교 학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파라과이 한인이민교회의 역사와 선교의 태동

디아스포라 교회가 미치는 선교의 전략

파라과이 한인교회의 존재와 선교의 전략

카톨릭문화권에서 한인선교사들의 선교의 방향

## 4. 교회와 선교

### 4-1 선교를 통한 새로운 교회

이동휘 / 전주안디옥교회 담임



세계선교를 위해 1983년 교회재정의 60%이상을 선교비로 쓰다는 창립정신으로 개척한 전주안디옥교회(일명 강통교회)는 양철콘서트건물에 모인 2,700명의 교인이 160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매월 10만불 이상의 선교비를 지급하고 있다. 1986년 선교의 규범인 사도 바울의 선교정신을 이어받자는 뜻에서 「바울선교회」를 세우고 현재까지 72여개국에 24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며 아직도 선교의식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전체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의 도전적 메시지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목회자이다. 한신대학교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나왔으며 저서로 전주안디옥교회의 이야기를 담은 감동적인 「강통교회이야기」가 있다.

1. 목사의 선교의식 개발: 1) 행1:8을 선교의 4영역으로 정하고(표어) 2) 기도의 다락방을 중요시 여기고 3) 수리아 안디옥교회를 모델로 삼고 4) 목사의 평등주의 원칙을 정하고

2. 선교 지향적 목회로 이끌어가는 교회 운영: 1) 실천강령 7가지를 기초로 삼고 2) 선교의 방해 요소를 제거 3) 절약을 미덕으로 4) 모든 기관은 자립을 원칙으로 하고 5) 봉사직에는 일체 보수가 없고 6) 선교와 구제비는 70% 이상으로 7) 선교 위원회와 선교회의 역할 8) 교인의 동원화

3. 선교하는 교회의 은총: 1)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자부심 2) 조직과 행사에 성서적 개혁 방향으로 3) 안정과 부흥을 선물로 받고 4) 불신사회에 대한 빛의 사명 5) 특수지역, 소외지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 6) 선교 헌신자의 배출 7) 교회 개혁과 확장 8) 세계와 복음에 대한 넓은 관심 9) 바울선교회와 적극적 협력

### 4-2 이민교회 선교동원화 방안

이원상 / SEED선교회 국제총재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금번 대회 공동대회장인 이원상 목사는 계명대 철학과, 경북대학원 철학과를 나와 달라스신학교에서 신학석사(Th.M.)를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구약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후에 계명대 학교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를 지난 해 은퇴하고 Ezra Leadership Institute의 디렉터로, SEED선교회의 국제총재로 선교와 지도자 양성에 헌신의 힘을 쏟고 있다.

교회는 선교에 의해 선교를 위해 설립되었다. 수 십 년간 선교했지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설립되지 못했다면 그 선교는 어디엔가 문제가 있을 것이며, 반면에 수 십 년 된 교회가 여전히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얻는 구원은 누군가 이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동원하고 훈련하고 파송함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롬 10:10-15). 교회는 바로 이 일의 중심에서 있으며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공동체이다. 20세기를 보내면서 전세계는 다원주의라는 급물살을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기술과 통신의 발전은 5년 뒤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가치와 세계관도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거슬러 범세계 복음증거라는 막급한 과업을 안고 있는 한인교회는 총체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마지막 남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민 교회의 필요와 특성도 변화하고 있다. 한인 이민 100주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한인사회의 중심에 우뚝 선 교회가 선교적인 본질을 회복할 때만이 성도를 훈련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 28:18-20, 엡 4:12)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④-3 지역교회 선교정책과 선교위원회 운영

이원상 / SEED선교회 국제총재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금번 대회 공동대회장인 이원상 목사는 계명대 철학과, 경북대학원 철학과를 나와 달라스신학교에서 신학석사(Th.M.)를 팬실베니아대학교에서 구약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후에 계명대 학교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를 지난 해 은퇴하고 Ezra Leadership Institute의 디렉터로, SEED선교회의 국제총재로 선교와 지도자 양성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이는 가장 성경적이며 역사적으로 검증된 SEED 선교회의 모토입니다. 와싱턴 중앙장로교회의 담임목사로 26년간 선교중심의 목회를 통해서 교회와 선교를 섬겨온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교회의 바른 선교정책과 효과적인 선교위원회의 운영은 세계선교의 놀라운 진보와 성취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재정후원 하는 것으로 교회의 선교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주님의 몸된 유기체로 부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선교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세미나를 통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자료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선교정책, 선교운영백서)를 통해서 개교회의 특성에 맞는 선교정책과 선교위원회 운영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역교회의 선교정책: 1) 지역교회와 선교단체 2) 지역교회의 선교정책 3) 선교정책의 운영과 선교행정
2. 선교위원회 운영: 1) 선교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2) 선교위원회의 훈련과 선교교육 3) 연간 사역계획과 평가

### ④-4 영성목회와 교회성장

김홍도 / 금란교회 담임



다들 망해서 온다는 망우리에 김활란박사가 세운 금란교회의 강단을 33년간 지키며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외친 결과, 오늘날 10만 성도의 전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성장시킨 김홍도목사는 21세기 영계의 파수꾼이 되는 교회상을 천명하며 혼합주의신학노선과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복음주의신앙노선을 파수한 열정적인 목회자이다. 감리교신학대학을 나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과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슬레대학교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감독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대표회장등을 역임했고 ACTS 이사장, 월드컨선선교회 이사장이다.

영성목회를 바로하면 교회는 부흥성장하게 되어있다.

인간구조는 직관(Intuition), 영교(Communion), 양심(Conscience)의 삼위일체로 이루어져있다. 또 목회는 육적목회(Physical Ministry), 혼적목회(Psychical Ministry), 영적목회(Spiritual Ministry)의 세가지 형태가 있다. 그럼 영성목회(Spiritual Ministry)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구원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목회이며(요 3:16, 6:38-40), 십자가와 부활(케리그마)에 중심을 둔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며 성령운동을 바탕으로 한 목회이다(행 1:4-8). 기도운동을 통한 교회성장 목회.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붙지 않고는 부흥의 불이 붙을 수 없다.

## ④-5 교회론

김성길/수원시은소교회 담임



6대에 걸쳐 면면히 계승된 한국 초대교회 신앙의 가정에서 출생한 그는 칼빈신학교, 충신신학대학원, 대만아세아선교대학원(Th.M.)을 나와, 미국 South California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박사 학위(D.D.)를 수여했으며 1975년 개척한 수원시은소교회를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동시에 GMS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으로, 스칸디나비아 선교회장으로 세계선교사역에도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목회자영성훈련원, 수도성경신학원, 수원 평신도선교훈련원 등의 대표이며 CBS(기독교 방송) 부흥선교단 공동회장이다. 저서로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도우시는 하나님」, 「교회론」, 「봉사론」 등이 있다.

## ④-6 성도들은 변화된 목회자를 원한다

송석홍/청주중부명성교회 담임



10여년간 뉴욕 임마누엘교회, 필라델피아 새순교회 등 북미주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다 한국으로 건너가 지난 10년간 중부권 청주에서 중부명성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놀랍도록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송석홍 목사는 24개국에 44명의 선교사 파송 및 후원, 8개 선교단체 후원 등 세계선교사역에도 크게 헌신하고 있다. 장로회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거쳐 New York Seminary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21세기를 맞이한 한국교회와 선교의 방향이다. 이 시대는 변화하는 시대이다.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환경도 급하게 변화되고 있다. 교회가 이 모든 변화를 인정하고 먼저 변화될 때 사회를 이끌 수 있다. 본 강사는 10년간의 이민 목회 후 청주 중부명성교회라는 한국의 중소도시 교회를 개척 시무하면서 10년동안 노력한 변화의 모습과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④-7 성도들은 변화된 목회를 원한다

송석홍/청주중부명성교회 담임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21세기를 맞이한 한국교회와 선교의 방향이다. 이 시대는 변화하는 시대이다.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환경도 급하게 변화되고 있다. 교회가 이 모든 변화를 인정하고 먼저 변화될 때 사회를 이끌 수 있다. 본 강사는 10년간의 이민 목회 후 청주 중부명성교회라는 한국의 중소도시 교회를 개척 시무하면서 10년동안 노력한 변화의 모습과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④-8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

소강석 / 새에덴교회 담임



20대 후반 젊은 전도사 시절 분당에 새에덴교회를 개척하여 소목사 특유의 "맨땅, 맨손, 맨몸"의 "3맨목회" 철학을 외치며 12년의 뚝심목회를 한 결과 4천명 성도의 교회로 성장하여 모든 교회개척자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던지고 있는 촉망받는 젊은 목회자로 세계선교현장을 뛰며 불을 토하는 영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광신대, 개혁신학대학, 대학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거쳐 북미 Knox신학대학에서 목회학박사(D.Min.)를 수여하였다. 한국문인협회 시인이기도 하고 개신대학원대학교 겸임 교수직도 담당하고 있다. 「맨발의 소명자」, 「불붙는 영성을 회복하라」, 「비전의 가문을 세우라」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런 공동체이다. 그리고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해주는 후원교회나 모 교회가 든든하고 힘이 있어야 한다. 즉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회복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원하는 선교현장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교를 지양하는 교회는 먼저 교회의 영광성이 회복되어 있어야 한다. 그 교회 성도들 역시 선교보다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먼저 교회의 영광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야 힘있는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의 영광을 회복 할 수 있는가?

1. 먼저 교회를 섬기는 ()을 회복해야 한다.
2. ()의 믿음으로 () 주님으로 모셔야 한다.
3. 할 수만 있으면 () 한다.
4. 올바른 ()을 회복해야 한다.
5. () 교회를 섬겨야 한다.
6. ()을 회복해야 한다.
7. ()를 교회에 두자.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성도는 가장 행복하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모여 교회의 영광성이 회복된 교회야말로 힘있게 복종하며 선교를 끝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영광성을 회복합시다.

## ④-9 2세 목사와 교회를 어떻게 세우나?

고인호 / 필라델피아임마누엘교회 은퇴목사



현재 미국장로교단(PCA)에서 사역하며 특별히 교단 내 MNA(Mission to North America)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MNA Korean Ministries를 이끌고 있는 고인호 목사는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필라델피아 임마누엘교회를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현재 은퇴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의 증경의장이며 본대회 증경대회장이다.

1. 서론 : 차세대를 키우지 못하면 교회는 그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다. 미국교회가 왜 기울고 있는가? 차세대를 키우지 못하였다. 영국의 선교가 왜 다 기울어 졌는가? 역시 차세대를 키우지 못하였다. 앞으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2세들이 교회를 이어받을 수 있는가?

2. 2세를 어떻게 양육하여 키울 수 있는가? : 미국 이민가정은 두 나라 국민이 한 지붕 밑에서 사는 것이다. 교회도 두 나라 국민, 곧 언어와 풍속이 다르나 오직 혈통이 같기 때문에 한 지붕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2세들과 1세들의 문화적 차이가 심각한 것이다. 우리 2세들은 가장 불쌍한 존재들인가? 아니면 가장 행운아들인가? 하나님이 우리 2세들에게 두신 특별한 뜻이 무엇인가?

3. 우리가 2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 믿음을 주고 믿음의 비전을 주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말세에 한국 백성에게 두신 뜻과 비전을 나누어야 한다. 지금 세계는 하나가 되어가는 시대이다. 이중언어와 이중문화를 강조하여야 한다. 미국과 세계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도와준다. 세계선교의 사명을 준다. 먼저 로마를 정복하여야 한다. 오늘날 로마는 미국이요, 오늘날 헬라어는 바로 영어이다. 2세들은 지금 로마에서 헬라말 하는 사람들과 같다. 미국에 동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국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제2의 청교도적 사명을 하게하라.

4. 방법 : 비전이 있는 2세 지도자를 양성하라. 매일 같이 먹고 같이 기도하라. 시작은 대학생 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여야 한다. 1세와 동질감을 가진 교회를 이루려면 찬송가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중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때가 늦어진다. 2세 지도자들을 위한 한국방문을 시도한다.

5. 우리 교회에서의 예 :

- 1) 2세 목회자와 매일 새벽기도 - 매주 한번은 한국말로 설교시킴.
- 2) 그의 설교를 테이프를 듣고 critique를 해준다.
- 3) 재정독립, Operating Board, 동시통역, 한달 한번 1세 목사 설교 등등

## ④-10 한인 2세 목회자들의 다인종교회 개척

고인호 / 필라델피아임마누엘교회 은퇴목사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Great Commission)은 전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인들은 미국에 보내실때 한국인들의 커뮤니티 안에서만 삶을 살도록 목적하시지 않으셨다. 마치 초대교회 디아스포라들이 다인종 지역인 로마로 보내어지고 로마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세계로 전파되도록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인들이 다인종 국가인 미국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이제 21세기에 미국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 ④-11 2세목회(영어목회) 문제점과 해결책

류효명 /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장로



류효명 장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신과 의사이며 현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고 있다.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평신도선교운동본부장으로 북미주 평신도 선교운동 동원에 활동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본대회 공동대회장이다.

미국에서 출생한 우리들의 자녀들은 Korean-American이라는 다른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 더구나 X-Generation, Buster-Generation 이라는 60년대 후반기부터 출생한 미국의 새 세대를 복음화 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복음화하기 어려운 Korean-American인 우리 자녀들을 복음화하는 2세목회(영어목회)는 특별한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 1세 교회가 2세 목회(영어목회)를 개발, 개척함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을 선교전략적인 면에서 토론했다.

## ④-12 북미주 한인교회의 차세대 지도자 양성

이종민 / 레이크뷰한인장로교회 담임



이종민 목사는 레이크뷰한인장로교회를 27년간 시무해 오고 있으며 맥코믹신학대학원 객원교수이다.

케네디대통령 이래 민권운동과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Civil Right Acts 후 본격적 이민이 이루어져 한국인들에게도 매년 2만 명이 넘는 쿼터가 배정되어 LA, 뉴욕, 시카고 등지로 몰려오는 동시에 미주한인교회들도 점점 성장하여 현재 3천여 교회로 불어나게 되었다.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1세들이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들도 대부분이 1세 목사들로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로 이뤄졌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결혼하여 3세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영어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어목회

회의 목회자와 지도자 소급이다. 90년대 중반부터 각 신학교에 목회자 지망생들이 현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그 원인은 열정적인 목회후보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후에도 저들을 청빙하는 교회는 많지 않고 청빙되어 가서도 그들의 비전이 1세 목회자들과 맞지 않아 교회를 옮겨야 하는 등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또 그들의 봉급은 일반대학 졸업자의 수준에도 못 미쳐 학자금 빚도 갚아나가기에 어려운 실정이니 어떻게 이들을 소급할 수 있단 말인가? 이를 위해 먼저 1세 목회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용감하게 예산부터 세워 2세 목회자들의 처우개선부터 하고 전적 후원을 하여 2세 목회자를 기르지 않으면 머잖아 중국교회나 일본교회들의 점철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세 교회를 차차 독립시키고 그들에게 자율성을 주도록 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 ④-13 이민교회의 내일과 팀사역의 적용

이승중 / 샌디에고예수마을교회 담임



서울 장신과 리버티대학, 샌추럴침례신학(M.Div), 샌프란시스코신학교 (D.Min) 를 나온 이승중 목사는 샌디에고 예수마을교회를 섬기며 어깨동무팀사역공동체를 통해 이민교회 1세, 1.5세, 2세의 진정한 팀사역 모델을 세워나가고 있다. 저서로 「팀사역의 원리와 실제」, 「내 삶에 열매있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청년신학」 등이 있으며 본대회 공동총무 단장이다.

팀사역은 기능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의식의 문제이다. 한국교회는 지도력개발과 차세대지도자 양성에 관심을 쏟아야 하며 멘토링의 사역개발이 필요하다. 성경적 교회는 한마디로 팀사역의 일군들로 시작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 동반자의 관계였다. 현대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기 헌신과 사역의 동참자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단분열의 문제, 교역자와 평신도, 원로와 후임자 간에 발생하는 개체교회내의 문제, 시기와 다름, 불평과 파당 등 성도간의 갈등문제 등 한국교회와 관계성 회복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 ④-14 교회분쟁(갈등)문제와 선교

김택규 / 한국인연합감리교회 담임



본대회 공동대회장이며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인 김택규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신학석사), Drew University(목회학박사)를 나왔으며 현재 미주 본토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에 의해 처음 세워진 교회인 상항(San Francisco) 한국인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감리교 미주 한인인민목회연구원 대표이기도 하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인간들의 "만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있게 되고 분쟁이 생기게 될 수 있다. John Miller는 "The Contentious Community"라는 책에서 "교회는 2천년간의 내부싸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교회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분쟁에 대한 정의와 고찰(Definition of "Conflict")
  2. 갈등과 분쟁의 원인
  3. Keith Hutterlocker의 분석
  4. 원인분석 및 평화를 위한 예방
- 신학적 문제-행정적 문제-개인적 문제-그룹간 갈등-Ownership-Power 문제-Leadership 문제

결 론 :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분쟁과 갈등이 선교의 촉매제 역할을 했는가? 선교에 있어서 최초의 갈등, 바울과 바나바의 분쟁(행15:36-41)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빌 1: 15-18)

#### ④-15 교회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시를 입양하라! 에릭 폴리 / Bibles For The Worldd 디렉터



에릭 폴리 목사는 Bibles For The Worldd의 디렉터로 "Billion Bible 캠페인"을 구상하여 전세계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으며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영락교회에서 매주 EM 사역을 돕고 있으며 그외에도 다수의 북미주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펼치고 있는, 특별히 차세대 영어권들을 향한 마음이 뜨거운 강사이다.

2004년 3월 Bibles For The World는 10년간 전세계의 미전도종족들을 향해 성경을 보내는 Billion Bible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FedEx와 협력관계를 맺어 이제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세계 어느 곳에, 말씀이 필요한 이들의 문지방까지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이들은 매달 세계 다른 지역들에 성경을 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들은 한달에 4-12개의 신약성경을 보낼 수 있을 뿐이지만 교회의 경우에는 전 도시를 위한 성경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도시를 입양할 때는 이미 선교후원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때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두는 데에 진정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가 도시권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기관에서 도시를 선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전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데 필요한 혁신적이고 쉬운 7단계 전략을 나누고자 합니다.

#### ④-16 지역교회들의 협력선교방안

이훈경 /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훈경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과 대학원, Drew 대학(M.Div)과 미국 뉴욕 신학대학(D.Min)을 나왔다.

글로벌 파트너 시대에 지역 교회들의 효과적인 선교 협력 방안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각 교회들은 세계 선교에 있어서 그로발 의식을 갖고 함께 협력하는 선교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고 따라서 교회 마다 선교에 대한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교 사역 자체가 개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크게는 그로발 이라는 이름으로 작게는 지역의 몇몇 교회들이 공동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좀더 효과적인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지역 교회간의 경쟁 의식처럼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역 공동체라는 의식 가운데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본 세미나의 목적이다. 한 프로그램, 한 프로젝트 혹은 단기 선교에 이르기까지 지역교회들이 협력하여 선교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봄이 과제이다.

1. 지역교회들의 선교 협력의 의의 - 1) 교회에 대한 시대적 요청 2) 지역 교회들의 자체적인 필요성
2. 협력 선교 사역의 유익 - 1) 지역 교회들의 유대관계 2) 지역 교회들의 선교의식 활성화 3) 선교 사역 효율의 극대화
3. 연합 선교사역의 방법 - 1) 단기선교를 위한 방안 2) 장기선교를 위한 방안 3) 장단기 선교 프로젝트를 위한 방안

#### ④-17 21세기 세계선교와 지역교회의 역할

유승관 / 사랑의교회선교담당 목사



유승관 목사는 서울대 경영대, 태국왕립출라롱콘대 경영대학원, 총신대선교대학원, 천안대 기독교신대원(M.Div.)를 졸업하고 현 사랑의교회 선교담당 목사이다.

이와 같은 때에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은 주님께서 한 민족과 한인 디아스포라를 향해 소원을 두고 바라시는 바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로 보아야 한다. 특별히 5만 2천여 개에 달하는 한국의 지역 교회와 1,200만명에 이르는 기독교인, 전 세계에 흩어진 1만 2천여명에 달하는 선교사들은 주님께서 주신 선교사적 구속사적 소명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미완성과업의 휘날레를 장식함으로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 ④-18 지역교회 선교재정관리

서준택 / 맥클린한인장로교회 장로



맥클린한인장로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는 서준택 장로는 연세대 상과, Wayne State University,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를 나왔으며 본 대회 증경대회장이다.

경제활동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사업의 경제활동이 기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기억에 의지하여 운영되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발전과 경영분야 규모의 확대는 이에 따르는 재정관리를 기억에만 의존할 수 없게 하였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서는 모든 재정상황과 사업경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목회와 선교사역은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에 따르는 교회 및 선교재정관리도 숫자로 기입하여 이 다양한 교회목회와 선교사역 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미나를 통하여 현대교회는 모든 재정관리를 재정원칙에 따라 재정운영과 관리를 철저하게 도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몇가지 재정원리와 원칙에 대하여 토의하기로 하겠습니다.

- 1) 교회 회계원칙 2) 교회재정 운영 및 관리 3) 교회목회와 선교사역 재정관리 4) 교회예산

#### ④-19 교회활성화와 선교의 극대화

송상철 / 애틀랜타새한장로교회 담임



교회 활성화 협의회(CRI)의 대표이며 제5차 한인 선교 대회(KWMC 2004) 공동 부회장인 송상철 목사는 이민 교회의 활성화를 통한 선교의 극대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이며, 현재 애틀랜타 새한 장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애틀랜타 새한 장로교회는 현재 설립된지 8년만에 950여명이 출석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여 현재 50여명의 선교사와 선교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다.

교회가 건강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성경적 리더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셀 그룹을 통한 선교의 극대화 비결을 새한 교회의 목회 현장 경험을 통해서 나눌 것이다. 또한 성경적인 기업 경영을 통해서 거부가 됨으로 풍부한 물질을 통해서 선교를 극대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며 대안이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리더십에 의해서 세워진다.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큰소리 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의 부흥은 영성과 리더십에 달려있다

#### ④-20 교회와 선교 (이론과 실제)

신동우 / 산돌문화센터 원장



신동우 목사는 산돌중앙교회 위임목사로 산돌문화센터 원장, 네팔신학교 이사장, 네팔 리빙스톤초등학교 이사장등으로 사역하면서 해외 70여개국에서 350여회의 집회를 가졌고 해외 4개국에서 신학교 객원교수로 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은 선교에 있다'고 바빙크 교수는 정의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 복음은 구원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서 복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도 포함된다. 즉 지상에 있는 교회가 행하는 일 전체이다. 이 전략들을 나누어 보면 국내에서 교회를 설립하는 일과 국외에서 교회를 설립하여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생활을 가르치며 앞으로 맞이할 천국시민으로의 생활을 이 지상에서 훈련받게 하며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그중에 국내 전도는 이미 교회가 존재하거나 말씀의 기초가 형성된 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자치적이고, 자력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해외보다는 쉬운 형태로 증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국내보다 더 어렵고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어떤 선교사를 택하며, 지원하는가?부터 시작하여 개교회의 과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방향을 설정하고, 성령안에서 전략이 제시되어, 선교사역에 동참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믿는다. 한국교회 선교는 이제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 선교의 당위성도 이해하지 못한 시점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선교의 필요성과 사명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기에 어떻게 하면 선교의 효율화, 극대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된 것이다. 이제 교회의 선교를 통해 선교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제시코자 한다.

## 5. 타종교/타문화선교

### 5-1 미전도종족

패트릭 존스톤 /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의 저자



Patrick Johnstone: 세계선교정보의 바이블과도 같은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의 저자로 1962년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책자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후에 WEC선교회에 합류, 국제연구 디렉터로 사역하면서 선교사들과 선교 지망자, 후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수집, 세계선교 완수를 위한 전략들을 개발해 왔다. 로잔협의회 전략그룹원으로, 또 기독교 21세기운동의 미전도종족네트워크의 공동지도자로 사역하였고 2001년도 세계기독교백과사전을 위한 전세계 모든 종족에 대한 연구자료를 제공하였고 같은 해 세계기도정보 2001년도판을 완성하였다. 이 책은 현재 13개 언어로 번역되어 총 2백만부 이상이 선교동반자들에 의해 쓰여지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세계에 어떤 종족들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었다. 현재 교회개척을 위한 타문화권 선교사역에 필요한 종족으로 12,000-16,000(이 수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변한다) 종족의 리스트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략 3,000의 교회개척 선교사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종족들은 160개의 종족군으로 묶어질 수 있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이 종족군들을 살펴보고 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나눌 것이다.

### 5-2 유신론, 이단 혹은 사탄적: 이슬람을 향한 기독교적 접근

짐 테비 / 인터서브선교회 국제총무



Jim Tebbe: 파키스탄에서 장로교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 일생동안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왔다. 특별히 모슬렘 권을 향한 마음으로 지난 25년간 방글라데시, 요르단, 파키스탄에서 인터서브선교회와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해 오다 1992년부터 국제총무로 지금까지 사역해 오고 있다. 작년 12월 일리노이주에서 열리는 미국최대의 학생선교대회인 어바나의 디렉터로 대회를 관장하였다. 금번 영어권 대회에서 주제강연 강사로도 참여하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슬람에 접근할 것인가를 신학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 원리는 기독교가 타종교들에 접근하는데도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 5-3 2000년대 한인 세계 원주민 선교현황과 새로운 선교전략

신종혁 / 남태평양원주민선교회



신종혁 선교사는 1987년 예장통합세계선교부에서 파송되어 남태평양원주민선교회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세계원주민선교회 회장, 원주민마오리선교교신학교 학장으로 있으며 타카모아신학교 초빙교수 사역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상담심리학을, 연세대에서 기독교교육학을 공부하였고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를 나와 샌프란시스코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 세계한국선교사회(WKMF)의 대표회장이다.

한인세계 원주민 선교역사는 한인세계선교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많은 발전도 있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참신하고 젊은 원주민선교사들이 세계 원주민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락을 같이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 세계 원주민들인 디안(First nation)지도자들과 한인세계원주민선교사들이 4년 전부터 세계원주민선교회(The world aborigine missionary association)를 조직하여 캐나다 반코버에 본부를 두고 1년에 한 번씩(매 2월)선교대회를 가지며 맹렬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원주민선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줄 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인세계원주민선교의 현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비판하여 보고 2000년대를 맞이한 한인세계 원주민 선교전략을 제기하여 보려고 한다. 원주민 지도자들이 모일 적마다 한인원주민선교사들의 선교가 과거 백인원주민선교사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물어 온다. 백인선교사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생각하는 것을 한인선교사들에게 묻는 것이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원주민들을 위한 원주민들에 의

한 원주민선교를 원하고 있다. 이제 전 세계한인 원주민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원주민을 연구하고 원주민선교전략을 새롭게 모색할 때라 본다. 부족한 지극히 작은 원주민선교동력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전 강좌를 통하여 그동안 서로의 축적된 선교경험과 원주민선교의 정보들을 나누면서 지난날의 한인세계원주민선교를 돌아보고 새롭게 원주민선교 전략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많은 원주민선교사역자들과 이 선교에 관심을 가진 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I. 들어가는 말

II. 원주민의 선교역사 - 1. 원주민선교신학 서설. 2. 원주민선교학이란 무엇인가.

III. 지난날의 원주민선교 전략 - 1. 서양선교사들의 원주민선교전략 2. 한인선교사들의 원주민선교전략.

IV. 2000년대의 한인원주민선교전략 - 1. 도성인신의 선교 2. 민족주의적인 선교 3. 원주민을 위한 원주민에 의한 원주민선교. 4. 원주민지도자 양성

V. 마무리 - 1. 문제 제기. 2. 제언

㉔-4 선교의 최우선과제가 미전도종족이 되어야 하는 이유

송 강 / 서울영동교회 장로



복음음반선교회(ARM)의 송강 선교사는 합동정통 기독교신학대학교를 나와 창의적 접근지지역에서 다년간 사역하였고 네 팔 카투만두에서 ARM 녹음선교사로, 한동대학교 아시아 종족연구소와 협력사역을 하였고 땅끝 X국이라는 소수종족편람을 편집출간 중이다.

창세기 11장 9절 "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앞에 바벨탑을 쌓는 죄를 지으므로 말미암아 언어를 혼잡케 해서 온 지면에 흠으셨는데, 바로 창세기 11장 1절에서 "온 땅의 구음口音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다" 라고 이르신 말씀처럼 온 땅에 구음, 즉 방언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족속의 언어와 방언으로 흠어지고 말았다. 이 흠어진 언어를 중심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마 24 ; 14」과 「행 1 ; 8」에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우리 먼저 믿는 자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고 하시는 그 말씀에 부응해, 과연 그 땅 끝이 어디인가를 다시 점검하고 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바로 자료에 입각한 종족리서치이다. 우선 "가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로 인해 시행착오를 일으켜 귀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선교사의 정체성조차 잃어버리기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일조차 발생하기도 한다. 어느 한 특정한 미전도종족에 알맞는 전략을 세우려면 가능한 한 먼저 선교 현장에 정탐을 가서 보다 구체적인 조사하고 준비하지 않고는 그들을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운 형편인 것이다.

한편 21세기 선교는 전략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전문인 선교와 비거주지 선교의 관점에서 관문도시를 최대한 활용하여 접근함도 한 방책이라고 하겠다.

## ⑤-5 중동에서의 교회지도자 양성과 지원책

김만우 / 필라델피아제일장로교회 담임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 담임인 김만우 목사는 현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자 본대회 공동대회장으로 연세대학교와 동대학원,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재미 한인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 중동선교사협의회(MEMA) 고문, 밀알선교단 고문, 중동선교대학원장, 재미학생신앙운동(SFC) 지도위원장이다.

[사 19:19-25]

중동지역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이슬람국가들로 되어있다. 이들 지역에서 교회개척이나 설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전혀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이 지역 가운데 교회가 허락된 국가도 있고, 신학교가 있는 국가도 있고, 어느정도 개인전도가 가능한 지역들이 있다.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그 지역 토착 기독교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켜 교회의 지도자로 양성한다면 언어적, 문화적, 인종적 장벽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간 선교사들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지역의 기독교회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중동선교에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1. 조직적인 기도후원
2. 중동 국가 내 신학교 지원
3.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재단
4. 중동 내 한인교회들을 선용
5. 토착교회 강화와 인재발굴
6. 중동 기독교실업인회 조직
7. 중동 토착교회 지도자들의 해외연수

물론 위의 프로그램들은 가급적 비공개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다. 911 사태와 중동전쟁, 이라크전쟁으로 인해 예민해진 중동의 민심과 서방세계가 이스라엘 편을 든다는 선입관,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의 증폭으로 인해 중동선교사역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택한 백성들을 중동에서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한다.

## ⑤-6 무슬림지역에서의 교회개척 전략

이준교 / 이집트 선교사



1979년 부터 이집트에서 사역해온 이준교 선교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홍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을 나와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애굽 복음주의신학교 교회성장학 교수로 17년째 사역하며 카이로 오순절 신학교 및 신앙신학교 초빙교수, 중동지역 한인선교사협의회 고문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 「나의 백성 애굽이여」 등이 있다.

1. 기도운동 전략(Prayer Movement Strategy) - 1) 새벽기도 운동 2) 철야기도/심야기도 운동 3) 연속기도(Continual Prayer) 4) 금식기도 5) 기도운동 전략의 실제,
2. 가정교회 운동전략(House Church Movement Strategy) - 1) 신약성경에 나타난 가정교회 - 마리아의 가정(행12:12), 루디아의 가정(행16:14-15), 가이오의 가정(롬16:23), 아굴라의 가정(고전16:19) 2) 가정교회의 기능 3) 가정교회 운동의 실례 4) 가정교회 운동 전략 5) 사역자 선발/훈련/지원
3. 토착화 교회 운동전략(Indigenous Church Movement Strategy) - 1) 토착화 교회의 정의 2) 사도바울의 선교전략 3) 존 네비우스의 3자 원리 4) 자립교회로 성장 시키는 비결, 4. 제자화 운동전략(Discipleship Movement Strategy) - 1) 제자개념의 성경적 정의 2) 제자화 운동의 목적 3) 교회성장과 제자화 운동 4) 제자화 운동전략

## ⑤-7 이슬람선교를 위해 예비된 이중문화권자

김종헌 / Band Barnabas 디렉터



1988년부터 USCWM(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스텝으로 사역해온 김종헌 선교사는 후에 USCWM의 방계기관인 Korean American Center for World Mission을 창설하고 디렉터로 섬겨왔다. 현재는 새로 창설한 Band Barnabas의 디렉터로 아시아 무슬림을 향한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특별히 이중문화권을 발굴, 파송하고 있다.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USCWM의 창설자인 랄프 윈터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준비중이다.

9-11 이후 이슬람권을 향한 우리의 이해는 증폭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무슬림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무슬림들을 향한 선교에 있어 이중문화권자들은 어떤 독특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 ⑤-8 이슬람세계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선교적 대응

김덕래 / 미국 동원사역 선교사



WEC-USA 서부지역 디렉터로 LA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덕래 선교사는 1986년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파키스탄에 파송을 받아 사역해 오다 2001년 9.11 사태로 철수하여 미국에서 동원사역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연합신학대학, 싱가포르성경대학을 나와 풀러신학교에서 신학과 이슬람을 전공하였다.

모슬렘 세계는 급변하는 지구촌 중심에 큰 역할을 감당해 왔다. 이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더 이상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게 되었다. 특히 9.11 테러 사건은 지금까지의 이슬람에 대한 우리의 선교 정책에 큰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후에도 계속되는 테러가 멈추지 아니한 채 모슬렘 세계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에 큰 기회의 땅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도 수 많은 선교 단체와 개 교회들이 앞 다투어 선교사를 파송하며 이 기회의 땅을 두드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로 적용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과 다른 많은 노력과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시간에는 모슬렘으로 인하여서 유일하게 독립한 나라인 파키스탄의 지난 100년간의 선교 전략 사례를 연구 비교하며 전체 모슬렘 세계의 선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⑤-9 이슬람 근본주의는 왜 발흥하는가?

김에녹 / 어린이선교교육 강사

김에녹 선교사는 1994년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와 한국해외선교회(GMF) 전문인선교협력기구(HOPE - Helping Overseas Professional Employment)에서 선교사로 인준 및 허입 후 중국내 모슬렘 소수민족인 회족 사이에 교회개척을 목적으로 사역중에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들이 모두 근본주의자라고 오해 하고 있다. 그러나, 무슬림 은 여러 종류로 나뉠수 있다. 먼저, 교파별로 나눠 보면, 수니, 수피, 시아를 기준으로 수백개의 그룹들로 나뉜다. 또한, 현대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근본주의, 보수주의(전통주의), 자유주의등으로 나뉜다.

9/11 사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무슬림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은 무슬림 사역을 위해선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한편, 서구의 언론에 동반되어, 무슬림들은 모두 사납고,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들이라는 생각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적잖이 있어 선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발표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정체성과 발흥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와 극 반대인 자유주의자들의 특성을 살펴 볼 것이다. 결론 적으로 저자가 사역하는 중국의 모슬렘의 상황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사역 전략을 어떻게 재 구성해야 할 지를 나눠 본다.

## ⑤-10 실크로드 선교전략

조용성 / 중동 T국 선교사

1987년 중동 T국으로 파송된 GMS 선교사로서 실크로드 지역 책임자로 사역하고 있다. 또한 중동지역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 ⑤-11 터키선교의 중요성과 필요한 사역자들

김마태 / 터어키 선교사



20여년간 터키에서 사역중인 김마태 선교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터어키과를 졸업하고 양카라대학 정치학 석사, 이스탄불 대학 정치학 박사를 받았으며 현재 국제전문인선교회(International Tentmakers Mission) 대표로 있다. 저서로 「에덴동산은 터키에 있는가」, 「터키성지순례가이드」, 「밤모섬에서 돌아온 사도요한」 등이 있다.

서론 : 21년의 전문인 선교사로서 체험했던 것들을 간증한다. 하나님의 부르심 전문인 선교사로서 회교인들의 전도와 그들이 당한 어려움 그리고 선교사가 치루어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개척에 이르기까지 실패와 성공을 나눈다.

1) 터키 선교의 중요성 2) 터키 선교의 근대 역사 3) 터키 선교에 필요한 사역자들

결론: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교사역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터키 지역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게 하기 위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이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복음을 잃어버린 이 지역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지역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고 있다. 지금이 그 기회다. 이 지역의 복음화는 중앙아시아와 중동 회교권에 복음의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오해와 박해 속에서 복음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결실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결실을 위해서 이제는 포괄적이면서 전문화된 사역자들이 와서 잘 자라고 있는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여 복음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 ⑤-12 한국교회의 알타이권 선교전략

유기남 / 일본 선교사



알타이선교회(ACC) 대표인 유기남 선교사는 1987년 이후 13년간 OMF와 함께 일본에서 교회개척 및 한국본부에서 본국 디렉터 사역을 하였다.

우리 한민족과 비슷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알타이권은 언어적으로는, 투르크어, 몽골어, 만주-통구스어, 일본-한국어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적으로는 발칸반도, 소아시아, 서남아시아, 볼가유역, 중앙아시아, 남부 시베리아, 북동부 시베리아, 몽골, 만주지방, 한반도, 일본 등지를 포함하는 유라시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알타이어족의 인구 구성은 대략 투르크계 1억 2천만명, 몽골계 530만명, 만주-통구스계 450만명, 한국계 7천 5백만명, 일본계 1억 2천 7백만명으로 총 3억 3천 1백 80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본 강의

에서는 알타이권 종족들 중 투르크계와 몽골계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선교사역들을 살펴보고 이들 종족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전략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알타이권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대단위(大單位) 교회가 있는 한국이 알타이권 지역에 보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복음과 떡을 동시에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㉔-13 회교문화권에서의 교회개척과 제자훈련

송기드온 / 회교권 선교사

1992년 9월 1일에 회교권 선교사로 파송받아 HOPE소속으로 사역하고 있다.

### ㉔-14 히말라야 선교의 필요성

이춘심 / नेपाल 의료선교사



1985년 नेपाल 의료선교사로 파송된 이춘심 선교사는 예수간호대학,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의료선교화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카투만두신학교 학장, 히말라야선교부 설립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नेपाल인 남편인 반다리 목사와 함께 히말라야 선교운동에 놀라운 결실을 맺고 있다.

1. 불교와 힌두교 등 여러 종교의 원산지
2. 영적전쟁의 본부
3. 현대 다원화 종교의 출발지

### ㉔-15 북인도선교의 이해와 도전

배정희 / 인도 선교사



인도에서 10년째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는 배정희 선교사는 한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3년 인도선교사로 파송될 때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CAM 대학선교회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였고 인도 Jawaharlal Nehru 대학에서 사회학으로 M.A.와 M.Phil 과정을 마치고 현재 박사과정 중에 있다.

지금 인도는 움틀 거리고 있다. 1947년의 독립 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인도를 이해하는데, 부분만을 알고 있다. 마스크임으로 비추어진 인도는 가난한 슬럼가(slums)의 모습과 신비해 보이는 다양한 종교들, 현존하고 있는 카스트제도 그리고 길거리를 누리고 다니는 소 떼의 행렬 그리고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인도가 있기에, 인도를 잘못 이해하였던 적도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도선교의 비전을 품는 한국교회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5000년 이상의 역사와 세계관 속에 젖어 있는 사고를 가진 인도사람들을 기경하기에는 인내가 요구된다. 그러기에, 한국교회는 파송한 선교사와 선교사의 사역의 열매에 대하여 인내하여야 하며, 파송된 선교사는 현지인 동역자들에 대하여 인내를 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인내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훈련하시며, 성숙의 모습으로 세워 가시고 계신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인내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품으셨음을 보여주셨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인도선교를 사랑으로 출발하며, 인내로 선교를 감당하며, 쉬지 않는 기도만 있다면, 한국교회는 21세기의 인도 선교 역사의 장을 새롭게 할 것이다.

## ⑤-16 21세기 일본선교전망과 일본선교현황/NGO와 일본선교

백종윤/길갈교회 담임



일본복음선교회의대표인 백종윤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 신학교(B.Th), 장로회총회신학 신학대학원(M.Red)를 나와 Great Plains Baptist College 종교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교회 신대원(M.Div),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 과정중이다. 1991년부터 10년간 네팔선교사로 사역하였으며 현재 서울복지방회 길갈교회 담임목사로도 사역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선교현황과 변화의 조짐들, 그리고 앞으로 일본에서 일어날 선교의 변화들에 대한 전망을 살펴본다. 또 NGO의 개념과 NGO를 통한 선교접근, 그리고 일본선교사역에 있어서의 접목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

## ⑤-17 쿠바선교의 문이 열린다 - 전략, 전망, 협력

박철수/뉴라이프교회 담임



뉴라이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철수 목사는 고등학교 때 도미하여 휴스턴대학을 졸업하고 Bank One에서 10년간 은행장으로 있다가 새로이 소명을 받고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와 선교에 힘쓰고 있다. The Learning Institute of Texas의 학장이며 쿠바의 LIT en 의 총장이다.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경제 봉쇄때문에 멀리하는 나라인 쿠바의 교회들은 오랜동안 공산체제 밑에서 외부의 도움없이 성장해왔다. 휴스턴의 뉴 라이프 교회와 박철수 목사는 지난 7년 동안 성령의 지혜로 선교 사역을 꾸준히 발전시켜 지금은 6개의 신학교와 전국의 대학교 Campus 선교의 지하 Network을 세우는 데 성공했다. 지혜롭고 합법적으로 선교활동할수있는 기회와 쿠바가 현재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여 동참할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Work Shop.

## ⑤-18 중남미선교를 위한 쿠바의 역할

전재덕/도미니카공화국 선교사



도미니카공화국에서1993년부터 사역해 오고 있는 전재덕 선교사는 감리교신학대학을 나와 기감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쿠바는 이 마지막 시대에 히스패닉(스페인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하여 준비된 나라이다. 쿠바의 수도 아바나시를 보게 되면 공산혁명 전까지 만해도 '중남미의 진주'라는 별명이 손색이 없음을 알게 된다. 건물 하나하나가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혁명 이후 한번도 페인트칠이나 보수공사를 하지 못해서 보기 흉하지만 풍기는 멋과 가치는 대단하다. 그 당시에 미국과 견줄 수 있었던 중남미의 유일한 나라였다. 저력이 있는 나라였다.

쿠바정부는 미국이 쿠바교회의 셀을 이용하여 정부전복을 꾸민다고 의심하고 있다. 교회의 수많은 셀들이 이 일에 행여나 동참한다면 45년 전의 혁명이 거꾸로 일어나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쿠바에서는 3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이런 이유로 체포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도 하다. 같은 셀인데 가정교회 셀은 죽을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는 하나님의 지체임을 쿠바정부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꼭 필요한 생명의 혁명이 쿠바를 뒤덮기를 기도한다.

## ㉟-19 재미한인교회들의 피선교지로서의 중남미 선교지의 중요성 최상호 / 에쿠아도르 선교사



에쿠아도르에 파송받아 11년째 사역하고 있는 최상호 선교사는 뉴욕 얼라이언스신학교와 뉴욕신학대학 및 대학교를 나와 보츠와나, 탄자니아, 잠비아 등 아프리카와 소련, 남미 등지에 단기선교사로 사역하였고 중국선교사로도 사역하였다

1. 중남미 대륙 - 정치, 경제, 문화, 사회와 지리. 역사. 종교 현황.
2. 피선교지의 중남미 - 한인 교포 교회의 선교 열의. 미국 문화와 화폐의 강제. 변조된 케톨릭 국가.
3. 한인 선교사들과 사역들 - 선교사들의 현황. 그들의 중요 사역들. 에쿠아도르 사역들 소개.
4. 선교지의 전망 - 단기 선교. 1세들의 선교. 2세들의 선교

## ㉟-20 한국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선교전략

조남훈 / 위디선교회 실무자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모국으로 재파송하려는 목적으로 1983년 설립되어 현재 국내에서 전문적인 외국인 선교단체로 인정되고 있고 미국, 필리핀, 인도, 가나 등 여러국가에 신학교, 교회건설과 단기선교팀을 파송하는 사역을 하는 위디 선교회의 실무자이다.

## ㉟-21 인도차이나 선교전략

박선진 / GP한국선교회 대표

타문화권선교훈련원(GCMC)을 설립하고 필리핀 북부산악지역에서 이교로 부족내 교회개척사역을 해온 김병윤 선교사는 현재 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부(GMP) 공동대표이며 선교한국2000 실행위원 그리고 필리핀침례신학대학원과 아세아침례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이다.

'인도차이나'라는 말은 프랑스가 자신의 식민지 연방을 가르쳐 사용하였던 말이다. 그후 이 단어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서 인도양과 중국남해의 가운데 있는 반도를 가르치게 되었다. 지금 이곳은 여러 개의 국가로 구분되어 있는데, 언급하면 베트남, 라오스, (서부)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이다.

한국을 기준하여 인도차이나는 서남쪽에 위치하며, 거리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있다. 이 지역에 있는 몇 나라는 한국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태국과 베트남이다. 태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 가운데 한 나라이다. 아시아국가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준 나라이다. 그리고 베트남은 이데올로기로 인해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한국은 미국과 함께 공산주의를 대항하여 싸운 곳이기도 하다.

한국교회는 약 50년 전부터 이곳에 마음을 두고 일을 하였다. 한국전쟁이 휴전이 되고 만 3년이 지난 1956년에 한국교회는 최찬영목사와 김순일목사를 태국에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1970년을 전후로 하여 한국교회는 베트남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였다. 예를 들면 현지인 '바오'청년(지금 목사)을 한국에서 공부시켜 베트남으로 보낸 일, 현지교회의 요청으로 박성준목사를 파송한 일, 또한 한인들을 위하여 감상우목사를 파송하여 사이공한인교회를 설립한 일 등이다.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로 모습을 탈바꿈하면서 한때 선교의 문은 닫혀 있었다. 그렇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나라들은 서서히 문을 열게 되었다. 열려진 좁은 문을 이용하여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을 이 지역에 보내고, 선교사들은 선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21세기에 접어들었다. 이 지역에는 지금 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일해야 할 곳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인도차이나 지역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을 세워 일하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⑤-22 유럽의 정치현황과 모슬렘 망명자 선교

나승필 / 독일 선교사



켈른공대와 기쎌신학교(M.Div, Th.M), 기쎌대학교(철학)를 졸업하고 윗필드신학교에서 박사과정중에 있는 나승필 선교사는 독일의 모슬렘 망명자와 난민선교에 주력하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현관인 오늘날의 유럽은 더이상 백인들만의 땅은 아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동유럽에서도 전쟁과 내란이 있는 곳마다 망명자들이 사모하는 행선지는 유럽이며 그중에서도 독일이다. 독일은 유럽내의 강국으로 망명신청자들의 정치적 신변을 보호한다. 유럽주변국 중 현재 전쟁이나 내란은 주로 회교국중에 빈번하다. 그 결과 유럽에는 회교도의 망명자들과 난민들이 대부분이다. 회교국인 터어키는 몇년 이내 유럽연합국이 되어 정치교류와 경제통상을 유럽과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 현상은 유럽의 회교화라는 무서운 위기를 경고하는 싸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선교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모슬렘 망명자 및 난민사역은 현재 정치적 상황을 적절히 활용하는 선교사가 갈 수 없는 회교국에서 회교도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교역사이다.

## ⑤-23 투르크창 - 또 다른 성지

김진영 / T국 선교사



1994년 중앙아시아에서 사역을 시작한 김진영 선교사는 Biola대학(문화인류학), Talbot신학교(M.Div), Alliance신학교에서 선교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러시아 칼믹키아공화국에서 사역하다 현재 T국에서 교회개척 및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있다.

실크로드(Silk Road -비단길) 투르크언어를 쓰는 1억 5천만의 90%가 북위 35도와 45도 사이의 실크로드를 따라 인접한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다. 투르크 언어를 쓰는 사람은 터키로 시작하여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의 국가들, 중국의 북서지역의 여러 민족들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10,000 km의 실크로드는 일어서고 무너지는 제국의 끊임없는 정복의 각축장이 되어왔다. 또한 무역하는 낙타 상인들에 의하여 동으로부터 비단, 보석, 향료, 종이, 포약, 가죽등이, 서로부터 금, 은, 화장품, 상아, 유리등이 교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문물과 소식들이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이 길을 따라 유목민족들은 도시와 마을을 정복하고 제국을 세우기도 하였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티무르의 군대들이 이 길을 따라 이동하며 그들의 제국을 확장하였으며 기독교의 선교사들과 불교의 수도승들이, 그리고 이슬람의 전도자들이 그들의 종교를 전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역사가운데 실크로드를 정복하는 자와 민족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힘과 권력, 부와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실크로드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길이었던 것이다.

이제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오랜 세월동안 감춰졌던 여러 투르크 민족들이 소련의 멸망과 함께 자유와 독립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중국 북서쪽의 투르크 민족이 시장 경제의 바람으로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해졌으며, 유럽연합의 가입을 희망하는 터키민족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실크로드는 다시 꿈과 비전의 길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또 하나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실크로드를 따라 복음의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 ㉔-24 버려진 땅, 아프가니스탄을 선교를 위한 전략

이상진 / 타코마중앙장로교회 장로



이상진 장로는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서 장로로 23년간 시무하고 있으며 엑스포로 74대 간사로 사역하면서 경험한 세계선교의 비전을 미국에 와 실현하면서 인도교회건축을 중심으로 필리핀, 러시아,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교회개척협력 및 선교 세미나 강사로 활약하며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의 공동의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현재 퍼시픽신학교 이사장, 제자들선교회 이사장, 워싱턴주 장로회 이사장, 지구촌선교회(GMC) 대표, 퍼시픽신학교 교수를 재임하고 있으며 라디오 선교방송과 전문단기선교사로 활약하며 교회와 평신도를 향하여 세계선교의 비전을 나누며 도전하는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본 선교대회의 미국 공동대회장이다.

오랫동안 버려진 땅,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고 전쟁을 통하여 그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새로운 선교전략을 세워 그 민족을 복음화하는 선교전략은 무엇인가? 그 선교의 현장을 방문하고 온 이상진 장로는 생생한 보고와 함께 미래의 전략을 함께 나눈다.

## ㉔-25 라틴 아메리카에 침투하는 한국이단과 그 퇴치방안을 위한 제언 방도호 / 페루선교사



1996년 파송받아 현재 페루 미션고신 대표로 있는 방도호 선교사는 고신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나와 Yuin University에서 박사과정중이다. 현재 코람데오신학교 학장, 개혁주의 목사재교육원 원장, 라틴아메리카 이단대책위원회 자문위원, 페루인 기독교실업인협회(CMBC) 지도목사이다.

[페루를 중심으로]

1. 라틴아메리카속의 한국이단의 구체적인 활동
2. 페루속에 있는 한국이단의 활동
3. 한국이단의 강점과 페루 독립교회들과의 만남
4. 신학이 약한 페루 속에 있는 개신교연합회와 한국교회와의 관계
5. 라틴아메리카 복음주의 연맹과 중요단체와 한인선교사회와 한기총과 한국의 이단대책연구회의 역할.

## ㉔-26 중동 이슬람 의료선교의 가능성

박준범 / 예멘 선교사



예멘에서 의료사역을 하고 있는 박준범 선교사는 조선대 의대를 졸업하고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고 영국 레드클리프 대학에서 전문인선교훈련 과정을 졸업하였다. 한국누가회(CMF) 대표총무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예멘에 한국인터서브 의료선교사로 있다.

1.언급하고 들어가야 할 이슈들

1) To be transformed., not just be informed (롬12:1-2) -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그의 말씀을 통한 전인적인 변화와 인격적인 응답을 통해 발굴되어진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의해 영향 받는 세속적인 세계관안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며 수많은 선교정보가 주어지고 그 정보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 안에서 근본적인 transformation을 경험하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 이슬람을 선교하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transformation 된 신앙과 삶의 자세를 갖춘 일꾼으로서의 것이다.

2) '전문인(professionals)선교'인가?'전인적(wholistic)선교'인가?- 전문 직업인들이 선교에 헌신할 때 회자되는 전문인 선교라는 말에 포함된 선교적 위험 요소가 있다. 전문인 선교를 강조할 때 선교사의 자질과 정체성에 근본적으로 중요시 되어야 할 전인적, 통합적인 선교사 자질과, 정체성과 영성 및 선교 세계관이 도외시됨으로 단순히 선교지에서 기능적으로 필요한 전문인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해와 접근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금처럼 이슬람과 서방의 전쟁으로 깊어가는 불신과 상처의 시대에 이슬람 선교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지녔을 지라도 그리스도의 인격적 사랑이 결여된 알팍한 기능인보다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사랑의 사도들이 더 많이 필요함을 기억하자.

3) 이슬람에 대한 이해의 성장과 더 많은 세계 한인 그리스도인들의 이슬람 선교 헌신 - 이슬람에 대한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이해를 벗어 버리고 역사적, 현장 중심의 바른 인류학적인 접근으로 무슬림들을 이해해야 한다. 무슬림에 대한 우리들의 기존의 이해에는 서방국가 입장에서 조작된'Hollywood effect'에 의한 왜곡으로부터 많은 선입견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슬람 이해는 먼저 성경적 인간관에 근거해야 하고, 민족이나 국가 이기주의적인 이해를 벗어나야 하며, 이들을 위한 선교는 철저히 이슬람 현장 안에서 얻어지는 신학적, 영적, 사회적 역학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참조: 창1:27-28, 롬10:1-15)

4) 중동의 정치, 경제적 미래와 재편 - 향후 중동의 정치적, 종교적 미래는 10년 안에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지배의 성패와 맞물려 순기능, 역기능의 영향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선교적 미래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시대에 중동선교에 한국교회가 헌신하지 않는 것은 선교 역사적 사명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미주의 많은 한인 의료인 학생들과 의료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중동 이슬람 선교 의료 사역지에서 그 첨병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을 받기를 소망한다.

## 2. 중동 이슬람국가들의 의료선교 Review

- 1)이라크/쿠르드: 전후 복구와 관련된 NGO 사역 및 교회 훈련 사역, 의료사역
- 2)요르단: 마프락 병원 사역, 지역보건 사역
- 3)예멘: 일반 병원 사역, NGO 사역, 클리닉, 지역보건 사역
- 4)오만: 일반 병원 사역, 병원 전문 직종 사역
- 5)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 제한적 가능성
- 6)이집트: 지역보건 사역,

## 3. 예멘 의료선교 현황 (박준범 선교사 예멘 사역 보고)

- 1) 의료사역 2)제자 훈련 사역
- 4.도전과 과제들

## 6. 선교사/선교헌신자

### ㉞-1 지친 선교사들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

오대원 / 안디옥커넥션



David Ross: 1961년 한국에 파송된 미국장로교 선교사로 초교파적으로 청년사역을 시작하여 그것이 오늘날 예수전도단이라 불리는 단체의 출발이 되었다. 예수전도단 그 사역이 커지면서 YWAM이라는 국제적 단체와 가까워졌고 1981년에 이 두 단체는 하나가 되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 있는 한국 젊은이들을 세계선교를 위해 훈련시키는 일을 위해 안디옥 커넥션(Antioch Connection)을 시작, 현재 미국 시애틀에 본부를 두고 미 전역에 센터를 통해 미주한인청년들을 향한 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근래에는 북한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념하고 있다. 아내와 세 자녀가 있으며 자녀들은 모두 한국인 아이들을 입양하여 양육하였다.

(이 세미나는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한 것이지만 선교사가 아닌 이들의 경우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진정 선교사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이들을 환영한다)

선교사들은 지치게 된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초에서 사역하고 있기에 사탄의 공격의 우순순위이기 때문이다. 타문화권이라는 상황도 이들을 힘들게 한다. 이 세미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친 선교사들을 위하여 안식과 회복을 주시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친 엘리야를 회복하셨는가에 대해, 그리고 성경과 역사상의 인물들을 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㉞-2 강철 목련 - 선교사 부인으로서의 45년

엘렌 로스 / 오대원 목사(David Ross)의 부인



Ellen Ross: 엘렌 로스를 아는 사람들을 그녀를 빛나는 여인, 평화의 사람으로 표현한다. 엘렌 로스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목회적인 사역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희년사역(Jubilee Ministry)이라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61년부터 오대원 목사(David Ross)의 부인으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으며 인류학 박사이기도 한 그녀는 일종의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자녀 셋은 모두 장성하여 결혼하였다.

"그의 강함은 나의 약함을 위함이라"는 지난 45년간의 사랑의 여정을 잘 표현해 준다. 선교사 아내라는 삶은 나의 꿈이 실현이었으며 우리 부부는 한국에서 여러가지 위대한 체험들을 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나는 우리가 겪었던 삶의 간증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선교사의 아내로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나눌 것이다.

### ⑥-3 선교사 바로 만들기

조동진 / 사단법인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이사장



1961년 한국교회사상 최초로 선교학을 신학교 교과과정으로 설치하고, 또한 최초로 선교대학원인 동서선교개발원을 설립, 선교사양성을하여 30년간 1,500명 이상의 한국과 아시아 선교사들을 교육해 왔다. 현재는 1995년에 설립한 사단법인 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이사장으로, 통일환경연구원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 1. 선교사의 기본 자격

1) 소명의식: High Calling (동기) 2) 소속의식: Identity (귀속심) 3) 헌신: Dedication (사랑)

#### 2. 선교사의 선정과 헌신자의 준비

1) 선교사는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하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헌신의 준비 3) 헌신자의 기본 교육

#### 3. 선교헌신자를 위한 노정표 (Roadmap)

1) 지름길은 실패로 가는 길이다. 2) 쉽고 넓은 길로 가면 미로(迷路)에 빠진다. 3) 선교사는 노정표: roadmap이 필요하다.

#### 4. 선교사역의 형태와 자기 적성을 확인해야 한다

- 1) 선교사역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 2) 선교사는 자기 적성에 따라 전문 선교 분야를 확정해야 한다.
- 3) 선교사는 하도자 하는 사역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선교사는 선교를 위한 기본교육과 현장실습을 거쳐야 한다.

#### 6. 선교사의 라이프스타일: Life Style

7. Short-term Missions 문제점과 효과적 단기선교를 위한 준비

### ⑥-4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로 부르시는가?

키스 필립스 / 월드임팩트(World Impact) 총재



Keith Phillips: 미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독교단체인 월드임팩트(World Impact)의 총재인 키스 필립스는 현재 12개의 도시와 4개의 캠프사역을 관장하고 있다. UCLA, 풀러신학교(M.Div), 존브라운대학(고전문학 박사학위)을 나왔으며 저서로 「They Dare to Love the Ghetto」, 「The Making of Disciple, No Quick Fix」 등이 있으며 「700클럽」, 「Focus on the Family」 등의 방송에 출연하였으며 프라미스키퍼의 주강사이기도 하다.

[데살로니가전서 2:17-18]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시빈민을 향한 사역으로 부르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㉞-5 사역자(선교사)는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소강석 / 새에덴교회 담임



20대 후반 젊은 전도사 시절 분당에 새에덴교회를 개척하여 소목사 특유의 "맨땅, 맨손, 맨몸"의 "3맨목회" 철학을 외치며 12년의 뚝심목회를 한 결과 4천명 성도의 교회로 성장하여 모든 교회개척자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던지고 있는 촉망받는 젊은 목회자로 세계선교현장을 뛰며 불을 토하는 영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광신대, 개혁신학대학, 대학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거쳐 북미 Knox신학대학에서 목회학 박사(D.Min.)를 수여하였다. 한국문인협회 시인이기도 하고 개신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직도 담당하고 있다. 「맨발의 소명자」, 「불붙는 영성을 회복하라」, 「비전의 가문을 세우라」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약점은 지은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할 줄만 알지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데 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 앞에 가져가 처리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엔 기쁨과 감격이 없고 능력이 없으며 무기력하고 패배감으로 가득할 때가 많다.

사역자(선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삶에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사역에 힘이 없고 사역의 기쁨과 열매도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와 싸우는 전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1. 죄와의 싸움은 중생 이후부터이다.

1) 죄의 힘, 파괴력 2) 그러나 죄보다 무서운 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 하는 나 (죄악의 공장)

2. 그러면 나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가?

1) 금욕, 절제로 이길 수 있는가 2) 새로운 결정과 인내, 혹은 종교적 수양으로 이길 수 있는가 3) 율법 지킴으로 이길 수 있는가

3.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1) ()을 알아야 한다. (롬 6:1-4) 2) 죄를 이기는 것은 ()이다. (롬 6:10) 3) 그러므로 우리는 ()를 경험해야 한다. (갈 2:20)

4) 또한 ()으로 살아야 하고 성령의 생각을 선택해야 한다. (롬 8:1-2, 5-6)

죄와 싸워 이겨본 자, 진정으로 승리한 삶을 경험한 사람만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사역의 희열과 열매를 풍성히 풍성히 누릴 수 있다. 우리 모두 이런 기쁨과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누리자.

## ㉞-6 영성과 선교 (Spirituality and Mission)

박광자 / 미국 선교사



박광자 선교사는 풀러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박사를 받았고 브라질 아마존지역 선교사로 사역했으며 나성영락교회에서 교육/선교담당 교역자로 사역하였다. 현재 OC International 국제팀/선교사 동원사역 디렉터로 북미주 한인2세들의 선교동원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적인 선교사운동에 있어 영성의 자리매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교사들의 철수에 관한 분석에 의하면 사역한지 얼마 안되어 좌절 가운데 철수하게 되는 이유의 대부분이 영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한인선교사들의 철수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동료선교사들과의 관계적 문제, 건강문제, 직업을 바꾸는 문제, 소명의 부족, 가정에서의 충분치 못한 후원, 파송기관과의 의견 불일치, 문화적 적응의 실패 등이 그 원인들인데 연구에 의하면 가장 심각한 원인은 동료선교사들과의 관계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앞으로의 선교훈련은 새롭게 된 심령과 공동체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 ⑥-7 선교멘토링

김종헌 / Band Barnabas 디렉터



1988년부터 USCWM(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스태프로 사역해온 김종헌 선교사는 후에 USCWM의 방계기관인 Korean American Center for World Mission을 창설하고 디렉터로 섬겨왔다. 현재는 새로 창설한 Band Barnabas의 디렉터로 아시아 무슬림을 향한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특별히 이중문화권을 발굴, 파송하고 있다.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USCWM의 창설자인 랄프 윈터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준비중이다.

선교란 여행이며 과정이다. 우리가 선교라는 길에 들어서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선택이며 희생이다. 여기에는 항상 관계적인 책임이 동반되어진다. 우리는 이 세미나를 통해 멘토링에 대해 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살펴볼 것이다

## ⑥-8 선교적 삶에 있어서의 5가지 도전

초미성 / WEC International 미국본부 지역책임



WEC International 미국본부 지역책임으로 사역하고 있는 초미성 선교사는 싱가포르성경대학(M.A.)을 나와 1986년부터 2002년까지 파키스탄에서 선교사로 섬기다 현재 파키스탄에서 낳은 두 자녀와 남편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세계선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장기선교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5가지 기본적인 도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선교 후보생이나, 선교위원회 위원,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 ⑥-9 비전

변희관 / 세계로선교회(ENM) 국제회장



세계로선교회(ENM)의 국제회장인 변희관 목사는 장로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육군 제3사관학교 군목으로,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상담자 훈련책임, 한국네비게이트 해외선교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중이다.

1. Vision의 정의 : 1) 비전은 단순히 일어난 사실을 보는 것. 2) 그 사실을 깊이 보는 것. 3) 전망하는 것. 4)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을 보는 것. 5) 원리를 세워 문제해결의 창의적인 방법을 창출해내는 것. 예) (마9:36-10:1)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의 본
2. Vision 있는 사람의 특징 : 1) 비전에 불타 있다. 2) 오래 기다릴 줄 안다. 3)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 4) 행동으로 그 비전을 실행한다.

3. 비전을 가져야 할 이유 : 1) 비전은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한다. 2) 비전은 일을 이루어낸다. 3) 비전은 용기와 열정을 준다. 4) 비전은 사명감을 준다.
4. 어떤 Vision을 가져야 하나? : 1)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전 2) 충성된 일꾼을 재생산하는 비전 3) 주님의 재림에 대한 비전 4)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5) 세계비전이다.
5. Vision을 가지는 방법 : 1)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2) 기도를 통해서 3) 비전을 가진 사람과의 동행을 통해서 4)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5) 지속적으로 주님 따르는 일을 해야 하며 6)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있어야 7) 집착을 버릴 것.

## ㉞-10 선교사로의 부르심 어떻게 알 수 있나?

홍은선 / 위클리프성경번역 선교회



홍은선 선교사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시절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었고 졸업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 1994년에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에 허입이 되어 성경 번역사역을 위하여 미주의 한인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교회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선교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선교관심자들을 멘토링하며 미주 한인들이 선교에 동참하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과연 자신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사역으로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르심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다른 견해가 있다. 하나는 모든 이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이들에게는 확실한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 세미나를 통해 소명의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부르심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지, 여러분이 보내는 자이건 가는 자이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㉞-11 가입할 선교단체를 찾는 법

홍현민 /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 선교동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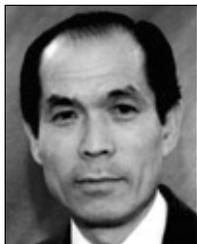


홍현민 선교사는 고려대학교, 노스이스턴 공과대학원, 단테일 신학대학원을 나와 앤더슨 컨설팅에서 기술매니저로 일하면서 토론토 큰빛교회 선교디렉터로 여러 프로젝트에 동참했으며 현재는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에서 선교동원가로 사역하고 있다.

선교의 부르심만 확인 되면, 그리고 가족들의 동의가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선교지로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 왔는데 막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어느 선교 단체와 함께 일해야 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미주 선교 단체가 수천개가 되는 것을 보고 놀란 후 어떻게 어느 선교단체가 나와 맞는 단체인가를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결혼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소명과 은사 그리고 사역 목표와 맞는 선교 단체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 단체를 찾는데 고려하여야 할 점 그리고 실천적인 조언 들을 함께 의논해 보는 시간입니다. 선교단체 검토할 때의 마음가짐 -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체. 단체 선택의 주도권, 선교 기관에 소속한다는 것은 결혼과 유사, 완전한 사역은 존재하는가 선교 기관 접촉시 점점 사항 - 영적 가치, 역사, 장단기 사역계획, 사역 유형,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 재정 후원, 소속 교회 및 현지 교회와의 관계, 훈련과 언어 학습 정책 선교 단체가 선교사 후보에게 묻는 질문

## ㉞-12 선교사의 육체의 가시

이영섭 / 볼티모어한인장로교회 담임



볼티모어한인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영섭 목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을 역임하였고 세계성령복음화협의회 총재, 워싱턴개혁장로신학교 학장을 맡고 있다. 철학박사이며 본 대학의 공동준비위원장이다.

1. 선교의 사명과 영적체험 주님의 환상과 계시
2. 선교의 사명과 하나님의 능력
  - 1)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 - 하나님께 받은 계시, 자고하지 않게
  - 2) 육체의 가시를 치료하는 방법 - 주님께 간구, 하나님의 은혜
  - 3) 육체의 가시가 머물게 된 목적 - 하나님의 능력,
3. 선교의 사명완수.

## ⑥-13 선교사 가정의 갈등 해결

김만풍 / 워싱턴지구총교회 담임



워싱턴지구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만풍 목사는 충신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하고 남침례신학교에서 신학석사를, 고든콘웰 신학교에서 목회상담학 석사를, 보스톤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심리학/예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남침례회 한인총회 총회장, 남침례신학교 객원교수, 국제전도폭발 북미주한인본부 대표, 미국 코스타 상임이사이며 본대회 공동부대회장이다.

선교사의 가정, 교회, 사회생활의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갈등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하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눈을 감고 보지 않고,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입을 다물고 말을 앓는 것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 말고는 한번 와 보시기 바란다. 아니, 그런 사람이라도 오신다면 은근히 환영할 것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갈등을 정의하고, 갈등의 선천적, 후천적, 현재적 요인을 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6가지 반응들을 살펴보고, 갈등 해결의 5가지 방법을 점검한 다음 인간관계 갈등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제안을 하고 나서 질문과 응답 시간을 갖고 마칠 것이다.

## ⑥-14 사역과 탈진 증후군 (Burn Out)

이승호 / 에바다정신건강클리닉 원장



에바다선교회 대표이며 에바다 정신건강클리닉 원장인 이승호 목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뉴저지 주립의대 정신과와 소아/청소년 정신과를 수료하였다. 미국정신과협회 Minority Fellowship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러가지 스트레스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균형이 깨지고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흔히 일어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탈진증후군(Burn Out)이다. 이는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특히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목회자(선교사)들에게서는 좀 더 독특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와 이를 미리 방지하거나 발생했을 때 빨리 적절하게 대체하는 방법들을 목사이며 정신과 의사인 전문인에 의해서 강의된다. \* 우울증 자아 진단 및 일 중독증과 탈진 증후군 검사 실시합니다.

## ⑥-15 선교사의 재정관리 원칙

조일래 / 수정성결교회 담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인 조일래 목사는 부산대/대학원을 나와 서울신학대학원(M.Div), 풀러신학대학원(D.Min)을 수료하였고 서울신학대학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1977년 개척한 수정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거의 모든 선교사는 후원자들로부터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선교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이 선교비는 크게 생활비와 사역비로 나누게 됩니다. 선교비의 바른 관리 자세를 알아 봅시다.

1. 선교비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후원자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 선교비는 후원자들의 정성이요, 피와 땀과 눈물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3. 선교비 후원자들의 신앙과 생업의 풍성함을 위해 쉬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4. 선교비가 공급해 주신 하나님과 후원자들의 의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5. 사역비의 사용에 대하여 후원자의 감사가 있고, 모든 선교비에 대하여 하나님의 감사가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6. 사역비는 다음과 같은 회계의 일반원칙에 따라 잘 기장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 1) 신뢰성의 원칙; 2) 명료성의 원칙; 3) 충분성의 원칙; 4) 계속성의 원칙; 5) 중요성의 원칙; 6) 안전성의 원칙

## ㉞-16 한국선교사의 시간개념

황태연 / 필리핀 선교사



예장합동선교부(GMS) 선교사로 1981년부터 개척교회사역을 시작하였던 황태연 선교사는 충신대학과 신대원, 아시아신학대학을 나와 필리핀 국립대학에서 동남아시아학(M.A.)과 필리핀학(Ph.D)을 공부했다. 현재 필리핀 장로교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목회자들의 쉼터 목자의 집을 세워 봉사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한국 선교사는 한국의 산업화와 군사 문화권에서 형성된 시간 속에서 강박관념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본 강의는 시간을 바라보는 다섯 유형을 소개하고 그 틀에 빌려 한국선교사의 시간관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렇게 형성된 문화적인 동인을 설명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고찰은 선교사역에 있어 각기 다른 시간개념에서 빚어지는 여러 오해 (마치 예술가와 군인의 시간개념이 각기 다르듯)를 감소시킬 것이고, 이러한 차이를 건설적으로 이해케 하여 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과송교회와 선교 행정가들은 현지 문화 속에서 점차 적용되어 가는 선교사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㉞-17 교육선교와 선교사 계속교육

이현석 / Korean Inter-Missions 기획, 정보실장



이현석 목사는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International Evangelism Association 에 Director of Mission으로, Korean Inter-Missions의 기획, 정보실장으로 있다.

### I. 서론

21세기 선교는 협력과 동역이 절실이 필요하며, 이협력과 동역을 통하여 현지 지도자를 훈련시켜 그들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II. 선교지의 신학교육 실태

1. 선교지의 빈약한 신학교육과 시설 - 1) 신학교 교수요원 부족 2) 신학교육 과정의 수준 미달 3) 교육시설 미비
2. 인적자원의 문제 - 1) 부적격자 신학 지망 2) 경제적인 문제 3) 목회 훈련 부족

### III. 미래지향적인 선교지 신학 방향

1. 신학교육기관의 통합을 통한 협력과 동역 - 1) 취약한 신학 기관의 통합 2) 자격있는 학생 선발 3) 경제적인 문제 해결
2. 체계적인 정규 신학교육 기관과 협력과 동역 - 1) 자격 교수요원 해결 2) 체계적인 교과목 교육
3. 영성훈련과 목회훈련을 통한 자아발견의 장으로 전환

IV. 미래의 선교는 협력과 동역을 통한 새로운 모델을 현지 지도자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선교지 교육선교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바람직한 지도자를 육성 하여야 할 것이다.

## ⑥-18 선교사 자녀교육과 대학진학지도

이지수 · 임윤경 / 지구촌고등학교



**이지수** 지구촌고등학교의 이지수 기획실장은 한양대 경제학과, Arizona State University, 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l Management을 나와 부산대학교 국제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임윤경** 지구촌고등학교 교사인 임윤경 선생은 이화여대 사학과, 이화여대 대학원 사학과를 나왔으며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지구촌고등학교 사회과 담당교사이다.

2002년 개교하여 현재 3개 학년 36명을 교육하고 있는 지구촌고등학교의 사역을 통해 경험한 바를 기초하여 선교사자녀에게 유익한 학교 교육은 어떠한 것이며 이들이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대회장에 설치한 부스를 통해 정보를 나누고, 현재 지구촌고등학교의 1학년, 2학년 담임교사들과 개인별로 면담할 수 있도록 연결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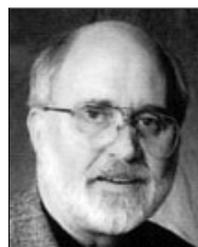
## ⑥-19 모슬렘 선교를 준비하는 자들을 위하여

탁수연 / 이집트 선교사

1987년 성서선교회에서 파송받아 북아프리카 모슬렘권 선교에 헌신한 탁수연 선교사는 현재 이집트에서 지속적인 모슬렘권 사역을 펼치고 있다.

## ⑥-20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를 위한 5가지 준비

진 플랫 / 인터서브 선교회 7개 중서부 주 지역동원책



**Gene Platte:** 인터서브 선교회에서 7개 중서부 주의 지역동원책으로 있는 진 플랫은 Taylor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중학교 교편을 잡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YFC (Youth for Christ)에서 적극적 사역을 펼쳤다. Western Michigan 대학에서 교육지도자 M.A.를 받았으며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를 위한 텐트메이킹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창출하였다.

On completing a four-year B.S. in Education with comprehensives in Social Studies and Language Arts from Taylor Univ., Gene taught Jr. High for two years in Richmond, IN. When Richmond did not deliver on a promise for a High School position when available, Gene realized the Lord was moving him on and he applied for the Youth for Christ Y-2 experience in Brazil.

Almost simultaneously to this application Gene met Karen and after a whirlwind courtship of nine months they went to Brazil together for a 2 year assignment of camp development and lay leadership training. The first of their three children was born there. This began a twenty-five year career with Youth for Christ in many different capacities but always with a heavy ministry emphasis on training and developing entry level staff and volunteers in the out reach to youth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All the time maintaining and participating in local church leadership at many levels.

In 1989 Gene received his MA in Educational Leadership from Western Michigan Univ. and opened an educational and organizational consulting firm, PerforMax. This became a spring board for Regional and National YFC training positions. He also opened a creative marketing endeavor in tentmaking. In 2000, InterServe/USA noted the mentoring efforts of the Plattes and invited them on staff as Area Mobilizers for the seven Midwestern states.

## 7. 선교사역/전략

### 7-1 새로운 선교방법 - 미전도종족 입양과 그 결과들

송석홍 / 청주중부명성교회 담임



10여년간 뉴욕 임마누엘교회, 필라델피아 새순교회 등 북미주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다 한국으로 건너가 지난 10년간 중부권 청주에서 중부명성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놀랍도록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송석홍 목사는 24개국에 44명의 선교사 파송 및 후원, 8개 선교단체 후원 등 세계선교사역에도 크게 헌신하고 있다. 장로회 신학대학과 대학원을 거쳐 New York Seminary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21세기를 맞이한 한국교회와 선교의 방향이다. 이 시대는 변화하는 시대이다.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환경도 급하게 변화되고 있다. 교회가 이 모든 변화를 인정하고 먼저 변화될 때 사회를 이끌 수 있다. 본 강사는 10년간의 이민 목회 후 청주 중부명성교회라는 한국의 중소도시 교회를 개척 시무하면서 10년동안 노력한 변화의 모습과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 7-2 미전도 도시민민을 향한 도시교회개척

키스 필립스 / World Impact 총재



Keith Phillips: 미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독교단체인 월드임팩트(World Impact)의 총재인 키스 필립스는 현재 12개의 도시와 4개의 캠퍼스역을 관장하고 있다. UCLA, 풀러신학교(M.Div), 존브라운대학(고전문학 박사학위)을 나왔으며 저서로 「They Dare to Love the Ghetto」, 「The Making of Disciple, No Quick Fix」 등이 있으며 「700클럽」, 「Focus on the Family」 등의 방송에 출연하였으며 프라미스키퍼의 주강사이기도 하다.

오늘날 미국의 도심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도시민민들을 향한 치유와 회복, 부흥의 성경적 대응책을 나눈다.

### 7-3 팀사역의 실상과 허상

강대흥 / 태국 선교사



1987년에 태국에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는 강대흥 선교사는 총신대, 총신 신학대학원(M.Div), 영국 에딘버러대학(M.Th)을 나와 미국 개혁신학교에서 박사학위과정 중이다. KGAM선교회를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GMS 태국지부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태국 목회자훈련원 원장 등으로 왕성한 사역을 펼쳐오고 있다.

총체적인 선교를 꿈꾸는 현대 선교에 있어서 팀 사역은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내 선교단체나 교단 선교 부도 팀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강조한다.

팀 사역이란 본부의 지시가 아닌 선교현장에서 선교사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사역의 양상들은 독단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선교 본부가 선교사 파송을 위한 훈련기간 중 그렇게도 강조하는 것이 팀 사역이지만, 선교지에 도착하면 금방 자유로움에 익숙해진다. 행정적으로 선교사들을 지도하는 단체에서 파송받은 분들까지라도, 초임 선교사시절에는 선배들의 도움보다는 자기 자신이 필요한 사람들과, 자기와 비슷한 유형의 선교사들을 만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 맘에 드는 권면만 선택하는 분들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 현장에서 팀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팀 사역이라 할 때 재정을 하나의 통장으로 같이 받는 구조라면 팀 사역이라 할 수 있는가? 리더를 교대로 맡으면 팀 사역이라 할 수 있는가? 공동 프로젝트가 있다면 팀 사역이라 할 수 있는가? 매달 모여서 기도하면 팀 사역이 되는가? 많은 선교 단체들이 진정한 팀 사역을 이루기 위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결국 이를 이루기 위하여 치러야 할 희생(sacrifice)들을 감수하면서 팀 선교를 쌓아가고 있다.

팀 사역이 되기 위한 과정들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완벽한 팀 사역을 행해 나아갈 수는 없다. 후원자들은 몰라도 선교사인 우리들은 우리가 하는 선교가 팀 사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은가? 팀 사역을 현지인과 할 수 있는가? 팀 사역을 같은 단체에서 파송받은 동료들과 얼마나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까지 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현장 선교사의 입장에서 팀 사역의 실상과 허상들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7-4 도시선교자원의 동력화를 위한 선교사의 역할

김종국 / 인도네시아 선교사



1983년 고신교단에서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받아 사역해 오고 있는 김종국 선교사는 미국 바이올리안신학대학 선교대학원에 서 선교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 인도네시아 복음장로교단 총회장 및 교수사역을 하고 있다.

선교학자 비브그릭은 인구 통계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영적전쟁의 최종 대결장은 도시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에선 구조적인 악과 도덕적 타락 및 만연된 물질주의(맘몬)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건강한 현지교회와의 협력과 평신도 사역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사역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시대의 대도시를 볼 수 없다면 그나라의 복음화를 이끌어 갈 수 없다. 이시대에 선교정신이 없는 선교사가 사라지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대도시를 점령함으로 일당 백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7-5 신학훈련을 통한 현지도력개발

정윤진 / 인도 선교사



T1980년에 인도에 파송받아 사역해 오고 있는 정윤진 선교사는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 경영대학원, 총신대, 풀러신학교, 국제교회행정대학원을 수료하였고 인도에서 아시아신학대학원, 바울유초등고등학교 및 초급대학을 설립,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교회개혁 사역도 해오고 있다. 세계한국선교사회(WKMF) 공동회장이다.

우리는 선교지들을 일반화 할 수 없고, 선교사역들을 일반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선교사역자들을 획일화(generalize, 일반원칙으로 일원화하는 일)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또는 우리의 평상적인 관념으로는 얼마나 일반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지는 각양 나름대로 언어, 종족, 기후, 관습, 종교, 문화, 교육, 전통, 정치 사회제도, 경제적 여건, 총체적인 사회 조류와 실상 등 복잡 다양하고 선교사역은 그 종류와 내용을 분명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여야 더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A. 선교사역의 실패 B.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설립하여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
- C. 아시아신학대학 및 대학원(Asia Evangelical College & Seminary) D. 선교지(인도는 인도)에 맞는 일군 양성!

## 7-6 제자훈련과 중동의 신학교사역

공요섭 / 중동지역선교사

아랍교회라고하면 우리는 아랍어 사용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일컫는다. 이런 아랍교회가 이슬람국가에서 공식으로 허락된 나라는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수단, 팔레스타인 등의 아랍교회이다. 물론 아랍교회는 아랍인들이 목회자로 세움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다. 여기서 아랍교회라 함은 전통교회(가톨릭과 정교회)와 복음주의 교회를 둘다 포함한다. 그러므로 복음주의 교회에서 교역자로 활동할 목회자 양성을 위해 중동에는 신학교들이 있는데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수단, 팔레스타인에 있다. 본고는 이런 아랍교회의 현황과 아랍 신학교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교회가 중동선교에서 지향해야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 7-7 현지지역교회 전망과 젊은이들의 선교참여

백운영 / 인도네시아 선교사



백운영 선교사는 미주 1.5세 출신 선교사로서 지난 14년간 동남아시아에서 현지교회 선교동원 사역을 하고있다. 필라델피아의 Westminster 신학교에서 M.Div.를 마친후 Fuller 신학교에서 선교학 석사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첫탐을 필리핀의 미전도 종족인 와라이족 개척 사역을 하였고 그후 인도네시아의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선교학 강의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교회들과 젊은이들을 선교로 일깨우고 훈련하여 미전도 종족에게 파송하는 사역을 하고있다. 그 외에 동남아시아의 여러 신학교에서 제자양성에 힘쓰고 있다.

## 7-8 자국인을 통한 선교전략과 성도의 사명

임승환 / 한우리침례교회 담임



아시아복음선교회(Gospel for Asia)에서 미국내 한국교회 담당 및 번역사역을 맡고 있는 임승환 목사는 달라스신학교를 나와 캐럴턴에 위치한 한우리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다. 한국기독교문서선교회(CLC) 번역요원으로 다수의 역서가 있으며 특별히 지난 4차 대회에서 소명을 받아 선교회에 동참하여 북미주 한인교회를 향한 선교동원과 도전에 헌신하고 있다.

1. 오늘날의 선교 현실
2. 자국인 선교의 필요성
3. 자국인 선교의 효율성
4. GFA의 자국인 사역 소개

1) Sending Out Native Missionaries 2) Training Qualified Laborers 3) Church Planting 4) Radio Ministry 5) Literature 6) Film Ministry 7) Muslim Ministry 8) Slum Ministry (MUP) 9) Van Team Ministry 10) Asian Biblical Seminary

5. 성도를 향한 도전과 적용:

- 1) 사랑과 기도 2) 감사와 절약 3) 헌신과 참여

**7-9 현지인 선교사를 통한 미전도종족선교**

타운 코르타도 / Gospel for Asia 선교동원책



Taun Cortado: 아시아복음선교회(Gospel for Asia)에서 선교동원책임인 타운 코르타도는 22년간 군생활을 하고 Calvary Chapel Bible College에서 수학하고 현재 전 미주를 순회하며 선교동원에 헌신하고 있다. 인도와 멕시코에서 현지인들과 사역을 펼치기도 하였다.

1. The state of evangelism within the 10/40 window today
2. The answer to the need in the Indian subcontinent ? Native Missionaries
3. Training of the Native Missionaries 4. Commitment of Native Missionaries
5. What is the fruit? 6. Where does the western church fit in? 7. Action steps in response
8. One day we will stand before the throne...

**7-10 현지인 교회개척자들을 그들의 모국어로 훈련시키는 방안**

팀 테일러 / ISOM 사역자



Tim Taylor: 팀 테일러는 멕시코와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로 7년간 사역하면서 볼리비아 북서지방의 퀘추아인, 아이마라인 가운데 17개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Gulf State Bible College에서 선교학위 프로그램 디렉터로 봉사하였으며 현재는 ISOM(International School of Ministry)에서와 ISOM을 사용하는 이들을 향한 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의 비전은 한 명의 선교사를 통해 수천명의 현지인 일꾼들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다. 이 비전은 이미 다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The International School of Ministry(ISOM)는 60여개국어로 통역되어져 선교사들로 하여금 현지 개척교회자들을 그들의 모국어로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교과과정은 84개국 7,000개의 훈련기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각 학생그룹마다 평균 1명의 교회개척자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비디오로 제작된 교과과정은 복사되어 수백개의 지역에서, 그곳이 아무리 오지일지라도 질 높은 훈련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7-11 Got Bible? (성경번역)**

오정호 / 위클리프동남아시아성경번역 선교사



오정호 선교사는 UCLA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GIAL에서 응용언어학 석사를 받고 한미 선교센터에서 선교동원가로 7년 사역하다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사로 허입되어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성경번역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3000 Language groups do not have the Bible in their heart language, the mother tongue. That's 250 million people who are born, live and die without having the opportunity to hear and read the word of God in their own language.

Come discover the current status of Bible translation and needs around the world. Find out how computer technicians, school teachers, business management personnel, accountants, graphic artists and countless others are working together to bring the Scripture into the hands of 3000 language groups that need the Bible. The 250 million people. They're waiting for you.

## 7-12 다문화권 선교전략

강준원 / SC선교장로교회 담임



강준원 목사는 단국대 법대, 장로회 신학교, 총회신학대학원, 와싱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SC 선교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멕시코내륙선교회(MIM) 이사장,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부의장이며 본 선교대회의 공동준비위원장이다.

국제 혼인가정의 특수성은 선교전략상 특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선교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의 문제, 민족적 동질성의 문제, 문화적 동질성의 문제등에 있어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중문화, 즉 다문화권 가정의 특수성이라 생각되어진다. 전세계가 일일련에서 생활하는 오늘날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더욱더 다문화권 가정의 선교전략은 중요하다고 사료되어진다.

I. 다문화권 가정의 특수성 개발로 선교효과 증대 II. 국제적 평신도 선교사로 활용 III. 타국(타종교)권 선교전략.

## 7-13 선교단체가 교단선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

박광수 / 서울교회 협동목사



예수교대한성결회 선교국장인 박광수 목사는 성경대학교를 나와 영국의 WEC선교사훈련센터, 필리핀의 Asia Pacific Nazarene 신학교(M.Div.)를 졸업하고 필리핀에서 수년간 선교사로 사역하였다. 서울교회 협동목사 및 주일학교 교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많은 시간을 민족 복음화에 박차를 가해오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무엇보다도 선교의 중요성과 필연성을 인식하고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은 과히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별히 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선교 단체를 만들게 하였고 그런 단체들을 통해 그분의 선교 사역을 계속 진행시키고 계셨다. 선교 단체는 오직 선교를 잘 하기 위한 전문 기관으로서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 거듭 발전해 오면서 이제는 선교에 대한 노하우를 상당히 축적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선교 단체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제 교회는 선교에 한 발 앞선 선교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고 선교를 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미 많은 노하우를 축적한 선교 단체와 교회가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이 위대한 지상 명령을 수행해 간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선교단체가 어떻게 교회를 잘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 7-14 세계선교 중보기도전략

이숙자 / Grace Mission House 창설자



Grace Mission House 창설자인 이숙자 선교사는 Reformed Presbyterian Seminary(M.Div)를 나와 10/40창을 향한 기도사역을 12년째 해오고 있으며 원주민 사역자 전도훈련, 인도전도팀사역 및 10/40지역 선교사 파송사역 및 신학교 설립중이다.

1. 세계 16만 이상의 세계선교사 중보기도전략
2. 10/40창 중보기도전략
3. 이 세상을 위한 중보기도전략

## 7-15 인터넷선교의 비전과 의의

이재규 / 온누리교회 장로



세계인터넷선교학회(SWIM)의 회장인 이재규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로 국제전자상거래 연구센터 소장이며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이며 온누리교회 장로이다.

세계에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지역, 또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화와 지역종교들로 인한 문제들은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로막습니다. 이에 대하여 SWIM에서는 "30-100-300 인터넷선교교회설립"사역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전 세계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인터넷이 소개된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의 향기를 인터넷라인을 통하여 전하는 사역입니다. 인터넷선교교회는 말씀과 찬양 그리고 성도간의 교제가 각 지역 언어로 구성된 선교교회사이트를 통해 매일 또는 정기적인 기간을 통해 제공되며 온라인상의 사역이 오프라인 상으로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전천후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 선교교회개척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SWIM을 향해, 세상을 향해 외치시는 이 시대에 맞는 지상명령입니다. 감당하는 교회를 인터넷상에서 개척하고, 삶에 목마른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인터넷 선교 교회 개척 사역은 연령과 직업을 초월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세계 모든 민족이 주님을 알기 까지 SWIM의 사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땅 끝까지 세상 끝 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 7-16 방송선교를 통한 세계선교의 전략

최은중 / 미주기독교방송(NY) 사장



최은중 목사는 전 시카고기독교 방송국장으로 현재 미주기독교방송(NY) 사장이며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부의장, 방송선교운동본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본 선교대회의 공동총무단이다.

들어가는 말 - 한국 축구 세계 4강 신화의 뒷 이야기, 21C 성공자가 갖추어야 할 7가지 특질

1. 방송의 위력 -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 대통령 선거; 세계 7대 사건
2. 방송 환경의 변화 - 아날로그(Analog) 시대; 디지털(Digital) 시대;
3. 방송 선교의 어제와 오늘
4. 종말시대의 방송 선교의 역할

결론 - "세계는 우리의 방송 선교 교구이다."

## 7-17 복화술을 이용한 창의적 전도방법

버지니아 펠드먼 / SIM선교사



Virginia Feldmann: SIM선교사로 파키스탄에서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사역했던 버지니아 펠드먼 선교사는 소녀를 대상으로 한 성경교육과 집시전도를 하였다. 또한 신입 선교사 적응과 언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여러 행정사역을 담당하였었다. 현재 시카고 지역에서 대학과 신학교에 SIM을 소개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복화술을 이용한 전도는 새로이 파송받은 선교사나, 혹은 사역에 있어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창의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특별히 복화술은 문맹율이 높고 인형극등을 접해보지 못한 지역에서 특별히 효과적이다. 위협적이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은 이런 가벼운 오락은 그곳이 비록 오지의 미전도지역이라 할지라도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다.

## 7-18 의료선교를 위한 자원정보

장현식 /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장로



지구촌교회개척선교회와 코소보선교회를 설립하여 왕성한 평신도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상진 장로는 인도에 200여개의 원주민교회를 개척, 지원하고 있으며 코소보에 300개의 교회개척을 목표로 새 운동을 펼치고 있다.

북미주의 많은 교회나 개인들이 세계 여러 곳으로 단기의료선교를 나가고 있다. 그때마다 의료선교정보와 가져갈 의료품들을 구하느라 애를 쓰게 된다. 다행히 교회에 의사들이 있으면 그들을 통하여 제한된 약품과 의료품들을 부족하나마 얻어서 꾸려가느라 조마조마 하기도 하며, 마련한 의료기재들을 비싼 운송비를 들여서 보내면서도 쓸 수 있을지 걱정하기도 한다. 미주 한인들이 의료선교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아직 따로 제시된 것이 없는 형편 속에서 의료선교에 참여코자 하여도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에 북미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의료선교에 관계되는 다양한 자원(resource)들을 소개 하므로써 의료선교를 준비하는 교회나 개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바란다.

## 7-19 지역보건선교 - 선교의 새 패러다임

서원석 / 국제의료대사선교회(MAI)동아시아 필드디렉터



연세의대와 서울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해부학 강사로 있다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서원석 선교사는 몽골 울란바타르시 연세친선병원에 행정원장등으로 사역하였고 그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Food For the Hungry 등 여러 선교단체들과 협력하였다. 현재 국제의료대사선교회(MAI)에서 동아시아 필드디렉터로 현역에서 활발히 사역하고 있다.

국제 의료대사 선교회(Medical Ambassadors International)의 핵심전략인 지역사회 보건선교전략의 기본 원리인 영과 육의 통합,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현지인을 통한 재생산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전략이 어떻게 무슬림 지역 등 미전도 지역의 교회 확장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 7-20 몬트리얼 외향선원목회와 의료선교의 전략

김광오 / 몬트리얼외향선교센터 선원목회



강원대 축산과, 경희한의대 침구과, 사스카추안대, 재활의학인턴, 국제한의대, 한의학박사, 맥길대신학사, 장로신학대학 신학석사 과정을 마친 김광오목사는 미주한인회 캐나다노회의 선교사로 1997년부터 몬트리얼 외향선교센터에서 선원목회와 의료선교로 봉사하고 있다.

우리 탐사역자들은 두가지 방법으로 사역하고 있다. 첫째로 선박방문의 활성화적인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원목회상담과 의료선교의 주된 임무이다. 의료인이자 목사인 저는 아픈 사람을 선박 또는 진료소에서 치료해준다. 때로는 기도하고 예배도 인도한다. 우리는 선원들을 센터로 데려와 피로를 풀게 해준다. 선원센터는 선원들에게는 변화된 환경에서 몇시간만 이라도 즐길 수 있는 "자기집과 같은 안식처"가 된다. 우리는 그들이 본가에 전화하고 당구, 탁구, 카드 놀이하고 예배드리고 다과도 들고 또 문제점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매년 약 15,000명의 선원들이 본 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그들은 80여 다른 국가에서 오고 있으며 50여개의 언어로 말하며 종교의 배경도 다양하다. 요컨대 몬트리얼 외향선교는 "홈그라운드에서 세계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이다.

## 7-21 다양한 어린이 전도방법 (세계선교는 어린이부터!!!)

여병현 / 어린이 전문사역자



157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국제적 어린이선교단체인 어린이전도협회에서 24년째 사역하고 있는 여병현 목사는 1990년 한국 CEF에서 미국선교사로 파송되어 현재 미국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를 맡고있다. 해마다 미 전지역과 전세계를 순회하며 교사교육과 학부모세미나, 어린이 부흥회 및 캠프를 인도하고 있는 어린이 전문사역자다. 본대회의 어린이선교대회를 담당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어떤 종교가 어린이들을 많이 확보해 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만큼 어린이 선교현장은 뜨겁고 전쟁터와 같습니다. 선교의 최전선에서 뛰면서 어린이 전도는 쉽고 효과도 크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나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지 못해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어린이복음의 내용은 변할 수 없지만 지역과 상황에 따라 전도 방법은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까지 미국과 해외,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효과적이며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전도와 그룹전도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자료를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 요절 암송을 통해, 설교를 통해, 활동을 통해, 풍선을 통해 그리고 매직을 이용한 전도법등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워크샵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어린이 선교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7-22 주일학교를 통한 교회성장의 모델: 파라과이

양창근 / 파라과이 선교사



1991년 예정 합동 선교사로 파송되어 현지인 Centro de Vida 교회를 개척, 담임하고 있으며 San Pablo 유-초-중-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과 청소년 문화 선교사역 및 G-12 셀교회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디언 지도자 훈련 학교 (EDELIN)를 통하여 파라과이 인디언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 한국 교회의 경이적인 성장 중 하나는 바로 주일 학교 운동이다. "다음 세대를 돌보지 않으면 현재의 종교적 부흥은 당대로 끝날 것이다"라는 요한 웨슬레의 말처럼 오늘의 교회 부흥과 현재의 성장을 내일로 이어지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주일 학교 사역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I. 선교지 남미의 현황 II. 어린이 전도의 중요성 III. 파라과이의 Centro de Vida (생명의 샘터) 교회의 주일학교 성장사례  
IV. 결론

## 7-23 한인2세 교사선교사의 역할

박영은 / 교사 선교사



박영은 선교사는 미주 1.5세 출신으로 선교지에서 교사 선교사로서 선교사 자녀교육과 신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Smith College 를 나와 Princeton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MA 를 받았다. 그후 필리핀 미전도 종족인 와라이족을 위해 세운 학교의 교수사역과 마닐라의 한국아카데미에서 영어학과 책임을 맡아 선교사 자녀 교육에 헌신 하였다. 캘리포니아의 Azusa Pacific 에서 영어 교수학을 전공하고 이후에 인도네시아의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ESL 과 성경 과목을 맡아 세계 전역에서 온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고 인도네시아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 7-24 위성방송을 통한 세계선교와 네트워킹

감경철 / CTS 사장



기독교 TV 사장인 감경철 장로는 재단법인아가페 자문위원, 한국케이블TV협회 PP협회의 이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이다.

1. 21세기 멀티 미디어 시대와 방송: 영상 시대의 도래, 세계 위성방송 시스템 구축,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방송
2.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된 세계: 선교사 네트워크, 한인교회 네트워크,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3. CTS WORLD VISION: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지원,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동원, CTS WORLD를 통한 동역.

## 7-25 교사들이여! 세계로 나아가라!

유선희 / OC자녀학교 교사



OC 자녀학교 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유선희 선교사는 지역교회에서 13년간 사역하다 특별히 MK사역을 향한 선교동원의 사명을 받아 선교사 자녀학교 교사들을 전세계적으로 동원하는데 헌신하고 있다. Southwestern 침례신학대에서 MA.R.E./M.Div.를 받았다.

선교사들의 철수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선교지에서의 자녀교육의 문제이다. 선교를 큰 그림으로 볼 때 선교사 자녀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난 10-12년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북미주 차세대들을 교사로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 지금이 선교사 자녀교육을 위한 사역이 일어날 때이다! 하지만 선교사 자녀교육은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이들 선교사 자녀들과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내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다.

## 7-26 선교사 자녀학교 교사: 왜 미국에서 나가야 하나?

이근식 / 인도네시아 선교사



이근식 선교사는 나성영락교회에서 인도네시아 교육선교사(OCI 소속)로 파송되어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선교사 자녀학교(Central Java Inter-Mission School)에서 8년동안 선교사 자녀와 선교사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였고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현재 로스엔젤스에서 목회학을 공부하고 있다.

1988년 이후 한국은 세계 각국에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선교사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미국 선교부들이 만든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미국 선교사 자녀학교 안에 한인 선교사 자녀들의 숫자는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많은 자녀들은 영어권 국가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인 선교사의 수는 8,000 가정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는 다섯 손가락으로 세기에도 모자랍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국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들에 한인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을 이해하고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한국과 한글을 이해하는 교사들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위치한 많은 선교사 자녀학교에서는 선교에 헌신된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한인 교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한국의 문화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 영어권에서 공부한 이민 1.5세와 2세대입니다. 많은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한인 1.5세 2세 교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이 당신을 향한 부름은 아닌가요? 혹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부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 7-27 국제 MK학교에서의 한국프로그램

허지연 / 필리핀 선교사

허지연 선교사는 필리핀 MK학교인 Faith Academy에서 선교사 자녀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 7-28 장애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사역입니다

김홍덕 / 조이장애센터 대표



조이장애센터 대표인 김홍덕 목사는 충남대학교, Westminster 신학교를 졸업하고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교회는 늦게나마 장애사역에 대한 눈을 떠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사역은 하나님나라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 있지 않다. 동정적 차원에서의 구제사역의 일환으로, 또는 시혜적 차원에서의 복지정책적 사역의 일환으로 장애 사역이 이해되어져 왔다. 더 발전적으로는 장애인을 선교대상으로 보는 선교차원에서의 장애사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모델 역시 어디까지나 장애인은 선교의 객체로 존재할 뿐이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장애인 선교는 동정적 차원에서나 복지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또한 장애선교는 장애인을 선교의 객체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것 처럼 장애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침병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현대선교 역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장애선교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침병의 역할을 할 것이다.

## 7-29 한센국제선교회 소개

이명남 / 한센국제선교회 대표



12세대 한센병이 발병하여 소록도에서 치료중 하나님을 영접하고 20세대 한센병에서 완치된 이명남 선교사는 그 후 순복음 교단에서 전라지역에 파송받아 사역하고 있으며 현재 한센국제선교회의 대표이다.

한센 국제 선교회는 중국과 북한지역 한센병환자 선교를 위하여 발족한 선교회이며, 특히 중국 길림성 조선족 자치주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 한센병환자 가족선교를 목표로 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우선 의료자원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자활할 수 있는 한국형 정착촌을 만들어주어 생활을 자립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선교하는 곳이며 중국 전역 15만명과 길림성 조선족 한센 형제 428여명, 북한에 있는 70여명이 대상인 것이다. 본인은 한센 국제 선교회를 만든 사람으로 본인이 한센병에 걸려 수년동안 치료받아 하나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수기집 「절망을 이긴 세월」을 쓰게되었고, 2003년까지 수십 차례 중국에 다녀왔고 현재 사역중이며 선교 5개년계획을 세워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him.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센 국제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간증집회를 원하거나 후원하실 분은 한센국제 선교회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부산 051) 462-0068)

## 8. 단기/평신도/전문인선교

### ㉟-1 단기선교의 효율적 방안

강승삼 / KWMA 사무총장 • 백신종 / 캄보디아 선교사



**강승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인 강승삼 목사는 12년간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헌신하며 신학교를 설립, 선교신학 및 성경신학교수, 교회개혁과 현지지도장 양성 등의 사역을 했다. 총신대신대원, 컬럼비아국제대학을 나와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총신선교대학원장,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회장, 예장(합동)총회 선교국장, 선교훈련원 원장, 총신대 교수를 역임하였다.



**백신종** SEED International의 캄보디아 선교사인 백신종 목사는 중앙대학교, 총신대학교 신대원(M.Div), SIS, Fuller신학교(Th.M)를 나와 필리핀 단기선교사로, 예장합동 총회선교국 간사로 Institute for Asian Mission 총무로 사역하였다

1. 성경에는 단기선교의 정보가 많다.
2. 한인교회의 단기선교 어디까지 왔는가?
3. 한인교회의 단기선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4. 한인교회의 단기선교 팀의 장기선교사와 협력과 지역교회의 단기선교 6단계 제안  
- 단회적(비전트립, 아웃리치, 단기봉사), 반복적(단기사역, 전문사역, 비거주사역)
5. 한인교회의 단기선교에 대한 훈련과정과 미래전망은 어떠한가?

### ㉟-2 누구를 위한 단기선교인가?

전희근 /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장로



전희근 장로는 서울의대와 펜실베이니아대를 나와 1984년부터 세계 각지에서 단기선교사로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바이블 칼리지, 달라스신학교를 졸업하고 AIM 미주이사, 풀러신학교 의료선교학 객원교수 등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를 섬기고 있다. 본 선교대회의 공동준비위원이다.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이 단기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 생각한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꽤 많은 선교사들이 단기선교 팀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단기 선교 팀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선교사들도 있다. 육체적인 부담보다는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가? 왜 이런 부담을 주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가?

단기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기 위해 단기선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재 검토하고 새로운 방침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기선교를 왜 가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선교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원주민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개인의 변화들. 교회의 변화.

### ⑧-3 단기선교의 허와 실제적 패러다임

김정한 / SON Ministry



미주 1.5세와 2세를 위한 단기선교전문단체인 SON Ministry를 창설하고 현재 대표로 있는 김정한 선교사는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World Mission(M.A. Islamic Studies)를 나왔으며 미 남침례교 소속 목사로 케냐 마사이부족 선교를 하였고 현재 총 16개국에 미주지역 2세 단기선교팀을 훈련, 파송하고 있다.

단기선교의 건강한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이제는 단기선교를 잘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어떻게 하면 단기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것인가? 단기선교를 세계선교와 장기선교의 맥락에서 다시 보고 앞으로의 선교를 준비해야 한다. 단기선교는 21세기 선교에 있어서 거대한 물줄기와 같이 흐르기 시작하는 선교이다. 동시에 지역교회들 가운데 평신도 선교자원화를 이루며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선교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단기선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단기선교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철학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세계적인 선교적인 동향에 의해서 단기선교는 다시 평가되어야 하고 지역교회들이 선교에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보편화 작업과 동시에 전문화의 작업이 절실히 요청되어지고 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이민교회들안에 세계선교 사명의 완수와 잠재되어 있는 선교적인 가능성을 극대화 하며 선교의 헌신자들을 일으키는 단기선교를 준비해야 한다. 단기선교의 허와 실은 무엇인가? 단기선교가 가져야 하는 철학적 선교정신은 무엇인가? 본 강의는 단기선교를 깊이 있게 다루며 단기선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을 도와 줄것이다.

### ⑧-4 평신도 선교자원 개발전략

류효명 /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장로



류효명 장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신과 의사이며 현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고 있다.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평신도선교운동본부장으로 북미주 평신도 선교운동 동원에 활동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본대회 공동대회장이다.

기독교는 원칙적으로 평신도운동이다. "Laos"운동이다. 하나님의백성 운동이다. 모든성도 운동이다. 온교회 운동이다. 만인제사장직 회복운동이어야 한다. "크리스찬은 모두 사역자"운동이다. 평신도운동이 성서적인 바른 위치를 발견하여 만인제사장직 회복운동으로 바르게 전개될 때, 평신도 선교자원 개발은 확산되고 주님이 내리신 지상위임령의 과업완수가 앞당겨질 것으로 믿는다.

### ⑧-5 평신도들의 선교참여

안성원 / GP선교회 국제대표



안성원 선교사는 서울공대와 합동신학교를 나와 1984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받아 19년간 보르네오섬을 중심으로 교회개척, 기독교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 신학교 교수로 선교사역을 펼치다가 현재 GP선교회의 국제대표로 있다.

1. 평신도 선교 참여 -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실버 선교사, 비거주 선교사, 물질을 후원, 기도로 후원
2. 선교 사역의 종류 - 사도행전의 바울의 사역, 교회 개척 선교를 도움, 지도자 개발 사역, 교육 선교 사역, 어린이 선교, 성경 번역선교사로(컴퓨터나 언어의 은사를 가진 사람 유리),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선교(NGO 단체를 통해 나갈수 있다), 의료 선교, 전문인 선교, 자비량선교(Tentmaking),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 장애인 선교? 농아, 지체 장애인, 문서선교? 신앙서적 번역 및 출판, 성경보급, 방송선교- 극동방송

## ㉞-6 실버미션(Silver Mission) - 후회하지 않는 마지막 헌신 김정문 /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장로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김정문 장로는 30년간 IBM 엔지니어로 있다가 은퇴하였다. 위클리프성경번역 선교교회 선교사로 허입되었고 JAARS에서 성경번역에 필요한 컴퓨터교육을 수료하고 파푸아뉴기니에서 1996년부터 컴퓨터전문인선교사로 사역하다 현재 정년퇴직하여 위클리프 선교동원을 위한 자원봉사에 힘쓰고 있다.

선교에 관심을 갖게된 동기 및 하나님의 Calling에 순종하여 얻은 체험을 바탕으로 어려웠던 점들과 기뻐했던 일들을 소개함으로, 미주에 계신 한인들에게 2nd career로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평신도님들, 본인이 전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전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의 체험담을 통하여 선교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신실한 평신도 일꾼들이 필요한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선교현장에서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조기은퇴하고 58세에 파푸아뉴기니에 가서 컴퓨터 전문인으로 6년 반 동안 성경번역 선교에 필요한 약 700여대의 컴퓨터를 관리하며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인생 말년에 주님의 지상명령에 동참하여 바쁘게 쓰임받는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신한 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헌신하는데 8, 9년이 걸렸습니다. 실버가 되시기 10년 전부터 준비하셔도 빠르지 않습니다. 지금, 결코 후회하지 않을 마지막 헌신을 향하여 멋있는 발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 ㉞-7 선교지에 헬퍼를 보내드립니다

정운길 / 태국 선교사



남서울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다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정운길 선교사는 GP소속으로 태국에서 사역하였으며 선교마인드가 있는 평신도들이 은퇴 후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SMF 선교단체 설립에 초석이 되었다. 연세대학교, 오글라호마시티대학, 달라스신학교, 총신신대원등을 나와 Liberty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를 받았다.

Silver Missionary에게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어 이들을 활용하게 되면 현지 주민들에게 각종 전문적인 도움을 주게 되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현지 사역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해결됨으로 선교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임으로 복음 전파사역이 더욱 효과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선교적 측면과, 교회적 측면, 실버선교사 자신의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 ㉞-8 효과적인 선교후원의 길

최순자 / MOM(Messenger of Mercy)선교회



최순자박사는 이화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시카고에서 소아과전문의를 하면서 수많은 나라에 단기의료사역을 해오고 있으며 특별히 선교현지로 MOM(Messenger of Mercy)선교회를 통해 선교현지로 선교용품을 보내는 사랑의 창고사역을 벌여오고 있다.

지난 15년간 여러 곳의 선교지 방문으로 선교지 사정을 알게 되었고 한편 선교역사가 오래되고 자원이 풍부한 미국, 후방에서 현지 선교사역에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어서 필요와 공급이 멋진 조화를 이루며 선교현지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선교사역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를 염두에 두고 MOM에서 구상하여 개발하고 진행하는 36 종류의 선교지 후원사역을 소개하며 21세기 선교전략상의 vision을 제시한다.

## ⑧-9 정보화시대 전문인선교와 컴퓨터센터를 통한 교회개척모델

김기석 / FMnC 본부장



한동대학교 전산전자학부의 김기석 교수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초교파 IT전문인 선교단체인 FMnC(Frontier Mission and Computer)의 본부장으로 사역하면서 21세기 정보화시대가 요청하는 창의적인 IT 전문인 사역 모델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교단 및 타 선교단체와 활발히 협력하며 섬기고 있다.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의 물결은 남녀노소, 직업을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어느 곳에서든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정보화의 물결이 왜 그리고 어떻게 선교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지를 살펴본다. 그중에서도 특히 컴퓨터 교육센터가 어떻게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와 배경과 전략을 살펴본다.

I. 정보화시대에서의 세계선교전략

II. 컴퓨터센터를 통한 교회개척모델

III. 결론 -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물결을 전문인선교의 창의적인 기회로 적극 활용하자.

## ⑧-10 자비량선교 -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현정 / UBF선교담당 부대표



UBF 선교담당 부대표인 이현정 목사는 전북대 상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개혁신학교 신학대학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나와 대학시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1972년부터 현재까지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에서 전임 사역자(간사)로 32년째 대학생선교를 섬기고 있다. 저서로 성경의 선교론을 다룬 「땅 끝까지」와, 평신도 자비량 선교를 체계화한 「평신도를 부른다」 등이 있다.

21세기 해외선교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나옵니다. 첫째로, 인구성장과 다원화되는 사회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선교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둘째로, 목회자 선교사의 입국을 제한하는 폐쇄지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종족과 문화적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넷째로, 늘어나는 막대한 선교자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째, 신학교 졸업생들의 적체현상입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10/40 원도의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 무슬림 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데 이 모든 지역에서 목회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뚫고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해외선교를 섬기려면 선교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가 목회자 선교사 파송 중심에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동결된 자산'인 평신도들을 해외선교에 동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 선교사 파송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특히 교단선교부 및 지역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목회자 선교사 파송중심의 선교정책을 바꾸어 평신도 선교사양성 및 파송으로 그 중심축을 옮겨야 합니다.

자비량 선교사들의 주력 부대는 평신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이나 신학교를 졸업한 예비 목회자들까지도 자비량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자비량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방향으로 의식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선교대회이후 평신도 선교사에 대한 이해와 파송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교단선교부 및 지역교회의 선교정책에서는 선교사 파송 중심축을 목사 선교사 파송에서 평신도 선교사 파송으로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2000년도에 한국 교단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 중 평신도 비율이 5.7%였습니다. 2003년도 통계로는 교단선교부 파송 선교사 총 5,594명 중, 평신도 선교사는 402명으로 7.2%입니다. 1.5% 정도의 성장추세입니다. 2003년도 한국 86개 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총 5,231명 중 평신도 선교사는 3,506명으로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 전문인 선교를 아직은 초교파 선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자비량을 하고 있습니다. 혹 자비량을 할 수 없는 오지의 경우에 부득이 물질지원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목회자들의 입국이 거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신도를 보내야 할 것이며, 목회자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전문직을 가짐으로서 전문직 선교사로 입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신도들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 교인의 99.9%를 차지하는 평신도들이 동원되고 이들이 스스로 생활비를 벌며 자급하며 선교하는 평신도 자비량 선교가 활성화될 때, 이상의 문제들이 해결될 뿐 아니라 세계선교는 사도행전시대와 같은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 ㉓-11 가정교회를 통한 평신도선교 활성화

유재홍 / 휴스턴서울침례교회 선교담당



유재홍 집사는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에서 선교담당으로 섬기고 있다.

휴스턴 서울침례교회(담임목사:최영기)에서는 지난 10년간 가정교회(목장)사역을 통하여 평신도선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0년전 매우 소수의 단기선교 지원자만 참여하였으나 금년에는 100여명이 넘는 지원자가 4월서부터 8월 사이에 세계각지를 향하여 참가하고 있으며 수년전만 해도 기대할 수 없었던 장기선교사 지원자가 금년에는 여러명이 지원, 이미 떠났거나 훈련을 받고 있다. 즉 10인 이내로 구성된 목장에는 현지 원주민을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들 자신들이 지정하고 매주 기도, 물질(현금)로, 목원의 현지방문, 선교사 목장초청, 문서교환 등을 통하여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피부에 닿는 선교현장의 생동감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

125개 목장에서 후원하고 섬기는 세계전역에 흩어져 일하시는 선교사의 목장초청으로 본 교회 방문, 선교보고와 선교현장 체험보고 및 간증은 평신도에게는 '가깝게는 전도, 멀리는 선교'라는 사명감이 특수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소명감을 느끼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평신도선교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 ㉓-12 평신도/전문인 사역과 해외선교사역의 연결

김기모 / Alex Kim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평신도로 전문인 사역자로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고 있다.

## 9. 북한/중국선교

### ㉠-1 북한을 위한 성경적 기도

오대원/안디옥커넥션 사역



David Ross: 1961년 한국에 파송된 미국장로교 선교사로 초교파적으로 청년사역을 시작하여 그것이 오늘날 예수전도단이라 불리는 단체의 출발이 되었다. 예수전도단 그 사역이 커지면서 YWAM이라는 국제적 단체와 가까워졌고 1981년에 이 두 단체는 하나가 되었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 있는 한국 젊은이들을 세계선교를 위해 훈련시키는 일을 위해 안디옥커넥션(Antioch Connection)을 시작, 현재 미국 시애틀에 본부를 두고 미 전역에 센터를 통해 미주한인청년들을 향한 사역을 펼치고 있으며 근래에는 북한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념하고 있다. 아내와 세 자녀가 있으며 자녀들은 모두 한국인 아이들을 입양하여 양육하였다.

디트리히 본회퍼는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북한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무조건적이 사랑으로,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그리고 역사를 재창조하는 믿음으로 벅차 오를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중요성과 한국의 상황은 말씀을 통해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시편묵상은 북한을 향한 기도를 도우며 또한 우리의 매일 경건생활을 도울 것이다.

### ㉠-2 북한선교의 전망과 전략

김영철/가디나 한인교회 원로목사



26년간 일본 조총련 선교와 북한선교에 힘써온 김영철 목사는 해외한민족복음화대회 본부장으로, 통일기원 평화복음화대회 총 추진위원장, 21C 세계복음화대행진 진행본부장으로 사역하면서 가디나 한인교회 원로목사로 있다.

1. 북의 체제와 북한교회 현황 (종교를 없애버린 지구상 유일한 나라)
2. 북한선교를 위한 구체적 대안과 전략
3. 지구촌 마지막 추수작업에 돌진.

### ㉠-3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선교 정책과 전망

김진환/오하이오아가페침례교회 담임



김진환 목사는 전북대, 알라바마주립대, 남침례신학교(선교신학박사, 목회학 석사)를 수료하였고 현재 오하이오의 아가페침례교회를 담임하며 남침례신학교의 강사로 있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천하무적이 되버린 미국은 민심을 한데로 모을 공동의 적을 찾기에 급급해졌다. 클린턴 임기 때에도 경제의 호황은 누렸지만 자체내의 문제에 대한 불만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고 볼 수 있다. Alvin Totler의 주장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책으로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외교로 풀려는 유화정책을 유약한 자세로 비평하고 미국인의 긍지를 내세우며 대외강경책을 펴기 시작했다.

끝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선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사람이 그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열어붙은 북한땅을 하루속히 녹이시도록 북한의 위정자들과 동포들을 그리고 북한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 ㉠-4 북한의 세뇌교육

이순옥 / 북한탈북자 인원운동가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출생하여 청진경제전문대학, 함경북도 공산대학, 평양인민경제대를 나온 엘리트로 함경북도 중앙은행에서 근무하다 아직 젊은 나이에 몰자공급소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가 정치적 모함으로 숙청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았고 1986년부터 1992년까지 평안남도 개천정치범교화소에서 수용소생활을 했다. 1995년 아들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후 1997년 유엔국제앰네스티 총재 초청으로 증언하였고, 1997년부터 매년 미연방의회 상하원청문회에서 북한 정치범 감옥의 인권탄압 실상을 증언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일본, EU국회에서 증언해오고 있다. 사선을 넘은 체험수기 「증언 - 꼬리없는 짐승들의 눈빛」이 있다.

북한은 김일성 부자를 신격화, 신조화 하는 종교를 성공적으로 완성한 나라다. 북한은 어린애가 태어나 6-7개월 정도 되면 수령우상화교육을 시킨다. 제대로 머리를 들 수 없는 아기들에게 충효 충신이 되라는 뜻에서 아버지 수령님하는 말부터 배워준다. 부모에게 효도도 수령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수령님위해 한목숨 바치는 것이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사고현장에서 생명이 위험해도 수령님 초상화를 먼저 모셔내 오면 죽을지언정 충신으로 당에서 영웅칭호를 주고 가문을 빛내니 또한 효도하는 것이다. 탁아소 유치원 교사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수들은 출신성분이 좋아야만 된다. 계급 규정을 할 때 아무런 의심없는 자들만 교원대학 사범대학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김일성은 일찌기 교원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는 직업적인 혁명가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럴 정도로 세뇌교육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북한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 ㉠-5 북한의 종교탄압 현황에 대하여

이순옥 / 북한탈북자 인원운동가

예수쟁이는 3대의 씨를 말리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본인은 정치범 교화소(감옥), 가족은 수용소에 보내진다. 6.25 정전 후 1958년부터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 인간을 신으로 우상화 하려고 하니 하늘을 믿는 예수쟁이들의 사상을 바꾸어 놓아야 했다. 그러기에 3년간의 자수기간을 두고 숙청작업을 하였다. 자수한 사람들은 당에서 관대히 용서해 준다고 하였다. 성경을 땅에 묻고 성도들은 지하로 들어갔다. 성경을 바친 사람들도 나중에 수용소로 실려갔다. 그렇게 되어 검은책 사건으로 많은 예수쟁이들과 가족들이 감옥과 수용소로 잡혀갔다.

오늘날은 외화벌이 창구로 평양에 봉수교회, 카톨릭을 대상으로 하여 장충성당을 만들어 놓았다. 북한조선그리스도연맹 강영섭 위원장 목에 외화벌이 할당액이 제일 많이 걸려있다. 그러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전락과 전술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 ㉠-6 북한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당면과제

이순옥 / 북한탈북자 인원운동가

북한 김일성 정권이 기독교 탄압실상을 밝히고 감옥과 수용소에 갇힌 믿는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해방하도록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리는 것이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독재정권 연장을 돕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에 지원을 해도 그것이 실제로 받아야 되는 인민들한테는 가지 않는다. 중국과 3국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를 지원하고 교육하여 북한선교를 위한 훗날의 선교사로 양성한다. 북한을 냉정하게 보고 주님나라를 세우기 위해 신실한 기독교인들의 기도과 일군들이 필요하다.

## ㉠-7 북한식량위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지원방법

박준서 / 월드비전미국코리아데스크 본부장



월드비전 미국 코리아데스크의 박준서 본부장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나와 월드비전 한국 후원개발본부 본부장을 역임 하였고 르완다, 케냐, 우간다, 짐바브웨, 모잠비크, 남아공,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콜롬비아, 태국, 인도, 콩고공화국, 북한 등지의 월드비전 기아현장 사업장에서 사역하였다.

[월드비전의 대북지원 10년 사업 경험을 토대로]

북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후원자나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 간에도 많은 이견과 논쟁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논쟁의 핵심은 첫째, 핵 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을 과연 도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위정자들에 대한 불신감. 둘째,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에게 분배가 되겠느냐는 분배 불투명성. 셋째, 후원자가 북한 사업의 효과를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북한 지원.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북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또는 사람들에 대한 비 신뢰성 등을 들 수 있다.

본 월드비전의 세션에서는 근본적인 북한 식량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난 10년 간의 북한 지원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위의 3가지 논쟁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 ㉠-8 북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효율적인 식량공급과 의료선교

이학권/이영호



**이학권** 뉴욕 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학권 목사는 프린스턴신학교를 나와 북한선교단체인 만나선교회의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이영호** 만나미션의 Medical Division Director로 있는 이영호 의사는 내과, 응급의학과, 외래 의학과 전문의로 Tacoma Washington 기독교 의료원 원장이다. 응급실 의사로 일리노이와 워싱턴주에서 13년간 근무했으며 일리노이주립대학 MBA를 졸업하였다.

만나 선교회는 한쪽에서는 먹이고 한쪽에서는 치료한다(Feeding and Treating)는 것을 목표로 1999년 부터 북한 라진에서 빵공장을 운영하여 하루 12,000개까지의 빵을 생산하여 라진 선봉 지역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3년 10월 빵공장과 종합 진료소 건물을 완공 개원하여 북한의 현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직접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만나는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드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북한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도 먼 이웃, 북한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길도 알려드립니다.

## ㉠-9 미 NGO가 보는 북한선교전략

손영구 / 뉴욕산정현교회 담임



뉴욕산정현교회 담임인 손영구 목사는 육군보병학교를 나와 성결대, 로스앤젤레스신학교, 페이스신학교(목회학 박사), 트리니티신학교를 졸업하였고 기독교예비역장교회 창설 및 상임고문으로, 탈북난민보호 뉴욕협의회 회장으로 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눅 14:28, 31)

2000년 5월호에 남한 망명자 중에 최고위급 황장엽 선생과 김덕홍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3년전 남으로 넘어 올 때, 우리의 판단은 남한 형제들에게 북한의 참상을 그대로 알려 주어 힘을 모아 싸우면 5년 이내에 김정일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족통일의 문을 열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암흑의 땅에 가족들과 우리를 믿고 따르는 많은 동지들을 남겨놓고 올 때 그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부르짖은 것은 5년만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예측은 우리의 기대와 크게 빗나갔다. 우리 나름대로 세운 투쟁전략을 말해 보았으나 반응은 시원치 않았으며 때때로 우리는 배척하는 목소리까지 들려왔다고 절규하고 있다.

## ㉠-10 중국과 연변선교 - 왜 중요한가?

이예스더 / 선교사

이예스더 선교사는 한국신학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북조선문학 전공 박사연구생, 1990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기 전 중국, 연변 등지를 들어간 후 중국 선교의 뜨거운 소명에서 자비량 선교사로 시작, 후에 파송을 받아 오늘날 까지 14년간 공산사회주의 민족선교와 탈북자 선교 사역을 통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치유와 헌신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동반자적 관계로 지어주신 땅이다. 나라를 잃었을때도 민족의 수난과 슬픔과 고난이 있을때마다 눈물로 뱉으며 힘을 회복하고 새역사를 창조하는 힘을 얻었던 만주가 그곳에 있으며 지금도 세계에 없는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이루어 우리 중국동포들에게는 영원한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곳이다. 200만이라는 가장 큰 제외동포사회로, 당당한 소수민족으로, 그 사회에 충분히 기여하고 앞으로도 뿌리내려 살아가야 할 곳이다.

특히 유례를 볼 수 없는 민족분단과 갈등의 골이 파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대립되어 아직도 한반도의 허리가 잘려있는 이 현실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 지난날의 대립과 상처, 미움과 전쟁의 위협과 불신, 두려움으로 깊이 패여온 그 골과 이질문화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세지로 회복하고 치유할 것인가. 이는 한반도의 문제 뿐 아니라 아직도 세계에 팽배하고 있는 전쟁과 불신과 대립에, 변화되고 있는 공산주의 체제에 따는 사회문화적 고뇌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창조적 영성을 회복하게 돕느냐, 어떻게 나의 형제의 연약함을 던지않고 창조적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냐는 구체적인 평화선교과제가 제시되고 있는 곳이다. 이는 한반도 뿐 아니라 세계사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중국과 연변선교는 사회주의 문화권이면서 아직도 해결되지않은 민족의 평화통일의 과제가 있는 한, 또 한반도와 영원히 함께 살아갈 동반자인 한 이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선교과제일 것이다.

## ㉠-11 조선족의 위치와 선교적 역할

최민 / 중국동포동북아선교회 초대회장



중국 길림성도문시 출생의 최민 목사는 중국연변대학을 나와 연변방송국 기자, 중국흑룡강보 기자, 동북(만주)통신기자협회 부비서장등을 지내고 미국에서 LA World Mission University 석사학위, KPCA 장로교신학교에서 박사학위(D.Min)를 받았다. 중국과 북한선교사역에 적극 참여하여 북한에 13차례 선교구제사역으로 방문하기도 했으며 현재 중국동포동북아선교회 초대회장으로, 중국동포크리스티안연합회 회장으로, 미주크리스천뉴스워크 편집국장으로 있다. 저서로 「두만강 변의 십자가」와 「중국동포에게 비친 예수 믿는 한인들」이 있으며 "동북아징검다리"라는 정기선교간행물을 출간하고 있다.

중국은 서구교회의 확장, 발전에 따라 기독교가 선교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선교 대상국이 있으며 수많은 영적 전쟁의 반복 속에서 기독교는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땅에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중 가장 긴 150년의 한인 이민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조선족과 그 선교적 위치 및 북방 북음화에서의 역할은 어떠한가?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자못 중요한 문제이다. 현실적으로도 중국의 2백만 조선족은 북한의 현재와 특히 개방 후 북한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며, 나아가 13억 중국 인구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선교의 잠재 역군이다. 이런 점에서도 조선족 선교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종교정책이 외국인에 의한 선교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상대적으로 제약과 위협 적은 조선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것은 북방 북음화에서 하나의 출구이며 조선족 선교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역설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 ㉠-12 중국선교를 위한 국내사역

남재신 / 어부들의교회 담임



남재신 목사는 충화신학교, 필라델피아 성경대학을 나와 중국선교사로 사역하였으며 현재 중화민국복음선교회 사무총장이며 어부들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본 선교대회의 공동총무로 섬기고 있다.

1. 개인 (In Person)
2. 교회 (In Church)
3. 기업 (In Business)

## ㉠-13 중국에서의 전문인사역의 실재

안드레 / 선교사

HOPE소속 선교사로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안드레 선교사는 미국 Patten College,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신학교를 나왔다.

근래에 세계선교의 수 많은 선교지도자들의 공통적인 관심분야는 주님이 오시기전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있다. 마지막 선교의 핵심지역인 아시아의 미전도지역 곧 창의적 접근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거의 대부분 선교사 비자를 주지않고 있는데 그 추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선교학자들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80%이상의 국가가 선교사 입국을 거부할 것이며, 특히 모슬렘 국가에서의 선교사의 활동은 거의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구나 갈수록 서구선교사에 대한 민족적인 거부감으로 인하여 아시아의 창의적인 접근지역에서의 한국선교사의 역할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국제선교단체들이 선교의 많은 자원이 있는 한국에 새로운 선교단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의 건강한 선교단체

와 긴밀한 협력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본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까지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제선교단체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필자는 귀중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선교의 방법(주:장기체류또는 평생체류)을 떠나 어떠한 지역에서나 가장 효율적인 선교를 하기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선교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예를 들어 2-4년정도의 단기선교, 비거주선교, 전문인선교, NGO 사역등 다양한 사역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세계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아니 대단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복음에 대하여 특별하고 다른민족에 대한 관심 또한 대단하다. 그 어느 민족에 비하여 이렇듯 선교열정이 뜨거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고서는 계속하여 유지 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선교를 하는 모든 기본적인 모든 요건이 주어졌다면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할 시기이다. 선교지에 대하여 많은 단기선교팀이 다녀왔으며, 떠나면지역으로만 알았던 선교지의 소식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게 교회로 전달되고 있다. 선교사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여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선교사의 자신의 삶이 파송교회와 더불어 가까운 모교회의 동역자로 인식되어 있기도 하다. 일반 성도들에 이르도록 선교는 이제 가까운 이웃을 향한 복음전도 사역처럼 친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14 중국의 가정교회를 알아야 길이 보인다

오대선 / GP선교회소속 선교사

GP선교회 소속으로 12년간 중국에서 가정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중국 가정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개발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서울신대와 총신을 졸업하였다.

## ㉠-15 중국 정치경제와 교회의 현황과 전망

유신일 /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



유신일 교수는 1993년 이후 중국내에서 교수 사역자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 토론토대학 방문교수,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이다. 한국 이화여대 객원교수, 중국 사회과학원, 남경대학, 운남대학, 대련 동북 재경 대학 등에서 객원 교수로 시무했다. 臺灣臺北成功高等學校, 國立臺灣大學(臺灣臺北) 경영학 학사, 미국 Nebraska 주립대학 경제학 석사/박사,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 정치학 박사를 수여했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경제를 블랙홀이라고 부르며 우려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북핵과 관계된 6자 회담에서도 볼수 있듯이, 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국 정치의 발언권도 21세기 국제 세계에서 미국이 견제해야 할 유일한 국가로 등장하고 있다. 호금도를 중심으로 한 제 4세대 중국 정치 지도자들의 등장이후 최고 정치 지도자들이 민주화를 언급할 정도로 중국 국내적인 정치 발전도 기대와는 달리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올림픽을 개최하게될 2008년 전후 중국의 정치 경제는 한단계 더 높은 대약진을 성취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고 있다.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치 경제의 발전은 정치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중국내 각분야의 변화를 동반해 왔는데, 종교 정책의 변화도 필연적이다. 종교 정책의 개방화, 세계 교회와 중국교회와의 합법적인 상호 협력 등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동반해 왔으며, 동반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세계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중국 교회를 도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매 주일 중국 전역의 교회에는 새롭게 예수 믿는 신자들이 최소 몇명으로부터 많게는 몇십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자치, 자전, 자양)교회와 중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지하교회의 교인수를 모두 포함하는 중국 기독교인 수는 최소 7, 8천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 삼자 교회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목사, 전도사를 포함한 현재 중국 삼자 교회 지도자 1인이 돌봐야 하는 교회수는 10 여개이며, 교인수는 약 3천명이다. 중국 정부가 공인하고 있는 삼자 신학교 수는 18 개이며, 그나마 학사 학위와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교는 남경에 소재하고 있는 (2003년 초까지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가 전무한) 남경신학교가 유일한 신학 교육기관이다.

중국 교회의 지도자 부족이 심각하다는 말이다. 삼자 교회 뿐만 아니라, 지하교회의 지도자 부족은 훨씬 더 심각하다.

중국 교회의 지도자 부족이 심각한 반면에, 북경 대학, 남경대학 등과 같은 일반 대학이나 학술기관(예를 들면 중국 사회과학원) 내의 (기독교) 종교연구소에는 중국내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들이 "비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연구하고 있다.

중국 교회의 지도자 부족, 특히 우수한 지도자가 특없이 부족한 현황 외에 중국 교회의 또 다른 시급한 과제는 중국 삼자 교회의 자유화와 지하교회의 이단화이다. 세계 교회가 중국 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21세기 중국 삼자 교회와 지하 교회가 세계 교회로부터 시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한 것은 1) 우수한 지도자 배출과 2)복음주의 신앙과 신학의 회복일 것이다

## ㉠-16 중국선교개관

유진광 / 선교사

국민대 기계설계학과와 동대학원 기계공학과를 나와 독일 베를린대 공대 항공공학과박사 및 자동차공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유진광 선교사는 GPTI(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과 GMTC(한국선교훈련원)를 수료하고 중국 상해에서 사역하고 있다.

선교적 위치 - 인구 : 13억, 56개 민족, 국토 : 960만Km, 접경 국가(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종교정책 - 삼자교회, 가정교회, 등록교회

한국 선교 전환점

\*1993년 - 선교사 입국 시작, 동북지역 조선족 대상 사역 시작, 북경, 천진지역 - 언어습득

\*1995년 - 서부개발을 위해 내륙에 외국인체류를 허가함, 북경지역 내륙으로 이동(언어), 한족 사역 시작, 동북지역 탈북자 사역, 조선족 사역에 문제점 발생, 중국교회의 폭발적 부흥(1억)

\*2000년 - 서부개발 본격화, 소수민족의 반발(소수민족 상권의 몰락을 이유로), 한족교회 정체, 이단의 진입, 교회의 도시 이동

현재 중국 교회의 필요 찬양사역자, 지도자 교육, 주일학교 교사

# 10. 선교과장포럼

## 10-1 여성선교광장



**김봉희**  
KWMC  
여성세계선교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이익화**  
KWMC  
여성세계선교운동본부  
공동본부장



**류효명**  
KWMC 공동의장  
평신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이상진**  
KWMC 공동의장

## 10-3 차세대선교포럼



**박짐밥**  
KWMC  
영아권세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이승종**  
KWMC  
차세대세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 10-4 의료선교포럼



**장현식**  
KWMC  
의료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전희근**  
KWMC  
선교사치유선교협력기구  
기구장



**조동진**  
통일환경연구원장



**이순옥**  
미연방의회  
북한인권청문회  
증언자

## 10-6 중국선교포럼



**황의춘**  
KWMC 부의장  
트랜톤한인장로교회



**토마스 왕**  
백투예루살렘운동  
대표

## 10-7 단기선교포럼



**강승삼**  
KWMA 사무총장



**조용중**  
WKMF 사무총장

## 11. 아시아선교

### 11-1 일본 선교

김성수/장경태/장신덕



**김성수** 1992년 미국 C&MA교단을 통해 일본에 파송된 김성수 선교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풀러신학교를 나왔다. 동경 시부야에서 일본인, 한국인, 다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장경태** 1993년 개혁총회 파송으로 일본동맹기독교단 시보구찌기독교회 선교사인 장경태 선교사는 그리스도신학대학, 총회신학원, 아세아연합신학원을 나왔다.

**장신덕** 기감에서 1992년 일본으로 파송되었다.

### 11-2 네팔 선교

허인석/김연정/이해덕/박웅현



**허인석** 1989년 CCC 협력선교사로 필리핀에 파송되었고 후에 1994년 예장개혁 소속 선교사로 네팔에 파송된 허인석 선교사는 목회자 연수원을 운영하며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다.



**김연정** 1999년부터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연정 선교사는 네팔 복음주의 신학교 (Evangelical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설립 이사이자 교수이며 네팔 리빙스톤 기독교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이사이자 교목으로 시무하고 있다. 현재 안식년 중으로 캘빈신학교에서 선교학 석사 과정 중이다.

**이해덕** 1994년 6월 30일 네팔선교회에서 파송받았다.

**박웅현** 2004년 네팔에 파송되었다.

### 11-3 라오스/캄보디아 선교

최종운/송진섭/서병도



**최종운** 1995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개혁)에서 파송받아 태국 메홍선 산지족선교 사역을 하던 중 1997년에 라오스에 입국하게 되어 그곳에서 L.M.C. 대표로, 한인교회 담임으로, 라오스 선교사협의회 회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송진섭** 1993년 기감에서 캄보디아로 파송되었다.

**서병도** 캄보디아선교사

11-4 말레이시아/싱가폴 선교

이순희/김정배

**이순희** 말레이시아선교사

**김정배** 싱가포르선교사, 1990년 GMS에서 싱가포르로 파송되었다. 아세아선교훈련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11-5 몽골 선교

최순기/임준호/천강민



**최순기** 경희대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도미하여 나성영락교회에 출석하다 미주한인장로회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몇차례의 소련과 몽골 단기선교 끝에 목사안수를 받고 현재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임준호** C&MA. 한인총회 파송 몽골 선교사이다.



**천강민** 1991년 GMS 선교사로 파송받은 천강민 선교사는 Food for the Hungry 몽골 지부장을 역임하였고, 샬롬(NGO)국제대표 안디옥교회 담임목사(현재 8개의 교회 개척)로 몽골 현지인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몽골 선교훈련원 원장 MTS학교 학장 몽골 선교사 자녀학교 이사장 몽골연합신학교 이사이며 몽골 YMCA이사이다. 충신대학 신학대학원과 풀러 D.Min과정을 수학하였다.

11-6 미얀마/베트남 선교

인관일/김영관/오덕

**인관일** 미얀마선교사 미주통합한인 장로회에서 파송되었다.



**김영관** 1990년에 파송된 김영관 선교사는 성균관대 법대, 서울신대, 감신대학원을 나온 김영관 선교사는 베트남에 파송받아 한인2세 교육기관인 휴먼직업기술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10년째 사역해 오고 있다. Union Theological Seminary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오덕** 1995년8월8일 베트남에 파송된 오덕 선교사는 고신대 신학대학원(40)졸업하였고 베트남한인선교사협의회 회장, 고신총회선교부(KPM) 베트남 지부장, VCM(베트남컴퓨터선교회) 대표이며 INT VISION Co.(재베트남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이사, 베트남농촌발전후원연구원(베트남 자국 NGO) 국제대표이다. 컴퓨터 선교 및 NGO사역을 주사역으로하고있다.

## 11-7 방글라데시 선교

류수혜/이석로

**류수혜** 류수혜 선교사는 디트로이트 UMC교회 파송으로 2000년부터 방글라데시 KDAB에서 나환자 재활사역과 제자양육 사역을 하고 있다  
**이석로** 이석로 선교사는 1990년부터 의료선교사(가정의 전문의)로 방글라데시 꼴람플라 병원에서 사역하고 있다.

## 11-8 스리랑카/인도 선교

최재영/김경희/최철만/김세진

**최재영** 스리랑카선교사  
**김경희** 스리랑카 선교사



**최철만** 인도선교사, 최철만 선교사는 1989년 복인도로 파송되어 도시와 미전도 종중족 안의 교회개척사역과 교회사역을 해오고 있다.



**김세진** 인도선교사, 오엠 단기선교사로 1989년부터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지에서 사역해 온 김세진 선교사는 2000년 장기선교사로 파송받아 인도 푸네에서 활동중이다. 동아대 전자공학과, 고려신학대학원(신학석사)을 나와 US Center for World Mission에서 Mission Perspective과정 및 GMTC 19기 훈련을 수료하였다.

## 11-9 인도네시아 선교

안성원/강신오/김충환



**안성원** 안성원 선교사는 서울공대와 합동 신학교를 나와 1984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받아 19년간 보르네오섬을 중심으로 교회 개척, 기독교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 신학교 교수로 선교사역을 펼치다가 현재 GP선교회의 국제대표로 있다.



**강신오** 1991년 한국어린이전도협회와 합동 정통에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와 동말레이시아에 파송된 강신오 선교사는 어린이사역과 교사훈련사역, 차세대 지도자훈련, 자국민 선교사 훈련원, 교회건축, 신학교 사역등을 하고 있다.

**김충환** 예장통합 선교사로 1992년 인도네시아에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다.

## 11-10 태국 선교

한준수/조준형/오세관/이미숙



**한준수** 1982년 태국선교사로 파송 되었고 그 후 미주한인교회사역, 합동신학대학원대학에서 선교학 강의를 하였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 GP소속 태국선교사로 사역중이며 GP 국제 부대표이다. 총신대 및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Yale University Divinity School, STM, Boston School of Theology 박사과정 중이다.

**조준형** 예장통합에서 1986년 태국에 파송되었으며 치앙마이 파압 신학교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오세관** 1990년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태국선교사로 파송받아 2004년 현재까지 태국에서 교회개척사역을 하고 있는 오세관 선교사는 50개의 교회를 섬기로 있으며 태국감리교회(TMC)의 대표이다. 청주사범대학, 협성대학교, 협성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ACTS선교대학원을 나왔다.



**이미숙** 간호선교사로 1990년 사랑의병원선교회에서 파송받아 태국 북부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의료사역 및 공동체사역을 하고 있다.

## 11-11 필리핀 선교

김유식/김선숙



**김유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총신 신학연구원(M.Div),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Th. M)을 수료한 김유식 선교사는 1979년 필리핀으로 파송받아 사역해 오고 있다.

**김선숙** 김선숙 선교사는 미연합감리교회(UMC)에서 1986년에 파송되어 15여년간 교회개척과 도시빈민 사역을 해오고 있다.

## 12. 구소련/중앙아시아선교

## 12-1 러시아(서부) 선교

김재광/황상호/이상길



**김재광** 1992년 미국 C&MA교단을 통해 일본에 파송된 김성수 선교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풀러신학교를 나왔다. 동경 시부야에서 일본인, 한국인, 다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상길** 이상길 선교사는 단국대 사학과를 거쳐 총회신학교를 졸업했으며, 총신대 대학원(Th.M.)을 수료하고 호주 주빌 신학교를 졸업하였다(D. Miss.). 국제선교협력기구(KIM)에서 본부사역을 담당하였다. 1992년 총신대학교 채플 파송으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사역을 시작 현재 모스크바 개혁신학교설립자 및 교장, 국립모스크바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에 재직하면서 러시아 기독교 지도력 개발 사역에 주력하고 있다.

황상호 러시아선교사

## 12-2 러시아(동부) 선교

송상천/남일우/권영세

**송상천** 1991년 예정개혁 파송선교사로 부임 1994년 부산영락교회 파송선교사로 부임한 송상천 선교사는 C.I.S(구소련) 한인선교사협의회 회장, 연해주선교사협의회회장을 역임하였고 현 연해주 신학교 부학장, 북방교육선교문화원 원장이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영락교회 담임하고 있다. 고려대, 총회신학교, 총신대 목회대학원, Florida Beacon Bible college 선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남일우**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남일우 선교사는 총신신대원을 80회 졸업하였다

**권영세** 권영세 선교사는 1992년 예정합정에서 러시아로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다.

## 12-3 몰도바/아제르바이잔 선교

한호진/송기드온



**한호진** 몰도바선교사, 1992년 예성 / A.F.C.K.에서 몰도바에 파송을 받아 사역해오고 있는 한호진 선교사는 현 부경대학교(기계공학), 성결대학교(신학과)를 졸업하였다.

**송기드온** 아제르바이잔선교사, GMS에서 파송되었다.

## 12-4 우즈베키스탄 선교

김경일/정정옥/박창국



**김경일** 1992년 우즈베키스탄 주재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병이어교회를 개척 담임하고 있는 김경일 선교사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캘리포니아 유니온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선교사협의회 회장, 우즈베키스탄 GMS 지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 한민족복지재단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 세계한인선교사회(WKMF) 중앙아시아 회장이다.

**정정옥** 우즈베키스탄선교사  
**박창국** 우즈베키스탄선교사

⑫-5 우크라이나 선교

장종일/김병모/강승빈

**장종일** 기감에서 1990년 우크라이나에 파송되었다.  
**김병모** 안디옥교회에서 파송되었다.



**강승빈** 현대크리스찬모임 회장(현대그룹), 중동선교회 부회장 및 이사, 흥해선교회 한국 지부장, 합동신학대학원(목회학) 졸업 및 목사 안수, 서울 사랑의교회 부목사,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소장 겸임, 현 주 우크라이나 선교사, 중동선교회 파송

⑫-6 카작스탄 선교

박현선/김동권

**박현선** 오렌지카운티교회에서 1990년에 카작스탄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김동권** 미국장로교단에서 1998년 파송되었다.

⑫-7 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 선교

이기종/박성용



**이기종** 키르기즈스탄선교사, 성균관대학교, 합동신학교 졸업. 2000년 4월 키르기즈스탄(위구르족) 선교사 파송



**박성용** 타지키스탄선교사, 1996년 오엠선교회 소속으로 사랑의 교회에서 파송받아 타지키스탄에서 사역중인 박성용 선교사는 희년선교회, 오엠선교회 간사사역, 인도, 파키스탄에서 난민사역등을 하였다.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였다.

## 13. 유럽선교

## 13-1 그리스/스페인 선교

손영삼/차인수/최원규



**손영삼** 그리스선교사, 1987년 그리스에 파송되어 짐시들 사이에서 사역해 오고 있다.

**차인수** 그리스선교사, 예장개혁에서 1997년 파송되었다.

**최원규** 스페인선교사, 기하성에서 1998년 스페인에 파송되었다.

## 13-2 독일 선교

김승연/나승필/최용준



**김승연** 1983년 예장합동 독일주재 선교사로 파송받아 동구라파 1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교, 불가리아 소피아에 한인교회를 설립하고 불가리아 개혁장로회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KOSTE를 설립, 대표로 있으며 KOSTE 장학재단 이사장, EMI(유럽목회선교연구원)를 설립, 초대원장 및 현 명예의장이다. 또한 의식개혁시 민운동인 '올바살' 운동을 제창하여 대표다.



**나승필** 쾰른공대와 기쁜신학교(M.Div, Th.M), 기쁜대학교(철학)를 졸업하고 윗필드신학교에서 박사과정중에 있는 나승필 선교사는 독일의 모슬렘 망명자와 난민선교에 주력하고 있다.



**최용준** 독일 쾰른한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용준 선교사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M.Div.), 암스텔담 자유대학교, 남아공 Potchefstroom 대학을 나와 멕시코, 아프리카, 세에라레온, 모잠비크, 스와질랜드, 남아공, 불가리아, 러시아 등에서 기독교 세계관 강의 및 단기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 13-3 루마니아/알바니아 선교

박창수/이향모

**박창수** 루마니아선교사, 예장합신에서 1990년 파송되었다.



**이향모** 알바니아선교사, 1985년 독일로 파송되었다가 현재 알바니아로 옮겨 사역하고 있는 이향모 선교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라퀴시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1994년 교육부장관 인준하에 라퀴시 고등학교에 컴퓨터 교육을 공교육으로 실시하며 영어교육을 통한 선교사역도 펼치고 있다.

13-4 프랑스/영국 선교

이극범/이용국/피기영



**이극범** 프랑스선교사, 1989년 프랑스로 파송받은 이극범 선교사는 파리장로교회를 담임하며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활동과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들을 향한 유학생 단기선교활동 등 불어권 지역 사역을 하고 있다.



**이용국** 영국선교사, 성결교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나와 1997년 성동성결교회 파송 선교사로 체코에서 선교활동을 하였고 국제 와렘영국 산하 ECO 수료, CDTS 과정을 이수하고 국제 YWAM 본부 소속 선교사로 영국 다비에서 모슬렘과 아시안 담당 선교사로 영국 중부지역의 모슬렘을 위해 선교하고 있다.



**피기영** 영국선교사, 기감에서 2004년 파송되었다.

13-5 체코공화국/폴란드 선교

유정남/김헌중



**유정남** 체코공화국선교사, 순천 간호학교 졸업, Continental Bible College/ Th. Seminary 졸업, Grace Theological Seminary 졸업(석사), Trinity Th. Seminary (수학중), 간호사 및 독일 한인교회 전도사, 1991년 9월 30일부터 현 체코선교사 (체코 개혁교회)



**김헌중** 폴란드선교사, 부산대, 칼빈신학교, 대한신학대학, 캘리포니아 유니온신학대학원 (Th.M)을 졸업한 김헌중 선교사는 1983년 나이지리아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였고 1987년 스웨덴 스톡홀름 한인교회 협동목사로 시무하였고 1991년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개척하였다. 유군대령 예편 후 다시 1995년 폴란드로 재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다.

13-6 오스트리아/헝가리 선교

장황영/신성학



**장황영** 오스트리아선교사, 서울 시립대학교, 서독 문헌대학교, 장로회 신학 대학 신대원 (M.Div), 장로회 신학 대학 대학원 (Th.M), 군포교회 선교 동역자, 비엔나 한인교회 담임목사(1995년-2004년 현재, 예장 통합 총회 파송 오스트리아 선교사)



**신성학** 헝가리선교사, 강원도고성초중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성악과 졸업, 빈 국립음대성악과 수료 및 오페라과 수학, 총회신학교 (합동 보수) 종교음악과 교수, 독창회 및 다수 음악회 출연, 찬송가 독창회, 감리교협성신학대학원 졸업, 감리교선교국파송 헝가리선교사, 거리에서 노래하는 목사/감자깍는 목사, 부다페스트 게젤렘교회 및 한인 은혜교회 담임

## 14. 중남아메리카선교

## 14-1 멕시코/과테말라 선교

이성균/변흥근

**이성균** 멕시코선교사, 예장통합 멕시코 선교사로 1984년 파송되었다.



**변흥근** 과테말라선교사, 대한신학교 졸업, 대한 신학 연구원 졸업, 과테말라에 파송 선교사로 도착, 에벤에셀 신학교 설립 교장역임(1998-2002년), 에스토르 지방방송국 설립(현지인에 인계), 라 까르차 지방 방송국 설립, 라틴 아메리카 연합신학교 교수, 과테말라 국립대학교 한 국어 학과장

## 14-2 도미니카/수리남 선교

김종성/김성자/권순성

**김종성** 도미니카선교사, 예장통합에서 도미니카로 1995년 파송되었다.

**권순성** 수리남선교사, 예장통합에서 도미니카로 2003년 파송되었다.



**김성자** 도미니카선교사, 기독교 대한 감리회 경기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기감파송 선교사로 도미니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자 선교사는 협성신학대학과 협성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 14-3 온두라스/코스타리카 선교

박명하/임낙길



**박명하** 온두라스선교사, 통합측 선교사로 1991년 파송받아 온두라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명하 선교사는 한양대 법대, 장신대 신대원, 장신대 대학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수료하고 육군 군목 대위로 예편하였다.



**임낙길** 코스타리카선교사,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 M.div., 한국기독교장로회 대전노회 소속 목사로서 고국에서 18년간 목회. 바울선교회(회장: 이동휘목사) 소속으로 코스타리카 주재 선교사로 9년째 사역.

14-4 에콰도르/페루 선교

김경택/황윤일



**김경택** 에콰도르선교사, 한국성서대학교, 개혁신학교, 에스라성경연구원, 예장개혁 강남노회 목사, 한국선교훈련원(GMTC), 한국 해외선교회 개척선교부(GMF-GMP) 에콰아 돌 선교사

**황윤일** 페루선교사, 예장통합에서 1985년 페루로 파송되었다.

14-5 브라질 선교

안승열/이원길/유정은



**안승열** 안승열 선교사는 쌍빠울로 주립대 의과대학을 나온 내과전문의로 충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ACTS에서 선교학 석사를 받고 1999년 총회세계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아마존 마나우스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원길** 이원길 선교사는 전 총현교회 부목으로 1994년 GMS(총회 세계 선교회)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역해 오고 있다.

**유정은** 기성 출신으로 2003년 파송되었다.

14-6 아르헨티나/볼리비아 선교

정현식/이건화



**정현식** 아르헨티나선교사, 충신 신대원 졸(한국), 충신 선교대학원 DGM 수료. 미드웨스트 선교학 박사과정 중

**이건화** 볼리비아선교사, 2000년 볼리비아에 파송되었다.

## 15. 오세아니아선교

## ⑮-1 뉴질랜드/호주 선교

조삼은/고명근/하태식

**조삼은** 뉴질랜드선교사, 1987년 예장통합세계선교부에서 파송되어 남편 신종혁 선교사와 함께 남태평양원주민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고명근** 뉴질랜드선교사



**하태식** 호주선교사, 하태식 선교사는 예수전도단 파송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동원과 훈련, 도시선교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다

## ⑮-2 사이판/피지 선교

김정남/고명근

**김정남** 사이판선교사, 김정남 선교사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나와GMS 에서 사이판 선교사로 파송받아 교회를 개척하여 작은목자 훈련과 내지선교훈련(I.M.I) 중심의 16년동안 제3국을 통한 북방선교에 주력하고 있다

**고명근** 뉴질랜드선교사, 기감파송으로 피지에서 2000년부터 사역해 오고 있다.

## 16. 아프리카선교

## 16-1 가봉/카메룬 선교

최수영/윤원로

**최수영** 가봉선교사, 1998년 가봉에 예정통합에서 파송되었다.



**윤원로** 카메룬선교사, 윤원로 선교사는 1987년 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에 파송되어 교회 개척 및 지도자양성 사역을 해오고 있다. 서울신학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하였고 OM선교회 둘로스선교선 승선사역을 하기도 했다. 1993년 제4회 한국기독교 선교대상을 수상하였다.

## 16-2 감비아/세네갈 선교

홍종란/젠세잔/유춘안

**홍종란** 감비아선교사, 예정합동 선교사로 1992년 파송되었다.

**젠세잔** 세네갈선교사



**유춘안** 세네갈선교사, 프랑스 아비뇽국립대학, 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한-불어)을 졸업한 유춘안 선교사는 1990년 자비량 선교사로 세네갈에 입국, 사마리아 기술원운영, 방송선교 등으로 사역해 오고 있다.

## 16-3 남아공 선교

전준수/이은원/김종석

**전준수** 남아공선교사, 1991년에 예정통합에서 파송되어 현재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은원** 동양선교교회에서, 1995년 파송되었다.

**김종석** 한국외향선교회에서, 1995년 파송되었다.

## 16-4 모로코/모리타니아 선교

허영희/권경숙



**허영희** 모로코선교사, 허영희 선교사는 기감선교국에서 1991년 모로코로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다.



**권경숙** 모리타니아선교사, 예정통합 선교사로 모리타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다.

## 16-5 보츠와나/짐바브웨 선교

김해영/김종균/박란순



**김해영** 보츠와나선교사 1990년 그루터기 선교부 소속 자비량 선교사로 보츠와나에 파송된 김해영 선교사는 1980년 중반 각종 국내, 국제 기능대회 기계편물부문에서 수차례 1위 입상경력이 있으며 철탐산업훈장도 수여하였다. 일본에서 편물사범과정을 이수하였다. 현재 보츠와나의 Stump V.T.I.의 교장으로 있다.

**김종균** 보츠와나선교사, 그루터기선교부에서 보츠와나에 2000년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다.

**박란순** 보츠와나선교사

## 16-6 수단/차드 선교

김미경/김영섭

**김미경** 수단선교사, 한국외향선교회에서 파송되어 1991년부터 수단에서 사역하고 있다.



**김영섭** 차드선교사, 1999년 신도교회에서 아프리카 차드로 파송받은 김영섭 선교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차드에서 AIM(Africa Inland Mission)과 함께 사역하다 올해 안식년 중이다.

## 16-7 시에라레온/에티오피아 선교

윤장욱/박차순



**윤장욱** 시에라레온선교사, 예장교신 선교사로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레온으로 1997년 파송되어 현재 2기 사역중인 윤장욱 선교사는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OM 단기선교사로 영국에서 힌두/모슬렘권 사역을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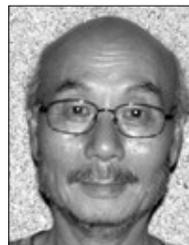
**박차순** 에티오피아선교사, 에티오피아에서 9년 사역하고 현재 안식년 겸 한동대학교 선린병원에서 2기 에티오피아 사역을 준비중인 박차순 선교사는 아디스 아바바 의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현 기독교 대한감리회 에티오피아 지역대표로, 갈릴리 세계선교회 에티오피아 대표로 있다.

## 16-8 우간다 선교

이명시/김순옥/ 박일규/고병덕

**이명시** 우간다선교사**김순옥** 우간다선교사, GMS 우간다 선교사로 1994년 파송되었다.

**박일규** 1995년 GMS(총회세계선교회) 파송으로 우간다 선교사 시작 우간다 Reformed Theological College 교장으로 1995년-2003까지 사역. 2004년 현재 안식년 중



**고병덕** 미시간주 안아버 연합감리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다가 2000년 12월 평신도선교사로 헌신하여 M.E.N. (Mission to Every Nation)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부족교회사역, 고아사역, 치료사역을 하고 있다.

## 16-9 케냐 선교

김옥실/김찬경/이상석

**김옥실** 예장통합에서 1989년 선교사로 파송되어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다.**김찬경** 기성 파송으로 1993년부터 사역하고 있다.**이상석** 1995년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역해 오고 있다.

## 16-10 탄자니아 선교

방경순/송명천/정병애



**방경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총회파송 제자선교회 파송 파송일: 1994년 5월 6일 주 사역: 교회개척사역, 신학교사역, 유치원사역, 초등학교사역, 제자훈련사역 홈페이지: www.kanisa.org E-Mail : upendo@lycos.co.kr

**송명천** 예장과 대안교회에서 1996년 파송받아 사역하고 있다.**정병애** 탄자니아선교사

## 17. 중동선교

## 17-1 중동 A국 선교

솔레만/임방통/이교수

**솔레만** 대한예수교장로교회 총회 세계선교부 소속으로 1992년 걸프지역에 파송되어 현 걸프선교회 대표이며 WKMF(세계한국선교대회) 임원이며 중동 총무이다.

**임방통** 숭실대학교 법대 법학과 졸업, 1978-1986 (주)삼영-(주)두봉 무역수출부, 1986-1995 그린물산, 고려신학교 신학원 졸업, 고신개혁 1995년 1월에 사우디 현지인 선교사 파송, 소속단체 조이선교회 1974년부터 현재까지, 사역종류: 전문인선교 (사업을 통한 선교)

**이교수** 인하공대, 연세대학원졸업, 국민대학원졸업(공학박사), 동서울대학, 건국대학, 국민대학등 교수역임, ACTS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졸업(Th.M), 총신대 선교대학원졸업(Th.M), 유인대학원졸업(목회학 박사), 서울 큰빛교회 담임목사, 2002년 현재까지 중동 선교사

## 17-2 중동 B국 선교

이만석/김영섭/이병구



**이만석** 통합총회 국제선교부에서 1986년 이란 선교사로 파송된 이만석 선교사는 중동선교사 협의회장을 역임 하였고 현재 통합중동 선교사 회장, 중동선교사협의회 교회부장의 사역을 하며 테레란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김영섭** 예장대신 중동선교사로 1991년 파송되어 바울선교회 소속으로 교회사역 중이다.

**이병구** 1999년 중동선교회 파송으로 중동지역에서 사역해 오고 있다.

## 17-3 중동 C국 선교

이미숙/조창현/곽동신

**이미숙** 예수전도단에서 1993년 파송되어 부랑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조창현** 예장통합선교사로 중동의 모슬렘권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다.

**곽동신** 예장고신에서 1998년 중동 전략지역에 파송되었다.

## 17-4 이스라엘 선교

정연호/양병문/서병길



**정연호** 장로교(통합)총회 선교부 및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파송을 받아 1991년 이스라엘에서 사역해 온 정연호 선교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M.Div, Th.M)와 Hebrew대학(Ph.D)를 나왔으며 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에 루살렘 성지연구소의 현지실무책임자로 섬기며 베들레헴 소재 바라카장로교회의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양병문** 1997년 바울선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1998년 총회(통합)파송을 받아 이스라엘에 입국하여 현재는 현지인 교회개척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목회자 후보생 발굴과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서병길** 전주대학교 법학과 . 전주대학교 대학원행정학석사.총신대학 신학대학원 81회 졸업,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고고학과 연구, 플러선교대학원 목회선교학 박사과정중이다. 1989년 예장이리노회 목사 안수를 받고 1995-2004년 현재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주하고 있다. 1999.3.15일 gms총회세계선교회 이스라엘선교사파송 현재까지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다.

## ⑰-5 이집트 선교

김신숙/최용근/문병선



**김신숙** 1977년부터 이집트 카이로에 파송되어 지금껏 중동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김신숙 선교사는 총신대기독교교육학과, 미국 칼빈신학대학원 교육학 석사 받았으며 현재 알사피아 선교훈련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다.



**최용근** 1989년 강남교회에서 인도네시아로 파송받았던 최용근 선교사는 1991년부터 이집트로 이동 사역해 오고 있다. 서울신학대학, AGST대학원 졸업, 오엠선교사 훈련과정을 거쳤으며 기독교 대한선교사 훈련을 받았다.

**문병선** 1993년 서울 남노회에서 안수받고 1996년에 OM선교회에 들어가 이집트에서 사역하였고 현재 예장통합 선교부의 이집트 필드 리더로서, 통합 중동선교사연합회 총무로 일하고 있다.



#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참가선교사

## ● 아시아

### 네팔

김연정	김금래	1992/06/28	예장대신
김창석	신연의		
박 00	정 00		
윤하영	GP		
이춘심			
이해덕	조현경	1994/06/30	네팔선교회
허인석		1989/07/30	합동개혁

### 라오스

최종운		1995/09/18	예장개혁
-----	--	------------	------

### 말레이시아

권태복		1994/00/00	GP
이순희			
박종승			GP

### 몽골

강지현		1997/11/26	예장통합
김창식		2000/10/26	기감
임준호			C&MA 한인총회
전국천		1997/03/01	기감
천강민		1991/10/09	
최순기			세선회

### 미얀마

인 00			미주통합
용 망			현지인

### 방글라데시

이석로	김진영	1994/06/05	통합총회
이석봉	신윤정	1993/06/01	호프
이중환		1995/05/28	

장순호	장은주	1984/04/29	기감
장영인			기감
정익모		1989/12/20	예수전도단
함신숙			세계로
류수혜		2002/08/25	UMC

### 베트남

강동욱		2004/05/01	
김명애			HIM 선교회
김영관	김정애	1990/10/21	기감
김인숙		1981/05/31	기감
배경수		1995/02/00	기감
오 덕	송은주	1995/07/26	고신
유태일	서선희		사랑의 교회
장완익			GMS

### 스리랑카

김제용			
최재영	김경희	1991/09/01	GMS

### 싱가폴

김정배	이명국	1990/01/30	GMS
김학수			두루선교회
허석구	박정희	1990/12/19	예장통합

### 인도

김대균		1992/04/01	기감
김세진		1999/12/12	한국오엠
김홍진		1999/07/01	
배정희		1993/12/08	여의도순복음
정윤진	변미화	1979/12/01	GMS
최철만	신영자	1989/04/05	평화감리

### 인도네시아

강신오		1991/01/26	어린이전도
김선지	김진덕	1999/09/05	기감
김종국		1983/10/23	예장
김충환		1992/12/16	예장통합

박명렬	오현주	1995/10/01	
박명우		2004/01/06	여전도전국연합
박보애		1995/05/09	예장총회
배종혜		1998/02/15	예장통합
백운영	백영은	1990/09/16	GP
안성원	조은숙	1984/02/27	GP
어성호		1990/05/01	기감
오상윤	윤영옥	1998/06/30	예장통합
이근식	이영미	1994/03/28	나성영락
이희열	이원선	1995/12	
임병진	박기옥	1996/09/08	GMS

**일본**

강기두			
강영진			예장총회
김동수		1995/00/00	
김성수		1992/06/00	C&MA
김환기		2000/09/28	예장개혁
신복규		1992/02/03	예장
장경태		1991/03/10	예장
장신덕		1992/01/30	기감
정문자		1989/09/04	
조남수	오금환	1990/03/01	일본동맹기독교
이병구		1972/03/07	

**캄보디아**

김병교			예장통합
김정호		2000/10/04	
서병도		1997/12/07	GMS
송진섭	김경숙	1993/06/00	기감
이상철	고유덕	2003/10/1/	기아대책

**태국**

강대홍	강정신	1987/11/25	GMS
김농원		1994/10/10	GMS
김문수			GMS
김봉국		2000/09/22	
김성희	함옥자	1990/05/29	GMS
김장원	안임숙	1999/06/26	예장통합

김정웅	이순교	1976/09/14	GP
노영미		2003/07/28	성결
민윤기		2002/02/03	GP
박상선		2001/09/18	예장개혁
박선진	최정화	1985/07/31	GP
박재천		1996/01/13	
박필순			시흥평안교회
송용자			
신홍식	이순영	1971/06/13	GMS
양덕훈		1997/10/19	
오세관		1990/12/21	기감
오영철			GMS
오필환	조명숙	1992/07/15	기성
위순득			
윤수길	한대희	1980/10/13	GP
윤제연		2000/12/08	GP
이귀란		1998/01/01	GP
이미숙			사랑의 병원 선교회
이선기	김인우	1995/09/15	GMS
이영진	박은진		사랑의 병원 선교회
이용웅		1996/05/29	GP
이종현		1997/09/27	예장개혁
장성천	방정옥	1997/05/04	총회선교회
정원일	고명숙	1995/10/30	예장대신
조준형		1986/09/28	예장통합
최승근	이소민	1999/02/10	예장통합
한준수	이옥희	1995/06/04	GP
홍경환		2002/07/05	예장통합

**파키스탄**

김덕래	초미성	1986/00/00	WEC
필레몬	길		

**필리핀**

강요한			
강중희	고순하	1990/08/14	예장합동
고수영		1999/02/19	예장합동
구자운		1993/01/01	고신
권영한	이영옥	1991/06/21	기성

김경자		
김대만	2000/01/01	기하성
김만조	1996/10/28	기침
김상성		GMS
김석진	1995/11/04	GMS
김선숙	1986/03/04	UMC
김선호	1995/00/00	기하성
김소영 차춘화	2003/01/12	일산광성
김유식	1979/04/19	예장합동
김인자	1996/04/29	빌라델비아
김재민		
김혁 김지수	2002/12/30	마닐라임마누엘교회
김현국 정연옥	1990/03/20	
김활영	1976	GMS
나길석	1999/10/27	기감
남순우 정보애	1991/02/01	기침
남후수	1987/09/04	예장고신
노화진	1990/08/20	한국맹인교회
모정천 박정희	1988/07/21	예성
백영모 배순영	2001/01/18	기성
상영규 조미순	1996/01/09	예장개혁
손인성	1996/01/15	GMS
송용천	1994/07/10	기침
신기대 임은희	1998/10/20	예장개혁
신동식 박정순	1998/07/01	기감
신미라	2003/02/01	국제복음선교
신승철 정숙진	1992/02/15	세계선교공동체
신창규	1994/08/01	기감
안병준	2000/06/10	순복음세계선교
오은주	1994/04/25	
윤상용		
윤순례	1997/01/17	진광감리교회
이설웅	2001/04/12	기성
이용수		시하성
이희영	2004/04/07	한국아카데미
임문희 황선미	1989/05/20	GP
전철영	1997/05/11	GMS
전홍수 김명례	1991/02/10	
정대섭	2001/02/25	기침
정형구	1999/10/08	예장합동
조경옥	1995/05/03	기대하성

조용빈	2002/08/02	밀알교회
채천석	언약교회	
최낙환 김인숙	1994/07/28	기침
한기역	1993/06/29	기감
허지연		나성영락
홍승목 김성미	1991/04/25	코람테오선교회
황태연 이춘선	1983/10/31	예장합동

**전략지역**

김 0식 나 0숙	1997/01/15	총회세계선교
김대영	2001/04/15	예장합동
김다윗	1992/07/00	GP
김 0조 유 0난		
김매희	1995/02/01	중국어문
김성수		
김 0구 엄 0순	1995/11/21	빌리온
김 0식	1995/12/04	
박 0화	1992/02/24	중국어문
박 훈	2004/02/01	
배 0근 전 0선		예장대신
송제임스		
심 0섭 심 0숙		미주예장
안 0수	2002/10/01	
양 0례		세계로
오대선		GP
오 0섭 박 0옥	1988/00/00	
오 0철	1994/01/14	세계로
유 0남	1995/03/01	
유 0일	1993/03/01	
유 0근	1996/04/09	동남아
유 0상	2002/10/01	
유 0철	1993/11/30	
유 0난 김 0조		
윤 0한 최 0자	1992/02/00	미기하성
이 0호	2002/08/01	
이 0인 이 0나	2001/06/00	
이 0남 김 0순	2000/08/25	한센
이에스터	1990	기장
이 0한	1987/08/01	
이 0덕 박 0임	1995/09/00	예장대신

이 0석	2000/01/23	
이 0란	2003/10/01	
이 0숙	2001/00/00	
이 0승 송선양	1993/12/12	한국성서
임 0환	1998/03/04	
장 0민 진 0희	1995/03/30	갈릴리
전 0석 리 0실		
정 0수	1998/04/15	대륙복지회 대륙복지회
정 0동		
조 0한		
채 0라		WEC
최 0혜		오병이어
최 0도	2003/03/00	신우세계
최 0길 정 0영	1992/08/02	예장통합
최 0호	1999/06/20	예장
최 0목 윤 0애	1993/10/17	총회세계선교
한 0훈	1997/03/02	
홍 0목		바울선교회
황 0영 오 0영	1995/08/25	
<b>한국</b>		
강승삼		KWMA
곽낭아	1998/07/15	예장통합
권 철 박혜장	1998/04/24	예장
김남숙	1998/06/08	바울선교회
김승애		
김태연	1995/05/01	전문인선교훈련원
나경수 김춘례	1994/10/11	예장합신
남양규	1992/10/00	제자들
문창선	1997/07/21	위디
박문식		
박수진		
박순환 이갑순	1993/01/01	WBM
박승철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
박준범	1999/08/11	한국인터넷서브
박혜경		
방지일		
신주현 윤영숙	1998/12/27	예장통합
신중수		한국여교역자협의회
안희백		

엄경희		GPTI
유기남	1987/01/19	알타이
유승관 변경희	1987/00/00	
이동현	2001/12/20	기성/국제기아
이봉용		
이승수	1999/02/21	WBM
이재규		세계인터넷선교학회
이형국 추승주	1994/01/01	기성
임인순		GPTI
장경석	2002/06/22	연안선교
전미화		
전선아		
정미옥		
정용갑 신언희	2004/02/01	
정희경	2002/11/15	
조동진		통일환경연구원장
조형중		
최국현	1998/03/02	FIM
한도수 석인숙	1986/09/14	바울선교회
한정국	1985/02/26	한국 OMF

**기타 아시아**

김현식 박복주		
오정호		
Hui Jin		

● 아프리카

**가봉**

최수영 박미애	1998/09/27	예장통합
---------	------------	------

**감비아**

하홍중 이혜정		
홍종란	1992/02/16	예장합동

**남아공**

권기환	2001/12/29	예장
김종석	1995/07/04	외항선교회
박진호	1997/04/27	
이은원	1995/03/15	동양선교
전준수	1991/03/05	예장통합
한광유 권인실	1997/03/27	기감/외항선
허창식 허상분		

**모로코**

허영희	1991/05/02	기감
-----	------------	----

**모리타니아**

권경숙	1994/11	예장통합
김종균	2000/04/15	그루터기
김해영	1990/02/17	그루터기

**세네갈**

잔첸센 유춘안		
---------	--	--

**수단**

김미경	1991/06/00	외항선교회
-----	------------	-------

**시에라레온**

윤장욱	1997/03/31	예장고신
-----	------------	------

**에티오피아**

박차순 이명화	1994/00/00	기감
---------	------------	----

**우간다**

고병덕 고군희		
김순옥	1994/09/11	GMS
김정운	1985/05/00	
박일규 이나현	1995/03/16	
이명식	1992/08/01	

**짐바브웨**

박란순		
-----	--	--

**차드**

김영섭		GMS/AIM
-----	--	---------

**카메룬**

권형준	1997/01/17	기성
윤원로	1987/08/10	기성

**케냐**

김옥실	1989/07/01	예장통합
김찬경 이양자	1996/10/10	기성
박찬섭 이순자	1995/06/23	
안수웅		와이엠
윤기철	2001/09/05	
이상석 김미영	1995/12/03	
이장식 박동근		
조규보	1997/02/02	예장대신
주진국		
최동훈 최순자		SEED
임은미	1994/02/27	여의도 순복음
김동희		
서숙자	1992/11/20	예장통합
탄자니아		
방경순	1994/05/06	제자선교회
송명천 홍승욱	1996/09/25	예장/대안교회
이영권	1993/07/20	GMS
조강식		
차영수	1994/00/00	기감
이미경		
Ezekiel Mbwilo		

**기타 아프리카**

노봉균 노복남		
---------	--	--

● 중동

**이스라엘**

김명성		충현세일
서병길		
양병문 박윤숙	1997/12/14	바울/예장통합
정연호	1991/10/30	예장통합

**이란**

이만석	1986	예장통합
-----	------	------

**이집트**

김신숙	1977/08/30	예장합동
문병선 김인화	1996/02/01	예장통합
이준교 김수련	1979/10/31	예장합동
최용근		기성
탁수연 탁미애	1987/07/00	성서선교회

**전략지역**

공일주 김현숙	1998/01/31	중동선교회
곽동신 윤명희	1998/05/00	예장고신
김영섭	1991/00/00	예장대신
김주찬		
김진영 김은경	1994/05/15	
남진선	1995/04/15	
배혜수		
심양섭 김희숙	1988/12/01	
이교수 최인옥	2002/12/16	
이미숙		기감
이병구 김윤숙	1999/09/22	중동선교회
임방통 김설중		고신개혁
전광혜	1996/06	한국외향
솔레만		
John Park		

● 유럽

**그리스**

손영삼	1987/09/27	
차인수 박영란	1997/09/01	예장개혁

**독일**

김승연		예장합동
나승필	1997/02/11	한국바울선교회
최용준	1999/00/00	유럽고신

**루마니아**

박창수 심은식	1990/10/11	예장합신
정흥기	1992/07/22	AFC

**불가리아**

김호동	1992/07/18	
-----	------------	--

**스페인**

최원규 이금옥	1998/09/01	기하성
---------	------------	-----

**알바니아**

이향모 이경숙	1992/10/05	예장통합
---------	------------	------

**영국**

유해석	1990/04/01	FIM
이용국		와이엠
피기영	2004/04/14	기감

**오스트리아**

장황영	1995/08/06	예장통합
-----	------------	------

**체코공화국**

유정남 1991/09/30 독일OM

**폴란드**

김현중 임진

**프랑스**

이극범 김숙희 1989/04/16 예장통합

**헝가리**

신성학 최성옥 2000/03/00 기감

● **구소련**

**러시아**

강정수 이정희 1993/01/01 예장  
 강태원 1995/06/23 러군복음화  
 권영세 고옥순 1992/11/24 예장합정  
 김도수 김정희  
 김연화  
 김정희 1993/07/01 예장총  
 김홍덕 2002/03/01 뉴라이프교회  
 남일우 장경순 1993/12/07 예장합동  
 류창현 GMS  
 박광배 민승자 1991/09/25 예장합동  
 박형서 박신옥 1992/01/15  
 성락인 1991/11/20 기감  
 송상천 김정운 1991/12/16 예장합정  
 우태복 이경희 1992/09/16 기성  
 유안나 2004/01/14 기감  
 유지열 1992/06/15 월드선교회  
 이상길 박옥자 1992/12/20 필그림국제선교회  
 이홍래 1994/04/07 예장  
 이희재 김성은 1987/10/23 예장통합

장석천 1996/02/25 기성  
 장영호 2000/09/24  
 전재천 안준상 1992/10/30 예장  
 전호중 성애향 2000/02/01 기침  
 전희천 2004/03/02 웨슬리  
 최신출  
 허충강 1991/09/05 예장합신  
 황상호 김분옥

**전략지역**

강성수 중동선교회  
 강승빈 왕승희 평택풍성한교회  
 고광임  
 김경용 권은식  
 김경일 이옥희  
 김동권 1998/09/30 미장로교단  
 김병모 김빅토르 안디옥교회  
 박성용 1996/01/01 오엠  
 박인수 박경숙  
 박창국 최하영  
 박현선 박성실 199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백도현 김매자  
 송기동 1992/09/01  
 신윤섭  
 윤중대 정언희  
 이경옥 정선경  
 이기종 2000/03/26 예장합신  
 이미래 이상표  
 이민교 이미라 1993/05/23  
 이상표  
 장종일 1990/12/01 기감  
 전성옥  
 정정옥 곽현숙  
 한호진 김원심 AFCK 예성

● 북아메리카

미국

강선근	2002/08/01	
김경환	1991/10/00	기장/마을
김경환 박혜경	1997/03/01	오엠
김금찬		
김명숙		외향선교
김명희		
김정은		은혜선교의집
김정한		
김종현		
김철용		
김태현	1991/10/14	마을선교회
노봉린		
박광우		
박기호		
박대균 박승진		
박영자		
손낙준		필라제일장로교회
송태승	1995/02/26	
신영철		
원인규 편미선	1993/06/00	
유선희		
이병범	2001/11/04	
이상웅		
이숙자		은혜선교의집
이정림		은혜선교의집
장규준	2000/02/17	ESF
정광수 정화미		
정남식		
정윤두 정선옥		은혜선교의집
정준모 최재숙		
정태희	2003/03/01	
조대일	2001/12/17	
조용중 조경련		
조종화 조혜선		

최무립		
최봉호	2001/10/15	
최영태		
최찬영 최광명		
하진철 권수영		
한원강		필라델피아장로교회
홍은선	1995/01/00	위클리프
홍현민	2003/10/00	위클리프
Stinson Kay		
Harun Kimani		
Aggrey Juma Keyari		

북미인디언

김동승
이상혁

캐나다

강경신 정인혜	2000/12/30	
김광오	1997/10/09	미한장캐나다
김제화 김동호	1996/06/01	캐나다침례
박영덕	1993/12/00	
최종찬	2001/00/00	하나님나라

● 라틴아메리카

과테말라

변홍근	1992/03/24	예장대신
장홍호 장미혜	2002/10/20	
박은철	1996/06/00	예장개혁

도미니카공화국

김성욱	1998/03/10	예장합동
김성자	1998/05/30	기감
김종성	1995/11/19	예장통합
전재덕 이재순	1993/06/26	기감

**멕시코**

김건용 조은영	1996/05/09	
김선광 구자현		예장통합
박성근 김인옥	1998/12/13	온누리교회
서진원 서정순		
이사라		
이성균	1984/08/00	예장통합
이정권		
정득수 이세련	1991/05/05	예장통합
조성출	1997/09/07	기성
최일영 백선영		

**볼리비아**

박영완 정기영	1993/00/00	
이건화 김성제	2000/03/19	
김중규 김양자	2003/10/10	미주한장

**브라질**

안승렬	1999/08/30	예장합동
유정은	2003/04/21	기성
이원길 이춘희	1994/05/18	예장합동
최양숙	1991/07/16	고신

**수리남**

권순성	2003/01/17	예장통합
-----	------------	------

**아르헨티나**

정현식	1987/05/20	GMS
-----	------------	-----

**에콰도르**

김경택	2002/02/08	
최상호	1993/11/15	

**온두라스**

박명하	1992/01/10	예장통합
-----	------------	------

**코스타리카**

권재운 이정은	2002/04/00	만나선교회
임낙길 정봉금	1995/12/08	바울선교회

**콜롬비아**

이영하	1992/12/06	예장통합
-----	------------	------

**쿠바**

김재록	2000/01/01	동양선교교회
-----	------------	--------

**파라과이**

강두호	1995/06/05	동양선교교회
곽성건	2001/11/05	예장대신
김역석		기침
김정훈	1994/01/12	기하성/바울선교회
양창근 박경주	1991/01/20	
이은숙	1984/10/01	예장통합
이인태		
임성익	1988/03/01	예장통합
임한근	1989/08/19	예장합동/SIM
최도진		파라과이한인교회
최한오	1991/05/01	예성
홍시순	1991/05/20	예장대신
황인석 황봉희	1989/10/30	

**페루**

김명수 오주엽	1990/06/10	예장
박윤수 박병순	1993/06/24	
양주립	1994/12/18	예장합동
황윤일	1985/03/31	예장통합

● 오세아니아

**괌**

조 환            1971/04/10      예장총회

**뉴질랜드**

고명근  
신종혁 조삼은

**사이판**

김정남 서정남    1993/06/13      GMS

**파푸아뉴기니**

김정문            1995/02/20

**피지**

김종호 이정희    2000/04/01      기감

**호주**

하태식                              예수전도단

